

국립국어원 2014-01-2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30-01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 가정 내 대화법 -

연구 책임자

구 현 정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가정 내 대화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4년 4월 ~ 2014년 12월

2014년 12월 15일

연구책임자: 구현정(상명대학교)

연구 기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구현정

공동연구원: 최연실, 전정미

연구보조원: 이재학, 김형주

[국문 초록]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가정 대 대화법-

이 연구는 현대 한국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법의 양상을 살펴 가정 내 대화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 간 올바른 대화 전략과 가정 내 대화법 개선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대화 가운데 부모-자녀 대화와 부부 대화를 연구하였으며,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와 신혼부터 노년까지의 부부의 대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선행 연구 분석 및 가족 대화 프로그램과 가족 상담 사례 분석

가족 대화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개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족 대화와 대화 설문 문항에 관해 수행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부모-자녀 대화와 부부 대화에 관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가족 상담 사례를 분석하였다.

(2) 설문 문항 개발

화법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부모용, 자녀용, 부부용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고, 문항은 대화 시간이나 장면 등과 같은 대화 일반에 관한 내용과 말하기 영역, 듣기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으며, 5점의 리커트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항목에 따라 선택형이나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설문조사와 실태 분석

실태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구글 닥스(Google Docs)를 활용하여 예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설문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설문을 전문가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부모,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신혼부부, 중년 부부, 노년부부 각 100개씩 600개의 표본을 수집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4)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하여 부모-자녀 대화와 부부 대화 각각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은 부모 전체, 아버지, 어머니, 자녀 전체,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부부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5) 가족 대화 지침

통계 분석을 통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가족 대화를 위한 지침을 자녀용, 부모용, 부부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이것을 유형별 20계명으로 정리하였다.

(6) 가족 대화 수행 능력 평가 서식 개발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가족 대화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서식을 개발하였다. 평가는 5점 척도로 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5점씩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7) 연구의 의의 및 활용 방안

이 연구는 가족 화법의 실태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익힘으로써 가족 화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말 문화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또한 가족학과의 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화법에서나 가족학, 상담학 등의 분야에서 가족 대화에 관한 연구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에 제시된 가족별 대화 지침을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하고, 가족 수행 능력 평가 문항을 누리집을 통해 보급하며, 가족 화법에 관한 교재 개발이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어: 가족 대화, 부모-자녀 대화, 부부 대화, 대화만족도, 가족 행복도, 가족 대화 지침, 가족 대화 수행 평가.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선행 연구	15
1. 가족 대화 일반에 관한 연구	15
2. 가족 대화 설문 문항 개발에 관한 연구	17
3. 부모-자녀 간 대화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21
4. 부부 간 대화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34
5. 가족 상담 사례 분석	42
III. 가족 유형별 대화 실태 분석	51
1. 부모 유형	51
2. 자녀 유형	106
3. 부부 유형	160
IV.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235
1. 부모의 대화	235
2. 자녀의 대화	246
3. 부부의 대화	266
V. 가족 화법 개선 방안	292
1. 부모-자녀 대화	292
1.1. 자녀를 위한 지침	292
1.2. 부모를 위한 지침	309
2. 부부 대화	331
2.1. 대화만족도를 통한 대화 지침	331
2.2. 행복도를 통한 대화 지침	340
2.3. 배우자와의 대화 지침	348

VI. 요약 및 결론	366
1. 가족 대화의 실태	368
2. 바람직한 가족 대화를 위한 지침	375
3. 기대 효과 및 결과 활용 방안	381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384
 참고문헌	 386
 <첨부>	
1. 외부 자문 내역	393
 <부록>	
1. 부모 유형 설문지	394
2. 자녀 유형 설문지	399
3. 부부 유형 설문지	403

<표 목차>

<표 1-1> 표본의 성별 및 연령대,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11
<표 1-2> 표본의 직업 및 자녀수	11
<표 1-3> 표본의 성별 및 학력, 성적등급	12
<표 1-4> 표본의 부모 학력 및 형제·자매수	12
<표 1-5> 표본의 성별 및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13
<표 1-6> 표본의 직업 및 부부 세부 유형	13
<표 1-7> 표본의 가족유형별 행복도	14
<표 2-1> 초등학생 대상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23
<표 2-2> 프로그램 목표와 회기별 목표	25
<표 2-3>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	26
<표 2-4>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내용	27
<표 2-5>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표와 세부정적인 목표	29
<표 2-6>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단기 의사소통 프로그램	30
<표 2-7> 가족성장아카데미 프로그램	33
<표 4-1>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과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235
<표 4-2> 대화 시간과 부모의 직업 간의 교차분석 결과	236
<표 4-3> 대화 시간과 부모의 성별 간의 교차분석 결과	236
<표 4-4> 부모의 학력과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237
<표 4-5> 부모의 연령과 대화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237
<표 4-6> 부모의 연령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38
<표 4-7> 대화 주제와 부모의 대화만족도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238
<표 4-8>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239
<표 4-9> 가족 간의 인사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240
<표 4-10> 자녀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240
<표 4-11> 부모와 자녀의 칭찬이나 감사하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41
<표 4-12> 부모와 자녀의 비교하는 말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242
<표 4-13> 부모와 자녀의 유머 사용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242
<표 4-14> 부모와 자녀의 거짓말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243
<표 4-15> 부모와 자녀의 갈등 회피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244
<표 4-16>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244
<표 4-17> 부모와 자녀의 끝까지 듣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45
<표 4-18> 부모와 자녀 간 반응 보이며 듣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246
<표 4-19> 자녀와 부모 간 대화 시간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46
<표 4-20> 자녀와 부모 간 이상적 대화 시간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47

<표 4-21> 대화 시간과 자녀의 성별 간의 교차분석 결과	248
<표 4-22> 이상적 대화 시간과 자녀의 성별 간의 교차분석 결과	248
<표 4-23> 대화 시간과 자녀의 연령대 간의 교차분석 결과	249
<표 4-24> 대화 시간과 자녀 아버지의 최종학력 간의 교차분석 결과	249
<표 4-25> 자녀와 부모의 대화 시간 부족 이유와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250
<표 4-26> 자녀의 대화만족도와 성적, 경제수준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251
<표 4-27> 자녀의 성적과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252
<표 4-28> 가정의 경제수준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52
<표 4-29> 자녀와 부모의 대화 수단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53
<표 4-30> 자녀가 편안한 대화 방법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53
<표 4-31> 자녀와 부모의 대화 주제와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54
<표 4-32> 자녀가 대화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55
<표 4-33>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불편한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55
<표 4-34> 자녀와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하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56
<표 4-35> 가족끼리 인사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57
<표 4-36> 부모님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와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57
<표 4-37> 자녀와 부모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58
<표 4-38> 자녀와 부모의 비교하는 말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59
<표 4-39> 자녀와 부모의 유머 사용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60
<표 4-40> 자녀와 부모의 의견 수렴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60
<표 4-41> 자녀와 부모의 거짓말을 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61
<표 4-42>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62
<표 4-43> 자녀와 부모의 쌓인 감정 표출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62
<표 4-44> 우리 가족에게 가족회의가 필요한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63
<표 4-45>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64
<표 4-46> 끝까지 듣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64
<표 4-47> 자녀와 부모의 반응 보이며 듣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65
<표 4-48> 자녀가 듣고 싶은 말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66
<표 4-49> 부부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67
<표 4-50> 부부의 대화 시간과 연령대 간의 교차분석 결과	267
<표 4-51> 부부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과 연령대 간의 교차분석 결과	268
<표 4-52> 부부의 대화 시간과 혼인 기간 간의 교차분석 결과	269
<표 4-53> 부부의 대화 시간과 부부 유형 간의 교차분석 결과	269
<표 4-54> 부부의 대화 시간과 자녀수 간의 교차분석 결과	270
<표 4-55> 부부의 대화 시간과 소득원 유형 간의 교차분석 결과	270
<표 4-56> 부부의 대화 시간과 직업 유형 간의 교차분석 결과	271
<표 4-57> 부부의 대화 시간 부족 이유와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1

<표 4-58> 부부의 성별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2
<표 4-59> 부부의 학력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3
<표 4-60> 부부의 월 평균 가구소득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3
<표 4-61> 부부의 나이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74
<표 4-62> 부부 유형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4
<표 4-63> 혼인 기간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5
<표 4-64> 자녀수와 부부의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6
<표 4-65> 부부의 주된 대화 수단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6
<표 4-66> 속마음 털어놓기 편한 대화 수단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7
<표 4-67> 부부의 대화 장면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8
<표 4-68> 부부의 대화 불만족 요인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78
<표 4-69> 신체 접촉과 부부의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79
<표 4-70> 대화의 주도권과 부부의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0
<표 4-71> 부부 간의 비평이나 지적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0
<표 4-72> 부부 간의 인사하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1
<표 4-73> 부부 간의 호칭이 마음에 드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2
<표 4-74> 배우자가 나를 부르는 호칭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82
<표 4-75> 나를 부르는 호칭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83
<표 4-76> 부부 간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4
<표 4-77> 부부 간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5
<표 4-78> 부부 간의 비교하는 말을 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5
<표 4-79> 배우자에게 자신의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6
<표 4-80> 부부 간의 유머 사용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6
<표 4-81> 부부 간의 거짓말하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7
<표 4-82> 가족회의가 필요한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8
<표 4-83>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8
<표 4-84> 부부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89
<표 4-85> 부부 간의 끝까지 듣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90
<표 4-86> 부부 간의 반응 보이며 듣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290
<표 4-87> 부부 간의 듣기 싫은 말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291
<표 5-1> 부모 유형과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292
<표 5-2> 아버지와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294
<표 5-3> 어머니와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295
<표 5-4> 부모 유형과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297
<표 5-5> 아버지와 가족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299
<표 5-6> 어머니와 가족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300
<표 5-7> 자녀 유형 상관요소 순위	309

<표 5-8> 초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311
<표 5-9> 중고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313
<표 5-10> 전체 자녀 집단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315
<표 5-11> 초등학생 자녀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317
<표 5-12> 중고등학생 자녀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319
<표 5-13> 전체 부부 집단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332
<표 5-14> 신혼부부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334
<표 5-15> 중년부부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336
<표 5-16> 노년부부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338
<표 5-17> 부부 전체 집단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340
<표 5-18> 신혼부부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342
<표 5-19> 중년부부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344
<표 5-20> 노년부부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346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그림 2> 부모 유형 문항 3번	5
<그림 3> 부모 유형 문항 4번	5
<그림 4> 설문 문항 구성 절차	6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현대 한국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법의 양상을 살펴 가정 내 화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 간 올바른 대화 전략과 가정 내 화법 개선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며, 가족은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가정 내 대화법은 사회의 직무 관련 화법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근간이 된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로 인한 가정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가족 상호 간의 이해와 바람직한 소통 방식의 부재는 가족 간의 문제와 갈등을 양산하게 되었다.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부모님과 자신의 고민에 대하여 매일 대화하는 청소년은 8.0%에 불과하며, 특히 아버지와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는 청소년도 6.8%나 되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구조를 제시하는 일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 내 대화법에 관한 연구는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의 안정과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말 문화 개선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 내 화법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가족 간 올바른 대화 전략과 가정 내 화법의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가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성된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예비 조사(Pilot Test)를 우선 진행하였고, 가족 상담 사례 및 선행 연구, 예비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본 조사용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개발된 본 조사용 설문 문항은 대화 일반에 관한 내용과 말하기 영역, 듣기 영역에 대한 사항, 인구통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가족 유형별 특징을 살피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와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유형은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집단과 중고등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또한 부부의 유형은 결혼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리서치 전문기업을 통해 진

행하였고 무작위 표본표집방법(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시 문항 간 교차비교분석, 집단별 차이 검증을 통해 대화만족도를 기준으로 한 유의한 통계지표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가족 유형별 대화 지침을 수립하여 가정 내 화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화법 수행에서는 문법적 정확성보다는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며, 맥락에 따라 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 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정 내 화법 수행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곧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정 내 화법 수행을 위한 대화 전략을 수립하고 화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말 문화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전통 사회의 유교적 가치와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 남녀 간, 계층 간의 차이와 갈등은 심화되고 가족 응집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가족 갈등을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정착되지 못하여 가족 내의 문제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 내 바람직한 화법의 부재는 구성원들의 유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며 불행한 사회 문제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화법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화법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삶을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가족 대화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 문항을 토대로 가정 내 대화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가정 내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갈등이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 간의 화법을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가족 간의 일체감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며,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로서 가정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가정 내 화법은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가족 대화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며 성취감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래 집단,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집단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화법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

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집단이 가정이다. 곧 가족 간의 신뢰와 이해 및 협조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곧 사회적 인간관계를 위한 화법 능력의 학습이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족 대화법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방식을 기르기 위한 방법도 제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각 가족 유형에 알맞은 전략적인 대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시로 가치 갈등이 나타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화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13년 그 첫 번째 분야로 국회 담화 중심의 화법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공적인 담화 분석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사적인 담화 분석에 관한 체계를 확보하여 우리 사회의 말 문화 개선 사업의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성공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우리 사회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가정 내 화법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제안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화법의 관점에서 가정 내 대화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새로운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가족 대화에 관한 설문은 Barnes & Olson(1982)의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의 부모용 문항과 자녀용 문항을 활용하여 조사되었다. 이 설문은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에 활용되면

서 수정 보완되어 2011년 Olsen에 의해 개발된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V가 현재 통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적응도와 결속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쪽과 소통이 잘 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관여하는 엄격함의 정도와 가족의 결속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가족학의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설문이지만, 이 연구와 같이 화법의 차원에서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정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화법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통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는 개발된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고 구글 닥스(Google Doc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에 관한 기능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수정하고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 결과는 사회조사 통계프로그램인 SPSS 19.0을 이용해 표본의 기초통계,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가족 화법에 대한 실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상관요소를 추출하고 화법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할 중요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족 간 올바른 대화 전략과 가정 내 대화법 개선 방안 수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가족 상담 및 가정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유형별 화법 양상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2.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진행 과정

예비 조사는 주부 커뮤니티 및 카페,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이용자 참여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예비 조사는 구글 닥스(Google Doc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에 관한 기능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2014년 5월 13일~20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각 부모 유형 37개, 자녀 유형 41개, 부부 유형 34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부모-자녀, 자녀-부모 유형은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부부 유형은 결혼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신혼-중년-노년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로 문제가 되는 설문 문항을 수정하고 내용을 보강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였고, 기관에서는 패널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표집방법(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2014년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문항(그림 2)에 답하면 다음 문항(그림 3)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가정 내 대화법에 대한 설문조사 (1)

Now & Future
The Specialists in Research & Consulting

31%

Q3. 나는 ()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다.

내 성격 자녀의 성격 내 직장업무
 자녀의 학업 자녀와의 갈등 기타 ()

<그림 2> 부모 유형 문항 3번

가정 내 대화법에 대한 설문조사 (1)

Now & Future
The Specialists in Research & Consulting

34%

Q4. 나는 자녀들과 주로 () 대화한다.

말로
 전화로
 문자, 카톡, 이메일로
 쪽지, 편지로
 다른 사람을 통해

<그림 3> 부모 유형 문항 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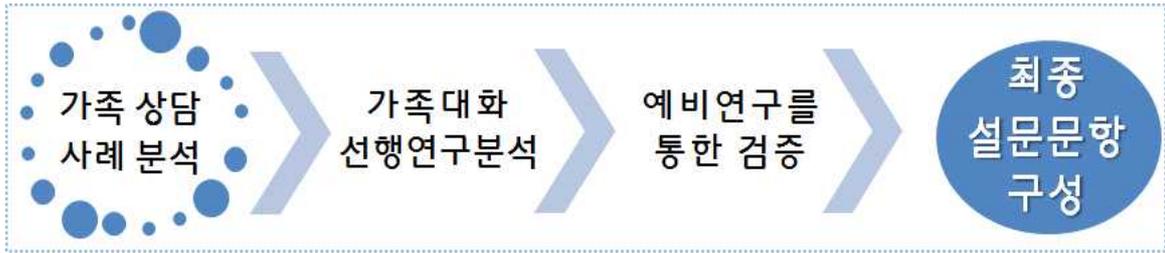
이와 같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부모-자녀 유형 100개, 자녀-부모유형 200개, 부부 유형 300개 등 총 600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보된 총 600개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3. 설문 문항 구성

2.3.1. 설문 문항 구성 절차

설문 문항 구성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 상담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가정 내 갈등의 원인과 가족 프로그램에서 가족 치유를 위해 활용하는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가족 대화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와 듣기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성한 1차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온라인 예비 조사에서 얻은 검증 결과와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의 <그림 4>는 설문 문항 구성의 절차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설문 문항 구성 절차

1) 가족 상담 사례 분석

- ① 가족 상담 사례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폭력 등 전반적인 가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대화의 차원만으로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나 동거 여부, 행복도 등을 측정하는 일반적 문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② 내담자들의 언어가 자기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관점과 상대의 관점으로 나누어 질문하는 것을 통해 누구의 문제로 인식하는지를 구별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관점을 바꾸어 질문하는 방식의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 ③ 내담자들이 주장하는 거짓말, 비난, 잔소리, 회피 등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지적된 것들이 실제로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 ④ 가족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요소로서 가족 프로그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정하는 말, 감사의 말, 칭찬하는 말과 공감적 경청과 같은 요소들이 실제 가족 관계의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 ⑤ 갈등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설문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2) 가족 대화 선행 연구 분석

- 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이론에 따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 ② 대화 시간, 대화 장소, 대화 매체 등 전반적인 요소들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 ③ 순서교대, 중복, 대응쌍과 같은 대화 구조에 따른 요소들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 ④ 맥락(context)에 대한 이해나 그라이스(Grice, 1975)에서 제시한 대화의 원리들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 ⑤ 호칭, 높임법, 정중어법과 같은 대화 예절을 지키는 것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 ⑥ 말하기보다 듣기가 의사소통에서 더 중요하다는 이론에 따라 듣기의 정도, 태도, 내용과 관련된 설문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3) 예비 조사를 통한 검증

- ① 가족 상담 사례 분석과 가족 대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화 일반, 말하기, 듣기로 구성된 가족 대화 설문 50문항을 개발하였다.
- ② 대화 일반은 대화 시간, 대화 매체, 대화 장면, 대화 주제, 대화만족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③ 말하기는 대화와 신체 접촉, 대화와 거리, 대화 유형, 대응쌍, 대화 예절, 대화 내용, 대화의 구도, 갈등의 처리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④ 듣기는 듣기의 정도, 반응 보이며 듣기, 가려듣기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⑤ 구글 닥스(Google Doc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다.
- ⑥ 결과와 반응을 분석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 ㄱ. 전반적으로 문항수가 너무 많아 성실한 답변이 어려웠다는 반응에 따라 문항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였다.
 - ㄴ.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문항들은 제외하였다.

(예 1) 대화 유형: 적극관여형과 심사숙고형

9) 나는 (아버지/어머니/남편/아내)와 대화할 때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을 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5	4	3	2	1

10) (아버지/어머니/남편/아내)는 나와 대화할 때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을 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5	4	3	2	1

ㄷ.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대화와 신체 접촉이나 대화와 거리에 관한 문항들은 같은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다는 견해도 있고, 한 문항의 값과 다른 문항의 값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 대표 문항만 두고 다른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예 2)

6. 대화와 신체 접촉

1) 나는 (아버지/어머니/남편/아내)와 눈길을 마주치거나 접촉을 하면서 이야기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5	4	3	2	1

2) (아버지/어머니/남편/아내)는 나와 눈길을 마주치거나 접촉을 하면서 이야기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5	4	3	2	1

7. 대화와 거리

3) 나는 (아버지/어머니/남편/아내)와 가까이에서 (약 30cm) 이야기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5	4	3	2	1

4) (아버지/어머니/남편/아내)는 나와 가까이에서 (약 30cm) 이야기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5	4	3	2	1

5) 나는 (아버지/어머니/남편/아내)와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5	4	3	2	1

6) (아버지/어머니/남편/아내)는 나와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편안해 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5	4	3	2	1



나는 (아버지/어머니/남편/아내)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다.

르. 듣기의 내용이 설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를 수용하여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라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예 3) 내가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다.

- | | |
|-------------|-------------|
| ① 외모에 대한 칭찬 | ② 성적에 대한 칭찬 |
| ③ 노력에 대한 칭찬 | ④ 성격에 대한 칭찬 |
| ⑤ 행동에 대한 칭찬 | ⑥ 기타() |

- . 행복도의 정도가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족 상담 결과를 수용하여 행복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예 4) 우리 가족은 ()고 생각한다.

매우 불행하다	조금 불행하다	보통이다	조금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1	2	3	4	5

2.3.2. 최종 설문 문항의 구성

2.3.1.의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 내 대화 실태 점검의 내용을 크게 대화 일반에 관한 내용과 말하기 영역, 듣기 영역으로 나누고 항목에 따라 주관식, 또는 5점 척도 중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 2) 대화 일반에서는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 시간에 관한 것, 대화 매체(대면대화, 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에 관한 것, 대화 장면(주로 대화하는 장소나 시간대)에 관한 것, 대화 주제에 관한 것, 대화만족도에 관한 것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 3) 말하기 영역에서는 대화와 시선에 관한 것, 대화 유형에 관한 것, 대화 예절(욕설 또는 비속어 사용, 호칭, 인사하기, 존댓말 사용 등)에 관한 것, 대화 내용에 관한 것, 갈등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 4) 듣기 영역에서는 듣기의 수준에 관한 것, 듣기 태도에 관한 것, 공감적 경청 사용에 관한 것, 듣기와 비언어적 요소의 활용,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등에 관한 것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 5) 응답자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행복도 정도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행복도와 대화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각 유형별 설문 내용 구분 및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모 유형(45문항)

1. 대화 일반(10)	: 대화 시간(3), 대화 매체(2), 대화 장면(1), 대화 주제(2), 대화만족도(2)
2. 말하기(28)	: 대화 예절(10), 대화 내용(12), 갈등 처리 방식(6)
3. 듣기(6)	
4. 가족행복도(1)	

② 자녀 유형(44문항)

1. 대화 일반(9)
: 대화 시간(3), 대화 매체(2), 대화 장면(1), 대화 주제(1), 대화만족도(2)
2. 말하기(28)
: 대화와 신체 접촉(1), 대화 예절(9), 대화 내용(12), 갈등 처리 방식(6)
3. 듣기(6)
4. 가족행복도(1)

③ 부부 유형(51문항)

1. 대화 일반(10)
: 대화 시간(3), 대화 매체(2), 대화 장면(1), 대화 주제(2), 대화만족도(2)
2. 말하기(34)
: 대화와 신체 접촉(1), 대화 예절(17), 대화 내용(8), 갈등 처리 방식(8)
3. 듣기(6)
4. 가족행복도(1)

2.4. 표본 특성

표본은 각 유형별로 측정 항목을 세분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모 유형은 성별, 연령,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등 다섯 가지 측정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자녀 유형은 성별, 학력, 성적등급, 형제·자매수 등을 고려하였다. 부부 유형의 경우 부부 유형, 성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등을 측정 항목으로 삼았으며, 이와 더불어 행복도를 묻는 질문을 측정 항목으로 삼았다.

2.4.1. 부모 유형

부모 유형에 해당하는 총 100명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은 58%(n=58), 여성은 42%(n=42)였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26%, 40대가 60%, 50대 이상이 14%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소득원은 외벌이가 46%, 맞벌이가 54%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7%, 대졸 73%, 대학원 이상 10%였다. 가구소득은 400만 원 미만이 33%, 400~600만 원 미만이 39%, 600만 원 이상이 28%로 나타났다. <표 1-1>은 표본의 성별, 연령대,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표 1-1> 표본의 성별 및 연령대,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측정항목	세부항목	표본수(명)	구성비(%)
성별	남성	(58)	58.0
	여성	(42)	42.0
연령	30대 이하	(26)	26.0
	40대	(60)	60.0
	50대 이상	(14)	14.0
소득원	외벌이	(46)	46.0
	맞벌이	(54)	54.0
학력	고졸 이하	(17)	17.0
	대졸	(73)	73.0
	대학원 이상	(10)	1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33)	33.0
	400~600만 원 미만	(39)	39.0
	600만 원 이상	(28)	28.0
계		(100)	100

부모 유형 응답자의 직업은 회사원 52%(n=52), 교육자 3%(n=3), 공무원 2%(n=2), 전문직 9%(n=9), 가정주부 24%(n=24), 자영업 8%(n=8), 생산직 2%(n=2)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자녀수는 1명이 21%, 2명이 68%, 3명이 10%, 4명 이상이 1%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2>는 표본의 직업 및 자녀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2> 표본의 직업 및 자녀수

측정항목	세부항목	표본수(명)	구성비(%)
직업	회사원	(52)	52.0
	교육자	(3)	3.0
	공무원	(2)	2.0
	전문직	(9)	9.0
	가정주부	(24)	24.0
	자영업	(8)	8.0
	생산직	(2)	2.0
자녀수	1명	(21)	21.0
	2명	(68)	68.0
	3명	(10)	10.0
	4명 이상	(1)	1.0
계		(100)	100

2.4.2. 자녀 유형

자녀 유형은 총 200명의 응답자가 대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남성은 38.5%(n=77), 여성은 61.5%(n=123)였다. 학령별 분포는 초등학교가 50%(n=100), 중학교가 12%(n=24), 고등학교가 38%(n=76)로 나타났다. 응답자 본인의 성적은 낮다가 15%(n=30), 보통이 43.5%(n=87), 높다가 41.5%(n=83)로 나타났다.

<표 1-3> 표본의 성별 및 학령, 성적등급

측정항목	세부항목	표본수(명)	구성비(%)
성별	남성	(77)	38.5
	여성	(123)	61.5
학령	초등학교	(100)	50.0
	중학교	(24)	12.0
	고등학교	(76)	38.0
성적등급	낮다	(30)	15.0
	보통	(87)	43.5
	높다	(83)	41.5
계		(200)	100

응답자의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 40%, 대재 및 대졸이 51.5%, 대학원 졸이 8.5%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48%, 대재 및 대졸이 46.5%, 대학원 졸이 5.5%였다. 형제·자매는 없다가 9.5%, 1명이 55.5%, 2명이 18.5%, 3명 이상이 16.5%로 나타났다.

<표 1-4> 표본의 부모 학력 및 형제·자매수

측정항목	세부항목	표본수(명)	구성비(%)
아버지 학력	고졸	(80)	40
	대재 및 대졸	(103)	51.5
	대학원 졸	(17)	8.5
어머니 학력	고졸	(96)	48
	대재 및 대졸	(93)	46.5
	대학원 졸	(11)	5.5
형제·자매	0명	(19)	9.5
	1명	(111)	55.5
	2명	(37)	18.5
	3명 이상	(33)	16.5
계		(200)	100

2.4.3. 부부 유형

부부 유형은 총 300명의 응답자가 대상이었고, 남성은 53.7%(n=161), 여성은 46.3%(n=139)였다. 응답자의 소득원은 외벌이가 47.7%, 맞벌이가 50.7%, 정년/은퇴가 1.7%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26%, 대졸은 63.3%, 대학원 이상이 10.7%였다. 가구소득은 400만 원 미만이 38.7%, 400~600만 원 미만이 38.3%, 600만 원 이상이 23%로 나타났다.

<표 1-5> 표본의 성별 및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측정항목	세부항목	표본수(명)	구성비(%)
성별	남성	(161)	53.7
	여성	(139)	46.3
소득원	외벌이	(143)	47.7
	맞벌이	(152)	50.7
	정년/은퇴	(5)	1.7
학력	고졸 이하	(78)	26.0
	대졸	(190)	63.3
	대학원 이상	(32)	10.7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116)	38.7
	400~600만 원 미만	(115)	38.3
	600만 원 이상	(69)	23.0
계		(300)	100

직업은 회사원 42.3%(n=127), 교육자 3.3%(n=10), 공무원 2%(n=6), 전문직 10%(n=30), 가정주부 16.7%(n=50), 자영업 15.3%(n=46), 생산직 3%(n=9), 정년/은퇴 2.7%(n=8), 학생 0.3%(n=1), 무직 1%(n=3), 서비스직 1.3%(n=4), 기타 6%(n=6)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세부 유형으로는 신혼부부가 33.3%, 중년부부가 33.3%, 노년부부가 33.3%로 나타났다.

<표 1-6> 표본의 직업 및 부부 세부 유형

측정항목	세부항목	표본수(명)	구성비(%)
직업	회사원	(127)	42.3
	교육자	(10)	3.3
	공무원	(6)	2.0
	전문직	(30)	10.0
	가정주부	(50)	16.7
	자영업	(46)	15.3
	생산직	(9)	3.0
	정년/은퇴	(8)	2.7
	학생	(1)	0.3
	무직	(3)	1.0

	서비스직	(4)	1.3
	기타	(6)	2.0
부부 유형	신혼부부	(100)	33.3
	중년부부	(100)	33.3
	노년부부	(100)	33.3
계		(300)	100

2.4.4. 가족 유형별 행복도

조사 대상 총 600명의 응답자 중에서 부모 유형(n=100)의 가족 행복도는 불행함이 5%(n=5), 보통이 31%(n=31), 행복함이 64%(n=64)였으며, 자녀 유형(n=200)의 가족 행복도는 불행함이 14%(n=28), 보통이 30%(n=60), 행복함이 56%(n=112)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유형(n=300)의 가족 행복도는 불행함이 12%(n=36), 보통이 33.7%(n=101), 행복함이 54.3%(n=163)로 나타났다.

<표 1-7> 표본의 가족유형별 행복도

측정항목	세부항목	표본수(명)	구성비(%)
가족 행복도 (부모유형)	불행함	(5)	5.0
	보통	(31)	31.0
	행복함	(64)	64.0
소계		(100)	100
가족 행복도 (자녀유형)	불행함	(28)	14.0
	보통	(60)	30.0
	행복함	(112)	56.0
소계		(200)	100
가족 행복도 (부부 유형)	불행함	(36)	12.0
	보통	(101)	33.7
	행복함	(163)	54.3
소계		(300)	100
총계		(600)	100

II. 선행 연구

1. 가족 대화 일반에 관한 연구

현재 가정 내 화법은 가족학이나 가족복지학, 가족상담학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국어학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논의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가족 의사소통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 Gordon(1970)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자신의 입장이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 메시지(I-Position)와 너 메시지(You-message)로 구분하였으며, Beaubien(1970)에서는 자녀의 대화행동과 어머니의 반응을 관련지어, 쌍방 개방형, 자녀 개방-어머니 차단형, 자녀 차단-어머니 개방형, 쌍방 차단형의 4가지로 구분한 것이 기초 연구로 활용되어 왔다.

이와 함께 Satir(1972)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일치형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일치형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요소인 부모, 자녀, 상황을 모두 존중한 형태로 행동과 말이 부모 자신의 내적인 경험과 부합하고, 자녀의 감정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상황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이 상황에서 자녀는 높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지만,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방관형이 된다고 하였다.

Barnes & Olson(1985)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복합원모형(Circumf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그것을 방해하는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이지만,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을 수용하여 국내에서 가족 체계와 가족 의사소통에 관한 방문희(1991), 이숙현·민혜영(1992), 박은주(1994), 김미애·오선주(1997), 박수원(2003)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박은주(1994)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양식과 가족 체계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양방개방형으로 이루어질 때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음을 주장하였고, 박수원(2003)에서는 응집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족 의사소통이 가장 대화지향적이고, 적응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순응지향적이라고 하였다. 한주리·허경호(2005)에서는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의 성격 및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가족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성격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의사소통 패턴(Family Communication Pattern: FCP)을 사용하여 대화지향과 일치지향 차원으로 나눈 후 이 같은 각각의 패턴이 자녀의 성격 및 의사소통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화지향성이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지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의사소통의 언어적 특성에 관해 연구한 것은 주로 화법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구현정(1997)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 남성과 여성의 대화를 다루면서 가족 대화에 대해 접근하였고, 조재윤(2003)은 McLeod & Chaffee(1971)을 인용하여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자유방임형, 보호형, 다원형, 합의형 가족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부모-자녀의 효과적인 대화 방법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친밀한 거리 유지’, ‘공감적 경청’, ‘나-전달법 사용’, ‘무패의 방법’, ‘내부정적 책임과 일관성 원리 적용’, ‘정보화 기기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가족 의사소통 유형에 관해 박해용(2004)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 가족의 대화만족도와 의사소통 구조를 분석하여 만족 가족과 불만족 가족으로 나누고 가치관, 경제, 문화, 교육, 성, 갈등, 권력이라는 7가지 요소가 대화 유형을 결정한다고 보고, 혈연적 동질성과 개체로서의 차이 인정, 개방적 권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질서 관계, 자유롭고 배려 있는 자기주장 등을 바람직한 가족 소통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이창덕(2006)에서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의사소통의 특성과 유형을 사슬형, Y형, 바퀴형, 완전통로형으로 분류 설명하고, 가족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사회 차원의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정숙·김국태·박창균(2010)에서는 한국적 부모-자녀 대화의 소통 유형을 ‘엄격한 책임형’, ‘헌신적 근심형’, ‘자애로운 인정형’, ‘친밀한 공감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네 가지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엄격, 헌신, 자애’ 등과 같은 한국적 정서를 부모-자녀 대화 양상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였다. 김현주(2010)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의 성격여부에 따라 긍정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의사소통으로 나누고, 긍정적 의사소통에는 공감, 존중, 친밀, 격려, 신뢰, 무언의 지지의 6개의 하위요소를, 부정적 의사소통에는 일방적 판단, 위협·협박, 훈계적 설교, 부정적 피드백, 명령적 지지, 비교의 6개 하위요소를 설정하였다.

호칭어와 인사 등 언어 예절과 관련해서 구현정(2009), 전은주(2009), 서현석(2009), 김지연(2010) 등에서는 국어 표준 화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 내 화법을 분석하면서 경어법의 차원, 호칭어 지칭어의 차원, 인사말 사용의 관점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서현석(2013)에서는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화법 교육의 방향으로 ‘가족 문식성(family literacy)’ 개념의 도입, 대인 관계적 의사소통의 강조, 가정-학교-지역 사회의 화법 교육 협력 등을 주장하였다. 구현정(2013)에서는 대화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순서 교대 위반, 대응쌍 무시 등 대화 구조 파괴에 따른 갈등, 대화의 원리와 격률 위반에 따른 갈등, 부정적절한 호칭 사용 및 높임법 위반, 비속어 사용에 따른 갈등, 체면 손상행위에 따른 갈등으로 갈등 표현 양상을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박재현(2013)에서는 전국의 중고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규모로 표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중고생 자녀의 부모-자녀 대화 양상을 다양하게 설정한 변

인에 따라 성별, 학령, 부모의 학력, 직업, 경제 수준 국어 성적, 권역 등으로 나누어 엄밀하게 분석하였다.

2. 가족 대화 설문 문항 개발에 관한 연구

가족 대화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도 가족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찾아보기 어렵고, 가족의 체계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양상을 조사하는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1) Barnes & Olson(1982) 부모 청소년 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는 김윤희(1990), 민하영(1991), 민혜영(1991), 박재현(2013) 등에서 활용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주체	개방형	문제형
나	1. 나는 주저함 없이 아버지(어머니)께 내 주장을 이야기한다. 7.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대화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 8.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다. 9.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16.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17.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다.	2. 나는 때때로 아버지(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4.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어머니)께 요구하기가 두렵다. 10. 아버지(어머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종종 아버지(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는다. 11. 아버지(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12. 아버지(어머니)와 대화할 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15.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내용들이 있다. 20. 어떤 것에 관하여 내가 실제로 느끼는 바를 아버지(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부모	3.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 6.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묻지 않고도 내 느낌이 어떤지를 아신다. 13. 나의 질문에 대해 아버지(어머니)는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4.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5.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 18.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성가시도록 잔소리를 하신다. 19.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화가 나셨을 때 나에게 욕을 하거나 창피를 준다.

2) Bienvenu(1970)의 부부 간 대화 척도(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 MCI)는 김화자(1990)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남편(아내)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더 좋았을 일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 나는 대화하는 도중에 남편(아내)의 목소리 톤이 귀에 거슬린다고 느낀다.
- 남편(아내)은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 못해준다고 불평을 한다.
- 남편(아내)은 나로 인해 화가 났을 경우, 나에게 일부러 마음 상하는 말로 모욕을 준다.
- 나는 남편(아내)가 화를 낼까봐 두려워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남편(아내)이 나에게 화를 내면 당황하게 되고 기분이 무척 상한다.
- 남편(아내)과 어떤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경우, 남편(아내)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 상의 하기가 망설여진다.
- 나의 진실한 감정을 남편(아내)에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 나는 비밀스러운 일을 남편(아내)보다 친구에게 먼저 털어놓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옳다고 믿는 견해들을 남편(아내)에게 털어놓음으로 나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득한 적이 있다.
- 남편(아내)은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편이다.
- 남편(아내)은 나에게 귀찮은 잔소리를 한다.
- 나는 남편(아내)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는 다른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 나는 남편(아내)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실상 듣고 있지 않으면서도 듣는 척한다.
- 의욕이 상실되었거나 우울해 있을 때, 남편(아내)은 나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 나는 남편(아내)이 이야기 중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따진다.
- 남편(아내)은 가족의 공통 관심사나 활동에 종종 참여하는 편이다.
- 나와 남편(아내)은 서로 성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반대 의견을 전할 수 있다.
- 나는 단순히 문제해결을 위하여 남편(아내)과 조용히 앉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3) Powers & Hutchson(1979)의 배우자 커뮤니케이션 이해도(Personal Report of Spouse Communication Apprehension, PRSCA)는 송말희(1986)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심한 말다툼을 한 후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가 쑥스럽다.
- 남편이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진다.
- 남편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 긴장감이나 부자연스러움을 느낀다.
- 대화의 주제에 대해 남편에게 나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표현한다.
- 남편의 기분이 언짢을 때, 대화를 하면 신경이 쓰인다.
- 다른 사람보다 남편과 대화를 할 때,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이 느낀다.
- 남편이 어떤 일에 대해 나의 의견을 물어올 때는 공연히 긴장된다.
- 남편에 대한 그때그때의 내 느낌과 생각을 편히 이야기한다.
- 저녁에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 남편에게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 나의 생각은 혼동이 된다.
-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내 잘못을 인정한다.
- 남편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남편에게 나의 솔직한 감정을 쉽게 이야기한다.
-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 의논하기보다는 주로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 우리 부부관계에 관한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 남편의 잘잘못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부부관계에 관하여 어떤 것은 남편과 이야기하기가 망설여진다.

- 남편이 피곤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피한다.
- 내가 느낀 그대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 오해나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남편에게 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한다.
- 어떤 일을 토의할 때, 남편에게 나의 의견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내가 말하는 것에 신경 써야만 한다.
- 나는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남편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 남편과 의견충돌이 생겼을 때는 남편이 할 말을 다하도록 내버려 둔다.
-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 남편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발달시키는 것이 두렵다.
- 남편과 친근한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다.
- 남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다.
- 남편과 깊은 대화를 하기가 망설여진다.

4) Olson & Barnes(2012)의 부모-청소년 자녀 의사소통 척도(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를 수정한 FACES IV 패키지에 포함된 가족 의사소통 척도(Family Communication Scale, FCS)에서는 가족 의사소통을 ‘한 가족 단위의 구성원들 사이에 정보, 생각, 사상, 감정 등을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균형 잡힌 가족 체계는 불균형한 가족 체계보다 더 좋은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가족만족도(family satisfaction)가 높을 것이라고 본다(Olson & Barnes, 2012). 가족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 & Olson(1982, 1985)이 개발한 부모-청소년자녀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20개 문항 중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에 해당하는 10개 문항으로 2011년 개정된 것이다. 김영식 외(2012)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 우리 가족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우리 가족은 화가 났을 때,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5) 유영주, 이창숙(2002)에서는 Satir(1972)의 대화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의사소통 유형 체크리스트를 나의 관점과 배우자의 관점에서 함께 보도록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질문 문항	나	상대
1.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배우자의 기분을 맞추는 데 신경 쓴다.		
2. 나는 배우자에게 사과하는 말을 자주 한다.		
3. 나는 배우자에게 거절하는 말을 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4.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가능한 한 좋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5. 나는 일이 생겼을 때 배우자에게 징징 우는 소리를 잘 한다.		
6.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배우자의 약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7. 나는 배우자에게 지는 것이 싫어 내 말을 곧잘 우긴다.		
8. 나는 배우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말을 자주 한다.		
9. 나는 배우자에게 요구할 것이 있을 때 직접 단호하게 요구한다.		
10.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11. 나는 배우자가 틀렸을 때 서슴없이 틀렸다고 지적한다.		
12.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편이다.		
13. 나는 항상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대화가 진행된다.		
14.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조용하고 침착하게 하는 편이다.		
15. 나는 배우자와 지적인 대화를 나눌 때 기분이 좋아진다.		
16.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여 편잔을 받을 때가 있다.		
17.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신체동작을 많이 사용한다.		
18. 나는 배우자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끼어들어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19. 나는 배우자와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핵심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다.		
20.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별로 배우자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해버린다.		
21.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나의 의도나 생각을 명확히 이야기한다.		
22.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배우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며 그(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3.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배우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한다.		
24.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배우자의 감정을 공감해 주려고 한다.		
25.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나의 깊은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준다.		

□ 평가

- 회유형 문항(1,2,3,4,5) / 비난형 문항(6,7,8,9,10) / 초이성형 문항(11,12,13,14,15)
산만형 문항(16,17,18,19,20) / 일치형 문항(21,22,23,24,25)

- 체크된 문항의 개수를 기재하시오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
나					
배우자					

- 나의 의사소통 스타일 -----형
- 배우자의 의사소통 스타일 -----형

3. 부모-자녀 간 대화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3.1. 부모-자녀 간 대화 연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반향적 과정’이다(Galvin & Brommel, 1982).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 원인에 관해 연구한 송성자(1995)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의 범위는 축소되고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조부모와 친척의 영향은 약화되고, 가정의 권위나 지배권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따르지 못하는 자녀들은 심리적 압박감, 저항감, 긴장감, 열등감, 죄책감 등을 대화 단절의 원인으로 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들은 가정 밖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며, 심한 경우 일탈행동을 하기도 함을 지적하였다.

한국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일반적 특징에 관해 연구한 이미선(1993)에서는 의사소통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난, 꾸지람, 충고, 제시 등과 같은 일방적인 대화가 주로 오가며,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이며,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권위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수평적인 대화보다는 수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 요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오윤자(1994)에서는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부모는 가족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지만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부모는 문제가족을 만들며, 건강하고 기능적인 부부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은 전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주장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연구한 허철수, 양민철(2006)에서는 의사소통 유형은 구성원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교류와 개인의 생각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방식이라고 하였으며, 서로의 감정과 상태, 성격, 언어와 비언어적인 특징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하였다.

부모-자녀 대화의 방법에 관해 연구한 이형득(1982), 이영분(1990) 등에서는 Gordon(1975)에서 제시한 ① 명령·지시하기, ② 경고·위협하기, ③ 설교·교화하기, ④ 충고·해결책 제시하기, ⑤ 강의·논리적 논쟁하기, ⑥ 판단·비난·비평하기, ⑦ 칭찬·동의하기, ⑧ 이름붙이기·창피주기, ⑨ 해석·분석·진단하기, ⑩ 재확인·동정·지지하기, ⑪ 캐묻기·질문하기, ⑫ 물리서기·유머쓰기·주의 흘트리기 등의 12 가지를 부모와 자녀의 대화 방법으로 소개하고, 충고나 제언, 칭찬이나 동의, 동정이나 지지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나 갈등 상황에서는 위의 12가지 전형적인 대화 방법들 모두가 자녀로 하여금 말을 중단하게 하거나 죄의식 또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방어하게 하거나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므로 부모 자녀 간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경청, 나-메시지, 무패방법 등이 적용되어야 함

을 소개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개념, 인성특성, 문제 행동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이경주, 1989).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자녀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촉진적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반사회적, 비도덕적 인성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주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희자·김경원, 2000; 국길숙·이미숙, 2003; 박시현, 2003; 신효식·김근화, 2004; 장해순·강태완, 2005; 고경애·정민정, 2007; 김영선, 2010; 최정원·최연실·서신화, 2011), 심리적 안녕감 또는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영숙·김정옥, 2002; 김정민·이유리, 2010; 김현주, 2010 등),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정연호·류점숙·신효식, 2005),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허나예, 2010; 유문숙·이은숙·유미애, 2012) 등이 수행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로 청소년의 문제 행동(권재환·이은희, 2007; 이기연, 2012), 우울이나 자살 생각(김은현, 2003; 조준수·이경숙, 2005; 오정숙, 2007; 김혜원·조성연, 2011, 김순미, 2013, 양세정 2013 등), 외로움(김은경, 2010), 불안(김갑숙·전영숙, 2009), 가출(정문자·김진아·여종일, 2010), 틱 증상(조성희·김미자, 2013), 자살(이윤주 2009), 인터넷 중독(김정화, 2002; 한상임, 2010; 변미영, 2012; 이서현, 2014), 스마트폰 중독(임미림, 2014) 등이 수행되었다.

3.2.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현재까지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한경순(2004), 초등학생 대상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총 20회로 주 4회씩 5주간 일일 한 시간씩 연구자 1인이 진행하였다. 대상은 아동뿐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하였으며, 아동은 개별접촉과 집단 활동, 부모는 전화접촉과 마주 이야기 공책 피드백, 전화상담, 일일교사 활동, 가족참여 활동 등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조직은 ① 준비단계(1회): 질문지 작성 설명, 사전검사, 부모님께 안내장 발송, ② 형성단계(2회, 3회): 나와 또래동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하기, 마주이야기 공책 배부, 전화접촉을 통한 마주 이야기 공책 쓰기 설명, ③ 탐색단계(4회~8회): 기초의사소통, 집단적응, 쌍방향 의사소통, 소속감, 가치감, 흥미를 더할 수 있는 활동, ④ 활동단계(9회~17회): 협동, 성취감, 비밀 털어놓고 해결방법 모색하기, 상호존중, 능력 발휘, 수행능력 향상, 감수성개발, 부모교사활동, ⑤ 종결단계(18회~20회): 변화에 대한 자기평가, 온 가족이 참여하는 활동, 사후검사, 소감문 쓰기 등으로 마무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집단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라면, 아동이 등원한 순간부터 개별 접촉과 일지쓰기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동시에 집단 프로그램이 끝나면 반드시 학부모님과 개별, 혹은 전화 접촉을 통해 상담 및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부모-자녀의사소통은 6회기로 개별과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의도적 프로그램으로 안내장 발송(1회), 마주 이야기 공책 배부(4회), 전화 접촉하여 마주 이야기 공책 쓰기에 대한 설명(2회), 마주 이야기 공책 내용을 읽고 해 주는 피드백(3회), 상담을 겸한 전화접촉 (5회), 발표회 초대를 위한 전화접촉(1회), 학부모 일일 교사활동(2회), 가족참여활동(1회) 등 가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기회를 마주 이야기 공책 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갖고, 그 내용의 결과를 부모님들과 다시 이야기하면서 연계성을 갖도록 시도하였다. 마주 이야기 공책을 준비하여 개별로 나눠주고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가족 간 마주 이야기를 수시로 쓰도록 하여 주 1회씩 가져오게 하였다. 가져온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아이에게 반드시 마주 이야기를 하거나 피드백을 하였고, 공책에 피드백 내용을 적어서 집으로 돌려보내 가족들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마주 이야기 공책 쓰기가 촉진되었으며, 참여자 및 내용도 회기가 늘어날수록 증가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는 결과를 중심으로 부모님과 전화 접촉을 하며, 보완 협조나 아동에 대한 이해를 부탁하였고 집에서의 반응 등을 부모님께 듣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활동단계에서 학부모를 학년별로 한 분씩 사전 섭외하여 내용을 말씀드리고 사전 준비하도록 한 뒤, 일일교사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자녀와 함께 진행하여 아이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엄마 입장에서도 자녀에 대한 재확인 및 평가기회를 갖게 되어 부모-자녀 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발표회는 온 가족이 참여하여 아이들의 마주 이야기와 가족 간 마주 이야기, 부모가 들려주는 내 자식 마주 이야기 등을 하면서 전 프로그램의 목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 이외에도 사회성 발달을 위해 수용성 9회기, 가족 정서성 6회기, 또래 정서성 6회기를 포함하였으며, 전반적 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초등학교 대상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주	단계	회기	아동		3) 부모	개입목표
			1) 개별접촉 및 일지쓰기	2) 집단 프로그램		
1	준비 단계	1회	질문지 작성 설명	사전 검사	안내장 발송	· 참여 의욕 촉진
	형성 단계	2회	자기소개	나와 너 알기	마주 이야기 공책 배부	· 사회성(수용성) · 또래 정서성
		3회	친구 좋은 점	친구의 모든 것	전화 접촉, 공책쓰기 설명	· 사회성(사교성)
	탐색 단계	4회	편지 받은 적 있니?	나에게 보내는 편지	전화 접촉, 공책쓰기 설명	· 사회성(수용성, 사교성)
2		5회	오늘 기분은 어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발	마주 이야기 공책	· 사회성(사교성)

					배부	
		6회	친한 친구 있니?	또래와 우정 나누기	공책 피드백	· 사회성(수용성) · 또래 정서성
		7회	둘이 하는 마주 이야기	둘이 하는 마주 이야기	전화 접촉	· 의사소통 · 또래 정서성
		8회	혼자 하는 마주 이야기	혼자 하는 마주 이야기	전화 접촉	· 의사소통 · 가족 정서성
3	활동 단계	9회	뭐가 다르지?	우리는 모두 달라요.	마주 이야기 공책 배부	· 사회성(수용성) · 또래 정서성
		10회	힘을 합쳐 해 본 일	공동작업	공책 피드백	· 사회성(사교성) · 또래 정서성
		11회	네 고민은 뭐니?	고민 들어주기1	전화 접촉	· 사회성(수용성) · 또래 정서성
		12회	화나고 억울한 말	고민 들어주기2	전화 접촉	· 사회성(수용성) · 가족 정서성
4	활동 단계	13회	내게 하고 싶은 말	일기 쓰기	마주 이야기 공책 배부	· 사회성(수용성) · 또래 정서성
		14회	친구가 없다면?	친구가 좋아요.	공책 피드백	· 사회성(사교성)
		15회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소리를 들어요.	전화 접촉	· 사회성(사교성)
		16회	가족과 함께 한 마주 이야기 1	엄마가 들려주는 내 자식 마주 이야기 1	3학년 학부모 일일교사 활동	· 의사소통 · 가족 정서성
		17회	가족과 함께 한 마주 이야기 2	엄마가 들려주는 내 자식 마주 이야기 2	4학년 학부모 일일교사 활동	· 의사소통 · 가족 정서성
5	종결 단계	18회	내가 변화된 게 있나요?	달라졌어요.	전화 접촉 (발표회 초대)	· 사회성(수용성) · 의사소통 · 가족 정서성
		19회	발표회 사전 점검	마주 이야기 발표회	가족 참여 활동	· 의사소통 · 가족 정서성 · 또래 정서성 · 사회성(수용성, 사교성)
		20회	즐거웠니?	사후 검사, 소감문 쓰기	감사 전화	마무리

2) 김대현(2012),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TA 집단 상담프로그램 개발)

이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의 회기 수가 10~14회기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2002)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의 효과적인 회기 수가 10회기라는 임은미와 임찬호(2003)의 연구결과 등과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10회기로 구성하였다. 집단의 구성 목적 안내 및 친밀감 형성, 사전검사를 위한 회기를 1회기 배정하였고, 공감영역 2회기, 신뢰영역 2회기, 친밀영역 1회기, 격려영역 1회기, 존중영역 1회기, 무언의 지지영역 1회기로 하위영역에 따라 총 8회기를 배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을 마치며 느낀 점, 변화된 점 및 자신에 대한

다짐, 사후검사로 1회기를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선행 연구 분석과 요구조사 결과 분석내용을 반영하였는데, 공감영역과 신뢰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영역의 증가가 더욱 요구되어 각 1회기 더 비중을 두어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배열순서는 프로그램의 방향, 요구조사 문항 순위와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사전회기와 종결회기를 각각 프로그램의 맨 앞과 뒤에 배열하였으며, 요구조사 결과 나타난 필요성 순위에 따라 공감영역, 신뢰영역, 친밀영역, 격려영역, 존중영역, 무언의지지 영역 순으로 배열하되, 어른자아를 높이는 말하기 방법 익히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격려영역을 경청의 방법을 알고 이를 연습하는 듣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무언의 지지 영역 다음으로 배정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듣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은 상호 연계성이 있기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순서를 조정하였다. 영역별 세부 회기 순서는 요구조사 문항 순위에 따라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신뢰영역에서 긍정적·신체적 스트로크를 활용한 부분이 친밀영역에서 다뤄지는 긍정적·언어적 스트로크 부분과 연계되기에 신뢰영역의 순서를 조금 조정하여 배열하였다.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를 기본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자녀 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안하였으며, 회기별 시간은 집단 참가 인원을 고려하여 1회기 당 90분으로 하되, 초등학교 고학년의 주의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10분간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와 회기별 목표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프로그램 목표와 회기별 목표

프로그램의 목적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목 표		
첫째, 부모-자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긍정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둘째, 대화 분석을 통한 대화 개선과 생각과 감정 표현을 통한 상호 신뢰 증진 셋째, 스트로크 훈련을 통한 친밀감을 증진 넷째, 비교하지 않고 격려하는 말하기 방법 습득 다섯째,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인생태도 함양 여섯째, 효과적인 듣기 훈련을 통한 무언의지지 관계 형성		
↓		
하위영역	회기	회기별 목표
사전	1회기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한다.
공감	2회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한다.
	3회기	자신의 마음상태 점검을 통해 추궁하지 않고 상대를 따듯한 말과 행동

		으로 대하는 변화의 시간을 가진다.
신뢰	4회기	기분에 따라 대화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 유형을 안다.
	5회기	일상생활에서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 표현해본다.
친밀	6회기	편지(쪽지, 문자) 쓰기 활동을 통해 서로의 친밀감을 높인다.
존중	7회기	부모-자녀 간 긍정의 마음으로 서로의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존중해준다.
무언의 지지	8회기	부모-자녀 간 대화 시 상대를 배려하는 경청의 방법을 안다.
격려	9회기	비교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을 안다.
종결	10회기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나누고 변화된 모습을 평가한다.

③ 최종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

하위 영역	회기	프로그램 제목	회기별 목표	활동내용
사전	1	만남과 마음열기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한다.	· 프로그램 안내 · 'Everybody Stand UP'게임
공감	2	내 마음 이해하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한다.	· 다섯 가지 마음이 나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탐색하기 · 몸으로 표현되는 나와 상대의 마음 상태 알아보기
	3	말과 행동의 변화	자신의 마음상태 점검을 통해 추궁하지 않고 상대를 따듯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는 변화의 시간을 가진다.	· 마음그림 검사 · 긍정적, 부정적 측면 살펴보기 · 행동변화 계약서 작성하기
신뢰	4	행복한 대화	기분에 따라 대화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 유형을 안다.	· 대화의 3유형에 대해 느껴보기 · 평소 대화를 통하는 대화로 바꿔보기
	5	마음을 주고받아요.	일상생활에서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 표현해본다.	· 포옹의 법칙 · 발 씻기 활동하기 · 선물 나누기
친밀	6	사랑한다 말하세요.	편지(쪽지, 문자) 쓰기 활동을 통해 서로의 친밀감을 높인다.	· 10대 욕에 중독되다. · 물은 답을 알고 있다. · 9-11 이야길 통해 메시지 남기기
존중	7	나도 OK 너도 OK	부모-자녀 간 긍정의 마음으로 서로의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존중해준다.	· OK그램 검사 ·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 나와 상대의 장점 찾아 칭찬하고 느낌 나누기
무언의 지지	8	마음까지 들어주기	부모-자녀 간 대화 시 상대를 배려하는 경청의 방법을 안다.	· 의사소통의 걸림돌 · 앵무새 연습과 반영적 경청하기를 활용한 말판 게임

격려	9	내 마음 표현하기	비교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을 안다	· 느낌 빙고 · 어른마음 표현하기를 익히기 위한 카드 게임
종결	10	마무리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나누고 변화된 모습을 평가한다.	· 프로그램 되돌아보기 · 행복선언문 만들기

3) 최은경(2003),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과업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자녀의 발달과업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부모가 되도록 한다.
- 둘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 자신을 탐색하도록 한다.
- 셋째, 상담자로서의 부모역할을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 넷째,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돕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을 3가지 단계에 따라 구성하였다. 1주 1회, 8주 동안으로 매 회기 당 소요시간은 90분에서 120분까지 하며 중간 휴식을 10분 정도로 가진다. 프로그램의 단계는 시작단계(1회기), 진행단계(2~7회기), 종결단계(8회기)로 구분하고 강의, 활동, 실습, 토의, 평가, 과제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자녀와 친구 되기'이고, 회기별 목표 및 내용은 다음의 <표 2-4>와 같이 정리된다.

<표 2-4>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내용

회기	단계	제목	목표 및 내용
1	시작단계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기 -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및 목표 정하기
2	진행단계	적극적 부모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부모역할 이해하기 - 청소년의 발달과업 -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역할
3		부모 자기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기 - 전통적인 의사소통방법 - 의사소통의 장애요인
4		자녀 이해하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하기 - 관심기울이기
5		자녀 이해하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기 - 공감

6		자녀와 하나 되는 대화법 1	• 자녀와 하나 되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훈련하기 - 적극적 경청
7		자녀와 하나 되는 대화법 2	• 자녀와 하나 되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훈련하기 - 나-메시지
8	종결단계	마무리	•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평가 실시하기 -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작성 - 사후모임

이 프로그램은 집단토의의 효율성을 위해 10~12명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진행자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식 교육은 지양하고 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경험을 나눔으로 부모 자신의 탐색과 자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방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도록 하였다. 주 1회 회기를 갖도록 하며 매 회기의 진행 시간은 2시간(90~120분)으로 하여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제시, 개념들의 이해, 활동, 평가로 진행하였다. 매 회기의 도입 부분에서는 목표제시와 과제를 통한 경험 나누기로 자기 탐색을 하도록 하였고, 강의는 활동을 위한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진행하며, 활동을 통한 집단 경험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고, 집단 활동에서 학습한 경험을 나누면서 자기평가 및 학습활동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였다. 각 회기의 주요 활동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1회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진행자 소개와 프로그램의 목적과 전체 내용 및 집단의 규칙을 설명하고 참가자 및 가족 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이야기함으로 자기변화에 대한 목표를 정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 2회기: 적극적 부모 되기- 청소년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청소년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부모역할로서 상담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회기: 부모의 자기 탐색- 의사소통의 의미를 통해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부모 자녀와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고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의사소통 장애요인을 살펴본 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 4회기: 자녀 이해하기 1-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자녀의 단점을 이해하고 자녀의 장점을 격려하도록 하며 관심 기울이기를 통해 자녀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 5회기: 자녀 이해하기 2-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공감 기술을 훈련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을 수용함으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6회기: 자녀와 하나 되는 대화법 1- 자녀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정확히 듣는 능력과 대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적극적 경청을 훈련하여 부모 자녀 간의 깊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회기: 자녀와 하나 되는 대화법 2-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느낌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나-메시지를 훈련하여 긍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 8회기: 마무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학습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다음 서로 격려하도록 하였다.

4) 황선영(2002),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단기 의사소통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청소년기 가족의 발달적 특성을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가 상호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인데, 일반적인 목표와 세부정적인 목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표와 세부정적인 목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 초기 시기의 특성과 중년기의 특성을 자녀-어머니가 상호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②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과 어머니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청소년 초기 자녀를 둔 가정의 적응을 돕고자 한다. ③ 정기적인 후속 프로그램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
프로그램의 세부정적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의 초기의 특성에 대하여 어머니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② 중년기의 특성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③ 중학생 자녀와 어머니 간의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④ 현재 가정에서 자녀와 겪고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하여 생각하고 올바른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⑤ 가족 내에서 자녀와 어머니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⑥ 자녀에게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강당, 연구실, 교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딱딱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아늑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자녀 약 4~8쌍이 적당하다. 프로그램 교육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둘 다 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밝힌다면 이상적이지만 어머니나 자녀 중 한편의 권유에 의해 참여한 참가자들에게는 프로그램 실시 전에 충분히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의 시간적인 제약을 배려하여 한 번에 참석하여 이루어지도록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약 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휴일, 주말의 오후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또한 캠프나 수련회 기간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표 2-6>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단기 의사소통 프로그램

순서	내용	준비물	시간
준비 모임 (약 2주 전)	1. 설문지 작성(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 만족도) 2. 참가 시 준비물 안내, 역할극 준비안내 3. 선서문 만들기(어머니, 학생대표 각 1인) 4. 구호, 팀 이름 전하기	설문지	60분
1부	1. 오리엔테이션(의사소통훈련의 필요성) 2. 선서식 3. 구호, 팀 이름 점검 및 발표 4. 청소년 VS. 어머니(상호이해를 위한 강의와 퀴즈, 게임) 5. 초상화 그리기	이름표 안내책자 사진기 게임도구	50분 (10분 휴식)
2부	1. 청소년 VS. 어머니 역할극(갈등장면구성) 2. 소감 및 토론	안내책자	60분 (10분 휴식)
3부	1. 노래 부르기 2. 어머니와 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 찾기 (강의 및 대화) 3. 기능적인 의사소통 찾기 4. 기능적인 의사소통 실습 (현재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선정함) 5. 발표 및 피드백	간단한 분장도구 음향과 조명 사진기	120분 (10분 휴식) 간식 제공
4부	1. 다짐문 작성 2. 백지수표와 쿠폰 작성 및 증정식	사진기 다짐문 작성지 백지수표와 쿠폰 용지 촛불 음악	30분
종료 후	프로그램 평가지 작성		10분

5) 강혜영(2011),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 감소를 위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과업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갈등 감소를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하위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는 서로 간의 발달특성과 과제를 이해한다.

둘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는 서로의 문화와 세대 차이를 인정하며, 부모는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부모는 청소년 자녀를 향한 격려와 칭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넷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힌다.

다섯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는 바람직한 갈등해결방식을 익힘으로써 갈등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가족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히 청소년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부모님의 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녀 또한 성별 및 출생순위에는 제한이 없다. 부모와 자녀가 한 쌍을 이루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7쌍 정도가 적합하다. 주 1회 실시를 기본으로 각 회기 70-80분 정도로 총 6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회기 진행 단계와 시간 배분은 도입 10분, 강의 20분, 활동 30분, 토의 및 평가 10분, 마무리 10분으로 진행된다. 학교 교실 또는 수양관, 복지관 등의 장소를 이용하여 편안한 분위기의 환경을 꾸미고, 참가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6회기로 구성되며, 매 회기는 도입과 강의, 활동 및 토의와 평가 그리고 과제로 구성된다. 각 회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회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목적과 신체내용 및 진행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참가자 소개 및 참가자들의 기대목표를 설정한다.
- 2회기: 부모 및 자녀 이해의 시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청소년기와 중년기의 발달특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활동을 통해 갈등감소를 위한 기초를 다진다.
- 3회기: 청소년 문화 이해하기- 갈등의 원인 중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려는 노력은 갈등감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부모가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 4회기: 격려하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격려와 칭찬이 자녀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이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자녀에게 부담을 갖게 하므로 자녀에 대해 부모의 기대 수준을 자각하고 자녀와 함께 재조정하도록 돕는다.

- 5회기: 의사소통훈련- 부모자녀 관계향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해결하기도 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익힘으로써 잘못된 대화 습관을 교정해나가는 시간으로 삼는다.
- 6회기: 종결단계- 갈등해결방식을 익히는 시간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유형 및 내용을 정리해보고, 바람직한 갈등해결방식을 배우고 실천해 봄으로써, 서로 간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의 평가, 정리 및 앞으로의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생애주기별 가족생활 교육

사람은 가정을 이룰 때 대부분 비슷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결혼, 출산, 육아, 아이의 성장에 따라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자녀기 등을 거치는 중·장년기, 자녀를 출가시킨 후 노년기, 배우자 사망기 등의 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단계를 가족생애주기라 한다. 각 가정마다 모든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어떤 단계는 건너뛴 수도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단계에 따라 이미 예측가능한 가족의 문제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 부부 및 신혼기 부부 프로그램: 결혼을 앞두고거나 교제중인 미혼남녀/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초기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결혼과 가족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가족교육: 아이들과 대화가 어렵거나 아이들의 진로가 걱정될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고민될 때, 아동/청소년기 가족교육은 이러한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다.

중년기 가족교육: 중년기 가족교육은 중·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대한 지식, 중·노년기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 또한 노년생활을 위한 경제 준비 교육 등을 통해 노후를 우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노년기 가족교육: 노년기는 인생에 있어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며 신체적으로·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관계도 변화하고, 경제적 주도권을 갖고 있던 부모가 돌봄을 받게 되면서 노년기의 가족들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한다. 건강하고 신나는 노년기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노년기의 가족관계, 죽음 준비, 건강한 생활, 알뜰한 소비 등 노년기에 겪게 되는 생활사건에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성장아카데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을 총망라하여 가정생활의 전체적인 틀과 생활의 방향을 인식하고, 가정의 사회적 역할까지 인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개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모교육의 새로운 시도로 부각되고 있는 자녀 코칭을 포함시킴으로써 단순한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 부모의 코칭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7>과 같다.

<표 2-7> 가족성장아카데미 프로그램

회기	프로그램 제목	주 제
1회기	몸매 가꾸듯, 가정도 가꾸어요.	• 건강 가정과 가족구성원 공통의 사명
2회기	부부행복지수 높이기	•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특성 이해 • 부부갈등에 정확한 지식과 건강한 해결 방안
3회기	부모와 자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을 위하여	• 자녀의 발달 과정의 이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눈높이 교육 • 부모-자녀의 성격유형의 차이 이해
4회기	부모코치 되기!	• 부모 코칭의 개념의 이해
5회기	부모 코칭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 부모 코칭의 핵심기술 (경청, 질문, 인정, 칭찬하기)의 학습 • 코칭기술의 실습, 부모 코칭 능력 향상
6회기	우리 가족문화, 현명한 의식주 소비생활	• 가족생활주기별 의식주 관리 • 의식주 활동을 통해 가족문화 만들기
7회기	나는 내 생활의 CEO (시간, 여가자원관리)	• 가족단위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 관리 방법 • 나와 가족의 재무와 소비관리
8회기	다양한 가족, 당당한 삶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와 편견의 해소 • 편견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9회기	일과 가정, 둘 다 소중해요	• 맞벌이 부부 증가와 가족생활 특성의 이해 • 일·가정 불균형의 원인과 증상의 탐색 • 일·가정 균형 잡기 전략과 실천
10회기	가족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복, 가족자원봉사	• 가족자원봉사에 대한 기초이론 • 가족자원봉사 효과 및 과정의 이해와 구체화
11회기	우리 가정, 건강한가? 컨설팅해봐요.	• 우리 가정의 건강성 진단, 가정 운영상의 강점과 약점 인식 • 가정의 역량강화 방안 컨설팅 • 가정경영자의 역할 이해

4. 부부 간 대화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4.1. 부부 대화 연구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부부 의사소통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 연구(이유미, 2003; 이화자·최연실, 2003; 이창훈, 2008; 오현주, 2013 등)와 부부 대화가 가정생활 만족도(심혜선, 2001)나 결혼 만족도(최선희·장신대, 2002; 한주리·허경호, 2004 등) 등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갈등 상황에 있는 부부대화의 특징과 치유 전략 등에 관한 연구(김지영, 2004; 이경자, 2007; 김혜정, 2008; 이 문, 2010; 이성범·한승호, 2014 등) 등이 수행되었다.

부부 의사소통의 특징에 대한 연구 가운데 이유미(2003)에서는 부부 의사소통의 단계를 협력, 보류, 갈등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들 단계의 진행에 따른 부부 의사소통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고, 이화자·최연실(2003)에서는 결혼생활을 15년 이상 30년 이내 지속하고 있고 부부 간에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진 중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Satir의 모델에 근거해서 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개입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본기술인 개방적 경청 법과 일치적 자기표현 방법 및 집단원 간에 서로 피드백 하는 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중년기 부부들의 자존감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의사소통향상을 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최근에는 부부 의사소통 관찰 코딩체계를 개발한 오현주(2013)과 같은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갈등적 이슈를 다루는 대화 장면을 관찰하고, 의사소통 행동을 평정할 수 있도록 긍정, 부정, 중립 3차원과 8개 하위범주로 구성된 ‘부부 의사소통 관찰 코딩체계 (Couple Communication Observational Coding System: CCOCS)를 확정하였다. 긍정 차원에는 ‘이해/공감’ ‘동의/적극경청’ ‘자기노출/제안’ 3범주, 부정 차원에는 ‘손상’ ‘비타당화’ ‘요구/통제’ ‘철수/회피’ 등 4범주, 중립 차원에 ‘문제기술’의 단일 범주로 구성되었다. CCOC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87쌍(임상 집단 40쌍/비임상 집단 4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부부 대화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장은경(2001)에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불성실한 의사소통 방식과 희생지향적 의사소통 방식,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한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은 상황에 맞지 않게 말하기, 일관성이 없이 말하기, 생각 없이 말하기,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기, 솔직하지 못하게 말하기, 거짓말하기, 무책임한 말하기 등이다. 한주리·허경호(2004)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결혼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부부 모두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뿐만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도와도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부 간의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부부 간의 이해, 적응, 만족을 촉진시키며, 부부 간의 개방된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아

올려 부부 간의 의견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적절한 메시지를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로 해석한다.

김명희(2006)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 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 방식의 특징을 연구하였는데, 학력은 고졸 이상의 집단에서, 배우자의 종교가 있고, 본인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질병이 없을수록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와 종교를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에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재정 및 부모, 친지를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에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부부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로 김영나(2000)에서는 노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연령, 결혼지속연수, 건강, 교육, 종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배우자의 연령이 낮은 노인이, 결혼지속 연수가 45년 이하 노인이, 부부의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이, 부부의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이, 종교가 있는 노인이 부부 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혜선(2001)에서는 도시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가, 결혼지속 연수가 짧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생활수준 인지도가 높을수록 높다고 분석하였다. 박지은(2000)에서는 노년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개방적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할수록 부부 간에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녀와의 사이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느끼고 있었으며, 부부 간 대화에 있어서도 자녀문제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은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노인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배우자와의 대화 시 의견의 '일치도'와 '존중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에게 있어서 배우자와 대화 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존중해주며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느냐는 배우자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갈등이 있는 부부 의사소통에 관해 부부 갈등 대화의 원인을 연구한 이성범·한승훈(2014)에서는 부부 간의 의사소통을 가장된 협조 행위와 비협조 행위, 공유되지 않고 비협조 행위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행동이론과 화용론의 관점에서 유형을 세분하여 각 유형에서 의도된 불통과 고의적 오해에 대해 Spencer-Oatey(2000, 2005)가 제안한 '조화관계 지향점' 이론의 틀에서 Rapport-enhancement orientation(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다 두텁게 하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것), Rapport-maintenance orientation(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보존하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것), Rapport-neglect orientation(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의 질에 대해 관심 혹은 걱정하지 않는 것), Rapport-challenge orientation(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것)을 부부 대화의 언어전략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이

러한 부부 간 갈등대화의 구조와 책략을 분석한 김혜정(2008)에서는 부부 간 갈등대화의 기본구성에는 공격성 불만발화로 ‘꾸짖기, 따지기, 비꼬기, 비난하기, 탓하기, 푸념하기, 비교하기, 무시하기, 인격모독하기’ 등이, 방어성 불만발화로 ‘진정시키기, 변명하기, 말꼬리잡기, 부정하기, 말 끊기, 겁주기, 물러나기, 되묻기’ 등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김지영(2004)에서는 부부 간 갈등대화의 책략에는 감정적 책략으로 ‘고함지르기, 억울해 하기, 울기, 냉소하기’ 등이, 표현적 책략으로 ‘반복하기, 욕하기, 잡아떼기, 공격 예고하기, 인내심 한계 드러내기, 질문 퍼붓기’ 등이, 논리적 책략으로 ‘일반화의 논리(부부), 권위논리(남편), 부정집단 논리(아내)’ 등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부 간 갈등 대화는 한국인의 독특한 질병인 화병을 야기하는데, 김지영(2004)에서는 부부 의사소통의 비효율성과 화병 증상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부부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화병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서, 화병의 예방적, 치료적 차원에서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법으로 김순옥(2001)은 부부 간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Berne(1957)의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이론과 Satir(1972)의 역기능적 의사소통(Dysfunctional Communication) 이론, Miller, Miller, Nunnally & Wackman(1991)의 부부대화법 이론을 통합한 부부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부부 대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외국의 이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것들이다. Miller, Miller, Nunnally & Wackman(1991)에서는 말하기 기술인 ‘자기 자신 돌보기’와 듣기 기술인 ‘배우자 배려하기’가 있다. 말하기 기술인 ‘자기 자신 돌보기’에는 자신에 대해 말하기, 감각 정보 묘사하기, 생각 표현하기, 감정 나누기, 소망 이야기하기, 행동 진술하기 등 6가지 기술이 있는데, 첫째 자신에 대해 말하기는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바람을 말하고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감각 정보 묘사하기는 감각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그대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 생각 표현하기는 자신이 믿고 해석하고 기대하는 것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고, 넷째 감정 나누기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섯째 소망 이야기하기는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이고, 여섯째 행동 진술하기는 자신이 했던, 혹은 하고 있는, 앞으로 할 행위에 대해 이유와 뜻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듣기 기술인 ‘배우자 배려하기’에는 주의 기울이기, 인정하기, 정보 요청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 등의 5가지 기술이 있는데, 첫째 주의 기울이기에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관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 몸과 시선은 배우자를 향하고 비언어적인 것을 관찰하며 음성의 의미까지 듣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인정하기는 배우자가 말하는 배우자의 경험을 인정하는 것으로 머리를 끄덕이거나 ‘아하’하고 반응하거나 해석을 반영함으로써 배우자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감정이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 정보 요청하기는 배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지시나 질문으로 배우자를 격려하도록 하는 것이고, 넷째 요약하기는 배우자의 말에 대해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배우자가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섯째 질문하기는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할 경우나 명확하지 않은 감각적 정보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개방 질문을 하는 것으로 ‘왜’라는 질문은 피하고,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묻도록 하는 것이다.

Berne(1957)에서 개발한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이론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자아상태(ego state)를 아버지 자아상태(parent ego state), 어른 자아상태(adult ego state, A), 어린이 자아상태(child ego state)로 나누는데, 아버지 자아상태는 비판적 아버지(critical parent, CP) 자아상태와 양육적 아버지(nurturing parent, NP) 자아상태로, 어린이 자아상태는 자유로운 어린이(free child, FC) 자아상태와 순응하는 어린이(adopted child, AC) 자아상태로 세분된다. CP는 상대방에게 비판, 비난, 질책을 주로 하며 엄격하고 지배적인 경향을 보이고, NP는 상대방에게 친절, 관용, 동정을 주로 하며 용서하고 칭찬하는 경향을 보인다. A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FC는 본능적, 자기중심적, 적극적이며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AC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Satir(1972)에서 개발한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Functional Dysfunctional Communication) 이론에서 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으로는 일치형이 있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으로는 회유형, 비난형, 계산형, 혼란형이 있다. 일치형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과 상대방, 상황 모두를 중시하며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한다. 아울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신뢰하며 변화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반면에 회유형은 희생적·헌신적인 태도로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행동하고, 비난형은 비판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복종을 이끌어내려고 행동하고, 계산형은 자신이나 상대방을 모두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보다는 자료와 논리를 중시하고, 자신이 항상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행동하고, 혼란형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으며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독감에 사로잡혀 행동한다. 대체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으로 평가되며, 상대방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김남연·양난미(2012)의 국내 부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동향에 의하면 이론적 토대로는 Satir(1972)의 이론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프로그램 회기 상의 주제로는 의사소통과 갈등대처/해결을 가장 많이 다루었다. 측정도구로는 의사소통 측정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도 Bienvenu(1970)의 부부의사소통검사가 가장 많았다.

4.2. 부부 대화 프로그램

1) 부부 참 만남(Marriage Encounter)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부부 상호 간의 이해 수준과 공감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가톨릭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를 두고 주말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봉사자 부부들의 경험 발표를 통하여 대화 장면을 경험하고 부부 각자의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자기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서적이고 느낌의 대화를 강조한다. 부부들의 주관적인 문제들을 봉사자 부부들의 경험발표를 들으면서 부부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킨다.

프로그램 진행은 봉사자 부부들의 경험 발표, 부부 간의 편지쓰기, 부부 간의 대화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2박 3일의 주말과정을 끝내고 이어서 6~7쌍의 부부들이 주 1회씩 6주간 저녁 시간에 모여 Bridge 과정으로 후속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며 매 주제에 대한 상황, 자신의 느낌과 자신이 바라는 열망, 기대를 편지쓰기로 참가자 부부들과 서로 발표하며 각자의 생각들을 공유한다. 이후 매월 1회 참가자 부부들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Saying이라 하여 주제에 대한 편지쓰기와 발표로 프로그램이 계속 되면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호적인 이해와 공감의 수준을 향상시키나 직접적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부부 간의 대화 장면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2)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관계강화 프로그램

조선경(1989)에 의해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부부 간의 의사소통 관계 양상에 대한 자각능력과 자신들의 관계양상에 대한 부부 간 협의 능력을 키우며 말하기 기술, 듣기 기술의 의사소통기술을 익히고 부부 간의 갈등 해결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매주 2시간씩 5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제1회 부부관계와 의사소통, 제2회 의사소통양식 자각하기, 제3회 듣기 기술 익히기, 제4회 말하기 기술 익히기, 제5회 갈등해결, 기술 익히기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 시범 실습에 가정실습과제를 포함하여 훈련 장면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 장면에서까지 영속화시켜 학습한 기술을 내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집단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실습내용은 개별부부 자신들의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대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상황의 부부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 실시를 하지 못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를 알 수가 없다.

3)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부부들로 하여금 관계의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1회 프로그램 안내 및 부부소개, 2회 부부관계에 대해 각성하기, 3회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4회 배우자의 마음 공감하기, 5회

내 안에 당신이, 6회 건설적으로 감정표현하기, 7회 서로를 인정해주기, 8회 갈등해결 기술 익히기, 9회 갈등장면 해결하기, 10회 삶의 목표 설정 및 성장을 향하여 출발 등 10회로 1주에 10시간씩 2회 모임, 20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관계와 부부 상호작용에 강조점을 두고서 부부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들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부부가 가진 장점들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되어있다.

4) 가족 대화의 밤 의사소통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가정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가족 대화의 밤 프로그램 중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으로 현재의 결혼생활을 진단하고, 앞으로 결혼생활이 나아갈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부 생활 진단, 부부갈등, 우리 부부의 가치관, 부부가 앞으로의 계획들로 부부대화→소집단 대화→전체 집단에서의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참가자 대부분이 부부 간에 대화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가정은 부부중심에서 부모 자식 등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공동의 부부가치관을 공유하는 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나 1박 2일의 숙박을 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 시도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

5)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부부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최정숙(1995)에 의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부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유형 형성과 공감적인 경청, 자기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의사소통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매주 150분~210분씩 5회로 도입-강의-적용활동-평가-과제부여의 순으로 진행구조이며, 내용으로는 부부의사소통 점검단계, 부부차이점 인정·수용단계, 듣는 태도와 기술 학습단계, 자기 표현법 학습단계, 문제해결(갈등대처)법 학습단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부부 간 의사소통으로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참가자 자신 및 배우자의 의사소통과 부부관계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프로그램 소요시간을 늘이기를 원하였으나 프로그램 시작 시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5회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다.

6)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오윤자(1994)에 의해 개발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부부 스스로 부부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발달하도록 돕고 변화에 도전함으로써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형식은 1단계에서는 부부의 차이점 수용단계 2단계

부부의 감정 이입단계, 3단계 부부의 감정표현단계 4단계 부부관계의 성장단계, 5단계 부부관계 향상 확인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 특별한 변화 추구보다는 이미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자원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면서 재구조화 하는 과정으로 부부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통하여 긍정적인 차원으로 부부관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프로그램은 개발되었으나 실시 운영되지 않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알 수가 없다.

이상의 프로그램들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의사소통 기술훈련으로 의사소통 기술의 증진을 공통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많은 효과를 보여 주고 있지만 기존 프로그램들이 강의형식으로 진행되어 이론에 많이 치우쳐서 현장에서 실습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실제 활동자료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경험 발표와 실습을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서로 교류하며 흥미 있게 진행되어 보다 나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7) 프로그램 예시: 이현진(2003)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진행 일정

시 간	주 제	내 용
제1주	마음의 문 열기 부부의사소통의 중요성	- 의사소통유형 사전검사 - 참가자 소개 - 프로그램 안내 - 추억 더듬기 - 의사소통 이론
제2주	듣기(경청)	- 의사소통 유형-부부체계 확인 - 적극적 경청
제3주	말하기(나-메시지)	- 감정표현하기 - 나-메시지 - 기대하는 것을 요구하기-열망(사랑의 편지)
제4주	일치적 의사소통	- 인지적 왜곡 찾아내기(내면적 사고 찾아내기) - 문제 해결의 과정 - 전체적 메시지로 분명하게 말하기
제5주	우리 부부의 가치관	-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훈련 - 부부의 앞으로 계획
재회의 만남	달라진 모습	- 부부가 노력한 점 - 의사소통유형-사후검사

(2) 프로그램의 내용

• 제1주: 부부의사소통의 중요성

첫 번째 주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을 소개하고 부부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 두려운 것, 기대하는 것 등 솔직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 활기 있고 자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부부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여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데 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의사소통유형을 검사해 본다. 사전검사는 본 연구자가 사티어가 분류한 의사소통유형에 근거하여 회피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으로 나누어 제작한 검사지이다. 진행과정에서는 참가부부들이 처음 만난 단계이므로 부부소개로 ①어떻게 처음 둘이 만났는가 ②함께 즐기는 취미 ③배우자 선택 이유 ④가족사항 ⑤직업 ⑥결혼한 기간 ⑦결혼 이후 배우자의 좋은 점 등을 소개하면서 참가 부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감 형성을 하게하며 집단이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진행과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부부관계 내에서 개인적인 특성을 상호 인지하도록 하며 부부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2주: 듣기-경청

두 번째 주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의사내용을 정확하게 듣는 능력을 기르며 적극적인 경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듣기 기술을 익히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듣기- 경청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관심 기울여 듣기의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진행단계에서는 경청을 방해하는 걸림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듣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도와준다. 적극적 경청방법으로는 관심 기울여 듣기, 다시 말하기, 명료화하기, 공감적 피드백하기 등의 방법으로 듣기 기술을 익히게 하여 사티어의 의사소통유형을 자각하도록 한다. 제2주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좋은 의사소통이란 서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 제3주: 말하기-나 메시지

세 번째 주에서는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부부 상호 간에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방적인 말하기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진행과정으로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단어들을 알아본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비난 없이 서술하고 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서술하며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느낌을 말할 수 있는 '나-메시지 기법'을 익힌다. 이러한 '나-메시지 기법'으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을 표현하기 실습을 해 보며 또한 사랑의 편지쓰기를 하며 자신이 기대하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 제4주: 일치적 의사소통

네 번째 주에서는 부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거나 부부가 서로 느끼는 만족이나 갈등문제를 언어적 표현과 행동적 표현이 일치되게 표현하게 함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부부 상호 간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알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부부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며 부부 상호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행과정으로는 부부가 원하는 대화 내용을 알아보고, 서로 왜곡된 인지체계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부부갈등 문제가 표출된다는 것을 경험 발표하도록 한다. 문제해결 과정으로 건설적인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며 의사소통을 할 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신의 사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 자신이 바라는 욕구와 궁극적으로 바라는 열망을 일치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 부부와 가족의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주: 부부의 가치관

다섯 번째 주에서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가 부부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부부 각자를 자각하고 존중하여 더 나은 부부관계를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앞으로 부부가 함께 하면서 부부 상호 간에 계획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부부 각자 배우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부부관계의 향상은 지속적인 부부 상호 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마지막 주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앞으로의 부부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관계향상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전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부부 상호 간의 생각과 듣기, 말하기, 일치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다시 한 번 익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전반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일반적인 부부생활에 대한 유사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부부관계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가 제한적이며 특별한 것이 아님을 주지시킨다. 또한 가정에서의 부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유아기 자녀들에게 그 본보기가 되어 자녀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제6주: 재회의 만남

1개월 후 다시 만나 의사소통유형검사를 실시하고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교육 후 부부 사이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이 있었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부부공동계획서의 실천하기를 노력한 것에 대해 발표하도록 한다.

5. 가족 상담 사례 분석

5.1. 부모-자녀 관계 의사소통 사례

<사례 1>

1) 주 호소 문제

- ① 모: 남편과 이혼 후 큰딸에게 무능한 엄마 취급을 받아왔으며, 큰딸과 싸울 때 이성을 잃을 정도로 예민해졌다. 이혼 시에 아이들을 괜히 데리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책임 지기도 싫고 우울하다고 하였다.

② 딸: 부모님의 이혼 후 몸에서 냄새가 나게 되어 친구도 없고 교사도 싫어서 학교생활이 어려워지고 등교거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은둔생활을 시도하고 있고 책임감 없는 아빠가 싫다고 하며, 최근 자주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

2) 상담의 목표

- ① 모
 -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감정표현이나 의사전달하기
 -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불안심리 내려놓기
- ② 딸
 - 사랑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이야기를 경청하기
 - 자살이 최선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현실을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기

3) 상담과정

딸 : 엄마가 일하러 가서 혼자 왔어요.
 상담자 : 혹시 이런 말 아니? 긍정적이라는 말?
 딸 : 모든 책에서 갖다 붙이는 그런 말... 시간이 없어요.
 상담자 :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평안해지겠지?
 딸 : 상관없어요, 학교가 싫으면 죽으면 되고, 포기하면 되고. <중략>
 상담자 : 엄마한테 말해서 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딸 : 안 믿어요. 때릴 거면 아예 낳지를 말던지... 빛에 쪼들리니깐 엄마랑 삼촌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한테는 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상담자 : 혹시 엄마가 너에게 말해주었다라면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까? 너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
 딸 : 그래도 좀 나왔을 것 같아요. <후략>

4) 상담 전략

- ① 혼란스러워 하는 내담자(모, 딸)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 ② 모녀 모두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새로운 대처방식을 선택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 ③ 어머니로 하여금 대화 훈련을 통해 사랑받고자 하는 딸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심어주었다.

5) 결과

- ① 모: 자신이 처한 환경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건강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 ② 딸: 비일치적인 표현방식이 개선되었다.
- ③ 모녀 모두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랑, 따뜻함, 아쉬움으로 바뀌면서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례 2>

1) 주 호소 문제

- ① 내담자(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의 이혼과 4-5학년 왕따를 경험하였다.
- ② 심리적인 불안으로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몸이 조금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등교를 거부한다. 과장되게 표현하여 병원에 자주 입원한다. 학업성적이 낮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양치질, 씻기, 정리정돈 등)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2) 상담의 목표

- ① 아버지: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 ② 딸 :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 ③ 상담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원가족과의 관계회복에 도움을 준다.

3) 상담과정

딸 : 며칠 전에 태권도 선배들과의 불편했던 마음을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네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지 몰랐고 서운했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다시 태권도를 다니게 된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상담자 :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딸 : 2주 동안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태권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용기 있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교 댄스 동아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선배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서 신나고 즐거워요.

상담자 : 아버지는 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버지 : 딸애가 태권도나 댄스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또래들과도 잘 지내고 갈등 상황을 용기 있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요.

4) 상담의 전략

- ① 통합적 상담접근법을 이용하였다.
- ② 내담자의 낮은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해서 표현하도록 돕는다. 마음에 일치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치료 이론을 적용하여 가족의 성장을 돕고자 하였다.

5) 결과

- ① 아버지와 딸은 서로가 선호하는 관심, 동기, 흥미, 생활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 ② 아버지는 타인보다는 가족에게 상처 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미안함을

전달하였다. 또한 가족 간의 과도한 밀착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심적 불안을 인식하고 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함에 따라 안정을 찾았다.

- ③ 가족의 의사소통방식을 이해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딸과 아버지의 관계도 편안해졌다.

<사례 3>

1) 주 호소 문제

- ① 내담자(어머니)는 사춘기인 아이들과 갈등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고 특히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 ② 자신의 욕하는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어렵고 이런 자신이 무기력하고 우울하여 자신감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하였다.

2) 상담의 목표

- ① 자녀와의 적절한 경계선 갖기와 일치적 대화하기
- ②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대인관계 성장하도록 돕기
- ③ 자신을 수용·인정 이해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갖도록 돕기

3) 상담과정

- ① 내담자(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양육 태도가 아이들 위주의 허용적 태도임을 자각하였다.
- ② 사춘기 자녀의 충동적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감으로 힘들고 자신이 자녀를 잘 거두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 ③ 또한 딸과 딸의 친구들의 문제가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을 아이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말한 것에 대해 일관된 행동을 취하고자 하였다.
- ④ 자녀들에게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규칙을 정하였다.

4) 상담의 전략

- ①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 일치적 의사소통을 다루어 가족원들 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빙산탐색을 통한 내면의 자각과 열망을 접촉시킨다.
- ② 상담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실존적 접근과 게슈탈트 방법을 일부 사용하였다.

5) 결과

- ① 내담자(어머니)는 타인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 ② 자녀들과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 ③ 내담자 자신이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탐색하고 통찰함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일치되는 언어적 표현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5.2. 부부 관계 의사소통 사례

<사례 1>

1) 주 호소 문제

- ① 남편: 아내가 상담받기를 원하니까 아내를 위해 왔다. 아내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진심으로 챙겨주지 않는다. 업무강도도 세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 지지받고 싶다. 아내가 자기 몫의 일을 잘 해내고 나를 도와서 신경 안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
- ② 아내: 남편과 의견대립이 심하다. 2011년에 결혼한 후, 근 4년 동안 매번 똑같은 것으로 싸우는데 점점 더 부부싸움이 과격해진다. 남편의 지나친 화, 언어적 폭력, 잔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참는 데도 한계에 다다랐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너무나 지쳤다. 남편은 나에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비난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고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

2) 상담의 목표

: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비난하는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하기

3) 상담과정

상담자 : 오늘 상담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배운 것을 나눠주세요.
 아 내 : 남편에게 편안하게 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가 좀 잘해줘야겠어요(울먹임).
 남 편 : (흐느낌).
 아 내 : (달래듯) 왜 그래?
 상담자 : 말만 해줘도 저렇게 감동하네요.
 아 내 : 저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상담자 : 아내 분이 저렇게 말해주는 어떠세요?
 남 편 : 좋네요. (아내에게) 고마워.
 상담자 :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아내 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아 내 : 옛날에 그 오빠 같아요(흐느낌).

4) 상담의 전략

: 가족치료 이론 중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사티어 경험주의 모델을 통하여 원가족에서 미해

결된 문제가 현재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고 부부의 의사소통 구조를 변화시킨다.

5) 결과

- 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남편 또한 비난이나 잔소리를 멈추게 되었다.
- ② 남편 또한 자신이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것처럼 아내에게 상처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 ③ 부부가 서로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차분히 대화하고자 함. 또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자제함으로써 관계가 개선되었다.

<사례 2>

1) 주 호소 문제

- ① 남편: 처갓집 문제로 아내와 갈등이 있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장모가 욕심이 많다.
- ② 아내: 남편은 특히 친정어머니를 극도로 싫어하며 내가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검사까지 시도하였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후 남편이 걱정되고 화가 난다. 오순도순 잘 살았으면 좋겠다.
- ③ 장모(아내 모): 딸 부부가 무엇인가 이상해진 것 같고, 소통이 안 되고 딱 막힌 것 같다.

2) 상담의 목표

- ① 내담자 부부로 하여금 배우자와 마음이 통하는(털어놓는) 대화하기
- ② 가족(처가 식구들, 남편, 부인)들 간 서로 깊이 존중하는 관계 만들기

3) 상담과정

<전략>

상담자 : 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진 거 같긴 한데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OO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내 : 쉽게 말하면, 남편이 이제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편안해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 저도 조금은 편안해 지고 있어요.

남 편 :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제 속에 있는 말을 솔직히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의 입장'을 조금씩 이야기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해 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내도 마음 편안해 하구요.

4) 상담의 전략

: 가족치료에서 긍정적 경험과 자원을 강조하는 이야기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5) 결과

- ① 상담자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에도 부부를 성장하게 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 ② 부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서 부부 대화가 늘어났다.
- ③ 남편이 먼저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아내가 '나의 입장(I-Position) 말하기'를 통하여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당당히 이야기하였더니 남편이 순순히 따라주게 되었다.
- ④ 남편 역시 처가와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려고 생각하면서 부부 의사소통의 질이 향상되었다.
- ⑤ 더불어 가계도를 통하여 부부가 가족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면서 아내의 수용이 늘고 남편 역시 아내와의 관계나 처가와 관계에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 명절에 처가 방문을 시도하였다.
- ⑥ 남편과 처가 식구들의 관계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례 3>

1) 주 호소 문제

- ① 남편: 아내가 2년 전부터 외도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증거도 확보하고 있는데, 부인하는 아내가 너무나 얄밉다. 아내가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깨끗이 용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두 남녀를 파멸시키겠다.
- ② 아내: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살아오면서 남편의 부재에 힘겨웠으며,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남편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해 살고 싶다.

2) 상담의 목표

- ① 부부 간 갈등의 이해
- ② 부부 간 서로에 대한 욕구의 확인
- ③ 부부 친밀감 증진을 위한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촉진하기

3) 상담과정

상담자 : 남편 분과 아내 분 서로 언제가 가장 고마우셨나요? 그 때를 생각하면서 “고마워!” 라고 한번 말해 볼까요?

남 편 : 처음 집 사고, 당신이 집들이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당신 칭찬 많이 했는데, 정말 고마워.

아 내 : 지금까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부양해 줘서 **고마워**.
 상담자 : 그럼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미안했는지도 한 번 말해 볼까요?
 남 편 : 당신이 힘들다고 했을 때 귀담아 듣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 내 : 솔직히 별로 없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못한 것 정말 **미안해**.
 상담자 : 두 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내 :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면서도 늘 헌신하던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인지 남편을 돌보는 것이 좋았어요. 다시 예전처럼 남편을 위해서 즐겁게 가사를 하고 싶네요.
 남 편 : 저도 편해졌어요.

4) 상담의 전략

- ① 개인상담이론 중 인간중심상담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가족치료이론 중 경험적, 구조적, 해결중심적 모델을 적용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 ② 부부 간 의사소통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부부 대화법을 교육하였다.

5) 결과

- ① 남편은 부인의 마음을 느끼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고 인식하였다.
- ② 부인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가족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결심하였다.
- ③ 부부의 분리된 경계가 완화되어 소통이 시작되었으며 부부 상호 간에 이해가 증진되었다.

<사례 4>

1) 주 호소 문제

- ① 남편: 아내와의 대화가 자꾸 핵심을 벗어나고 예민한 아내의 반응이 힘들다.
- ② 아내: 남편에게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2) 상담의 목표

- ① 부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기 표현하기
- ② 가족 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족 문화 만들기

3) 상담과정

: 아래의 두 질문을 통해 부부 간의 대화방법 변화를 시도한다.

- ① 아내에게 **대화하는 말투**가 달라진다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 ② 남편의 **표현 방법**이 달라지면 무엇이 변화했다고 아내가 알 수 있을까?

4) 상담의 전략

- ① 개인상담이론과 가족치료이론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 ② 개인상담이론 중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모델로 접근하였다: 일치성과 수용과 공감
- ③ 내담자의 남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 ④ 내담자 아내가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불안감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 ⑤ 가족치료이론 중 다세대모델로 접근: 보웬의 '코칭'기법을 통하여 부부대화방법을 향상시켰다.

5) 결과

- ① 부부 간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도록 하여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 ② 아내는 남편의 노력으로 불안한 마음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 ③ 남편은 원가족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족과의 갈등이 감소하였다.
- ④ 부부 모두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상담시간에 약속하였다.

Ⅲ. 가족 유형별 대화 실태 분석

1. 부모 유형

부모 화법에 관한 설문은 대화 일반, 말하기, 듣기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대화 일반 영역은 대화 시간, 대화 매체, 대화 장면, 대화 주제, 대화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고, 말하기 영역은 대화와 신체 접촉, 대화 예절, 대화 내용, 대화 구도, 갈등 처리 방식 등으로, 듣기 영역은 듣는 정도, 반응보이기,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등 총 43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1.1. 대화 일반

대화 일반은 대화 시간 3문항, 대화 매체 2문항, 대화 장면 1문항, 대화 주제 1문항, 대화만족도 1문항 등 모두 9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1.1.1. 대화 시간

이 항목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1) 하루 평균 대화 시간

Q1. 나는 자녀들과 하루에 () 대화를 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단위: %)

		5분 미만	10분 정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전체		3.0	15.0	40.0	24.0	18.0
성별	남성	3.4	24.1	34.5	27.6	10.3
	여성	2.4	2.4	47.6	19.0	28.6
연령	30대 이하	0.0	0.0	38.5	30.8	30.8
	40대	3.3	16.7	43.3	23.3	13.3
	50대 이상	7.1	35.7	28.6	14.3	14.3
가족 행복도	불행함	40.0	0.0	40.0	20.0	0.0
	보통	3.2	25.8	35.5	29.0	6.5
	행복함	0.0	10.9	42.2	21.9	25.0

소득원	외벌이	2.2	10.9	52.2	17.4	17.4
	맞벌이	3.7	18.5	29.6	29.6	18.5
학력	고졸 이하	5.9	17.6	35.3	17.6	23.5
	대졸	1.4	12.3	43.8	24.7	17.8
	대학원 이상	10.0	30.0	20.0	30.0	1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3.0	12.1	39.4	30.3	15.2
	400~600만 원 미만	2.6	17.9	48.7	17.9	12.8
	600만 원 이상	3.6	14.3	28.6	25.0	28.6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40%)’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1시간 정도(24%)’, ‘1시간 이상(18%)’, ‘10분 정도(15%)’, ‘5분 미만(3%)’ 순으로 나타나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전체의 82%에 달하지만, 대화 시간이 ‘10분 미만’인 가정도 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로 같다. 다만 ‘30분 정도’ 대화한다고 응답한 아버지의 비율이 34.5%로 나타난 것에 비해, 어머니가 47.6%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오래 자녀와 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0분 미만’ 대화한다고 응답한 아버지가 27.5%로 나타난 것에 비해, 어머니는 4.8%에 그쳐 약 5.7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로 같은 데 비해, 50대 이상 부모는 ‘10분 정도’로 나타나 30~40대 부모에 비해 50대 부모의 대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0분 미만’ 대화한다고 응답한 30대 이하 부모가 0%, 40대 부모가 20.6%, 50대 이상 부모가 42.8% 순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의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와 상관없이 평균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로 같다. 다만 ‘10분 미만’ 대화하는 가정은 행복함(10.9%) < 보통(29%) < 불행함(40%) 순으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가정은 불행함(10.9%) < 보통(29%) < 행복함(46.9%) 순으로 나타나 자신의 가정이 불행하다고 생각할수록 대화 시간이 짧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수록 대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52.2%)’인 데 비해, 맞벌이 부모는 ‘30분 정도~1시간 정도(59.2%)’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외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나 대졸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로 같은 데 비해, 대학원 졸업 이상의 부모는 ‘10분 정도’로 나타나 대체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대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 시간이 ‘1시간 정도’ 이상인 사례(고졸 이하 41.1%, 대졸 42.5%, 대학원 이상 4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 부모나 400~600만 원 미만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인 데 비해, 소득이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0분 정도’와 ‘1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분 정도’ 대화한다고 응답한 400만 원 미만 부모의 비율이 54.5%, 400~600만 원 미만 부모의 비율이 69.2%, 600만 원 이상 부모의 비율이 46.5%로 나타나 **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 부모의 대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600만 원 이상 부모의 대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 시간이 ‘1시간 정도’ 이상인 사례(400만 원 미만 45.5%, 400~600만 원 미만 30.7%, 600만 원 이상 53.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50대 이상 부모가 ‘10분 정도’로 가장 짧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가 ‘1시간 이상’으로 평균보다 길었다. 이와 관련하여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부모들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나이가 적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맞벌이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 이상적인 대화 시간

Q2. 자녀와 () 대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단위: %)

		10분 정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전체		3.0	33.0	29.0	35.0
성별	남성	3.4	36.2	25.9	34.5
	여성	2.4	28.6	33.3	35.7
연령	30대 이하	0.0	15.4	34.6	50.0
	40대	5.0	35.0	28.3	31.7
	50대 이상	0.0	57.1	21.4	21.4
가족 행복도	불행함	20.0	20.0	40.0	20.0
	보통	0.0	38.7	29.0	32.3
	행복함	3.1	31.3	28.1	37.5
소득원	외벌이	4.3	26.1	34.8	34.8
	맞벌이	1.9	38.9	24.1	35.2
학력	고졸 이하	0.0	41.2	17.6	41.2
	대졸	4.1	30.1	31.5	34.2
	대학원 이상	0.0	40.0	30.0	3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6.1	27.3	33.3	33.3
	400~600만 원 미만	0.0	41.0	28.2	30.8
	600만 원 이상	3.6	28.6	25.0	42.9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1시간 이상(35%)'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30분 정도(33%)', '1시간 정도(29%)', '10분 정도(3%)' 순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36.2%)'로 나타난 데 비해,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1시간 이상(35.7%)'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69%가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이상' 대화하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는 60.4%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좀 더 오래 자녀와 대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 부모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인 데 비해, 30대 이하 부모는 '1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이하 부모의 84.6%, 40대 부모의 60%, 50대 이상 부모의 42.8%가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이상' 대화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나이가 적을수록 자녀와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인 데 비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1시간 정도'로,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1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적인 대화 시간을 '30분 정도'라고 응답한 가정은 행복함(34.4%) < 보통(38.7%) < 불행함(40%) 순으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정은 불행함(60%) < 보통(61.3%) < 행복함(65.6%) 순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일수록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 짧고,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월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1시간 정도'와 '1시간 이상'인 데 비해, 맞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가 맞벌이 부모에 비해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와 '1시간 이상'인 데 비해, 대졸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도 '1시간 이상',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로 나타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 다른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1시간 정도'와 '1시간 이상'으로, 600만 원 이상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1시간 이상', 400~600만 원 미만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로 나타나 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인 가족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 다른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 '30분 정도'인 사례(400만 원 미만 33.4%, 400~600만 원 미만 41%, 600만

원 이상 32.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가 '30분 정도'로 가장 짧고, 40~50대 부모와 맞벌이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 부모가 '30분 정도'로 평균보다 짧았다. 이와 관련하여 '1시간 이상' 대화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나이가 적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맞벌이일수록 하루 평균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3) 대화 시간 부족 요인

Q3. 나는 ()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다.

- ① 내 성격 ② 자녀의 성격 ③ 자녀와의 갈등 ④ 내 직장 업무
 ⑤ 자녀의 학업 ⑥ 기타 ()

(단위: %)

		내 직장업무	자녀의 학업	내 성격	자녀의 성격	자녀와 갈등	가사일
전체		40.0	28.0	14.0	8.0	6.0	2.0
성별	남성	58.6	22.4	12.1	3.4	1.7	0.0
	여성	14.3	35.7	16.7	14.3	11.9	4.8
연령	30대 이하	53.8	19.2	11.5	7.7	0.0	3.8
	40대	35.0	30.0	18.3	6.7	6.7	1.7
	50대 이상	35.7	35.7	0.0	14.3	14.3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0.0	20.0	20.0	0.0	40.0	20.0
	보통	29.0	41.9	12.9	9.7	3.2	3.2
	행복함	48.4	21.9	14.1	7.8	4.7	0.0
소득원	외벌이	34.8	28.3	21.7	6.5	2.2	4.3
	맞벌이	44.4	27.8	7.4	9.3	9.3	0.0
학력	고졸 이하	23.5	41.2	5.9	11.8	5.9	5.9
	대졸	42.5	23.3	16.4	8.2	6.8	1.4
	대학원 이상	50.0	40.0	10.0	0.0	0.0	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45.5	21.2	18.2	6.1	6.1	0.0
	400~600만 원 미만	33.3	38.5	5.1	12.8	5.1	5.1
	600만 원 이상	42.9	21.4	21.4	3.6	7.1	0.0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부족 요인 최빈치는 '내 직장 업무(40%)'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자녀의 학업(28%)', '내 성격(14%)', '자녀의 성격(8%)', '자녀와의 갈등(6%)', 가사일(2.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부족한 이유를 '자녀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부모는 6%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문제(내 직장 업무, 내 성격, 가사일)로 인식하는 부모의 비율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문제(자녀의 학업, 자녀의 성격)로 인식하는 부모도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부족 요인 최빈치는 '내 직장 업무(58.6%)'

로,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부족 원인 최빈치는 ‘자녀의 학업(35.7%)’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대화 부족 요인으로 ‘내 직장 업무’나 ‘자녀의 학업’ 때문이라고 응답한 아버지는 81%인 데 비해 어머니는 50%로 나타났고, ‘내 성격’이나 ‘자녀의 성격’ 때문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31%인 데 비해 아버지는 15.1%로 나타나 아버지는 외적인 조건(직장 업무나 학업)을, 어머니는 내적인 조건(성격)을 대화 부족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녀와의 갈등’이 대화 부족 원인이라고 응답한 아버지는 1.7%에 불과한 데 비해 어머니는 11.9%로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와 갈등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부족 요인 최빈치는 ‘내 직장 업무’로 동일한 데 비해, 50대 이상 부모는 ‘내 직장 업무’와 ‘자녀의 학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40대는 ‘자녀의 성격’보다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자녀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자녀와의 갈등’을 문제로 지적한 비율에서도 30대 이하 부모(0%) < 40대 부모(6.7%) < 50대 이상 부모(14.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의 대화 부족 요인 최빈치는 ‘자녀와의 갈등(40%)’으로,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자녀의 학업(41.9%)’으로,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내 직장 업무(48.4%)’로 나타났다. 대체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21.9%)’보다 ‘내 직장 업무(48.4%)’를, ‘자녀의 성격(7.8%)’보다 ‘내 성격(14.1%)’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화 부족의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부모일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나 맞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부족 요인 최빈치는 ‘내 직장 업무’로 같다. 다만 외벌이 부모는 ‘자녀의 성격(6.5%)’보다 ‘내 성격(21.7%)’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해, 맞벌이 부모는 ‘내 성격(7.4%)’보다 ‘자녀의 성격(9.3%)’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갈등’을 문제로 인식하는 비중도 외벌이 부모(2.2%)에 비해 맞벌이 부모(9.3%)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대화 갈등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부족 요인 최빈치는 ‘자녀의 학업(41.2%)’인 데 비해, 대졸 부모와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내 직장 업무’로 같다. 고졸 이하는 23.5%, 대졸은 42.5%, 대학원 졸업 이상은 50%가 ‘내 직장 업무’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내 직장 업무’와 ‘내 성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고졸 이하 부모는 29.4%인 데 비해, 대졸 부모는 58.9%, 대학원 이상 부모는 60%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격’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비율도 고졸 이하는 11.8%, 대졸은 8.2%, 대학원 이상은 0%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대화 시간이 부족한 원인을 자녀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 가정의 부모와 600만 원 이상 가정의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부족 요인 최빈치는 ‘내 직장 업무’로 같지만,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자녀의 학업’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400만 원 미만 부모와 600만 원 이상 부모는 ‘자녀의 성격’

보다 ‘내 성격’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반면,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내 성격’보다 ‘자녀의 성격’이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 가정의 부모는 다른 부모와 달리 ‘내 직장 업무’보다 ‘자녀의 학업’을 대화 부족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 부족 원인은 ‘내 직장 업무’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50대 이상 부모, 가정행복도가 보통인 부모, 고졸 이하의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자녀의 학업’을,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을 대화 시간 부족의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 자녀 간에 대화 시간이 부족한 원인을 외적인 조건(부모의 직장이나 자녀의 학업)으로 인식하는지 내적인 조건(부모와 자녀의 성격)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자신의 문제(내 직장 업무, 내 성격)로 인식하는지 자녀의 문제(자녀의 학업, 자녀의 성격)로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는 외적인 조건을, 어머니는 내적인 조건을 대화 부족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대화 부족의 원인을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부모일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1.1.2. 대화 매체

이 항목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주된 대화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매체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1) 주된 대화 수단

Q4. 나는 자녀들과 주로 () 대화한다.

- ① 말로
- ② 전화로
- ③ 문자·카톡·이메일로
- ④ 쪽지·편지로
- ⑤ 다른 사람을 통해

(단위: %)

		말로	문자·카톡·이메일로	전화로
전체		82.0	10.0	8.0
성별	남성	79.3	12.1	8.6
	여성	85.7	7.1	7.1
연령	30대 이하	88.5	7.7	3.8
	40대	78.3	11.7	10.0
	50대 이상	85.7	7.1	7.1
가족 행복도	불행함	80.0	0.0	20.0
	보통	80.6	6.5	12.9
	행복함	82.8	12.5	4.7
소득원	외벌이	89.1	8.7	2.2
	맞벌이	75.9	11.1	13.0

학력	고졸 이하	94.1	5.9	0.0
	대졸	82.2	8.2	9.6
	대학원 이상	60.0	30.0	1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87.9	6.1	6.1
	400~600만 원 미만	84.6	5.1	10.3
	600만 원 이상	71.4	21.4	7.1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수단 최빈치는 ‘대면대화(82%)’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문자·카톡·이메일(10%)’, ‘전화(8%)’ 순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기보다 자녀와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수단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같다. 다만 대면대화를 사용하는 아버지가 79.3%인 데 비해, 어머니는 85.7%로 나타나 아버지 **비해 어머니가 자녀와 대면대화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자·카톡·이메일을 사용하는 아버지가 12.1%인 데 비해, 어머니는 7.1%, 전화를 사용하는 아버지는 8.6%인 데 비해 어머니는 7.1%로 나타나 문자·카톡·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하는 비율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수단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같다. 다만 대면대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30대 이하(88.5%)가 가장 높고, 40대(78.3%)가 가장 낮게 나타나 30대 이하가 **대면대화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자·카톡·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하는 비율은 40대(21.7%)가 가장 높고, 30대 이하(11.5%)가 가장 낮게 나타나 40대가 **대면대화 이외의 매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수단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같다. 다만 대면대화를 사용하는 부모는 불행함(80%) < 보통(80.6%) < 행복함(82.8%) 순으로, 문자·카톡·이메일을 사용하는 부모는 불행함(0%) < 보통(6.5%) < 행복함(12.5%) 순으로, 전화를 사용하는 부모는 행복함(4.7%) < 보통(12.9%) < 불행함(20%) 순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대면대화와 문자·카톡·이메일의 사용 빈도가 높고,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전화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나 맞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수단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같다. 다만 대면대화를 사용하는 부모는 맞벌이(75.9%)에 비해 외벌이(89.1%)가, 문자·카톡·이메일을 사용하는 부모는 외벌이(8.7%)에 비해 맞벌이(11.1%)가, 전화를 사용하는 부모는 외벌이(2.2%)에 비해 맞벌이(1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수단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같다. 다만 고졸 이하 부모는 94.1%, 대졸 부모는 82.2%,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60%가 대면대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대면대화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문자·카톡·이메일을 사용하는 비중은 고졸 이하(5.9%) < 대졸(8.2%) <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 편한 매체의 최빈치는 '대면대화(76%)'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문자·카톡·이메일(17%), 전화(4%), 다른 사람을 통해서(2%) 쪽지·편지(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와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 편한 매체의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같다. 다만 대면대화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자·카톡·이메일을 선호하는 것은 아버지로, 전화와 쪽지·편지를 선호하는 것은 어머니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 편한 매체는 '대면대화'가 최빈치로 나타났다. 다만 대면대화를 선호하는 것은 50대 이상이 71.4%, 40대가 73.3%, 30대 이하가 84.6%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젊을수록 대면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대면 매체로 문자·카톡·이메일을 선호하는 것은 30대 이하가 7.7%, 50대 이상이 14.3%, 40대가 21.7% 순으로, 전화를 선호하는 것은 40대가 1.7%, 50대 이상은 7.1%, 30대 이하가 7.7% 순으로, 다른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30대 이하가 0%, 40대가 1.7%, 50대 이상이 7.1%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매체 중에 30대 이하는 전화를, 40대는 문자·카톡·이메일을, 50대 이상은 다른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 놓기 편한 매체의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같다. 다만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의 6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의 64.5%,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의 82.8%가 대면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대면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의 15.6%,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의 16.1%,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의 40%가 문자·카톡·이메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문자·카톡·이메일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나 맞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 놓기 편한 매체의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같다. 다만 맞벌이 부모 68.5%에 비해 외벌이 부모 84.8%가 대면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가 대면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자·카톡·이메일이나 전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쪽지·편지 등의 비대면 매체는 맞벌이 부모가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 놓기 편한 매체의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같다. 다만 대면대화는 대졸 부모가 79.5%, 문자·카톡·이메일은 고졸 이하 부모가 23.5%,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졸 이하 부모가 11.8%, 전화는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10%로 다른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 놓기 편한 매체의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같다. 다만 대면대화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600만 원 이상 부모가 71.4%, 400~600만 원 미만 부모가 76.9%, 400만 원 미만 부모가 78.8%로 나타나 소득이 적을수록 직접적인 대면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자·카톡·이메일과

쪽지·편지는 600만 원 이상 부모가, 전화는 400~600만 원 미만 부모가, 다른 사람을 통한 방법은 400만 원 미만 부모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편한 대화 수단으로는 ‘대면대화’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를 비롯하여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외벌이 부모, 대졸 부모,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의 부모는 대면대화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속마음을 털어놓기 편한 매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는 대면대화과 문자·카톡·이메일을 선호하고, 어머니는 대면대화과 전화, 쪽지·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나이가 젊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대면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1.1.3. 대화 장면

이 항목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대화 장면을 조사하였다.

Q6. 나는 자녀들과 주로 () 대화를 나눈다.

- ① 밥을 먹으면서 ② TV를 보면서 ③ 잠들기 전에 ④ 휴일에
- ⑤ 수시로 ⑥ 기타()

(단위: %)

		수시로	밥을 먹으며	TV를 보면서	휴일에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으면서	가사일을 하면서
전체		44.0	34.0	12.0	7.0	1.0	1.0	1.0
성별	남성	41.4	29.3	13.8	12.1	1.7	1.7	0.0
	여성	47.6	40.5	9.5	0.0	0.0	0.0	2.4
연령	30대 이하	53.8	23.1	15.4	0.0	3.8	0.0	3.8
	40대	43.3	38.3	11.7	5.0	0.0	1.7	0.0
	50대 이상	28.6	35.7	7.1	28.6	0.0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40.0	40.0	0.0	0.0	0.0	0.0	20.0
	보통	38.7	38.7	6.5	12.9	3.2	0.0	0.0
	행복함	46.9	31.3	15.6	4.7	0.0	1.6	0.0
소득원	외벌이	60.9	23.9	8.7	2.2	2.2	0.0	2.2
	맞벌이	29.6	42.6	14.8	11.1	0.0	1.9	0.0
학력	고졸 이하	47.1	29.4	5.9	11.8	0.0	0.0	5.9
	대졸	42.5	35.6	13.7	5.5	1.4	1.4	0.0
	대학원 이상	50.0	30.0	10.0	10.0	0.0	0.0	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42.4	27.3	15.2	9.1	3.0	3.0	0.0
	400~600만 원 미만	35.9	41.0	10.3	10.3	0.0	0.0	2.6
	600만 원 이상	57.1	32.1	10.7	0.0	0.0	0.0	0.0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수시로(44%)’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밥을 먹으면서(34%)’, ‘TV를 보면서(12%)’, ‘휴일에(7%)’ 순으로 나타나 식사 시간에 대화를 하는 가정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장면 최빈치는 ‘수시로(44%)’로 같다. 다만 어머니는 ‘수시로(47.6%)’와 ‘밥을 먹으면서(40.5%)’, ‘(눈을 맞추지 않고) 가사일을 하면서(2.4%)’에서 아버지에 비해 비율이 더 높고, 아버지는 ‘TV를 보면서(13.8%)’와 ‘휴일에(12.1%)’, ‘잠들기 전에(1.7%)’, ‘야식을 먹으면서(1.7%)’에서 어머니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어머니는 ‘수시로’ 대화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데 반해 아버지는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대화하거나 ‘휴일에’ 대화하는 것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장면 최빈치는 ‘수시로(44%)’로 같다. 이에 비해 50대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장면 최빈치는 ‘밥을 먹으면서’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수시로(53.8%)’와 ‘TV를 보면서(15.4%)’, ‘휴일에(3.8%)’에서, 40대는 ‘밥을 먹으면서(38.3%)’에서, 50대 이상은 ‘휴일에(28.6%)’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나이가 젊을수록 ‘수시로’, ‘TV를 보면서’, ‘잠들기 전에’ 대화하는 비율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휴일에’ 대화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나 보통인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장면 최빈치는 ‘수시로’와 ‘밥을 먹으면서’로 같다. 이에 비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장면 최빈치는 ‘수시로’로 나타났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비율은 행복함(31.3%) > 보통(38.7%) > 불행함(40%) 순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TV를 보면서’ 대화하는 비율은 불행함(0%) > 보통(6.5%) > 행복함(15.6%) 순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TV를 보면서 대화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장면 최빈치는 ‘수시로(60.9%)’로, 맞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장면 최빈치는 ‘밥을 먹으면서(42.6%)’로 나타났다. ‘수시로’ 대화하는 비율은 외벌이 부모(60.9%)가 맞벌이 부모(29.6%)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비율은 맞벌이 부모(42.6%)가 외벌이 부모(23.9%)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V를 보면서 대화하는 비율도 맞벌이 부모(14.8%)가 외벌이 부모(8.7%)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에’ 대화하는 비율도 맞벌이 부모(11.1%)가 외벌이 부모(2.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장면 최빈치는 ‘수시로’로 나타났다. ‘수시로’ 대화하는 비율은 대학원 이상이 50%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비율은 대졸이 35.6%로, ‘TV를 보면서’ 대화하는 비율은 대졸이 13.7%로, ‘휴일에’ 대화하는 비율은 고졸 이하가 11.8%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 가정의 부모와 600만 원 이상 가정의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장면 최빈치는 ‘수시로’로 나타났지만, 400~600만 원 미만 가정의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주된 대화 장면 최빈치는 ‘밥을 먹으면서’로 나타났다. ‘수시로’ 대화하는 비율은 600만 원 이상이 57.1%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비율은 400~600만 원 미만이 41%

로, 'TV를 보면서' 대화하는 비율은 400만 원 미만이 15.2%, '휴일에' 대화하는 비율은 400~600만 원 미만이 10.3%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의 주된 대화 장면은 '수시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는 '수시로' 대화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데 반해 아버지는 '수시로' 대화하거나 'TV를 보면서', '휴일에'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나이가 젊을수록 '수시로' 대화하는 비율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휴일에'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1.1.4. 대화 주제

이 항목에서는 자녀 중심의 대화와 부모 중심의 대화로 나누어 부모와 자녀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는지 조사하였다.

1) 주된 대화 주제

Q7. 나는 자녀들과 주로 ()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① 자녀의 장래 희망 ② 자녀의 성적 ③ 자녀의 친구 ④ 자녀의 학교생활
 ⑤ 뉴스와 사건 ⑥ 기타()

(단위: %)

		자녀의 학교생활	자녀의 장래희망	자녀의 친구	뉴스와 사건	자녀의 성적	생활전반
전체		67.0	13.0	6.0	6.0	4.0	4.0
성별	남성	69.0	15.5	1.7	8.6	1.7	3.4
	여성	64.3	9.5	11.9	2.4	7.1	4.8
연령	30대 이하	73.1	15.4	7.7	0.0	0.0	3.8
	40대	66.7	10.0	6.7	5.0	6.7	5.0
	50대 이상	57.1	21.4	0.0	21.4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20.0	20.0	20.0	0.0	20.0	20.0
	보통	71.0	12.9	6.5	3.2	3.2	3.2
	행복함	68.8	12.5	4.7	7.8	3.1	3.1
소득원	외벌이	69.6	13.0	6.5	2.2	4.3	4.3
	맞벌이	64.8	13.0	5.6	9.3	3.7	3.7
학력	고졸 이하	76.5	11.8	5.9	5.9	0.0	0.0
	대졸	65.8	12.3	6.8	6.8	4.1	4.1
	대학원 이상	60.0	20.0	0.0	0.0	10.0	1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75.8	6.1	9.1	6.1	0.0	3.0
	400~600만 원 미만	61.5	17.9	7.7	2.6	5.1	5.1
	600만 원 이상	64.3	14.3	0.0	10.7	7.1	3.6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자녀의 학교생활(67%)'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자녀의 장래희망(13%)', '자녀의 친구(6%)', '뉴스와 사건(6%)', '자녀의 성적(4%)' 순으로 나타나 부모는 주로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장래희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 중심의 대화 주제 최빈치는 ‘자녀의 학교생활’로 같다. ‘자녀의 학교생활’은 어머니(64.3%)보다 아버지(69%)가, ‘자녀의 장래희망’은 어머니(9.5%)보다 아버지(15.5%)가, ‘뉴스와 사건’은 어머니(2.4%)보다 아버지(8.6%)가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친구’는 아버지(1.7%)보다 어머니(11.9%)가, ‘자녀의 성적’은 아버지(1.7%)보다 어머니(7.1%)가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자녀의 장래희망’에 대해, 어머니는 ‘자녀의 친구’와 ‘자녀의 성적’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 중심의 대화 주제 최빈치는 ‘자녀의 학교생활’로 같다. 50대 이상은 57.1%, 40대는 66.7%, 30대 이하는 73.1%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이상은 0%, 40대는 6.7%, 30대 이하는 7.7%가 ‘자녀의 친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과 ‘자녀의 친구’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 중심의 대화 주제 최빈치는 ‘자녀의 학교생활’로 같다. 다만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친구’와 ‘자녀의 성적’, ‘자녀의 장래희망’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뉴스와 사건’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의 학교생활’은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가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나 맞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 중심의 대화 주제 최빈치는 ‘자녀의 학교생활’로 같다. ‘자녀의 학교생활’은 맞벌이 부모(64.8%)보다 외벌이 부모(69.6%)가, ‘자녀의 친구’도 맞벌이 부모(5.6%)보다 외벌이 부모(6.5%)가, ‘자녀의 성적’도 맞벌이 부모(3.7%)보다 외벌이 부모(4.3%)가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와 사건’은 외벌이 부모(2.2%)보다 맞벌이 부모(9.3%)가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 중심의 대화 주제 최빈치는 ‘자녀의 학교생활’로 같다. ‘자녀의 학교생활’은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60%, 대졸 부모가 65.8%, 고졸 이하 부모가 76.5%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자녀의 장래희망’은 고졸 이하 부모가 11.8%, 대졸 부모가 12.3%,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20%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장래희망’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성적’은 고졸 이하 부모가 0%, 대졸 부모가 4.1%,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10%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 중심의 대화 주제 최빈치는 ‘자녀의 학교생활’로 같다. 다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자녀의 친구’에 관심이 더 많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뉴스와 사건’이나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의 주된 대화 주제로 ‘자녀의 학교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자녀의 장래희망’에 대해, 어머니는 ‘자녀의 친구’와 ‘자녀의 성적’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외벌이일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2) 대화 수준

Q8. 나는 자녀들과 주로 ()을 이야기한다.

- ① 상투적인 말 ② 다른 사람 이야기 ③ 내 생각이나 고민 ④ 내 진심과 필요
⑤ 기타()

(단위: %)

		내 진심과 필요	내 느낌이나 기분	내 생각이나 고민	상투적인 말	다른 사람 이야기	자녀의 진로
전체		37.0	24.0	19.0	15.0	4.0	1.0
성별	남성	43.1	15.5	20.7	15.5	5.2	0.0
	여성	28.6	35.7	16.7	14.3	2.4	2.4
연령	30대 이하	38.5	34.6	19.2	3.8	3.8	0.0
	40대	40.0	23.3	16.7	13.3	5.0	1.7
	50대 이상	21.4	7.1	28.6	42.9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0.0	20.0	60.0	20.0	0.0	0.0
	보통	41.9	16.1	9.7	25.8	3.2	3.2
	행복함	37.5	28.1	20.3	9.4	4.7	0.0
소득원	외벌이	37.0	28.3	8.7	19.6	6.5	0.0
	맞벌이	37.0	20.4	27.8	11.1	1.9	1.9
학력	고졸 이하	23.5	11.8	23.5	29.4	5.9	5.9
	대졸	41.1	26.0	17.8	12.3	2.7	0.0
	대학원 이상	30.0	30.0	20.0	10.0	10.0	0.0
가구 소득	400만 원 미만	42.4	21.2	21.2	12.1	3.0	0.0
	400~600만 원 미만	33.3	25.6	15.4	17.9	7.7	0.0
	600만 원 이상	35.7	25.0	21.4	14.3	0.0	3.6

대화 수준은 Powell(1969)에서 제시한 대화의 5단계(five levels of communication)를 활용한 분석인데, 5단계는 상투적인 말만 하는 단계이고, 4단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 단계, 3단계는 내 생각이나 판단을 이야기하는 단계, 2단계는 내 감정 즉 느낌이나 기분을 이야기하는 단계로 여기까지 이르면 좋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1단계는 진심과 필요를 이야기하는 단계로 최상의 단계로 평가한다.

부모가 응답한 대화 수준 최빈치는 ‘내 진심과 필요(37%)’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내 느낌이나 기분(24%)’, ‘내 생각이나 고민(19%)’, ‘상투적인 말(15%)’, ‘다른 사람 이야기(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응답한 대화 수준 최빈치는 ‘내 진심과 필요(43.1%)’로, 어머니가 응답한 대화 수준 최빈치는 ‘내 느낌이나 기분(35.7%)’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내 진심과 필요(43.1%)’, ‘내 생각이나 고민(20.7%)’, ‘상투적인 말(15.5%)’, ‘다른 사람 이야기(5.2%)’에, 어머니는 ‘내 느낌이나 기분(35.7%)’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는 이성적인 문제에, 어머니는 감성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가 응답한 대화 수준 최빈치는 ‘내 진심과 필요(43.1%)’로, 50대 이상이 응답한 대화 수준 최빈치는 ‘상투적인 말(42.9%)’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부모의 7.1%, 40대 부모의 23.3%, 30대 이하 부모의 34.6%가 ‘내 느낌이나 기분’에, 30대 이하 부모의 3.8%, 40대 부모의 13.3%, 50대 이상 부모의 42.9%가 ‘상투적인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젊을수록 ‘내 느낌이나 기분’을, 나이가 많을수록 ‘상투적인 말’을 대화 주제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응답한 대화 수준 최빈치는 ‘내 생각이나 고민(60%)’으로,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나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가 사용하는 대화 수준 최빈치는 ‘내 진심과 필요(43.1%)’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가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나 맞벌이 부모가 응답한 대화 수준 최빈치는 ‘내 진심과 필요(37%)’로 같다. 그런데 ‘내 느낌이나 기분’은 맞벌이 부모(20.4%)보다 외벌이 부모(28.3%)가, ‘상투적인 말’도 맞벌이 부모(11.1%)보다 외벌이 부모(19.6%)가, ‘다른 사람 이야기’도 맞벌이 부모(1.9%)보다 외벌이 부모(6.5%)가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 생각이나 고민’은 외벌이 부모(8.7%)보다 맞벌이 부모(27.8%)가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가 응답한 대화 수준 최빈치는 ‘상투적인 말’로, 대졸 부모나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사용하는 대화 수준 최빈치는 ‘내 진심과 필요’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상투적인 말’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내 느낌이나 기분’은 고졸 이하가 11.8%, 대졸이 17.8%, 대학원 이상이 30%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내 느낌이나 기분’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대화 수준 최빈치는 ‘내 진심과 필요’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33.3%,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5.7%, 400만 원 미만 부모는 42.4%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내 진심과 필요’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수준으로 ‘내 진심과 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는 이성적인 문제에, 어머니는 감성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맞벌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내 생각이나 고민’에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다.

1.1.5. 대화만족도

이 항목에서는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리커드(Likeret Scales) 5점 척도방식으로 계산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였다.

1) 대화만족도

Q9. 나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38	3.36	3.81	3.22	3.21	2.00	2.97	3.67	3.37	3.37	2.76	3.51	3.40	3.58	3.23	3.32	3.37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37(59.3%)로 나타나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가 40%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38(59.5%)로 어머니 3.36(58.9%)에 비해 대화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와의 대화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21(55.4%), 40대 부모는 3.22(55.4%), 30대 이하 부모는 3.81(70.2%)로 나타나 **나이가 젊을수록 대화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2.00(25%),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2.97(49.2%),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67(66.8%)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대화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37(59.2%), 맞벌이 부모는 3.37(59.3%)로 나타나 둘 사이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2.76(44.1%),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40(60%), 대졸 부모는 3.51(62.7%)로 나타나 **대졸 이상 부모의 대화만족도가 고졸 부모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3.23(55.8%),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32(58%), 400만 원 미만 부모는 3.58(64.4%)로 나타나 **소득이 대화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와의 대화만족도는 59.3%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 30대 이하 부모, 행복도가 높은 가정의 부모, 대졸 부모,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대화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 대화 불만족 요인

Q10. 내가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이다.

- ① 대화 시간 ② 대화 내용 ③ 짜증 섞인 말투 ④ 화를 내는 태도 ⑤ 무시하는 태도
 ⑦ 대화 장소 ⑧ 기타()

(단위: %)

		짜증 섞인 말투	대화 시간	대화 내용	화를 내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	진심이 없는 태도	고집부리는 태도
전체		37.0	19.0	18.0	13.0	9.0	1.0	1.0
성별	남성	32.8	25.9	17.2	12.1	6.9	1.7	1.7
	여성	42.9	9.5	19.0	14.3	11.9	0.0	0.0
연령	30대 이하	34.6	15.4	11.5	19.2	11.5	0.0	3.8
	40대	40.0	18.3	20.0	10.0	8.3	1.7	0.0
	50대 이상	28.6	28.6	21.4	14.3	7.1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40.0	20.0	0.0	20.0	20.0	0.0	0.0
	보통	35.5	6.5	29.0	9.7	16.1	0.0	3.2
	행복함	37.5	25.0	14.1	14.1	4.7	1.6	0.0
소득월	외벌이	37.0	10.9	17.4	15.2	13.0	0.0	2.2
	맞벌이	37.0	25.9	18.5	11.1	5.6	1.9	0.0
학력	고졸 이하	35.3	5.9	35.3	11.8	11.8	0.0	0.0
	대졸	35.6	20.5	15.1	15.1	8.2	1.4	1.4
	대학원 이상	50.0	30.0	10.0	0.0	10.0	0.0	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27.3	21.2	18.2	18.2	9.1	0.0	3.0
	400~600만 원 미만	43.6	12.8	23.1	10.3	10.3	0.0	0.0
	600만 원 이상	39.3	25.0	10.7	10.7	7.1	3.6	0.0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짜증 섞인 말투(37%)’가 최빈치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대화 시간(19%)’, ‘대화 내용(18%)’, ‘화를 내는 태도(13%)’, ‘무시하는 태도(9%)’ 순으로 나타나 말투와 태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불만족 요인 최빈치는 ‘짜증 섞인 말투’로 같다. 다만 이를 불만족 요인이라고 응답한 아버지의 비율이 32.8%인 데 비해, 어머니가 42.9%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의 짜증 섞인 말투에 더 불만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짜증을 부리는 횟수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화 시간’에서는 어머니(9.5%)보다 아버지(25.9%)가 더 크게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말투와 태도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 대화 불만족 요인 최빈치는 ‘짜증 섞인 말투’로 같다. 다만 이를 불만족 요인이라고 응답한 50대 이상 부모가 28.6%, 30대 이하 부모가 34.6%인 데 비해, 40대 부모는 40%로 나타나 짜증 섞인 말투에 40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화를 내는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무시하는 태도’에서는 50대 이상이 7.1%, 40대가 8.3%, 30대 이하가 11.5%로 나타나 나이

가 젊을수록 ‘무시하는 태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대화 시간’과 ‘대화 내용’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짜증 섞인 말투’는 50대 이상이 28.6%, 30대 이하가 34.6%, 40대가 40% 순으로 나타나 40대가 말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불만족 요인 최빈치는 ‘짜증 섞인 말투’로 나타났다. ‘짜증 섞인 말투’에 대해서는 가족 행복도가 낮은 가정의 부모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를 내는 태도’와 ‘무시하는 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화 내용’에서는 보통 가정의 부모가, ‘대화 시간’에서는 행복한 가정의 부모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나 맞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불만족 요인 최빈치는 ‘짜증 섞인 말투’로 같다. 다만 ‘대화 시간’과 ‘대화 내용’은 맞벌이 부모가, ‘화를 내는 태도’와 ‘무시하는 태도’는 외벌이 부모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불만족 요인 최빈치는 ‘짜증 섞인 말투’로 같다. 다만 고졸 이하 부모가 35.3%, 대졸 부모가 35.6%,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50%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짜증 섞인 말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화 시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반해 ‘대화 내용’은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10%, 대졸 부모가 15.1%, 고졸 이하 부모가 35.3%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대화 내용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 불만족 요인 최빈치는 ‘짜증 섞인 말투’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00만 원 미만의 부모는 ‘대화 시간(21.2%)’, 400~600만원 미만의 부모는 ‘대화 내용(23.1%)’, 600만 원 이상 부모는 ‘대화 시간(25.0%)’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짜증 섞인 말투(37.0%)’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대화 시간(19.0%)’, ‘대화 내용(18.0%)’, ‘화를 내는 태도(13.0%)’, ‘무시하는 태도(9.0%)’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말투와 태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0대 이상 부모는 ‘대화 시간’을, 고졸 이하 부모는 ‘대화 내용’을 만족스럽지 못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어머니는 ‘대화 내용’과 비언어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대화 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1.2. 말하기

말하기는 대화 예절 10문항, 대화 내용 10문항, 대화 구도 2문항, 갈등 처리 6문항으로 세분하여 구성하였다.

1.2.1. 대화 예절

이 항목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직설적으로 말하기, 비평이나 지적하기, 인사하기, 존댓말 사용하기,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기 등의 기본적인 대화 예절을 조사하였다.

1) 정중어법

Q11. 나는 자녀와 대화할 때 생각나는 대로 직설적으로 말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07	3.33	3.12	3.25	3.00	3.60	3.29	3.09	3.28	3.09	3.29	3.22	2.70	3.18	3.18	3.18	3.18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직설적인 말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18(54.5%)로 나타나 **자녀와 대화할 때 직설적으로 말하는 부모가 둘에 한 명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는 3.33(58.3%)으로 아버지 3.07(51.7%)에 비해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00(50%), 30대 이하 부모는 3.12(52.9%), 40대 부모는 3.25(56.3%)로 나타나 **40대 부모가 자녀에게 더 자주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09(52.3%), 가족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29(57.3%),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60(65%)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자녀에게 더 자주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28(57.1%), 맞벌이 부모는 3.09(52.3%)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가 자녀에게 더 자주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70(42.5%), 대졸 부모는 3.22(55.5%), 고졸 이하 부모는 3.29(57.4%)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부모가 자녀에게 더 자주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00만 원 미만 부모는 3.18(54.5%),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3.18(54.5%),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18(54.5%)로 나타나 이들 사이의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와 대화할 때 직설적인 말을 사용하는 부모가 54.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외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가 자녀에게 직설적인 말하기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2) 비평이나 지적

2-1) 부모가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정도

Q12.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93	3.33	2.85	3.27	2.86	3.60	3.42	2.91	3.24	2.98	3.29	3.08	2.90	3.06	3.10	3.14	3.10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10(52.5%)으로 나타나 **자녀에게 비평이나 지적의 말을 하는 부모가 50%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는 3.33(58.3%)으로 아버지 2.93(48.3%)에 비해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하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부모가 2.85(46.2%), 50대 이상 부모가 2.86(46.4%), 40대 부모가 3.27(56.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40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91(47.7%),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42(60.5%),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60(65%)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24(56%), 맞벌이 부모는 2.98(49.5%)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보다 **외벌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90(47.5%), 대졸 부모는 3.08(52.1%), 고졸 이하 부모는 3.29(57.4%)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00만 원 미만 부모는 3.06(51.5%),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3.10(52.65%),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14(53.6%)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에게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부모가 5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외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에게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2-2) 자녀가 비평이나 지적을 받아들이는 정도

Q13. 자녀들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36	3.43	3.15	3.53	3.21	3.80	3.42	3.34	3.30	3.46	3.82	3.34	3.00	3.03	3.51	3.64	3.39

부모가 응답한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39(59.8%)로 나타나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6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는 3.43(60.7%), 아버지 3.36(59.1%)으로 나타나 부모는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부모가 3.15(53.8%), 50대 이상 부모가 3.21(55.4%), 40대 부모가 3.53(63.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40대 부모가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34(58.6%),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42(60.5%),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80(70%)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30(57.6%), 맞벌이 부모는 3.46(61.6%)으로 나타나 외

별이 부모보다 맞별이 부모가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00(50%), 대졸 부모는 3.34(58.6%), 고졸 이하 부모는 3.82(70.6%)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부모가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00만 원 미만 부모는 3.03(50.8%),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3.51(62.8%),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64(66.1%)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은 부모가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59.8%가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맞별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는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하는 말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체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들이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을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3) 인사하기

Q14. 우리 가족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별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83	3.93	4.00	3.80	3.93	3.60	3.58	4.03	3.78	3.94	4.00	3.88	3.60	3.91	3.82	3.89	3.87

부모가 응답한 가족 간의 인사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87(71.8%)로 나타나 가족 간의 인사하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는 3.93(73.2%)으로 아버지 3.83(70.7%)에 비해 가족 간의 인사하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가족 간의 인사하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부모는 3.80(70%), 50대 이상 부모는 3.93(73.2%), 30대 이하 부모가 4.00(75%)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30대 이하 부모가 가족 간의 인사하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가 3.58(64.5%),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3.60(65%),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가 4.03(75.8%) 순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

모의 가정에서 인사하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78(69.6%), 맞벌이 부모는 3.94(73.6%)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보다 맞벌이 가정에서 가족 간의 인사하기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3.60(65%), 대졸 부모가 3.88(71.9%), 고졸 이하 부모가 4.00(75%)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부모가 가족 간의 인사하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00~600만 원 미만 가족은 3.82(70.5%), 600만 원 이상이 3.89(72.3%), 400만 원 미만이 3.91(72.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400만 원 미만의 부모가 가족 간의 인사하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71.8%가 자신의 가족은 인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맞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의 부모는 가족 간에 인사를 잘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 간의 인사하기를 잘 하는 경향이 있다.

4) 존중하는 말

Q15. 나는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자녀들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22	2.98	3.15	3.07	3.29	3.20	3.10	3.13	3.07	3.17	2.94	3.11	3.50	3.06	3.00	3.36	3.12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12(53%)로 나타나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지 않는 부모가 50%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22(55.6%)로 어머니 2.98(49.4%)에 비해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하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하기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29(57.1%), 40대 부모는 3.07(51.7%), 30대 이하 부모는 3.15(53.8%)로 나타나 30대 이하의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하기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10(52.4%),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13(53.1%),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20(55%)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하기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07(51.6%), 맞벌이 부모는 3.17(54.2%)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보다 **맞벌이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하기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2.94(48.5%), 대졸 부모는 3.11(52.7%),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50(62.5%)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하기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3.00(50%), 400만 원 미만 부모는 3.06(51.5%),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36(58.9%)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600만 원 이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존중하는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을 하지 않는 부모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 50대 이상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는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존중하는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5) 존댓말 사용

Q16. 자녀들은 나와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14	2.24	2.69	2.67	3.29	2.80	2.65	2.81	2.50	2.98	2.94	2.73	2.70	2.70	2.64	3.00	2.76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존댓말 사용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2.76(44%)으로 나타나 부모와 대화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는 자녀가 40%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14(53.4%)로 어머니 2.24(31%)에 비해 자녀의 존댓말 사용하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부모는 2.67(41.7%), 30대 이하 부모는 2.69(42.3%), 50대 이상 부모는 3.29(57.1%)로 나타나 **자녀들이 50대 이상 부모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2.65(41.1%),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2.80(45%),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81(45.3%)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에게 자녀들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2.50(37.5%), 맞벌이 부모는 2.98(49.5%)로 나타나 **자녀**

들이 외벌이 부모보다 맞벌이 부모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70(42.5%), 대졸 부모는 2.73(43.2%), 고졸 이하 부모는 2.94(48.5%)로 나타나 자녀들이 학력이 높은 부모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2.64(41%), 400만 원 미만 부모는 2.70(42.4%),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00(50%)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와 대화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자녀가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 50대 이상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맞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인 가정의 자녀들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6-1) 부모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

Q17. 나는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1.76	2.31	1.65	2.17	1.86	2.00	2.26	1.86	1.93	2.04	1.88	2.07	1.60	1.79	2.26	1.86	1.99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1.99(24.8%)로 나타나 자녀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부모가 25%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1.76(19%)으로 어머니 2.31(32.7%)에 비해 비율이 낮게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부모는 1.65(16.3%), 50대 이상 부모는 1.86(21.4%), 40대 부모는 2.17(29.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40대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1.86(21.5%),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00(25%),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1.5(31.5%)로 나타나 스스로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1.93(23.4%), 맞벌이 부모는 2.04(25.9%)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에 비해 맞벌이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1.60(15%), 고졸 이하 부모는 1.88(22.1%), 대졸 부모는 2.07(26.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졸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 부모는 1.79(19.7%), 600만 원 이상 부모는 1.86(21.4%),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2.26(31.4%)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400~600만 원 이상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부모가 2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 맞벌이 부모, 대졸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미만 부모는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좀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6-2) 부모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Q17-1. 내가 자녀들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

- ① 습관이다 ② 친하기 때문이다 ③ 무시하기 때문이다 ④ 재미 때문이다
 ⑤ 화가 나서이다 ⑥ 기타()

(단위: %)

		화가 나서이다	습관이다	재미 때문이다	친하기 때문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체		35.7	28.6	17.9	10.7	3.6	3.6
성별	남성	20.0	10.0	40.0	10.0	10.0	10.0
	여성	44.4	38.9	5.6	11.1	0.0	0.0
연령	30대 이하	40.0	0.0	40.0	20.0	0.0	0.0
	40대	36.8	36.8	15.8	5.3	0.0	5.3
	50대 이상	25.0	25.0	0.0	25.0	25.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100.0	0.0	0.0	0.0	0.0	0.0
	보통	30.8	23.1	23.1	15.4	7.7	0.0
	행복함	35.7	35.7	14.3	7.1	0.0	7.1
소득원	외벌이	38.5	23.1	15.4	23.1	0.0	0.0
	맞벌이	33.3	33.3	20.0	0.0	6.7	6.7
학력	고졸 이하	40.0	20.0	0.0	20.0	20.0	0.0
	대졸	36.4	27.3	22.7	9.1	0.0	4.5
	대학원 이상	0.0	100.0	0.0	0.0	0.0	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50.0	16.7	0.0	33.3	0.0	0.0
	400~600만 원 미만	37.5	31.3	18.8	6.3	6.3	0.0
	600만 원 이상	16.7	33.3	33.3	0.0	0.0	16.7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의 최빈치는 ‘화가 나서이다(35.7%)’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습관이다(28.6%)’, ‘재미 때문이다(17.9%)’, ‘친하기 때문이다(10.7%)’, ‘무시하기 때문이다(3.6%)’ 순으로 나타나 주로 화가 나서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만,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응답한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의 최빈치는 ‘재미 때문이다(40%)’로,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의 최빈치는 ‘화가 나서이다(44.4%)’로 나타나 아버지는 재미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만, 어머니는 화가 나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의 최빈치는 ‘화가 나서이다’로 같다. 다만 50대 이상 부모가 25%, 40대 부모가 36.8%, 30대 이하 부모는 40%로 나타나 부모의 나이가 어릴수록 화가 나면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재미 때문이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부모의 나이가 어릴수록 욕설이나 비속어를 일종의 유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의 최빈치는 ‘화가 나서이다’로 같다. 다만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습관처럼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데 비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화가 나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나 맞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의 최빈치는 ‘화가 나서이다’로 같다. 다만 외벌이 부모는 ‘화가 나서이다’와 ‘친하기 때문’으로, 맞벌이 부모는 ‘습관이다’와 ‘재미 때문이다’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0%, 대졸 부모가 36.4%, 고졸 이하 부모가 40%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화가 나면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00만 원 미만의 부모나 400~600만 원 미만의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의 최빈치는 ‘화가 나서이다’로 같고, 600만 원 이상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의 최빈치는 ‘습관이다’와 ‘재미 때문이다’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화가 나서이다(35.7%)’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습관이다(28.6%)’, ‘재미 때문이다(17.9%)’, ‘친하기 때문이다(10.7%)’, ‘무시하기 때문이다(3.6%)’ 순으로 나타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나 재미, 친밀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아버지와 30대 이하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는 ‘재미 때문이다’를, 40~50대 이상 부모와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는 ‘습관이다’를, 50대 이상 부

모는 '친하기 때문이다'를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대체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화가 나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6-3) 자녀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

Q18. 자녀들은 나와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1.64	2.10	1.62	1.97	1.64	2.40	1.84	1.78	1.87	1.80	1.59	1.92	1.60	1.85	1.90	1.71	1.83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1.99(24.8%)로 나타나 부모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자녀가 2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1.76으로 어머니 2.31에 비해 자녀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부모는 1.65, 50대 이상 부모는 1.86, 40대 부모는 2.17로 나타나 40대 부모가 자녀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1.86,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2.0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2.26으로 나타나 자녀들이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1.93, 맞벌이 부모는 2.04로 나타나 자녀들이 맞벌이 부모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1.60, 고졸 이하 부모는 1.88, 대졸 부모 2.07로 나타나 자녀들이 대졸 부모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1.79,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1.86,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26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자녀가 2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외벌이 부모, 대졸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의 부모에게 자녀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자녀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Q18-1. 내가 자녀들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

- ① 습관이다. ② 친하기 때문이다 ③ 무시하기 때문이다 ④ 재미 때문이다
 ⑤ 화가 나서이다 ⑥ 기타()

(단위: %)

		친하기 때문이다	습관이다	화가 나서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전체		30.4	26.1	17.4	13.0	8.7	4.3
성별	남성	30.0	30.0	10.0	10.0	20.0	0.0
	여성	30.8	23.1	23.1	15.4	0.0	7.7
연령	30대 이하	25.0	50.0	0.0	0.0	0.0	25.0
	40대	35.3	17.6	23.5	11.8	11.8	0.0
	50대 이상	0.0	50.0	0.0	50.0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0.0	0.0	50.0	50.0	0.0	0.0
	보통	25.0	37.5	25.0	12.5	0.0	0.0
	행복함	38.5	23.1	7.7	7.7	15.4	7.7
소득원	외벌이	16.7	33.3	25.0	0.0	16.7	8.3
	맞벌이	45.5	18.2	9.1	27.3	0.0	0.0
학력	고졸 이하	0.0	50.0	50.0	0.0	0.0	0.0
	대졸	31.6	26.3	15.8	10.5	10.5	5.3
	대학원 이상	50.0	0.0	0.0	50.0	0.0	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22.2	22.2	22.2	11.1	11.1	11.1
	400~600만 원 미만	33.3	44.4	0.0	22.2	0.0	0.0
	600만 원 이상	40.0	0.0	40.0	0.0	20.0	0.0

부모가 응답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까닭의 최빈치는 ‘친하기 때문이다(30.4%)’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습관이다(26.1%)’, ‘화가 나서이다(17.4%)’, ‘무시하기 때문이다(13%)’ 순으로 나타나 부모와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습관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까닭의 최빈치는 ‘친하기 때문이다’로 같다. 다만 아버지는 그 빈도가 30.0%인 데 비해, 어머니는 3.08%로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자녀가 조금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와 50대 이상 부모가 응답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는 ‘습관이다’가 최빈치로 나타났으며, 40대 부모는 ‘친하기 때문이다’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응답한 이유의 최빈치는 ‘화가 나서이다(50%)’와 ‘무시하기 때문이다(50%)’로,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가 응답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까닭의 최빈치는 ‘습관이다(37.5%)’로,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가 응답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의 최빈치는 ‘친하기 때문이다(38.5%)’로 나타나 자녀

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행위를 가족 행복도가 높은 가정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가족 행복도가 낮은 가정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까닭의 최빈치는 ‘습관이다(33.3%)’로, 맞벌이 부모가 응답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까닭의 최빈치는 ‘친하기 때문이다(45.5%)’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부모와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응답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까닭의 최빈치는 ‘친하기 때문이다’로 같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대졸 부모에 비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까닭은 ‘친하기 때문이다(30.4%)’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습관이다(26.1%)’, ‘화가 나서이다(17.4%)’, ‘무시하기 때문이다(13%)’ 순으로 나타나 단순히 친하거나 습관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아버지과 30대 이하 부모, 50대 이상 부모,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 외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부모, 600만 원 이상 부모는 ‘습관이다’를,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와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부모, 600만 원 이상 부모는 ‘화가 나서이다’를, 50대 이상 부모와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인 부모는 ‘무시하기 때문이다’를 이유로 응답했다.

1.2.2. 대화 내용

이 항목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 비교하는 말하기, 공을 드러내는 말하기, 유머 등의 기본적인 대화 내용을 조사하였다.

1) 칭찬과 감사

1-1) 부모가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경우

Q19. 나는 자녀들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52	3.57	3.88	3.48	3.14	3.00	3.16	3.77	3.48	3.59	3.29	3.59	3.60	3.45	3.44	3.79	3.54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54(63.5%)로 나타나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하는 부모가 6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52로 어머니 3.57에 비해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14, 40대 부모는 3.48, 30대 이하 부모는 3.88로 나타나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0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16, 가정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77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48, 맞벌이 부모는 3.59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외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들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를 더 자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3.29, 대졸 부모는 3.59,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60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더 자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45,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44,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3.79로 나타나,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에 인색한 부모가 3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맞벌이,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1-2) 자녀가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경우

Q20. 자녀들은 나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28	3.17	3.54	3.10	3.21	2.00	3.00	3.44	3.11	3.33	2.88	3.29	3.40	3.15	3.05	3.57	3.23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23(55.8%)으로 나타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50% 정도가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28로 어머니 3.17로 나타나 자녀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부모는 3.10, 50대 이상 부모는 3.21, 30대 이하 부모는 3.54로 나타나 30대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좀 더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2.0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00,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44로 나타나 가정행복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좀 더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11, 맞벌이 부모는 3.33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외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들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좀 더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2.88, 대졸 부모는 3.29,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40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더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05,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15,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3.57로 나타나 부모의 소득과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를 자주 듣는 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400~600만 원 미만 부모의 경우, 자신도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지 않고, 자녀에게서도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를 하지 않는 자녀가 4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더 자주 듣는 경향이 있다.

2) 비교하는 말

2-1) 부모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

Q21. 나는 자녀들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57	3.14	2.69	2.90	2.64	3.20	3.10	2.64	2.83	2.80	3.12	2.79	2.40	2.79	2.97	2.61	2.81

부모가 응답한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2.81(45.3%)로 나타나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하기를 하는 부모가 45%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2.57로 어머니 3.14에 비해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하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20, 30대 이하 부모는 2.69, 40대 부모는 2.90으로 나타나 30대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좀 덜 하고, 40대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64,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10,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20으로 나타나 가정행복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좀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2.80, 외벌이 부모는 2.83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외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좀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40, 대졸 부모는 2.79, 고졸 이하 부모는 3.12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좀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2.61,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79,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97로 나타나 부모의 소득과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400~600만 원 미만 부모의 경우, 다른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부모가 4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외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보인다.

2-2) 자녀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

Q22. 자녀들은 나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22	2.50	2.46	2.32	2.21	3.00	2.55	2.19	2.26	2.41	2.29	2.37	2.20	2.27	2.28	2.50	2.34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2.34(33.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2.22로 어머니 2.50에 비해 자녀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하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덜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2.21, 40대 부모는 2.32, 30대 이하 부모는 2.46으로 나타나 젊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더 자주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19,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2.55,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00으로 나타나 가정행복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좀 덜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2.26, 맞벌이 부모는 2.41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외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더 자주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20, 고졸 이하 부모는 2.29, 대졸 부모는 2.37로 나타나 대졸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좀 더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27,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28,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2.50으로 나타나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좀 더 자주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신의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하기를 하는 자녀가 3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졸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나이가 적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더 자주 듣는 경향이 있다.

3)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

3-1) 부모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정도

Q23. 나는 자녀들에게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이나 내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78	3.38	3.08	3.07	2.79	2.60	3.10	3.03	2.93	3.11	3.29	3.07	2.30	3.00	3.13	2.93	3.03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공치사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03(50.5%)으로 나타나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2.78로 어머니 3.38에 비해 자녀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하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2.79, 40대 부모는 3.07, 30대 이하 부모는 3.08로 나타나 젊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더 자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2.60,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03,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10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가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더 자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2.93, 맞벌이 부모는 3.11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외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더 자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30, 대졸 부모는 3.07, 고졸 이하 부모는 3.29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2.93,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00,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13으로 나타나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가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더 자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부모가 5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 맞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맞벌이 부모와 부모의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3-2) 자녀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정도

Q24. 자녀들은 나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22	3.21	3.12	3.30	3.07	3.00	3.23	3.23	3.04	3.37	3.00	3.33	2.80	3.03	3.33	3.29	3.22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공치사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22(55.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22로 어머니 3.21에 비해 자녀의 공치사하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자녀가 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07, 30대 이하 부모는 3.12, 40대 부모는 3.30으로 나타나 40대 부모가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더 자주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0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나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23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덜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04, 맞벌이 부모는 3.37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외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더 자주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80, 고졸 이하의 부모는 3.00, 대졸 부모는 3.33으로 나타나 대졸 부모가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더 자주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03,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3.29,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33으로 나타나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가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더 자주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자녀가 5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와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졸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자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듣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부모가,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듣고 경향이 있다

4) 유머 사용

4-1) 부모가 사용하는 유머

Q25. 나는 자녀들에게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36	3.50	3.69	3.40	3.00	3.40	3.16	3.55	3.41	3.43	3.18	3.41	3.90	3.33	3.38	3.57	3.42

부모의 유머 사용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42(60.5%)로 나타나 자녀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부모가 유머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36으로 어머니 3.50에 비해 자녀에게 유머 사용하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머 사용 횟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00, 40대 부모는 3.40, 30대 이하 부모는 3.69로 나타나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에게 유머 사용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16,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40,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55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머 사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41, 맞벌이 부모는 3.43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외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유머 사용 횟수가 조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3.18, 대졸 부모는 3.41,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90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유머 사용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33,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38,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3.57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유머 사용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부모가 6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는 자녀에게 대화할 때 유머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맞벌이,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부모가 많은 경향이 있다.

4-2) 자녀가 사용하는 유머

Q26. 자녀들은 나에게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36	3.07	3.46	3.18	3.07	2.80	2.94	3.42	3.07	3.39	3.18	3.23	3.40	3.27	3.10	3.39	3.24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유머 사용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24(56%)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36으로 어머니 3.07에 비해 자녀에게 유머 듣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에 비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유머를 더 자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07, 40대 부모는 3.18, 30대 이하 부모는 3.46으로 나타나 나이가 젊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유머를 듣는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2.8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2.94,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42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유머를 듣는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07, 맞벌이 부모는 3.39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외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유머를 듣는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3.18, 대졸 부모는 3.23,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40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유머를 듣는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10,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27,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3.39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유머 사용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유머를 더 많이 사용하고, 부모가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맞벌이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유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5) 의견 수용

5-1) 부모의 의견 수용

Q27. 나는 자녀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74	3.71	3.81	3.73	3.57	4.00	3.48	3.83	3.74	3.72	3.82	3.67	4.00	3.67	3.51	4.11	3.73

부모가 응답한 부모의 의견 수용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73(68.3%)으로 나타나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74로 어머니 3.71에 비해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57, 40대 부모는 3.73, 30대 이하 부모는 3.81로 나타나 **나이가 적을수록 자녀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48,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83,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4.00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74, 맞벌이 부모는 3.72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가 맞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부모는 3.67, 고졸 이하 부모는 3.82,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4.00으로 나타나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51,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67,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4.11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부모가 6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외벌이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자녀의 의견 수용

Q28. 자녀들은 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60	3.45	3.69	3.52	3.36	3.40	3.19	3.72	3.54	3.54	3.53	3.49	3.90	3.36	3.33	4.04	3.54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부모 의견 수용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54(63.5%)로 나타나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3.60으로 어머니 3.45에 비해 자녀들의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36, 40대 부모는 3.52, 30대 이하 부모는 3.69로 나타나 **부모의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19,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40,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72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 3.54, 맞벌이 부모 3.5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부모는 3.49, 고졸 이하 부모는 3.53,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90으로 나타나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33,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36,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4.04로 나타나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녀의 비율이 6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의 의견을 자녀들이 더 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부모의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6) 거짓말하기

6-1) 부모의 거짓말

Q29. 나는 곤란하면 자녀들에게 거짓말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52	2.71	2.96	2.38	2.86	2.20	2.71	2.58	2.46	2.72	2.65	2.64	2.20	2.36	2.79	2.61	2.60

곤란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정도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

수가 2.60(40%)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2.52로 어머니 2.71에 비해 자녀에게 거짓말하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더 자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부모는 2.38, 50대 이상 부모는 2.86, 30대 이하 부모는 2.96으로 나타나 30대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2.20,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58,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2.71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2.46, 맞벌이 부모는 2.72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가 맞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빈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20, 대졸 부모는 2.64, 고졸 이하 부모는 2.65으로 나타나 고졸 이하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36,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2.61,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79로 나타나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답하기 곤란하면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부모의 비율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 맞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대답하기 곤란하면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대답하기 곤란하면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6-2) 자녀의 거짓말

Q30. 자녀들은 곤란하면 나에게 거짓말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86	3.29	3.31	2.93	3.00	3.80	3.42	2.80	3.20	2.91	3.29	3.00	2.90	3.00	3.26	2.79	3.04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부모에게 거짓말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04(51%)로 나타나 대답하기 곤란하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녀가 둘에 한 명 꼴로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2.86으로 어머니 3.29에 비해 부모에게 거짓말하기 비율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녀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부모는 2.93, 50대 이상 부모는 3.00, 30대 이하 부모는 3.31로 나타나 30대 이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8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42,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80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가정의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는 3.20, 맞벌이 부모는 2.91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90, 대졸 부모는 3.00, 고졸 이하 부모는 3.29로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낮은 가정의 자녀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2.79,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00,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26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답하기 곤란하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녀가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30대 이하 부모, 행복도가 낮은 가정의 부모, 외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대체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대답하기 곤란하면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1.2.3. 갈등 처리

1) 갈등 회피

1-1) 부모의 갈등 회피

Q31. 나는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53	2.69	2.73	2.58	2.43	3.20	2.74	2.48	2.70	2.52	2.24	2.66	2.80	2.45	2.79	2.50	2.60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이를 피하는 정도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2.60(40%)으로 나타나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 상황을 피하려는 부모가 열에 네 명 꼴로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2.53으로 어머니 2.69에 비해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하는 정도가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2.43, 40대 부모는 2.58, 30대 이하 부모는 2.73으로 나타나 나이가 적은 부모일수록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48,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2.74,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20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2.52, 외벌이 부모는 2.70으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2.24, 대졸 부모는 2.66, 대학원 이상 졸업 이상 부모는 2.80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45,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3.00,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26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부모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하는 정도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외벌이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 부모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는 비율이 더 높았다.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1-2) 자녀의 갈등 회피

Q32. 자녀들은 나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10	3.07	2.96	3.15	3.07	4.20	3.26	2.92	2.89	3.26	3.06	3.07	3.30	3.03	3.23	2.96	3.09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 피하기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09(52.3%)로 나타나 부모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 상황을 피하려는 자녀가 47.7%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3.10으로 어머니 3.07에 비해 충돌 회피하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고 하는 정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부모는 2.96, 50대 이상 부모는 3.07, 40대 부모는 2.73으로 나타나 **나이가 적은 부모의 자녀들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고 한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92,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26,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4.20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이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3.26, 외벌이 부모는 2.89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3.06, 대졸 부모는 3.07, 대학원 이상 졸업 이상 부모는 3.30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2.96,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03,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3.23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의 자녀들이 대화를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와 대화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하려는 자녀들이 약 5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자녀들이 대화를 하다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를 피한다고 응답했다.

2) 쌓인 감정 표출

2-1) 부모의 쌓인 감정 표출

Q33. 나는 자녀들에게 화가 나면 자녀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60	3.14	2.88	2.85	2.64	3.20	3.00	2.72	2.83	2.83	2.88	2.84	2.70	2.82	2.97	2.64	2.83

화가 났을 때 자녀의 과거의 잘못까지 끄집어내면서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2.83로 나타나 자녀에게 화가 났을 때 자녀가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부모가 45.8%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2.60으로 어머니 3.14에 비해 과거 일 끄집어내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화가 나더라도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가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2.64, 40대 부모는 2.85, 30대 이하 부모는 2.88로 나타나 나이가 적은 부모일수록 자녀와 대화를 할 때 화가 나면 자녀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며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72,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00,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4.20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와 대화를 할 때 화가 나면 자녀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정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 2.83, 외벌이 부모 2.83으로 같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70, 대졸 부모는 2.84, 고졸 이하 부모는 2.88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와 대화를 할 때 화가 나면 자녀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정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2.64,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82,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97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화가 나면 자녀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정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어머니,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의 부모는 화가 나면 상대적으로 더 자주 자녀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이야기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화가 나면 자녀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모두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2-2) 자녀의 쌓인 감정 표출

Q34. 자녀들은 화가 나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64	2.45	2.50	2.67	2.21	3.00	2.58	2.52	2.48	2.63	2.18	2.64	2.60	2.48	2.51	2.71	2.56

자녀가 화가 나면 부모에게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내면서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를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2.56으로 나타나 부모에게 화가 났을 때 부모가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자녀가 3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2.64로 어머니는 2.45로 나타나 자녀들이 화가 나면 부모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어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가 아버지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2.21, 30대 이하 부모는 2.50, 40대 부모는 2.67로 나타나 자녀들이 화가 나면 부모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정도가 40대 부모에게 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2.52,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2.58,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00으로 나타나 자녀들이 화가 나면 부모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정도가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에게 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2.63, 외벌이 부모 2.48로 나타나 자녀들이 화가 나면 부모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정도가 맞벌이 부모에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2.18,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60, 대졸 부모는 2.64로 나타나 자녀들이 화가 나면 부모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정도가 대졸 부모에게 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48, 400~6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2.51,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2.71로 나타나 자녀들이 화가 나면 부모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정도가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 부모에게 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버지,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졸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부모는 자녀가 화가 나면 부모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하며 쌓인 감정을 표출한다고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행복도가 낮은 가정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과거 잘못까지 끄집어내며 말하는 경향이 있다.

3) 가족회의의 필요성

Q35. 우리 가족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36	3.29	3.31	3.30	3.50	4.00	3.58	3.16	3.39	3.28	3.47	3.30	3.30	3.18	3.56	3.18	3.33

부모가 응답한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33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58.3%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3.36으로 어머니 3.29에 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아버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부모는 3.30, 30대 이하 부모는 3.31, 50대 이상 부모는 3.50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0대 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16,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58,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4.00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3.28, 외벌이 부모는 3.39로 나타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외벌이 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부모와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가 3.30인데 반해 고졸 이하 부모가 3.47로 나타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고졸 이하 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400만 원 미만 부모와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18인데 반해 400~600만 원 이상 부모가 3.56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이상 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 50대 이상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외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4) 싸움으로 끝내기

Q36. 우리 가족의 대화는 싸움을 끝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3	2.33	2.35	2.10	2.07	3.00	2.52	1.92	2.07	2.24	2.41	2.11	2.10	2.21	2.28	1.93	2.16

부모가 응답한 가족 대화 싸움으로 끝나기 비율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2.16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가정이 29%로 열에 세 명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2.03으로 어머니 2.33에 비해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이 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비율이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2.07, 40대 부모는 2.10, 30대 이하 부모는 2.35로 나타나 나이가 적을수록 가족 간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1.92,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2.52,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00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가족 간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2.24, 외벌이 부모는 2.07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가족 간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2.10, 대졸 부모는 2.11, 고졸 이하 부모는 2.41로 나타나 고졸 이하 부모가 가족 간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 부모는 1.93, 400만 원 이상 부모가 2.21, 400~600만 원 이상 부모가 2.28로 나타나 가족 간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가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부모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족 간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는 응답은 약 29%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30대 이하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맞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의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가 높았다.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행복도가 낮은 가정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1.3. 듣기

듣기에서는 듣기의 태도와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하였다. 듣기 영역은 듣는 정도 2문항, 반응 보이기 2문항, 듣기 싫은 말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듣기 정도

1-1) 부모의 듣기 정도

Q37. 나는 자녀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66	3.62	3.58	3.72	3.43	3.40	3.45	3.75	3.50	3.76	3.47	3.67	3.70	3.61	3.44	3.96	3.64

부모가 응답한 부모의 듣기 태도 비율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64로 나타나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부모가 66%로 열에 일곱 명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34%의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3.66으로 어머니 3.62에 비해 자녀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자녀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43, 30대 이하 부모는 3.58, 40대 부모는 3.72로 나타나 40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4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45,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75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3.76, 외벌이 부모는 3.50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자녀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3.47, 대졸 부모는 3.67,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70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3.44, 400만 원 미만 부모가 3.61,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96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부모가 자녀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지 않는 부모가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다고 응답했다. 맞벌이 부모, 행복도가 높은 가정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듣기 태도가 좋은 경향을 보인다.

1-2) 자녀의 듣기 정도

Q38. 자녀들은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50	3.50	3.42	3.50	3.64	2.60	3.26	3.69	3.41	3.57	3.29	3.56	3.40	3.42	3.41	3.71	3.50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듣기 태도 비율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50으로 나타나 부모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자녀가 62.5%로 열에 여섯 명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34%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 3.50, 어머니 3.50으로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부모는 3.42, 40대 부모는 3.50, 50대 이상 부모는 3.64로 나타나 자녀들이 나이가 많은 부모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2.6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26,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69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3.57, 외벌이 부모는 3.41로 나타나 자녀들이 맞벌이 가정인 부모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3.29,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40, 대졸 이상 부모는 3.70으로 나타나 자녀들이 대졸 부모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3.41, 400만 원 미만 부모가 3.42,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71로 나타나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지 않는 자녀가 3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0대 이상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졸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가정의 자녀가 말을 들을 때 태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듣기 태도가 더 좋은 경향을 보인다.

2) 반응 보이며 듣기

2-1) 부모의 반응 보이며 듣기

Q39. 나는 자녀들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72	3.67	3.65	3.75	3.57	3.40	3.48	3.83	3.74	3.67	3.76	3.68	3.70	3.76	3.56	3.82	3.70

부모가 응답한 부모의 반응 보이며 듣기의 비율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70으로 나타나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부모가 67.5%로 열에 일곱 명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32.5%의 부모가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 없이 듣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72, 어머니는 3.67로 나타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부모는 3.57, 30대 이하 부모는 3.65, 40대 부모는 3.75로 나타나 40대 부모가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3.4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48,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74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가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3.67, 외벌이 부모는 3.74로 나타나 외벌이 부모가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부모는 3.68,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70, 고졸 이하 부모는 3.76으로 나타나 고졸 부모가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3.56, 400만 원 미만 부모가 3.76,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82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부모가 6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를 비롯하여 40대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외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가 자녀의 말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부모와 더불어 행복도가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하며 듣는 경향이 있다.

2-2) 자녀의 반응 보이며 듣기

Q40. 자녀들은 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연령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62	3.36	3.54	3.48	3.57	2.80	3.23	3.70	3.46	3.56	3.18	3.59	3.50	3.39	3.38	3.82	3.51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반응 보이며 듣기의 비율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5점 평균 점수가 3.51로 나타나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자녀가 62.8%로 열에 여섯 명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37.2%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 없이 듣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3.62, 어머니는 3.36으로 나타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에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부모는 3.48, 30대 이하 부모는 3.54, 50대 이상 부모는 3.57로 나타나 **자녀들이 50대 이상 부모의 말에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는 2.80,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는 3.23,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는 3.70으로 나타나 **자녀들이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3.56, 외벌이 부모는 3.46으로 나타나 **자녀들이 맞벌이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는 3.18,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3.50, 대졸 부모는 3.59로 나타나 **자녀들이 대졸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 부모는 3.38, 400만 원 미만 부모가 3.39, 600만 원 이상 부모는 3.82로 나타나 **자녀들이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자녀가 6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버지, 50대 이상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맞벌이 부모, 대졸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가 자녀의 듣기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말에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경향이 높다.

3) 부모가 듣고 싶은 말

Q41. 내가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다.

(단위: %)

		수고에 대한 감사	능력에 대한 칭찬	성격에 대한 칭찬	사랑한다 는 말	외모에 대한 칭찬	친구같은 엄마	행복한 웃음
전체		71.0	13.0	7.0	4.0	3.0	1.0	1.0
성별	남성	70.7	15.5	5.2	3.4	3.4	0.0	1.7
	여성	71.4	9.5	9.5	4.8	2.4	2.4	0.0
연령	30대 이하	76.9	7.7	7.7	3.8	3.8	0.0	0.0
	40대	65.0	15.0	8.3	5.0	3.3	1.7	1.7
	50대 이상	85.7	14.3	0.0	0.0	0.0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60.0	20.0	0.0	20.0	0.0	0.0	0.0
	보통	71.0	19.4	6.5	3.2	0.0	0.0	0.0
	행복함	71.9	9.4	7.8	3.1	4.7	1.6	1.6
소득월	외벌이	71.7	15.2	6.5	4.3	2.2	0.0	0.0
	맞벌이	70.4	11.1	7.4	3.7	3.7	1.9	1.9
학력	고졸 이하	76.5	11.8	5.9	5.9	0.0	0.0	0.0
	대졸	69.9	11.0	8.2	4.1	4.1	1.4	1.4
	대학원 이상	70.0	30.0	0.0	0.0	0.0	0.0	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72.7	12.1	3.0	9.1	3.0	0.0	0.0
	400~600만 원 미만	66.7	17.9	10.3	0.0	5.1	0.0	0.0
	600만 원 이상	75.0	7.1	7.1	3.6	0.0	3.6	3.6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의 최빈치는 ‘수고에 대한 감사(71%)’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능력에 대한 칭찬(13%)’, ‘성격에 대한 칭찬(7%)’, ‘사랑한다는 말(4%)’ 순으로 나타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의 최빈치는 ‘수고에 대한 감사’로 같다. 다만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성격에 대한 칭찬(5.2%)’보다 ‘능력에 대한 칭찬(15.5%)’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의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의 최빈치는 ‘수고에 대한 감사’로 같다. 다만 50대 이상 부모의 요구가 ‘수고에 대한 감사(85.7%)’와 ‘능력에 대한 칭찬(14.3%)’에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30~40대 부모는 ‘수고에 대한 감사’와 ‘능력에 대한 칭찬’ 외에도 ‘성격에 대한 칭찬’, ‘사랑한다는 말’, ‘외모에 대한 칭찬’ 등으로 요구가 다양하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의 최빈치는 ‘수고에 대한 감사’로 같다.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수고에 대한 감사’와 ‘성격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능력에 대한 칭찬’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든 맞벌이 부모든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의 최빈치는 ‘수고에 대한 감사’로 같다. ‘성격에 대한 칭찬’보다 ‘능력에 대한 칭찬’을 더 듣고 싶어 하는 점도 크

게 다르지 않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의 최빈치는 ‘수고에 대한 감사’로 같다. ‘능력에 대한 칭찬’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의 요구가 다른 부모의 요구에 비해 3배 가량 높다는 점이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의 최빈치는 ‘수고에 대한 감사’로 같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수고에 대한 감사’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와 50대 이상 부모, 가족 행복도가 높은 부모, 외벌이 부모, 고졸 이하 부모,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부모의 비중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가족 행복도가 높은 가정일수록 ‘수고에 대한 감사’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4) 부모가 듣기 싫은 말

Q42. 내가 자녀들에게 듣기 싫은 말은 ()이다.

(단위: %)

		내 말을 잔소리한다고 받는 말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	다른 부모와 비교·불평하는 말	내 행동을 홍보는 말	바쁘다는 말	포기하라는 말
전체		47.0	32.0	10.0	9.0	1.0	1.0
성별	남성	37.9	36.2	12.1	10.3	1.7	1.7
	여성	59.5	26.2	7.1	7.1	0.0	0.0
연령	30대 이하	34.6	42.3	3.8	19.2	0.0	0.0
	40대	56.7	25.0	11.7	3.3	1.7	1.7
	50대 이상	28.6	42.9	14.3	14.3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20.0	40.0	20.0	20.0	0.0	0.0
	보통	58.1	19.4	9.7	9.7	3.2	0.0
	행복함	43.8	37.5	9.4	7.8	0.0	1.6
소득원	외벌이	47.8	32.6	10.9	8.7	0.0	0.0
	맞벌이	46.3	31.5	9.3	9.3	1.9	1.9
학력	고졸 이하	47.1	29.4	17.6	5.9	0.0	0.0
	대졸	49.3	31.5	8.2	8.2	1.4	1.4
	대학원 이상	30.0	40.0	10.0	20.0	0.0	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45.5	36.4	6.1	9.1	3.0	0.0
	400~600만 원 미만	56.4	28.2	5.1	10.3	0.0	0.0
	600만 원 이상	35.7	32.1	21.4	7.1	0.0	3.6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의 최빈치는 ‘내 말을 잔소리로 받는 말(47%)’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32%)’,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불평하는 말(10%)’, ‘내 행동을 홍보는 말(9%)’ 순으로 나타나 부모의 말을 잔소리 취급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의 최빈치는 ‘내 말을 잔소리로 받

는 말'로 같다. 다만 아버지(37.9%)에 비해 어머니(59.5%)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다르다.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과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 '내 행동을 홍보하는 말'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의 최빈치는 '내 말을 잔소리로 받는 말(56.7%)'로 나타났고, 30대 이하 부모와 50대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의 최빈치는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의 최빈치는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40%)'로 나타났고,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부모와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의 최빈치는 '내 말을 잔소리로 받는 말(56.7%)'로 나타났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부모든 맞벌이 부모든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의 최빈치는 '수고에 대한 감사'로 같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부모와 대졸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의 최빈치는 '내 말을 잔소리로 받는 말'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 졸업한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의 최빈치는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거부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의 최빈치는 '수고에 대한 감사'로 같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받는 말'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30대 이하 부모와 50대 이상 부모, 가족 행복도가 낮은 부모,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는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받는 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2. 자녀 유형

자녀 유형에 관한 설문은 대화 일반, 말하기, 듣기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대화 일반 영역에서는 대화 시간, 대화 매체, 대화 장면, 대화 주제, 대화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고, 말하기 영역에서는 대화와 신체 접촉, 대화 예절, 대화 내용, 대화 구도, 갈등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듣기 영역은 듣는 정도, 반응보이기,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가족의 행복도 등 모두 44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1. 대화 일반

대화 일반은 대화 시간 3문항, 대화 매체 2문항, 대화 장면 1문항, 대화 주제 1문항, 대화만족

도 2문항 등 모두 9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1.1. 대화 시간

대화 시간에서는 실제로 하루 평균 부모님과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어느 정도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1) 하루 평균 대화 시간

Q1. 나는 부모님과 하루에 () 대화를 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단위: %)

		5분 미만	10분 정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전체		4.0	15.5	41.0	21.5	18.0
성별	남성	5.2	23.4	31.2	29.9	10.4
	여성	3.3	10.6	47.2	16.3	22.8
학령	초등학교	1.0	10.0	43.0	28.0	18.0
	중학교	0.0	16.7	41.7	16.7	25.0
	고등학교	9.2	22.4	38.2	14.5	15.8
성적등급	낮다	6.7	43.3	30.0	10.0	10.0
	보통	4.6	10.3	43.7	25.3	16.1
	높다	2.4	10.8	42.2	21.7	22.9
경제적 수준	못 산다	6.9	22.4	32.8	25.9	12.1
	보통	2.7	13.3	46.9	18.6	18.6
	잘 산다	3.4	10.3	34.5	24.1	27.6
가족 행복도	불행함	10.7	42.9	28.6	14.3	3.6
	보통이다	5.0	10.0	53.3	20.0	11.7
	행복함	1.8	11.6	37.5	24.1	25.0
형제·자매	0명	5.3	10.5	26.3	26.3	31.6
	1명	4.5	17.1	37.8	20.7	19.8
	2명	0.0	10.8	56.8	21.6	10.8
	3명 이상	6.1	18.2	42.4	21.2	12.1

자녀들이 응답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하루 30분 정도가 41.0%로 최빈치이고, 1시간 정도가 21.5%, 1시간 이상이 18%, 10분 정도가 15.5%, 5분 미만이 4%로 나타났다.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80.5%이지만, 10분 미만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어서 사실상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10

분도 나누지 않는 가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최빈치는 30분 정도이며 남학생의 31.2%, 여학생의 47.2%를 차지하였다. 10분 미만이라는 응답은 여학생 13.9%에 비해 남학생은 28.6%를 차지하였고, 한 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남학생은 10.4%, 여학생은 22.8%를 차지하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오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령에서 30분 정도가 최빈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분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 11.0%, ‘중학생’ 16.7%, ‘고등학생’ 31.6%로 **학령이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최빈치를 살펴보면 ‘낮다’의 경우 10분 정도가 43.3%, ‘보통’의 경우 30분 정도가 43.7%, ‘높다’의 경우 30분 정도가 42.2%로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은 학생 집단의 대화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분 미만을 살펴보면 ‘낮다’의 경우 50%인데 반해 ‘보통’ 14.9%, ‘높다’ 13.2%로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대화 시간의 차이에서는 모든 등급에서 30분 정도가 최빈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시간 정도나 그 이상 대화하는 비율에서는 ‘못 산다’의 38%, ‘보통’의 37.2%를 차지하였으나, ‘잘 산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51.7%로 나타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대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대화 시간을 살펴보면 ‘불행함’의 경우 10분 정도가 최빈치로 나타났으나 ‘보통’이나 ‘행복함’의 경우 30분 정도가 최빈치로 나타났다. 더구나 10분 미만 대화하는 경우는 불행함 53.6% > 보통 15% > 행복함 13.4%으로 나타나고, 한 시간 정도나 그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행복함 49.1% > 보통 31.7% > 불행함 17.9%로 나타나서 **불행하다고 응답한 자녀일수록 평균보다 짧게 대화하고, 행복하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평균보다 길게 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제·자매에 따른 대화 시간을 살펴보면 ‘0명’의 경우 한 시간 이상이 최빈치로 나타났으나 나머지는 모두 30분 정도가 최빈치로 나타나서 독자의 경우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분 미만 대화하는 것은 독자의 경우 15.8%에 불과하나 3명 이상 있을 경우 24.3%로 늘어나고, 한 시간이나 그 이상 대화하는 것은 독자의 경우 57.9%이나, 3명 이상의 경우 33.3%에 불과하여, **다자녀보다 독자의 경우 대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최빈치는 30분 정도로 나타났지만, 성적등급과 행복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10분 정도가 최빈치이고, 독자의 경우는 1시간 이상이 최빈치로 나타났다. 부모와 하루 평균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자녀가 가장 많지만 10분 정도나 10분 미만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19.5%에 이르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길게 대화하고, 학령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다자녀일수록 대화 시간이 짧아지는 것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고, 성적등급이 높고, 행복도가 높으며, 독자일수록 대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상적인 대화 시간

Q2. 부모님과 하루에 ()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단위: %)

		5분 미만	10분 정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전체		2.0	6.5	31.0	34.0	26.5
성별	남성	2.6	13.0	33.8	32.5	18.2
	여성	1.6	2.4	29.3	35.0	31.7
학령	초등학교	1.0	5.0	30.0	37.0	27.0
	중학교	0.0	0.0	33.3	33.3	33.3
	고등학교	3.9	10.5	31.6	30.3	23.7
성적등급	낮다	6.7	10.0	46.7	16.7	20.0
	보통	2.3	4.6	33.3	37.9	21.8
	높다	0.0	7.2	22.9	36.1	33.7
경제적 수준	못 산다	5.2	6.9	31.0	25.9	31.0
	보통	0.9	5.3	32.7	37.2	23.9
	잘 산다	0.0	10.3	24.1	37.9	27.6
가족 행복도	불행함	14.3	10.7	42.9	28.6	3.6
	보통이다	0.0	5.0	38.3	35.0	21.7
	행복함	0.0	6.3	24.1	34.8	34.8
형제·자매	0명	0.0	0.0	26.3	31.6	42.1
	1명	2.7	9.9	27.0	34.2	26.1
	2명	0.0	0.0	37.8	40.5	21.6
	3명 이상	3.0	6.1	39.4	27.3	24.2

자녀들이 응답한 부모와의 이상적 대화 시간은 하루 한 시간 정도가 34.0%로 최빈치로 나타났으며, 30분 정도가 31%, 1시간 이상이 26.5%, 10분 정도가 6.5%, 5분 미만이 2%로 나타났다. 실제 대화 시간의 최빈치는 30분 정도였으나, 이상적인 대화 시간의 최빈치는 한 시간 정도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대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30분 정도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한 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10분 정도나 그 미만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15.6% > 여학생 4.0%로 나타나고, 한 시간 이상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18.2%, 여학생은 31.7%로 나타나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대화 시간이 더 긴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로는 초등학생은 한 시간 정도가 최빈치로 나타났으나, 중학생은 30분 정도와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이상이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30분 정도가 최빈치로 나타났다.

(단위: %)

		내 공부	부모님 의 직장 업무	내 성격	부모님 과의 갈등	부모님 성격	학교에 있는 시간	각자일/ 맞지 않는 시간	없음 (대화함)	따로 나와 살아서	핸드폰/ TV
전체		33.5	33.5	13.5	6.0	5.5	2.0	2.0	2.0	1.0	1.0
성별	남성	31.2	32.5	16.9	6.5	10.4	0.0	1.3	1.3	0.0	0.0
	여성	35.0	34.1	11.4	5.7	2.4	3.3	2.4	2.4	1.6	1.6
학령	초등학교	36.0	34.0	12.0	6.0	6.0	0.0	2.0	3.0	0.0	1.0
	중학교	29.2	29.2	8.3	16.7	8.3	0.0	4.2	4.2	0.0	0.0
	고등학교	31.6	34.2	17.1	2.6	3.9	5.3	1.3	0.0	2.6	1.3
성적등급	낮다	23.3	40.0	20.0	3.3	6.7	3.3	0.0	0.0	3.3	0.0
	보통	39.1	25.3	16.1	8.0	1.1	3.4	1.1	2.3	1.1	2.3
	높다	31.3	39.8	8.4	4.8	9.6	0.0	3.6	2.4	0.0	0.0
경제적 수준	못 산다	27.6	34.5	19.0	3.4	5.2	1.7	5.2	1.7	1.7	0.0
	보통	38.1	32.7	10.6	6.2	5.3	1.8	0.9	1.8	0.9	1.8
	잘 산다	27.6	34.5	13.8	10.3	6.9	3.4	0.0	3.4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21.4	17.9	25.0	10.7	25.0	0.0	0.0	0.0	0.0	0.0
	보통이다	48.3	21.7	18.3	5.0	1.7	1.7	1.7	0.0	0.0	1.7
	행복함	28.6	43.8	8.0	5.4	2.7	2.7	2.7	3.6	1.8	0.9
형제·자매	0명	26.3	57.9	5.3	0.0	5.3	0.0	5.3	0.0	0.0	0.0
	1명	34.2	31.5	16.2	2.7	7.2	2.7	1.8	1.8	0.9	0.9
	2명	27.0	32.4	8.1	18.9	0.0	2.7	2.7	2.7	2.7	2.7
	3명 이상	42.4	27.3	15.2	6.1	6.1	0.0	0.0	3.0	0.0	0.0

자녀들이 응답한 부모와의 대화 부족 이유는 자신의 공부와 부모님의 업무가 33.5%로 같은 비율로 최빈치로 나타났고, 이어서 자신의 성격 13.5%, 부모님과의 갈등 6%, 부모님 성격 5.5%, 기타가 8%로 나타났다. 가족 대화가 부족한 이유를 자신의 공부나 성격과 같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 비율이 47.0%인 것에 비해 부모님의 일이나 성격과 같이 부모님의 문제로 생각한 비율은 39.0%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으로 부모님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지적한 경우는 6%로 나타나서, 대화 부족이 심각한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는 남학생은 부모님의 직장 업무, 여학생은 내 공부로 나타났다. 공부나 일과 같이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 남학생 63.7%, 여학생 79.1%로 나타나고, 내 성격이나 부모님의 성격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 27.3%, 여학생 13.8%로 나타났으며, 부모님과 갈등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 6.5%, 여학생 5.7%로 나타나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외적인 환경보다는 내면적인 이유로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에 따른 최빈치는 초등학생의 경우 내 공부, 중학생의 경우 내 공부와 부모님의 업무, 고등학생은 부모님의 업무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내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부모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중학생의 경우 양자가 모두 8.3%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부모님과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도 초등학생 6%, 고등학생 2.6%에 비해 중학생은 16.7%로 나타나서 사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중2병”의 현상들이 가족 대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에 따른 최빈치는 ‘낮다’와 ‘높다’의 경우 부모님의 업무, ‘보통’의 경우 내 공부로 나타났다. 내 성격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은 ‘낮다’ 20% > ‘보통’ 16.1% > ‘높다’ 8.4%로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최빈치는 ‘못 산다’와 ‘잘 산다’의 경우 부모님의 업무, ‘보통’의 경우는 내 공부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갈등을 대화 부족 원인으로 응답한 것은 ‘못 산다’ 3.4% < ‘보통’ 6.2% < ‘잘 산다’ 10.3%로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최빈치는 ‘불행함’의 경우 내 성격, ‘보통’은 내 공부, ‘행복함’은 부모님의 업무로 나타났다. 대화 부족의 원인을 부모님의 업무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행복함’ 43.8% > ‘보통’ 21.7% > ‘불행함’ 17.9%로 나타나서 부모님의 일 때문에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화 부족의 이유가 내 성격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25.0% > ‘보통’ 18.3% > ‘행복함’ 8.0%로 조사되어서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에 따른 최빈치를 살펴보면 ‘0명’과 ‘2명’은 부모님의 업무, ‘1명’과 ‘3명 이상’은 ‘내 공부’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응답한 것은 ‘0명’ 0.0% < ‘1명’ 2.7% < ‘3명 이상’ 6.1% < ‘2명’ 18.9%로 나타나서, 독자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지 않으나 3자녀의 경우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족 대화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공부와 부모님의 일 때문이라는 응답이 최빈치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이와 같은 외적인 원인이 대화 부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남학생은 자신의 성격이나 부모님의 성격과 같이 내면적인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비율이 높았고, 부모님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행복도가 높을수록 대화 부족의 원인을 부모님의 일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내 성격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행복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독자의 경우 부모님과 갈등이 크지 않으나 3자녀의 경우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대화 매체

대화 매체에서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주된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속마음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대화 매체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1) 주된 대화 수단

Q4. 나는 부모님과 주로 () 대화한다.

- ① 말로
- ② 전화로
- ③ 문자·카톡·이메일로
- ④ 쪽지·편지로
- ⑤ 다른 사람을 통해

(단위: %)

		대면대화	문자·카톡·이메일	전화
전체		83.5	9.0	7.5
성별	남성	80.5	11.7	7.8
	여성	85.4	7.3	7.3
학령	초등학교	83.0	13.0	4.0
	중학교	91.7	4.2	4.2
	고등학교	81.6	5.3	13.2
성적등급	낮다	73.3	6.7	20.0
	보통	85.1	10.3	4.6
	높다	85.5	8.4	6.0
경제적 수준	못 산다	81.0	6.9	12.1
	보통	85.0	10.6	4.4
	잘 산다	82.8	6.9	10.3
가족 행복도	불행함	85.7	10.7	3.6
	보통이다	78.3	11.7	10.0
	행복함	85.7	7.1	7.1
형제·자매	0명	68.4	15.8	15.8
	1명	87.4	5.4	7.2
	2명	78.4	18.9	2.7
	3명 이상	84.8	6.1	9.1

부모와의 주된 대화 매체의 최빈치는 대면대화로 83.5%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이 9.0%, 전화가 7.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는 모두 대면대화로 나타났으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에 따른 최빈치는 모두 대면대화로 나타났고,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을 사용하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화를 하지만, 학업 비중이 높은 고등학생은 말이나 전화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대면대화로 나타났다. ‘낮다’고 응답한 학생의 20%가 대면대화보다 전화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보통’이나 ‘높음’으로 표시한 학생의 4-6%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대면대화로 대화하는 비율은 낮고, 전화로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대면대화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한 매체는 대면대화인 말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이 18.0%, 전화 5%, 쪽지나 편지 5%,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3.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는 모두 대면대화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면대화가 편하다는 비율이 낮고,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것이 편하다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더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대면대화로 나타났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비율이 낮고,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15.0% > ‘중학생’ 16.7% > ‘고등학생’ 22.4%와 같이 학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대면대화로 나타났지만, ‘낮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대면대화보다는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화가 편하다는 응답은 ‘낮다’ 10.0% > ‘보통’ 4.6% > ‘높다’ 3.6%의 비율로 나타났고, 쪽지나 편지가 편하다는 응답은 ‘낮다’ 6.7% > ‘보통’ 5.7% > ‘높다’ 3.6%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도 ‘낮다’ 6.7% > ‘보통’ 3.4% > ‘높다’ 2.4%의 비율로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대면대화로 나타났으나, 문자나 카톡,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은 ‘못 산다’ 15.5% < ‘보통’ 18.6% < ‘잘 산다’ 20.7%의 비율로 나타났고, 쪽지나 편지가 편하다는 응답은 ‘못 산다’ 6.9% > ‘보통’ 4.4% > ‘잘 산다’ 3.4%의 비율로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쪽지나 편지보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소통을 편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대면대화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불행함’ 50.0% < ‘보통’ 70.0% < ‘행복함’ 72.3%으로 나타나서 대면대화를 하는 것이 편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쪽지나 편지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과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대면대화로 나타났으나 다자녀보다 독자가 전화를 통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부모가 언제라도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0명’ 15.8% < ‘1명’ 17.1% < ‘2명’ 18.9%, < ‘3명 이상’ 21.2%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간접적 수단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와 대화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한 매체는 대면대화가 68.5%의 최빈치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대면대화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은 학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했다.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적 수준이 높을수록 쪽지나 편지보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소통을 편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보다는 독자가 전화로 대화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했으며, 대면대화도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행복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3. 대화 장면

Q6. 나는 부모님과 주로 () 대화를 나눈다.

- ① 밥을 먹으면서 ② TV를 보면서 ③ 잠들기 전에 ④ 휴일에
 ⑤ 수시로 ⑥ 기타()

(단위: %)

		밥 먹으면서	수시로	TV를 보면서	잠들기 전에	휴일에	전화로	저녁준비 시간에	같이 걸으면서	야식 먹으며	공부 하면서
전체		33.0	32.5	17.0	11.5	3.5	0.5	0.5	0.5	0.5	0.5
성별	남성	35.1	28.6	16.9	13.0	3.9	0.0	0.0	1.3	0.0	1.3
	여성	31.7	35.0	17.1	10.6	3.3	0.8	0.8	0.0	0.8	0.0
학령	초등학교	35.0	30.0	13.0	12.0	6.0	0.0	1.0	1.0	1.0	1.0
	중학교	41.7	33.3	16.7	8.3	0.0	0.0	0.0	0.0	0.0	0.0
	고등학교	27.6	35.5	22.4	11.8	1.3	1.3	0.0	0.0	0.0	0.0
성적등급	낮다	20.0	46.7	26.7	6.7	0.0	0.0	0.0	0.0	0.0	0.0
	보통	29.9	32.2	20.7	14.9	1.1	1.1	0.0	0.0	0.0	0.0
	높다	41.0	27.7	9.6	9.6	7.2	0.0	1.2	1.2	1.2	1.2
경제적 수준	못 산다	37.9	32.8	15.5	12.1	1.7	0.0	0.0	0.0	0.0	0.0
	보통	30.1	32.7	18.6	12.4	2.7	0.9	0.9	0.9	0.0	0.9
	잘 산다	34.5	31.0	13.8	6.9	10.3	0.0	0.0	0.0	3.4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32.1	32.1	21.4	10.7	0.0	0.0	0.0	3.6	0.0	0.0
	보통이다	26.7	31.7	23.3	13.3	5.0	0.0	0.0	0.0	0.0	0.0
	행복함	36.6	33.0	12.5	10.7	3.6	0.9	0.9	0.0	0.9	0.9
형제·자매	0명	36.8	15.8	5.3	31.6	10.5	0.0	0.0	0.0	0.0	0.0
	1명	33.3	34.2	17.1	9.9	2.7	0.0	0.0	0.9	0.9	0.9
	2명	37.8	35.1	13.5	10.8	0.0	0.0	2.7	0.0	0.0	0.0
	3명 이상	24.2	33.3	27.3	6.1	6.1	3.0	0.0	0.0	0.0	0.0

자녀들이 부모와 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최빈치는 ‘밥 먹으면서’가 33.0%로 나타났고, 이어서 ‘수시로’가 32.5%, ‘텔레비전 보면서’가 17.0%, ‘잠들기 전에’가 11.5%, ‘기타’가 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는 남학생은 ‘밥 먹으면서’ 35.1%, 여학생은 ‘수시로’ 35.0%로 나타났다.

학령에 따른 최빈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밥 먹으면서’, 고등학생은 ‘수시로’로 나타났으나, 수시로 대화한다는 응답이 ‘초등학생’ 30.0% > ‘중학생’ 33.3% > ‘고등학생’ 35.5%로 나타나서 학령과 비례하였으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하는 비율도 ‘초등학생’ 13.0% > ‘중학생’ 16.7% > ‘고등학생’ 22.4%로 나타나서 학령과 비례하였다. 자녀들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수시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에 따른 최빈치는 ‘낮다’와 ‘보통’은 ‘수시로’, ‘높다’는 ‘밥을 먹으면서’

로 나타났다. ‘밥 먹으면서’라는 응답은 ‘낮다’ 20.0% < ‘보통’ 29.9% < ‘높다’ 41.0%의 비율로 나타났고, ‘수시로’라는 응답은 ‘낮다’ 46.7% > ‘보통’ 32.2% > ‘높다’ 27.7%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텔레비전을 보면서’라는 응답도 ‘낮다’ 26.7% > ‘보통’ 20.7% > ‘높다’ 9.6%의 비율로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비율이 높고,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수시로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최빈치는 ‘못 산다’와 ‘잘 산다’의 경우 ‘밥 먹으면서’, ‘보통’의 경우 ‘수시로’로 나타났다. 주로 휴일에 대화한다는 응답은 ‘못 산다’ 1.7% < ‘보통’ 2.7% < ‘잘 산다’ 10.3%의 비율로 나타났고, ‘잘 산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3.4%는 주로 야식을 먹으면서 대화한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휴일에 대화하거나 야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최빈치는 ‘불행함’의 경우 ‘밥 먹으면서’와 ‘수시로’, ‘보통이다’의 경우 ‘수시로’, ‘행복함’의 경우 ‘밥 먹으면서’로 나타나서 대화 장면은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형제·자매에 따른 최빈치는 ‘0명’과 ‘2명’의 경우 ‘밥 먹으면서’, ‘1명’과 ‘3명 이상’의 경우 ‘수시로’로 나타났다. 독자의 경우 수시로가 15.8%를 차지한 것에 비해 주로 잠들기 전에 대화한다는 응답이 31.6%로 나타나고, 주로 휴일에 대화한다는 비율도 10.5%를 차지하여서 부모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녀들이 부모와 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최빈치는 ‘밥 먹으면서’ 33.0%이고, 이어서 ‘수시로’가 32.5%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최빈치는 ‘밥 먹으면서’, 여학생의 최빈치는 ‘수시로’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수시로 이야기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비율이 높고,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휴일에 대화하거나 야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화 장면이 가족 행복도와는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4. 대화 주제

Q7. 나는 부모님과 주로 ()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① 장래 희망 ② 성적 ③ (이성) 친구 ④ 학교생활
 ⑤ 뉴스와 사건 ⑥ 기타()

(단위: %)

		학교 생활	성적	뉴스와 사건	하루일과 여러가지	장래 희망	(이성) 친구	집안일 가족일	놀이	관심사항	책임용 숙제관련
전체		47.0	15.0	14.5	8.5	7.5	5.0	1.0	0.5	0.5	0.5
성별	남성	44.2	16.9	14.3	5.2	9.1	7.8	0.0	0.0	1.3	1.3
	여성	48.8	13.8	14.6	10.6	6.5	3.3	1.6	0.8	0.0	0.0
학령	초등학교	61.0	12.0	4.0	2.0	7.0	10.0	1.0	1.0	1.0	1.0

	중학교	29.2	20.8	20.8	20.8	8.3	0.0	0.0	0.0	0.0	0.0
	고등학교	34.2	17.1	26.3	13.2	7.9	0.0	1.3	0.0	0.0	0.0
성적등급	낮다	40.0	20.0	23.3	10.0	3.3	0.0	3.3	0.0	0.0	0.0
	보통	39.1	16.1	12.6	11.5	14.9	5.7	0.0	0.0	0.0	0.0
	높다	57.8	12.0	13.3	4.8	1.2	6.0	1.2	1.2	1.2	1.2
경제적 수준	못 산다	37.9	12.1	22.4	17.2	5.2	3.4	1.7	0.0	0.0	0.0
	보통	50.4	15.9	11.5	5.3	8.0	7.1	0.9	0.0	0.0	0.9
	잘 산다	51.7	17.2	10.3	3.4	10.3	0.0	0.0	3.4	3.4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32.1	25.0	17.9	10.7	7.1	3.6	3.6	0.0	0.0	0.0
	보통이다	43.3	15.0	16.7	1.7	15.0	6.7	1.7	0.0	0.0	0.0
	행복함	52.7	12.5	12.5	11.6	3.6	4.5	0.0	0.9	0.9	0.9
형제·자매	0명	52.6	5.3	5.3	15.8	0.0	15.8	0.0	0.0	5.3	0.0
	1명	48.6	14.4	16.2	8.1	7.2	3.6	0.0	0.9	0.0	0.9
	2명	37.8	10.8	10.8	13.5	13.5	8.1	5.4	0.0	0.0	0.0
	3명 이상	48.5	27.3	18.2	0.0	6.1	0.0	0.0	0.0	0.0	0.0

자녀들이 부모와 주로 대화를 나누는 주제의 최빈치는 학교생활 47.0%로 나타났고, 이어서 성적 15.0%, 뉴스와 사건 14.5%, 하루일과 8.5%, 장래희망 7.5%, 기타 7.5%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는 모두 학교생활로 나타났으며, 성적을 주제로 하는 것은 남학생 16.9%, 여학생 13.8%로 남학생이 성적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학교생활이나 하루 일과와 같은 일상적인 것을 주제로 하는 것은 여학생이 59.4%, 남학생 53.3%로 나타나서 여학생이 일상적 대화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학교생활로 나타났으나, 초등학생은 학교생활 61.0% > 성적 12% > 친구 10%의 순서로, 중학생은 학교생활 29.2% > 성적 20.8% = 뉴스와 사건 20.8% = 하루일과 20.8%로 나타나서 주제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34.2% > 뉴스와 사건 26.3% > 성적 17.1%로 나타나서 성적보다는 뉴스와 사건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학교생활로 나타났으나, 성적을 주제로 이야기 하는 비율은 ‘낮다’ 20.0% > ‘보통’ 16.1% > ‘높다’ 12.0%로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성적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최빈치는 모두 학교생활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성적, 장래희망을 주제로 대화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관해 대화한다는 응답은 ‘못 산다’ 37.9% < ‘보통’ 50.4% < ‘잘 산다’ 51.7%의 비율로 나타났고, 성적에 관해 대화한다는 응답은 ‘못 산다’ 12.1% < ‘보통’ 15.9% < ‘잘 산다’ 17.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장래희망에 관해 대화한다는 응답은 ‘못 산다’ 5.2% < ‘보통’ 8.0% < ‘잘 산다’ 10.3%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뉴스와 사건, 하루 일과를 주제로 대화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뉴스와 사건에 관해 대화한다는 응답은 ‘못 산다’ 22.4% > ‘보통’ 11.5% > ‘잘 산다’ 10.3%의 비율로 나타났고, 하루 일과에 관해 대화한다는 응답은 ‘못 산다’ 17.2% > ‘보통’ 5.3% > ‘잘 산다’ 3.4%의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최빈치는 모두 학교생활로 나타났으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고,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관해 대화한다는 응답은 ‘불행함’ 32.1% < ‘보통’ 50.4% < ‘행복함’ 52.7%의 비율로 나타나서 행복도와 비례하였으나, 성적에 관해 대화한다는 응답은 ‘불행함’ 25.0% > ‘보통’ 15.0% > ‘행복함’ 12.5%의 비율로 나타나서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고, 성적을 직접적인 주제로 꺼내지 않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녀들이 부모와 주로 대화를 나누는 주제는 학교생활(47.0%)이 최빈치로 나타났고, 이어서 성적(15.0%), 뉴스와 사건(14.5%), 하루 일과(8.5%) 등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관한 주제는 남학생이 더 높고, 학교생활이나 하루 일과와 같은 일상적인 주제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령별로는 모두 학교생활에 관한 주제가 높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 다른 주제들과 분산되어 있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보다는 뉴스와 사건 등에 관한 주제가 높게 나타났다.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성적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성적, 장래희망을 주제로 대화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고,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5. 대화만족도

부모와의 대화에서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문항에 대해 5점의 척도를 제시하였고, 대화의 불만족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답하게 하였다.

1) 대화만족도

Q8. 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26	3.49	3.49	3.29	3.32	3.10	3.34	3.57	3.17	3.43	3.72	2.43	3.17	3.77	3.58	3.51	3.11	3.24	3.40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3.40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0점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3.26, 여학생 3.49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49 > ‘고등학생’ 3.32 > ‘중학생’ 3.29의 순으로 중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춘기와 중2병 등으로 이야기되는 현상이 대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3.10 < ‘보통’ 3.34 < ‘높다’ 3.57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대화만족도도 낮고,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대화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17 < ‘보통’ 3.43 < ‘잘 산다’ 3.72의 비율로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화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대화만족도도 역시 비례 관계에 있어서 ‘불행함’ 2.43 < ‘보통’ 3.17 < ‘행복함’ 3.77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으면 대화만족도도 낮고, 가족 행복도가 높으면 대화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만족하는 정도는 평균 3.40으로 평균 60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고, 초등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의 순으로 중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와 대화만족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의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며, 대화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가지는 대화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대화 불만족 요인

Q9.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대화 시간 ② 대화 내용 ③ 짜증 섞인 말투 ④ 화를 내는 태도 ⑤ 무시하는 태도
 ⑦ 대화 장소 ⑧ 기타

(단위: %)

		화내는 태도	짜증 섞인 말투	대화 내용	무시하는 태도	대화 시간	없음	기대하는 태도	이해 못하는 말투	말투함	끼어들기	대화 욕구 없음
전체		22.0	21.5	19.0	16.5	15.5	3.0	0.5	0.5	0.5	0.5	0.5
성별	남성	19.5	27.3	24.7	11.7	13.0	2.6	0.0	0.0	1.3	0.0	0.0
	여성	23.6	17.9	15.4	19.5	17.1	3.3	0.8	0.8	0.0	0.8	0.8
학령	초등학교	25.0	24.0	18.0	9.0	20.0	3.0	0.0	0.0	0.0	1.0	0.0
	중학교	33.3	20.8	4.2	20.8	8.3	8.3	0.0	4.2	0.0	0.0	0.0
	고등학교	14.5	18.4	25.0	25.0	11.8	1.3	1.3	0.0	1.3	0.0	1.3
성적 등급	낮다	13.3	16.7	20.0	33.3	10.0	3.3	0.0	0.0	3.3	0.0	0.0
	보통	23.0	28.7	18.4	13.8	10.3	2.3	1.1	1.1	0.0	0.0	1.1
	높다	24.1	15.7	19.3	13.3	22.9	3.6	0.0	0.0	0.0	1.2	0.0
경제적 수준	못 산다	22.4	24.1	20.7	17.2	6.9	1.7	1.7	1.7	1.7	1.7	0.0
	보통	21.2	24.8	19.5	15.0	15.9	2.7	0.0	0.0	0.0	0.0	0.9
	잘 산다	24.1	3.4	13.8	20.7	31.0	6.9	0.0	0.0	0.0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14.3	25.0	25.0	25.0	0.0	3.6	0.0	0.0	3.6	0.0	3.6
	보통이다	23.3	16.7	21.7	21.7	13.3	1.7	1.7	0.0	0.0	0.0	0.0
	행복함	23.2	23.2	16.1	11.6	20.5	3.6	0.0	0.9	0.0	0.9	0.0
형제 자매	0명	15.8	36.8	15.8	0.0	31.6	0.0	0.0	0.0	0.0	0.0	0.0
	1명	24.3	17.1	20.7	18.0	11.7	3.6	0.9	0.9	0.9	0.9	0.9
	2명	18.9	24.3	16.2	21.6	16.2	2.7	0.0	0.0	0.0	0.0	0.0
	3명 이상	21.2	24.2	18.2	15.2	18.2	3.0	0.0	0.0	0.0	0.0	0.0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불만족하는 요인에 대한 최빈치는 화내는 태도 22.0%로 나타났고, 이어서 짜증 섞인 말투 21.5%에, 대화 내용 19.0%, 무시하는 태도 16.5%, 대화 시간 15.5% 등으로 나타났다. 대화 내용이나 대화 시간과 같이 본질적 요인보다는 말투나 태도와 같은 대화 방법이 대화 불만족 요소로 많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는 남학생의 경우 짜증 섞인 말투 27.3%, 여학생의 경우 화내는 태도 23.6%로 나타났다. 대화 내용에 대한 불만은 남학생 24.7% > 여학생 15.4%로 나타나서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화 시간에 대한 불만은 남학생 13.0% < 여학생 17.1%로 나타나서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에 따른 최빈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화내는 태도’, 고등학생은 대화 내용과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화내는 태도 25.0%, 짜증 섞인 말투 24.0%에 이어 대화 시간이 20.0%를 차지하여 더 많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생은 화내는 태도 33.3%, 짜증 섞인 말투 20.8%, 무시하는 태도 20.8%로 나타나서 대화 방식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화 내용 25.0%, 무시하는 태도 25.0%에 이어 짜증 섞인 말투가 18.4%를 차지하여 내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대화 시간, 고등학생은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도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생은 모두 대화 방법에 대한 불만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서 사춘기를 겪으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특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에 따른 최빈치는 ‘낮다’의 경우 무시하는 태도, ‘보통’의 경우 짜증 섞인 말투, ‘높다’의 경우 화내는 태도로 나타났다. ‘화내는 태도’를 불만족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낮다’ 13.3% < ‘보통’ 23.0% < ‘높다’ 24.1%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화내는 태도에 대한 불만족이 크게 나타났지만, ‘무시하는 태도’를 불만족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낮다’ 33.3% > ‘보통’ 13.8% > ‘높다’ 13.3%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족이 크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최빈치는 ‘못 산다’와 ‘보통’의 경우 짜증 섞인 말투로 나타났으나, ‘잘 산다’의 경우 대화 시간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간에 대한 불만족은 ‘못 산다’ 6.9% < ‘보통’ 15.9% < ‘잘 산다’ 31.0%의 비율로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화 시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불만족하는 요인이 없다는 비율은 ‘못 산다’ 1.7% < ‘보통’ 2.7% < ‘잘 산다’ 6.9%로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불만족하는 요인이 없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최빈치는 ‘불행함’은 짜증 섞인 말투, 대화 내용, 무시하는 태도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보통’과 ‘행복하다’는 화내는 태도로 나타났다. 무시하는 태도를 불만족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25.0% > ‘보통’ 21.7% < ‘행복함’ 11.6%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무시하는 태도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화 시간을 불만족 요소로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0.0% < ‘보통’ 13.3% < ‘행복함’ 20.5%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불만족하는 요인은 화내는 태도, 짜증 섞인 말투, 대화 내용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화 내용이나 대화 시간과 같이 본질적 요인보다는 말투나 태도와 같은 대화 방법이 대화 불만족 요소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화 태도나 말투와 같이 비언어적인 소통방식에 대해 더 민감하고, 초등학생은 화내는 태도, 짜증 섞인 말투에 이어 대화 시간이라고 응답하여 더 많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생은 화내는 태도, 짜증 섞인 말투, 무시하는 태도와 같은 대화 방식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대화 내용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등급이 높을수록 화내는 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고,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화 시간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나 불만족 요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무시하는 태도에 민감하고,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대화 시간에 불만족하여 더 많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말하기

말하기는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말하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비언어적 요소인 신체 접촉 1문항, 대화 예절 9문항, 대화 내용 12문항, 갈등 처리 6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설계하여 조사하였다.

2.2.1. 신체 접촉

부모와의 대화에서 신체 접촉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눈 맞추기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부모님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답하게 하였다.

Q10. 나는 부모님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2.30	2.02	2.17	2.17	2.05	2.13	2.25	1.99	2.21	2.12	1.97	2.68	2.35	1.87	2.16	2.10	2.16	2.15	2.13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면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불편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2.1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8.1점, 부정의 가치를 긍정으로 환산하면 71.9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2.30, 여학생은 2.02로 나타나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2.17, 고등학교 2.05로 나타나서 학령이 올라갈수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2.25 > ‘낮다’ 2.14 > ‘높다’ 1.99로 나타났으나, ‘조금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다’ 23.3% > ‘보통’ 11.5% > ‘높다’ 10.8%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못 산다’ 2.21 > ‘보통’ 2.12 > ‘잘 산다’ 1.97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68 > ‘보통’ 2.35 > ‘행복함’ 1.87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면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불편한 정도는 평균 2.13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이 올라갈수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정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대화 예절

말하기에서 대화 예절을 지키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중어법 사용 1문항, 대화의 걸림돌 2문항, 인사 1문항, 존댓말 사용 1문항,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4문항 등 모두 9문항을 조사하였다.

1) 정중어법 사용

정중어법은 대화참여자 사이에 서로 더 정중하게 말을 주고받기 위해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화 방법을 말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Q1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09	3.19	3.23	3.17	3.04	3.00	3.09	3.27	3.07	3.15	3.31	3.29	3.03	3.18	3.05	3.23	3.05	3.03	3.15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면서 정중어법을 지키려면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얼마나 직설적으로 말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3.8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3.09, 여학생 3.19로 **여학생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23 > ‘중학생’ 3.17 > ‘고등학생’ 3.04의 순으로 학령이 높아질수록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3.00 < ‘보통’ 3.09 < ‘높다’ 3.27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07 < ‘보통’ 3.15 < ‘잘 산다’ 3.31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29 > ‘행복함’ 3.18 > ‘보통’ 3.03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불행하다고 응답한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면서 얼마나 직설적으로 말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3.8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이 높아질수록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등급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불행하다고 응답한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의를 지켜 말하는 것인 동시에 거리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예의바르게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부모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되는 면도 있어서 여학생이 더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도 있지만, 여학생이 더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는다.

2) 비평과 지적

비평이나 지적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말이지만, 상대방과 가깝다는 것을 기초로 가까운 관계에서는 비평이나 지적을 하게 되고 이것은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상대방에게 반발이나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2-1) 내가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정도

Q12. 나는 부모님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2.42	2.44	2.36	2.42	2.53	2.53	2.60	2.22	2.48	2.42	2.38	2.96	2.58	2.21	2.05	2.40	2.59	2.58	2.43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면서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2.4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5.8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2.42, 여학생 2.44로 여학생이 조금 더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2.36 < ‘중학생’ 2.42 < ‘고등학생’ 2.53의 순으로 학령이 높아질수록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2.60 > ‘낮다’ 2.53 > ‘높다’ 2.22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은 학생이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2.48 > ‘보통’ 2.42 > ‘잘 산다’ 2.38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96 > ‘보통’ 2.58 > ‘행복함’ 2.21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보면 ‘0명’ 2.05 < ‘1명’ 2.40 < ‘3명 이상’ 2.58 < ‘2명 이상’ 2.59와 같이 나타나서 자녀수가 적은 가정에서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면서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정도는 2.4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35.8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더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하고, 학령이 높아질수록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고, 다자녀 가정보다는 자녀수가 적은 가정에서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부모님이 나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Q13. 나는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하신다고 생각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29	3.16	3.14	3.21	3.30	2.97	3.33	3.17	3.19	3.19	3.31	3.32	3.20	3.19	3.16	3.32	3.05	3.06	3.21

부모님이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수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21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5.3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대화에서는 상대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밀한 비평을 하는 것이 대화의 장애가 된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는데, 실제로 자신을 위한다고 받아들이는 정도는 기대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 3.29, 여학생 3.16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비평이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14 < ‘중학생’ 3.21 < ‘고등학생’ 3.30의 순으로 나타나서 학령이 높아질수록 비평이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3.33 > ‘높다’ 3.17 > ‘낮다’ 2.97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보통 이상 되는 학생이 비평이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19 = ‘보통’ 3.19 < ‘잘 산다’ 3.31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비평이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32 > ‘보통’ 3.20 > ‘행복함’ 3.19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비평이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보면 ‘1명’ 3.32 > ‘0명’ 3.16 < ‘3명 이상’ 3.06 < ‘2명 이상’ 3.05와 같이 나타나서 자녀수가 적은 가정에서 비평이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이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수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21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5.3 정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비평이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이 높아질수록, 성적등급이 보통 이상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비평이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수가 적은 가정에서 비평이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사하기

Q14. 우리 가족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82	4.00	3.91	4.13	3.89	3.50	3.91	4.11	3.72	3.98	4.14	3.36	3.77	4.16	4.16	3.94	3.73	4.00	3.93

가족들이 드나들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9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73.3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3.82, 여학생 4.00으로 여학생이 가족들과 인사를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4.13 > ‘초등학생’ 3.91 > ‘고등학생’ 3.89의 순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가족들과 인사를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3.50 < ‘보통’ 3.91 < ‘높다’ 4.11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가족들과 인사를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72 < ‘보통’ 3.98 < ‘잘 산다’ 4.14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들과 인사를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36 < ‘보통’ 3.77 < ‘행복함’ 4.16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가족들과 인사를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4.16 > ‘3명 이상’ 4.00 > ‘1명’ 3.94 > ‘2명’ 3.73으로 나타나서 독자가 가장 인사를 많이 나누고, 여러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인사를 잘 나누지만, 두 자녀의 경우는 평균 정도, 세 자녀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은 정도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족들이 드나들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5점 기준으로 평균 3.9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73.3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가족들과 인사를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가족들과 인사를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존댓말 사용

Q15.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12	2.39	3.22	2.08	2.13	2.03	2.61	2.96	2.45	2.72	2.93	2.32	2.53	2.83	3.21	2.68	2.51	2.48	2.67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2.67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1.8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3.12, 여학생 2.39로 남학생이 부모님께 존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22 > ‘고등학생’ 2.13 > ‘중학생’ 2.08의 순으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부모님께 존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2.03 < ‘보통’ 2.61 < ‘높다’ 2.96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존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들과 인사를 더 많이 나누는 비율과도 일치되었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2.45 < ‘보통’ 2.72 < ‘잘 산다’ 2.93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존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들과 인사를 더 많이 나누는 비율과도 일치되었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32 < ‘보통’ 2.53 < ‘행복함’ 2.83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께 존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가족들과 인사를 더 많이 나누는 비율과도 일치되었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0명’ 3.21 < ‘1명’ 2.68 < ‘2명’ 2.51 < ‘3명 이상’ 2.48로 나타나서 독자가 존댓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형제·자매가 많아질수록 존댓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는 5점 기준으로 평균 2.67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1.8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초등학생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존댓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부모님이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응답하도록 설계하였고, 각각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심리가 무엇인지를 응답하도록 설계하여 조사하였다.

5-1) 내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

Q16.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1.71	1.89	1.87	1.58	1.83	2.23	1.83	1.66	1.95	1.64	2.28	2.32	1.97	1.62	1.79	1.77	2.14	1.67	1.82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1.82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0.5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1.71, 여학생 1.89로 여학생이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여학생 52.8%이 남학생 59.7%에 비해 낮았고, 많이 사용하는 비율도 남학생 1.3%에 비해 여학생은 0.0%로 나타나서 정도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이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1.87 > ‘고등학생’ 1.83 > ‘중학생’ 1.58의 순으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인사를 하는 비율은 가장 높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도 가장 낮지만, 존댓말을 하는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세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2.23 > ‘보통’ 1.83 > ‘높다’ 1.66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존댓말을 하거나, 인사를 하는 비율과는 반비례하는 현상이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잘 산다’ 2.28 > ‘못 산다’ 1.95 > ‘보통’ 1.64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32 > ‘보통’ 1.97 > ‘행복함’ 1.62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께 욕설과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존댓말을 하는 비율과는 반비례하는 현상이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명’ 2.14 > ‘0명’ 1.79 > ‘1명’ 1.77 > ‘3명 이상’ 1.67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두 명이 있는 세 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형제·자매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1.82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0.5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도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께 욕설과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내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관해 질문하였다.

Q16-1. 내가 부모님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

(단위: %)

		습관이다	친하기 때문이다	화가 나서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
전체		30.6	28.6	18.4	12.2	10.2
성별	남성	23.5	23.5	11.8	17.6	23.5
	여성	34.4	31.3	21.9	9.4	3.1
학령	초등학교	25.9	22.2	18.5	18.5	14.8
	중학교	33.3	0.0	66.7	0.0	0.0
	고등학교	36.8	42.1	10.5	5.3	5.3
성적등급	낮다	41.7	25.0	25.0	0.0	8.3
	보통	30.4	17.4	21.7	26.1	4.3
	높다	21.4	50.0	7.1	0.0	21.4
경제적 수준	못 산다	41.2	23.5	11.8	17.6	5.9
	보통	31.6	26.3	21.1	15.8	5.3
	잘 산다	15.4	38.5	23.1	0.0	23.1
가족 행복도	불행함	18.2	27.3	27.3	18.2	9.1
	보통이다	42.1	5.3	26.3	21.1	5.3
	행복함	26.3	52.6	5.3	0.0	15.8
형제·자매	0명	25.0	50.0	25.0	0.0	0.0
	1명	26.9	30.8	11.5	19.2	11.5
	2명	35.7	14.3	35.7	7.1	7.1
	3명 이상	40.0	40.0	0.0	0.0	20.0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최빈치는 ‘습관이다’로 나타났고, 이어서 ‘친하기 때문이다’ 28.6% > ‘화가 나서이다’ 18.4% > ‘무시하기 때문이다’ 12.2% > ‘재미 때문이다’ 10.2%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는 남학생의 경우 ‘습관이다’ 23.5%, ‘친하기 때문이다’ 23.5%, ‘재미 때문이다’ 23.5%로 세 가지 이유가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습관이다’가 34.4%로 가장 높고, ‘친하기 때문이다’ 31.3%, 그리고 ‘화가 나서이다’ 21.3%의 순서로 나타났다. 재미 때문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23.5%에 비해 여학생은 3.1%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령별에 따른 최빈치는 초등학생은 ‘습관이다’, 중학생은 ‘화가 나서이다’, 고등학생은 ‘친하기 때문이다’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화가 나서이다’가 66.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습관이다’ 33.3%로 나타나서 사춘기를 겪는 중학생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고, 모든 학령에서 ‘습관이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가 ‘초등학생’ 25.9% < ‘중학생’ 33.3% < ‘고등학생’ 36.8%로 나타나서 학령이 올라갈수록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에 따른 최빈치는 ‘낮다’와 ‘보통이다’의 경우 ‘습관이다’, ‘높다’의 경우 ‘친하기 때문이다’로 나타났다. ‘습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41.7% > ‘보통’ 30.4% > ‘높다’ 21.4%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존댓말을 하거나, 인사를 하는 비율과는 반비례하는 현상이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최빈치는 ‘못 산다’와 ‘보통’의 경우 ‘습관이다’, ‘잘 산다’의 경우 ‘친하기 때문이다’로 나타났다. ‘습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못 산다’ 41.2% > ‘보통’ 31.6% > ‘잘 산다’ 15.4%와 같이 나타나서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큰 차이로 나타나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습관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최빈치는 ‘불행하다’의 경우, ‘친하기 때문이다’와 ‘화가 나서이다’로, ‘보통이다’의 경우 ‘습관이다’로, ‘행복하다’의 경우 ‘친하기 때문이다’로 나타났다. ‘화가 나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27.3% > ‘보통’ 26.3% > ‘행복함’ 5.3%와 같이 나타나고,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보통’ 21.1% > ‘불행함’ 18.2% > ‘행복함’ 0.0%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은 자녀들은 화가 나가거나 무시를 당해서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행복도가 높은 자녀들은 부모님과 친하다고 느끼거나 재미있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에 따른 최빈치는 ‘0명’과 ‘1명’은 ‘친하기 때문이다’로, ‘2명’은 ‘습관이다’와 ‘화가 나서이다’로, ‘3명 이상’은 ‘습관이다’와 ‘친하기 때문이다’로 나타났다. 습관적으로 욕설을 한다는 비율은 ‘0명’ 25.0% < ‘1명’ 26.9% < ‘2명’ 35.7% < ‘3명 이상’ 40.0%으로 나타나서 형제·자매

가 많을수록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습관이다’ 30.6% > ‘친하기 때문이다’ 28.6% > ‘화가 나서이다’ 18.4% > ‘무시하기 때문이다’ 12.2% > ‘재미 때문이다’ 10.2%의 순서로 나타났다. ‘습관’이라고 응답한 것은 여학생이 더 높지만 ‘친하기 때문’이나 ‘재미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공격성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고, 학령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화가 나서이다’가 66.7%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 18.4%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은 보여서 사춘기를 겪는 중학생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고, 학령이 올라갈수록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존댓말을 하거나, 인사를 하는 비율과는 반비례하는 현상이다. 가족 행복도가 낮은 자녀들은 화가 나거나 무시를 당해서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행복도가 높은 자녀들은 부모님과 친하다고 느끼거나 재미있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부모님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

Q17. 부모님은 나와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하신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1.96	1.94	1.81	2.21	2.05	2.33	2.11	1.64	2.00	1.91	2.00	2.64	2.02	1.74	1.79	1.98	2.14	1.73	1.95

부모님이 나와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1.9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3.8 정도이며, 자녀들 스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1.82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1.96)이, 여학생(1.94)보다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듣는 비율이 높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2.21 > ‘고등학생’ 2.05 > ‘초등학생’ 1.81의 순서로 중고등학생의 부모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2.33 > ‘보통’ 2.11 > ‘높다’ 1.64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부모님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2.00 = ‘잘 산다’ 2.00 > ‘보통’ 1.91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과는 특별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64 > ‘보통’ 2.02 > ‘행복함’ 1.74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명’ 2.14 > ‘1명’ 1.98 > ‘독자’ 1.79 > ‘3명 이상’ 1.72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많아질수록 부모님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다자녀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가장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도 낮고, 듣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이 나와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1.9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0.5 정도를 보이며 자녀들 스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듣는 비율이 높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학령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모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수준과는 특별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적등급과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높을수록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가 많아질수록 부모님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다자녀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가장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도 낮고, 듣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4) 부모님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Q17-1. 부모님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

(단위: %)

		화가 나서이다	친하기 때문이다	습관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
전체		31.7	28.3	18.3	13.3	8.3
성별	남성	40.0	30.0	15.0	10.0	5.0
	여성	27.5	27.5	20.0	15.0	10.0
학령	초등학교	25.0	16.7	16.7	20.8	20.8
	중학교	44.4	33.3	11.1	11.1	0.0
	고등학교	33.3	37.0	22.2	7.4	0.0
성적등급	낮다	30.0	30.0	30.0	10.0	0.0
	보통	34.3	25.7	17.1	20.0	2.9
	높다	26.7	33.3	13.3	0.0	26.7
경제적 수준	못 산다	12.5	50.0	25.0	12.5	0.0
	보통	40.0	20.0	20.0	14.3	5.7
	잘 산다	33.3	22.2	0.0	11.1	33.3
가족 행복도	불행함	35.7	14.3	21.4	28.6	0.0
	보통이다	33.3	14.3	33.3	14.3	4.8
	행복함	28.0	48.0	4.0	4.0	16.0
형제·자매	0명	20.0	60.0	0.0	0.0	20.0
	1명	32.4	26.5	20.6	11.8	8.8
	2명	23.1	23.1	30.8	15.4	7.7
	3명 이상	50.0	25.0	0.0	25.0	0.0

부모님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이다’ 31.7% > ‘친하기 때문이다’ 28.3% > ‘습관이다’ 18.3% > ‘무시하기 때문이다’ 13.3% > ‘재미 때문이다’ 8.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습관이다’ 30.6% > ‘친하기 때문이다’ 28.6% > ‘화가 나서이다’ 18.4% > ‘무시하기 때문이다’ 12.2% > ‘재미 때문이다’ 10.2%의 순서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부모님의 경우 ‘화가 나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는 남학생은 ‘화가 나서이다’로, 여학생은 ‘화가 나서이다’와 ‘친하기 때문’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화가 나서이다’가 최빈치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은 40.0%로 여학생 27.5%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령에 따른 최빈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화가 나서이다’로, 고등학생은 ‘친하기 때문이다’로 나타났다. ‘친하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은 ‘초등학생’ 16.7% < ‘중학생’ 33.3% < ‘고등학생’ 37%로 학령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무시하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은 ‘초등학생’ 20.8% > ‘중학생’ 11.1% > ‘고등학생’ 7.4%로 나타나서 학령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의 공격적 언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에 따른 최빈치는 ‘낮다’는 ‘화가 나서이다’, ‘친하기 때문이다’, ‘습관이다’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보통’의 경우 ‘화가 나서이다’, ‘높다’의 경우, ‘친하기 때문이다’로 나타났다. ‘습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30.0% > ‘보통’ 17.1% > ‘높다’ 13.3%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부모님이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재미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0.0% < ‘보통’ 2.9% < ‘높다’ 26.7%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재미 삼아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최빈치는 ‘못 산다’는 ‘친하기 때문이다’로, ‘보통’과 ‘잘 산다’의 경우 ‘화가 나서이다’로 나타났다. ‘습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못 산다’ 25.0% > ‘보통’ 20.6% > ‘잘 산다’ 0.0%와 같이 나타나서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큰 차이로 나타나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습관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녀 스스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과도 일치되는 현상이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최빈치는 ‘불행함’은 ‘화가 나서이다’로, ‘보통’은 ‘화가 나서’와 ‘습관이다’로, ‘행복함’은 ‘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화가 나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35.7% > ‘보통’ 33.3% > ‘행복함’ 28.9%와 같이 나타나고,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28.6% > ‘보통’ 14.3% > ‘행복함’ 4.0%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이 화가 나거나 자신을 무시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14.3% = ‘보통’ 14.3% < ‘행복함’ 48.0%와 같이 나타나고, ‘재미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0.0% < ‘보통’ 4.8% < ‘행복함’ 16.0%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이 친하거나 재미 때문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매에 따른 최빈치는 ‘독자(0명)’의 경우, ‘친하기 때문’으로, ‘1명’과 ‘3명 이상’의 경우 ‘화가 나서’로, ‘2명’의 경우 ‘습관이다’로 나타났다.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독자’ 0.0% < ‘1명’ 11.8% < ‘2명’ 15.4% < ‘3명 이상’ 25%와 같이 나타나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을 무시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독자’ 20.0% > ‘1명’ 8.8% > ‘2명’ 7.7% < ‘3명 이상’ 0.0%와 같이 나타나서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모님이 자신과 친하기 때문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이다’ > ‘친하기 때문이다’ > ‘습관이다’ > ‘무시하기 때문이다’ > ‘재미 때문이다’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화가 나서이다’와 ‘친하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습관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령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의 욕설이나 비속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부모님이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재미 삼아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큰 차이로 나타나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습관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이 화가 나거나 자신을 무시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이 친하거나 재미 때문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을 무시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모님이 자신과 친하기 때문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2.3. 대화 내용

말하기에서 대화 내용이 어떠한지를 칭찬과 감사 2문항, 비교하는 말 2문항,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 2문항, 유머 사용 2문항, 의견 수용 2문항, 거짓말 2문항 등 총 12문항을 조사하였다.

1) 칭찬과 감사

1-1) 내가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경우

Q18. 나는 부모님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09	2.99	3.23	2.88	2.82	2.50	2.97	3.29	2.90	2.96	3.55	2.39	2.75	3.34	3.42	3.06	3.05	2.67	3.03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0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0.8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09)이 여학생(2.99)보다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23 > ‘중학생’ 2.88 > ‘고등학생’ 2.82의 순으로 학령이 낮을수록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2.50 < ‘보통’ 2.97 < ‘높다’ 3.29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2.90 < ‘보통’ 2.96 < ‘잘 산다’ 3.55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39 < ‘보통’ 2.75 < ‘행복함’ 3.34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3.42 > ‘1명’ 3.06 > ‘2명’ 3.05 > ‘3명 이상’ 2.67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0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0.8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령이 낮을수록,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부모님이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경우

Q19. 부모님은 나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21	3.25	3.58	2.88	2.89	2.47	3.10	3.65	2.97	3.20	3.90	2.39	2.87	3.64	4.05	3.32	2.92	2.85	3.24

부모님은 나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24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5.9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들 스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3.0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3.25)이 남학생(3.21)보다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듣는 비율이 높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58 > ‘고등학생’ 2.89 > ‘중학생’ 2.88의 순으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2.47 < ‘보통’ 3.10 < ‘높다’ 3.65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2.97 < ‘보통’ 3.20 > ‘잘 산다’ 3.90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39 < ‘보통’ 2.87 < ‘행복함’ 3.64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4.05 > ‘1명’ 3.32 > ‘2명’ 2.92 > ‘3명 이상’ 2.85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께서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24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5.9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이 말한다고 응답한 3.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비교하는 말

2-1) 내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

Q20. 나는 부모님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2.19	1.92	2.10	1.88	1.97	1.63	2.30	1.88	1.81	2.07	2.28	2.29	2.32	1.80	1.89	1.95	2.16	2.18	2.03

부모님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2.0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5.6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2.19)이 여학생(1.92)보다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2.10 > ‘고등학생’ 1.97 > ‘중학생’ 1.88의 순으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1.63 < ‘높다’ 1.88 < ‘보통’ 2.30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보통 수준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1.81 < ‘보통’ 2.07 < ‘잘 산다’ 2.28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통’ 2.32 > ‘불행함’ 2.29 > ‘행복함’ 1.80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보통보다 낮은 자녀가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1.89 < ‘1명’ 1.95 < ‘2명’ 2.16 < ‘3명 이상’ 2.18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2.0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5.6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성적등급과 가족 행복도는 보통 수준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2) 부모님이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

Q21. 부모님은 나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하신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2.97	2.80	2.91	2.79	2.84	2.80	2.98	2.78	2.66	3.03	2.69	3.68	3.08	2.55	3.00	2.77	2.97	3.00	2.87

부모님은 나에게 비교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2.87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6.8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들 스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2.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2.97)이 여학생(2.80)보다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2.91 > ‘고등학생’ 2.84 > ‘중학생’ 2.79의 순으로 초등학생이 중고등

학생보다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2.98 > ‘낮다’ 2.80 > ‘높다’ 2.78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보통 수준에서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2.97 < ‘보통’ 3.20 < ‘잘 산다’ 3.90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68 > ‘보통’ 3.08 > ‘행복함’ 2.55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3명 이상’ 3.00 > ‘2명’ 2.97 > ‘1명’ 2.77로 나타나서 독자와 다자녀가 두세 자녀인 경우보다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께서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2.87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6.8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이 한다고 한 2.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등급은 보통 정도,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독자와 형제·자매가 세 명 이상인 경우보다 형제·자매가 한두 명인 경우에 부모님께 비교하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기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

자신이 그동안 노력한 것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1) 내 노력을 드러내는 말

Q22. 나는 부모님에게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이나 내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27	2.99	3.20	3.29	2.91	2.60	3.24	3.13	2.98	3.18	3.03	2.79	3.22	3.12	3.21	3.04	3.24	3.09	3.10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0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2.5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27)이 여학생(2.99)보다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3.29 > ‘초등학생’ 3.20 > ‘고등학생’ 2.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3.24 > ‘높다’ 3.13 > ‘낮다’ 2.60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으면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3.18 > ‘잘 산다’ 3.13 > ‘못 산다’ 2.60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통’ 3.22 > ‘행복함’ 3.12 > ‘불행함’ 2.79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은 경우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명’ 3.24 > ‘독자(0명)’ 3.21 > ‘3명 이상’ 3.09 > ‘1명’ 3.04로 나타나서 형제·자매와 관련된 두드러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0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2.5 정도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용 비율이 높고,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적등급이나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낮은 경우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 가정에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2) 부모님이 공을 드러내는 말

Q23. 부모님은 나에게 그동안 당신이 한 노력이나 당신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신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27	2.96	2.99	2.88	3.26	3.00	3.18	3.00	3.24	3.01	3.03	3.21	3.18	2.99	3.11	3.06	3.22	2.97	3.08

부모님은 나에게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자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08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2.0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들 스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3.10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27)이 여학생(2.96)보다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고, 학령별로는 ‘고등학생’ 3.26 > ‘초등학생’ 2.99 > ‘중학생’ 2.88의 순으로 고등학생이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3.18 < ‘낮다’ 3.00 = ‘높다’ 3.00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보통일 경우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24 > ‘잘 산다’ 3.03 > ‘보통’ 3.01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21 > ‘보통’ 3.18 > ‘행복함’ 2.99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 경우 부모님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명’ 3.22 > ‘독자(0명)’ 3.11 > ‘1명’ 3.06 > ‘3명 이상’ 2.97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께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08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2.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이 한다고 한 3.10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등급은 보통일 경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과 가족 행복도가 낮을 경우 부모님께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시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유머 사용

대화 중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4-1) 내가 하는 유머

Q24. 나는 부모님에게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31	3.28	3.46	3.38	3.05	2.73	3.32	3.47	3.09	3.30	3.69	2.64	3.13	3.54	3.68	3.32	3.30	3.00	3.30

부모님께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30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7.4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31)이 여학생(3.28)보다 부모님께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46 > ‘중학생’ 3.38 > ‘고등학생’ 3.05의 순으로 학령이 낮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2.73 < ‘보통’ 3.32 < ‘높다’ 3.47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09 < ‘보통’ 3.30 < ‘잘 산다’ 3.69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64 < ‘보통’ 3.13 < ‘행복함’ 3.54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3.68 > ‘1명’ 3.32 > ‘2명’ 3.30 > ‘3명 이상’ 3.00으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께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30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7.4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령이 낮을수록,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비율과 동일한 현상이다.

4-2) 부모님이 하는 유머

Q25. 부모님은 나에게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하십니까.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21	3.26	3.34	3.21	3.12	2.67	3.16	3.53	3.05	3.21	3.72	2.71	2.93	3.54	3.63	3.28	3.30	2.82	3.24

부모님은 나에게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24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6.0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들 스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3.30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3.26)이 남학생(3.21)보다 부모님께 유머를 듣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34 > ‘중학생’ 3.21 > ‘고등학생’ 3.12의 순으로 학령이 낮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2.67 < ‘보통’ 3.16 < ‘높다’ 3.53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05 < ‘보통’ 3.21 < ‘잘 산다’ 3.72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71 < ‘보통’ 2.93 < ‘행복함’ 3.54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3.63 > ‘2명’ 3.30 > ‘1명’ 3.28 > ‘3명 이상’ 2.82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적을 때 부모님께 유머를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께서 말할 때 유머를 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24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6.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이 한다고 한 3.3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학령이 낮을수록,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께 유머를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의견 수용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부모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지를 묻는 문항과 부모님이 내 의견을 잘 받아들이시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5-1) 부모님 의견 수용

Q26. 나는 부모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43	3.29	3.49	3.25	3.18	3.07	3.32	3.47	3.29	3.30	3.62	2.89	3.12	3.58	3.79	3.39	3.27	3.03	3.35

부모님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3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8.6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43)이 여학생(3.29)보다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49 > ‘중학생’ 3.25 > ‘고등학생’ 3.18의 순으로 학령이 낮을수록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3.07 < ‘보통’ 3.32 < ‘높다’ 3.47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29 < ‘보통’ 3.30 < ‘잘 산다’ 3.62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89 < ‘보통’ 3.12 < ‘행복함’ 3.58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3.79 > ‘1명’ 3.39 > ‘2명’ 3.27 > ‘3명 이상’ 3.03으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3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8.6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령이 낮을수록,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칭찬이나 감사, 유머를 사용하는 비율과도 동일한 현상이다.

5-2) 내 의견 수용

Q27.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47	3.43	3.54	3.38	3.34	3.13	3.33	3.67	3.28	3.37	4.07	2.82	3.18	3.74	3.53	3.52	3.32	3.27	3.45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4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1.1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들 스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3.35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47)이 여학생(3.43)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54 > ‘중학생’ 3.38 > ‘고등학생’ 3.34의 순으로 학령이 낮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3.13 < ‘보통’ 3.33 < ‘높다’ 3.67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28 < ‘보통’ 3.37 > ‘잘 산다’ 4.07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82 < ‘보통’ 3.18 < ‘행복함’ 3.74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3.53 > ‘1명’ 3.52 > ‘2명’ 3.32 > ‘3명 이상’ 3.27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4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1.1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이 한다고 한 3.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학령이 낮을수록,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거짓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정도를 내가 하는 것과 부모님이 하시는 것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6-1) 나의 거짓말

Q29. 나는 곤란하면 부모님에게 거짓말도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09	3.15	3.02	3.33	3.21	3.40	3.17	2.99	3.21	3.12	3.03	3.46	3.35	2.93	2.89	3.19	3.11	3.09	3.13

곤란하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3.3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3.15)이 남학생(3.09)보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3.33 > ‘고등학생’ 3.21 > ‘초등학생’ 3.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3.40 > ‘보통’ 3.17 > ‘높다’ 2.99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21 > ‘보통’ 3.12 > ‘잘 산다’ 3.03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님께 거짓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46 > ‘보통’ 3.35 > ‘행복함’ 2.93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명’ 3.19 > ‘2명’ 3.11 > ‘3명 이상’ 3.09 > ‘독자(0명)’ 2.89

로 나타나서 두 자녀의 경우 가장 높고, 독자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곤란하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3.3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용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적등급이나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고, 독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6-2) 부모님의 거짓말

Q30. 부모님은 곤란하면 나에게 거짓말도 하신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2.78	2.70	2.77	2.92	2.62	2.63	2.91	2.58	2.67	2.85	2.38	3.36	2.85	2.51	2.68	2.74	2.73	2.73	2.73

부모님은 곤란하면 나에게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2.72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3.3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3.13보다 낮은 것이다.

성별로는 남학생(2.78)이 여학생(2.70)보다 부모님께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2.92 > ‘초등학생’ 2.77 > ‘고등학생’ 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2.91 > ‘낮다’ 2.63 > ‘높다’ 2.58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보통보다 낮을 경우 부모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2.85 > ‘못 산다’ 2.67 > ‘잘 산다’ 2.38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보통보다 낮을 경우 부모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36 > ‘보통’ 2.85 > ‘행복함’ 2.51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명’ 2.74 > ‘2명’ = ‘3명 이상’ 2.73 > ‘독자(0명)’ 2.68로 나타나서 두 자녀의 경우 가장 높고, 독자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은 곤란하면 나에게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2.72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3.3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응답한 3.13보다 낮은 비율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나 그보다 낮을 경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고, 독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2.4. 갈등 처리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중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갈등 회피 2문항, 쌓인 감정 드러내기 2문항, 가족회의 필요성 1문항, 싸움으로 끝나기 1문항 등 6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갈등 회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지를 나와 부모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1) 나의 회피

Q31.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06	3.21	3.07	3.38	3.20	3.13	3.33	2.98	3.07	3.26	2.93	3.54	3.38	2.94	2.89	3.22	3.05	3.21	3.16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6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3.9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3.21)이 남학생(2.99)보다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3.38 > ‘고등학생’ 3.20 > ‘초등학생’ 3.07의 순으로 **중고등학생이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3.33 > ‘낮다’ 3.13 > ‘높다’ 2.98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보통보다 낮을 경우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3.26 < ‘못 산다’ 3.07 < ‘잘 산다’ 2.93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보통보다 낮을 경우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54 > ‘보통’ 3.38 > ‘행복함’ 2.94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명’ 3.22 > ‘3명 이상’ 3.21 > ‘2명’ 3.05 > ‘독자(0명)’ 2.89로 나타나서 독자의 경우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6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3.9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3.21)이 남학생(2.99)보다 높고,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으며, 성적등급이나 경제적 수준이 보통보다 낮을 경우, 가족 행복도가 낮을 경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독자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부모님의 회피

Q32. 부모님은 나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신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2.65	2.47	2.57	2.29	2.58	2.40	2.70	2.42	2.71	2.55	2.17	2.75	2.85	2.32	2.37	2.45	2.81	2.64	2.54

부모님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2.54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8.5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가 피하려고 한다고 응답한 3.16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2.65)이 여학생(2.47)보다 부모님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고등학생’ 2.58 > ‘초등학생’ 2.57 > ‘중학생’ 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2.70 > ‘높다’ 2.42 > ‘낮다’ 2.40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보통보다 높을 경우 부모님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2.71 < ‘보통’ 2.55 < ‘잘 산다’ 2.17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님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통’ 2.85 > ‘불행함’ 2.75 > ‘행복함’ 2.32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보통보다 낮을 경우 부모님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명’ 2.81 > ‘3명 이상’ 2.64 > ‘1명’ 2.45 > ‘독자(0명)’ 2.37로 나타나서 독자의 경우 부모님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2.54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8.5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내가 피하려고 한다고 응답한 3.16보다 낮은 비율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고등학생이 높고 중학생은 낮게 나타났으며, 성적등급이 보통보다 높을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보통보다 낮을 경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독자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쌓인 감정 드러내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부터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쌓인 감정 드러내기를 하는 정도를 내가 하는 것과 부모님이 하시는 것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1) 나의 쌓인 감정 드러내기

Q33. 나는 부모님에게 화가 나면 부모님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2.47	2.55	2.47	2.54	2.58	2.60	2.63	2.37	2.60	2.56	2.21	2.82	2.90	2.24	2.32	2.47	2.65	2.67	2.52

화가 나면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이야기하여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 2.52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8.0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2.55)이 남학생(2.47)보다 부모님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고등학생’ 2.58 > ‘중학생’ 2.54 > ‘초등학생’ 2.47의 순으로 나타나서 학령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2.63 > ‘낮다’ 2.60 > ‘높다’ 2.37과 같이 나

타나서 성적등급이 보통보다 낮은 경우 부모님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2.60 > ‘보통’ 2.56 > ‘잘 산다’ 2.21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님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통’ 2.90 > ‘불행함’ 2.82 > ‘행복함’ 2.24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보통보다 낮은 경우 부모님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명 이상’ 2.67 > ‘2명’ 2.65 > ‘1명’ 2.47 > ‘독자(0명)’ 2.32로 나타나서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님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화가 나면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이야기하며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 2.52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8.0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2.55)이 남학생(2.47)보다 높고, 학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등급과 가족 행복도가 보통보다 낮은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부모님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2) 부모님의 쌓인 감정 드러내기

Q34.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하십니까.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04	3.12	2.98	3.42	3.13	3.33	3.14	2.95	3.17	3.18	2.59	3.82	3.50	2.69	2.79	3.04	3.30	3.21	3.09

부모님은 화가 나면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이야기하시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3.09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2.3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의 경우 2.52로 응답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3.12)이 남학생(3.04)보다 부모님이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3.42 > ‘고등학생’ 3.13 > ‘초등학생’ 2.98의 순으로 나타나서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3.33 > ‘보통’ 3.14 > ‘높다’ 2.95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부모님이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3.18 > ‘못 산다’ 3.17 > ‘잘 산다’ 2.59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보통보다 낮은 경우 부모님이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82 > ‘보통’ 3.50 > ‘행복함’ 2.69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부모님이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명’ 3.30 > ‘3명 이상’ 3.21 > ‘1명’ 3.04 > ‘독자(0명)’ 2.79로 나타나서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 부모님이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독자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은 화가 나면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이야기하시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 3.09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2.3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의 경우 2.52로 응답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중학생이 가장 높으며, 성적등급과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보통보다 낮은 경우,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 부모님이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가족회의의 필요성

우리 가족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Q35. 우리 가족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18	2.93	3.20	3.04	2.80	3.00	2.99	3.08	2.95	3.05	3.10	3.00	3.13	2.98	3.47	2.85	3.38	3.00	3.03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평균 3.0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0.8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18)이 여학생(2.93)보다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20 > ‘중학생’ 3.04 > ‘고등학생’ 2.80의 순으로 나타나서 학령이 낮을수록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높다’ 3.08 > ‘낮다’ 3.00 > ‘보통’ 2.99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은 학생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2.95 < ‘보통’ 3.05 < ‘잘 산다’ 3.10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통’ 3.13 > ‘불행함’ 3.00 > ‘행복함’ 2.98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보통보다 낮은 경우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3.47 > ‘2명’ 3.38 > ‘3명 이상’ 3.00 > ‘1명’ 2.85로 나타나서 독자의 경우 다자녀보다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평균 3.0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0.8 정도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학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등급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행복도가 보통보다 낮은 경우, 다자녀보다 독자의 경우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싸움으로 끝내는 대화

가족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싸움으로 끝나는지를 조사하였다.

Q36. 우리 가족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난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2.23	2.19	2.17	2.33	2.21	2.33	2.33	2.02	2.36	2.12	2.21	3.11	2.55	1.79	2.05	2.13	2.35	2.39	2.21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평균 2.21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0.1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2.23)이 여학생(2.19)보다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2.33 > ‘고등학생’ 2.21 > ‘초등학생’ 2.17의 순으로 나타나서 중학생이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 ‘보통’ 2.33 > ‘높다’ 3.08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보통보다 낮은 경우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2.36 < ‘잘 산다’ 2.21 < ‘보통’ 2.12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11 > ‘보통’ 2.55 > ‘행복함’ 1.79와 같이 나타나

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2.05 < ‘1명’ 2.13 < ‘2명’ 2.35 < ‘3명 이상’ 2.39로 나타나서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평균 2.21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0.1 정도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중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학령이 낮을수록 싸움으로 끝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등급이 보통보다 낮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3. 듣기

듣기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듣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끝까지 듣기 2문항, 반응 보이며 듣기 2문항, 듣고 싶은 말 1문항, 듣기 싫은 말 1문항 등 총 6문항으로 설계하여 조사하였다.

2.3.1. 듣기 정도

1) 부모님 말 듣기

Q37. 나는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산다	보통	잘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47	3.40	3.49	3.25	3.39	3.23	3.41	3.51	3.34	3.44	3.52	3.00	3.30	3.60	3.53	3.49	3.43	3.15	3.43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4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0.6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47)이 여학생(3.40)보다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듣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3.49 > ‘고등학생’ 3.39 > ‘중학생’ 3.25의 순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3.23 < ‘보통’ 3.41 < ‘높다’ 3.51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34 < ‘보통’ 3.44 < ‘잘 산다’ 3.52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3.00 < ‘보통’ 3.30 < ‘행복함’ 3.60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3.53 > ‘1명’ 3.49 > ‘2명’ 3.43 > ‘3명 이상’ 3.15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듣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43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0.6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고,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칭찬과 감사, 유머를 사용하는 비율, 의견 받아들이기 등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2) 내 말 들어주시기

Q38. 부모님은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들어주신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26	3.15	3.19	3.00	3.25	3.07	3.01	3.42	3.09	3.12	3.66	2.32	3.15	3.43	3.47	3.25	3.08	2.94	3.19

부모님은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9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4.8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들 스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3.4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26)이 여학생(3.15)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학령별로는 ‘고등학생’ 3.25 > ‘초등학생’ 3.19 > ‘중학생’ 3.19의 순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3.01 < ‘낮다’ 3.07 < ‘높다’ 3.42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은 경우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09 < ‘보통’ 3.12 < ‘잘 산다’ 3.66과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32 < ‘보통’ 3.15 < ‘행복함’ 3.43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3.47 > ‘1명’ 3.25 > ‘2명’ 3.08 > ‘3명 이상’ 2.94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9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4.8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들 스스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3.4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이 가장 낮았으며,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께서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2. 반응보이며 듣기

1) 내가 보이는 반응

Q39. 나는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49	3.52	3.50	3.54	3.51	3.37	3.37	3.71	3.41	3.50	3.72	2.96	3.40	3.71	3.79	3.54	3.43	3.33	3.51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51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2.8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3.52)이 남학생(3.49)보다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3.54 > ‘고등학생’ 3.51 > ‘초등학생’ 3.50의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낮다’ = ‘보통’ 3.37 < ‘높다’ 3.71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못 산다’ 3.41 < ‘보통’ 3.50 < ‘잘 산다’ 3.72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96 < ‘보통’ 3.40 < ‘행복함’ 3.71과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3.79 > ‘1명’ 3.54 > ‘2명’ 3.43 > ‘3명 이상’ 3.33으로 나타나서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51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2.8 정도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고, 중학생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칭찬이나 감사, 유머를 사용하는 비율, 의견 받아들이기 등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2) 부모님이 보이는 반응

Q40. 부모님은 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들으신다.

(기준: 5점 만점)

성별		학령			성적등급			경제적 수준			가족 행복도			형제·자매				전체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낮다	보통	높다	못 산다	보통	잘 산다	불행함	보통	행복함	0명	1명	2명	3명 이상	
3.29	3.22	3.25	3.29	3.22	3.00	2.98	3.61	3.24	3.15	3.62	2.71	2.95	3.54	3.84	3.20	3.38	2.91	3.25

부모님은 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2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6.1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들 스스로 사용하고 응답한 비율인 3.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29)이 여학생(3.22)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3.29 > ‘초등학생’ 3.25 > ‘고등학생’ 3.22의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2.98 < ‘낮다’ 3.00 < ‘높다’ 3.61과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은 경우 부모님이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3.15 < ‘못 산다’ 3.24 < ‘잘 산다’ 3.62와 같이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님이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함’ 2.71 < ‘보통’ 2.95 < ‘행복함’ 3.54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자(0명)’ 3.84 > ‘2명’ 3.38 > ‘1명’ 3.20 > ‘3명 이상’ 2.91로 나타나서 독자가 부모님이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3.2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6.1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들 스스로 반응을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인 3.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중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으며, 성적등급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독자의 경우 다자녀보다 높게 나타났다.

2.3.3.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Q42. 내가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은 ()이다.

(단위: %)

		노력에 대한 칭찬	행동에 대한 칭찬	성적에 대한 칭찬	성격에 대한 칭찬	없음	외모에 대한 칭찬	칭찬, 고마움 표현	용돈준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전체		52.0	26.5	10.0	5.5	3.0	1.5	0.5	0.5	0.5
성별	남성	55.8	23.4	11.7	3.9	3.9	1.3	0.0	0.0	0.0
	여성	49.6	28.5	8.9	6.5	2.4	1.6	0.8	0.8	0.8
학령	초등학교	51.0	29.0	10.0	3.0	2.0	3.0	0.0	1.0	1.0
	중학교	41.7	25.0	16.7	12.5	0.0	0.0	4.2	0.0	0.0
	고등학교	56.6	23.7	7.9	6.6	5.3	0.0	0.0	0.0	0.0
성적등급	낮다	43.3	13.3	16.7	16.7	6.7	0.0	0.0	3.3	0.0
	보통	59.8	23.0	6.9	3.4	2.3	3.4	1.1	0.0	0.0
	높다	47.0	34.9	10.8	3.6	2.4	0.0	0.0	0.0	1.2
경제적 수준	못 산다	56.9	13.8	8.6	12.1	5.2	1.7	0.0	0.0	1.7
	보통	48.7	33.6	10.6	3.5	1.8	0.9	0.9	0.0	0.0
	잘 산다	55.2	24.1	10.3	0.0	3.4	3.4	0.0	3.4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32.1	14.3	14.3	17.9	10.7	3.6	3.6	3.6	0.0
	보통이다	56.7	26.7	10.0	3.3	0.0	1.7	0.0	0.0	1.7
	행복함	54.5	29.5	8.9	3.6	2.7	0.9	0.0	0.0	0.0
형제·자매	0명	63.2	21.1	10.5	5.3	0.0	0.0	0.0	0.0	0.0
	1명	49.5	27.9	9.9	6.3	3.6	2.7	0.0	0.0	0.0

	2명	51.4	24.3	8.1	8.1	2.7	0.0	2.7	2.7	0.0
	3명 이상	54.5	27.3	12.1	0.0	3.0	0.0	0.0	0.0	3.0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한 칭찬’ 5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행동에 대한 칭찬’ 26.5% > ‘성적에 대한 칭찬’ 10.0% > ‘성격에 대한 칭찬’ 5.5%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노력에 대한 칭찬’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이 55.8%로 여학생 49.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행동과 성격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남학생은 성적에 대한 칭찬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령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노력에 대한 칭찬’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동에 대한 칭찬’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성적과 성격에 대한 칭찬은 중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노력에 대한 칭찬’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정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동에 대한 칭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13.3% < ‘보통’ 23.0% < ‘높다’ 34.9%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행동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성적에 대한 칭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16.7% < ‘높다’ 10.8% < ‘보통’ 6.9%와 같이 나타나서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성적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노력에 대한 칭찬’으로 나타났고, ‘못 산다’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행동에 대한 칭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보통’ 33.6% > ‘잘 산다’ 24.1% > ‘못 산다’ 13.8%의 순서로 나타났고, ‘성격에 대한 칭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못 산다’ 12.1% > ‘보통’ 3.5% > ‘잘 산다’ 0.0%로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성격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노력에 대한 칭찬’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정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동에 대한 칭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14.3% < ‘보통’ 26.7% < ‘행복함’(29.5%)의 순서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성적에 대한 칭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14.3% > ‘보통’ 10.0% > ‘행복함’ 8.9%의 순서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에 대한 칭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17.9% > ‘행복함’ 3.6% > ‘보통’ 3.3%와 같이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가 낮은 경우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노력에 대한 칭찬’으로 나타났으며, ‘독자(0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한 칭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행동에 대한 칭찬’ > ‘성적에 대한 칭찬’ > ‘성격에 대한 칭찬’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모든 집단별로 최빈치는 동일하게 ‘노력에 대한 칭찬’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행동과 성격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은 비율이 높았으나, 남학생은 성적에 대한 칭찬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행동에 대한 칭찬’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성적에 대한 칭찬과 성격에 대한 칭찬은 중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행동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성적등급이 낮을수록 성적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성격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행동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는 비율이 높고,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성적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3.4.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

Q43. 내가 부모님에게 듣기 싫은 말은 ()이다.

(단위: %)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행동에 대한 지적	성적에 대한 불만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	없음	모든 지적과 비난	내쫓는 말	약속에 대한 지적	바쁘다는 말
전체		46.0	25.0	20.0	6.0	1.0	0.5	0.5	0.5	0.5
성별	남성	46.8	28.6	20.8	1.3	1.3	0.0	0.0	1.3	0.0
	여성	45.5	22.8	19.5	8.9	0.8	0.8	0.8	0.0	0.8
학령	초등학교	41.0	27.0	24.0	5.0	0.0	0.0	1.0	1.0	1.0
	중학교	45.8	16.7	20.8	12.5	0.0	4.2	0.0	0.0	0.0
	고등학교	52.6	25.0	14.5	5.3	2.6	0.0	0.0	0.0	0.0
성적등급	낮다	50.0	33.3	6.7	6.7	3.3	0.0	0.0	0.0	0.0
	보통	40.2	19.5	27.6	9.2	1.1	1.1	1.1	0.0	0.0
	높다	50.6	27.7	16.9	2.4	0.0	0.0	0.0	1.2	1.2
경제적 수준	못 산다	48.3	29.3	12.1	6.9	0.0	0.0	0.0	1.7	1.7
	보통	46.9	21.2	23.9	5.3	0.9	0.9	0.9	0.0	0.0
	잘 산다	37.9	31.0	20.7	6.9	3.4	0.0	0.0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46.4	25.0	14.3	7.1	3.6	3.6	0.0	0.0	0.0
	보통이다	46.7	18.3	25.0	6.7	0.0	0.0	0.0	1.7	1.7
	행복함	45.5	28.6	18.8	5.4	0.9	0.0	0.9	0.0	0.0
형제·자매	0명	52.6	21.1	15.8	5.3	0.0	0.0	0.0	5.3	0.0
	1명	45.9	24.3	19.8	8.1	0.9	0.0	0.9	0.0	0.0
	2명	59.5	13.5	16.2	5.4	2.7	2.7	0.0	0.0	0.0
	3명 이상	27.3	42.4	27.3	0.0	0.0	0.0	0.0	0.0	3.0

부모님에게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46.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행동에 대한 지적’ 25.0% > ‘성적에 대한 불만’ 20.0% >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

6.0%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빈치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이 46.8%로 여학생 45.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행동과 성적에 대한 불만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여학생은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령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 대한 불만’은 ‘초등학생’ 24.0% > ‘중학생’ 20.8% > ‘고등학생’ 14.5%로 **학령이 낮을수록 성적에 대한 불만이 듣기 싫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평가한 **성적등급**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로 나타났으며, ‘높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로 나타났고, ‘못 산다’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최빈치도 모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로 나타났으며, ‘보통’ 정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행함’ 7.1% < ‘보통’ 6.7% < ‘행복함’ 5.4%의 순서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을 듣기 싫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매에 따른 최빈치는 ‘독자(0명)’, ‘1명’, ‘2명’의 경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로 나타났고, ‘3명 이상’의 경우 ‘행동에 대한 지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행동에 대한 지적’ > ‘성적에 대한 불만’ >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의 순서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3명 이상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최빈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행동과 성적에 대한 불만이 여학생보다 높고, 여학생은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령이 낮을수록 성적에 대한 불만이 듣기 싫다는 비율이 높고,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을 듣기 싫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행동에 대한 지적’을 듣기 싫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부부 유형

부부 유형에 관한 설문은 대화 일반, 말하기, 듣기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대화 일반 영역에서는 대화 시간, 대화 매체, 대화 장면, 대화 주제, 대화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고, 말하기 영역에서는 대화와 신체 접촉, 대화 유형, 대화 예절, 대화 내용, 대화 구도, 갈등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듣기 영역은 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행복도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구성하여 모두 51개의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3.1. 대화 일반

대화 일반 영역에서는 대화 시간 3문항, 대화 매체 2문항, 대화 장면 1문항, 대화 주제 2문항, 대화만족도 2문항 등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1.1. 대화 시간

대화 시간에서는 실제로 하루 평균 부부 간의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어느 정도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화 시간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1) 하루 평균 대화 시간

Q1.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하루에 () 대화를 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단위: %)

		5분 미만	10분 정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전체		4.0	18.7	34.3	17.7	25.3
부부 유형	신혼부부	2.0	7.0	34.0	23.0	34.0
	중년부부	4.0	28.0	39.0	13.0	16.0
	노년부부	6.0	21.0	30.0	17.0	26.0
성별	남성	3.7	19.9	32.9	18.0	25.5
	여성	4.3	17.3	36.0	17.3	25.2
가족 행복도	불행함	16.7	22.2	36.1	13.9	11.1
	보통	4.0	28.7	40.6	12.9	13.9
	행복함	1.2	11.7	30.1	21.5	35.6
소득원	외벌이	4.2	24.5	37.1	11.9	22.4
	맞벌이	3.9	13.8	32.9	23.0	26.3
	정년/은퇴	0.0	0.0	0.0	20.0	80.0
학력	고졸 이하	6.4	16.7	30.8	19.2	26.9
	대졸	3.2	20.0	35.3	17.9	23.7
	대학원 이상	3.1	15.6	37.5	12.5	31.3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6.9	20.7	32.8	19.0	20.7
	400~600만원 미만	2.6	19.1	35.7	20.9	21.7
	600만원 이상	1.4	14.5	34.8	10.1	39.1

배우자와 하루 동안 대화하는 시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하루 30분 정도 대화한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시간 이상이 25.3%, 10분 정도가 18.7%, 1시간 정도가 17.7%, 5분 미만이 4.0%로 나타났다.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77.3%나 되지만 10분 미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22.7%나 되었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10분 미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9% 밖에 되지 않지만 중년부부의 경우에는 28%,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21%나 되어 신혼부부에 비해 중년부부나 노년부부가 하루 10분 미만으로 대화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균 대화 시간과 유사한 응답을 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의 대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가족 행복도에 따른 대화 시간을 살펴보면 5분 미만 대화하는 경우는 불행함(16.7%) > 보통(4%) > 행복함(1.2%)으로 나타나고, 한 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행복함(35.6%) > 보통(13.9%) > 불행함(11.1%)로 나타났다. 불행하다고 응답한 부부일수록 평균보다 짧게 대화하고, 행복하다고 응답한 부부일수록 평균보다 길게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 행복도와 대화 시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원에 따른 대화 시간을 살펴보면, 외벌이는 10분 정도 대화한다는 응답이 24.5%로 나타나고 맞벌이인 경우 13.8%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에서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도 외벌이인 경우에는 34.3%인데 비해 맞벌이인 경우 49.3%로 나타나 외벌이인 부부보다 맞벌이 부부의 대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5분 미만으로 대화한다는 응답이 6.4%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이 31.3%로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인 부부는 하루 5분 미만과 10분 정도 대화한다는 응답이 27.6%로 다른 소득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비율이 37.1%로 나타나 가구소득과 대화 시간이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하루 평균 30분 정도 대화하는 부부가 가장 많으며 신혼부부에 비해 중년 부부나 노년부부가 하루 10분 미만으로 대화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30분 정도 대화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의 대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외벌이 부부는 10분에서 30분 정도 대화한다는 응답이 높는데 비해 맞벌이 부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화한다고 응답하여 외벌이 부부보다는 맞벌이 부부의 대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을수록 대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상적인 대화 시간

Q2.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하루에 () 대화를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단위: %)

		5분 미만	10분 정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전체		2.0	10.0	26.7	33.0	28.3
부부 유형	신혼부부	1.0	5.0	19.0	40.0	35.0
	중년부부	2.0	8.0	38.0	32.0	20.0
	노년부부	3.0	17.0	23.0	27.0	30.0
성별	남성	1.9	9.3	29.8	30.4	28.6
	여성	2.2	10.8	23.0	36.0	28.1
가족 행복도	불행함	11.1	8.3	33.3	33.3	13.9
	보통	1.0	20.8	30.7	24.8	22.8
	행복함	0.6	3.7	22.7	38.0	35.0
소득원	외벌이	2.8	11.9	27.3	30.1	28.0
	맞벌이	1.3	8.6	27.0	36.2	27.0
	정년/은퇴	0.0	0.0	0.0	20.0	80.0
학력	고졸 이하	5.1	9.0	26.9	29.5	29.5
	대졸	0.5	10.5	27.4	33.2	28.4
	대학원 이상	3.1	9.4	21.9	40.6	25.0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4.3	12.1	24.1	35.3	24.1
	400~600만원 미만	0.9	10.4	28.7	32.2	27.8
	600만원 이상	0.0	5.8	27.5	30.4	36.2

부부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와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은 1시간 이상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평균 33.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1시간 이상(28.3%) > 30분 정도(26.7%) > 10분 정도(10.0%) > 5분 미만(2.0%)의 순으로 나타나 실제 하루 평균 30분 정도의 대화 시간보다는 더 긴 시간을 이상적인 대화 시간으로 응답하였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혼부부의 경우는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40.0%이고, 중년부부의 경우 32%, 노년부부 27%이고, 10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노년부부(20%) > 중년부부(10%) > 신혼부부(6%)의 순으로 나타나 결혼 연수가 올라갈수록 부부 간의 적정한 대화 시간으로 10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은 30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29.8%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36.0%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긴 시간을 대화 적정 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족 행복도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이 적정한 대화 시간이라는 응답이 불행함에서 13.9%로 나타나고, 보통에서는 22.8%, 행복함에서는 35.0%로 나타나 이를 통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부부 사이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도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원에 따라서는 1시간이 좋다는 응답이 외벌이 30.1%로 나타났으나 맞벌이의 경우 36.2%로 응답하였다. 또한 1시간에서 1시간 이상이 부부 사이의 적절한 대화 시간이라는 응답은 외벌이의 경우 58.0%, 맞벌이의 경우 63.2%, 정년/은퇴의 경우 100%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에서는 적절한 대화 시간으로 5분 미만이 5.1%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의 경우 1시간 정도가 좋다는 응답이 40.6%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 부부 사이의 적절한 대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5분 미만의 대화 시간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났으나 400~600만 원은 0.9%, 6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응답자가 전혀 없었다. 또한 1시간 이상의 대화 시간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4.1%, 400~600만 원은 27.8%, 600만 원 이상은 36.2%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부 사이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대화 시간은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실제 대화 시간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년부부와 불행하다는 응답자, 행복한 정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30분이 가장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노년부부, 정년/은퇴, 고졸 이하,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부부인 경우 1시간 이상이 부부 사이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성과 여성, 외벌이와 맞벌이, 대졸, 대학원 이상 모두 1시간 정도가 이상적인 대화 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벌이보다 맞벌이가, 대졸보다는 대학원 이상 학력인 경우 1시간 정도가 이상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대화 시간 부족 이유

Q3. 나는 ()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다.

- ① 내 성격 ② 배우자 성격 ③ 배우자와의 갈등 ④ 직장업무
⑤ 기타 ()

(단위: %)

		직장업무	내 성격	배우자 성격	배우자와의 갈등	없음 (대화함)	개인적인 일/바빠서	스마트폰/TV	가사일	피곤해서
전체		47.3	21.3	17.7	8.3	2.3	1.7	0.7	0.3	0.3
부부 유형	신혼부부	64.0	13.0	8.0	6.0	3.0	2.0	2.0	1.0	1.0
	중년부부	46.0	26.0	16.0	9.0	1.0	2.0	0.0	0.0	0.0
	노년부부	32.0	25.0	29.0	10.0	3.0	1.0	0.0	0.0	0.0
성별	남성	52.8	28.0	8.7	6.2	2.5	1.2	0.6	0.0	0.0
	여성	41.0	13.7	28.1	10.8	2.2	2.2	0.7	0.7	0.7
가족 행복도	불행함	16.7	16.7	38.9	27.8	0.0	0.0	0.0	0.0	0.0
	보통	36.6	23.8	25.7	13.9	0.0	0.0	0.0	0.0	0.0
	행복함	60.7	20.9	8.0	0.6	4.3	3.1	1.2	0.6	0.6

소득원	외벌이	40.6	23.8	18.2	11.9	2.1	2.1	0.7	0.0	0.7
	맞벌이	55.3	18.4	15.8	5.3	2.6	1.3	0.7	0.7	0.0
	정년/은퇴	0.0	40.0	60.0	0.0	0.0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33.3	23.1	32.1	6.4	2.6	2.6	0.0	0.0	0.0
	대졸	50.5	20.5	14.2	9.5	2.1	1.1	1.1	0.5	0.5
	대학원 이상	62.5	21.9	3.1	6.3	3.1	3.1	0.0	0.0	0.0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3.1	22.4	22.4	7.8	0.9	1.7	0.9	0.0	0.9
	400~600만원 미만	47.8	19.1	16.5	12.2	2.6	0.9	0.9	0.0	0.0
	600만원 이상	53.6	23.2	11.6	2.9	4.3	2.9	0.0	1.4	0.0

부부 사이의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직장 업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47.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성격(21.3%) > 배우자 성격(17.7%) > 배우자와의 갈등(8.3%) >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1.7%) 등의 이유 때문이라는 응답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직장 업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64.0%로, 중년부부(46%)와 노년부부(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년부부의 경우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26.0%)이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16.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노년부부의 경우는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25.0%)보다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29.0%)이 더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인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28.0%)이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8.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은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13.7%)보다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28.1%)이 더 높게 나타나 대화 시간의 부족에 대한 이유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38.9%,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27.8%로 나타나 직장 업무(16.7%)나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1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통의 경우도 배우자와의 갈등이 13.9%로 나타났으며,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8.0%)은 매우 적고 직장 업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이 11.9%로 나타나 맞벌이(5.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고졸 이하는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23.1%로 나타나고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은 32.1%로 나타났으며, 대졸자의 경우 직장 업무 때문이라는 응답은 50.5%이고, 자신의 성격이라는 응답은 20.5%,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은 14.2%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은 직장 업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성격이라는 응답은 21.9%,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 소득인 응답자의 경우 자신의 성격과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2.4%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400~600만 원 사이 소득인 응답자의 경우 배

우자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12.2%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부 사이의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직장 업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노년부부와 여성, 가족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정년/은퇴, 고졸 이하인 응답자는 자신의 성격보다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나 외별이 부부,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하인 응답자들은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대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불행함이라고 응답한 경우 ‘직장 업무’보다도 ‘배우자의 성격’이나 ‘배우자와의 갈등’ 등 내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대화 시간 부족의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3.1.2. 대화 매체

대화 매체에서는 부부 간에 대화하는 주된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속마음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대화 매체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1) 주된 대화 수단

Q4.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주로 () 대화한다.

- ① 말로
- ② 전화로
- ③ 문자·카톡·이메일로
- ④ 쪽지·편지로
- ⑤ 다른 사람을 통해

(단위: %)

		대면대화	문자·카톡·이메일로	전화로	다른 사람을 통해	쪽지·편지로
전체		73.0	15.0	11.0	0.7	0.3
부부 유형	신혼부부	66.0	18.0	16.0	0.0	0.0
	중년부부	74.0	18.0	6.0	1.0	1.0
	노년부부	79.0	9.0	11.0	1.0	0.0
성별	남성	76.4	12.4	9.9	0.6	0.6
	여성	69.1	18.0	12.2	0.7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55.6	22.2	13.9	5.6	2.8
	보통	74.3	13.9	11.9	0.0	0.0
	행복함	76.1	14.1	9.8	0.0	0.0
소득원	외별이	76.9	11.2	11.2	0.7	0.0
	맞별이	68.4	19.1	11.2	0.7	0.7
	정년/은퇴	100.0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79.5	10.3	7.7	2.6	0.0
	대졸	68.9	17.4	13.2	0.0	0.5
	대학원 이상	81.3	12.5	6.3	0.0	0.0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75.0	12.9	10.3	1.7	0.0

	400~600만원 미만	67.0	20.0	12.2	0.0	0.9
	600만원 이상	79.7	10.1	10.1	0.0	0.0

배우자와의 대화 수단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음성언어인 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73%로 나타났고 그 다음 문자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15%, 전화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11%,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0.7%, 쪽지나 편지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0.3%로 나타났다.

대화 수단 활용 정도를 부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신혼부부와 중년부부의 경우 문자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났으나 노년부부의 경우 9%에 불과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신혼부부의 경우 16%, 중년부부의 경우 6%, 노년부부의 경우 1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경우 다른 부부 유형에 비해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문자와 전화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는 반면, **중년부부의 경우 문자를 많이 이용하고 노년부부의 경우 전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76.1%가 대면대화를 활용하는데 여성은 그보다 낮은 69.1%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대화 수단으로 남성은 12.4%가 문자를 이용하고 9.9%는 전화를 이용하는데, 여성은 문자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18%, 전화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12.2%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문자나 전화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대화 수단으로 문자나 전화를 활용하는 정도가 불행함(36.1%) > 보통(25.8%) > 행복함(23.9%)로 나타났다. 특히 불행함이라고 응답한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5.6%) 쪽지를 이용한다(8.4%)는 응답도 나타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부의 경우 대화 수단으로 대면대화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대면대화를 주로 한다는 응답이 외벌이의 경우 76.9%, 맞벌이의 경우 68.4%로 나타나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말로 대화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말로 대화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르면 문자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대졸(17.4%) > 대학원(12.5%) > 고졸 이하(10.3%)로 나타났으며, 전화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대졸(13.2%) > 고졸(7.7%) > 대학원 이상(6.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졸 응답자는 다른 학력의 응답자에 비해 문자나 전화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12.9%가 문자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20%가 문자를 이용하고 600만 원 이상의 응답자는 10%가 문자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부 사이의 대화 수단으로는 대면대화가 주된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는 문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와 중년부부, 여성,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맞벌이, 대졸,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인 응답자가 평균보다 문자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문자보다 전화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행하다는 응답자의

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대면대화’는 행복함(71.8%) > 보통(55.4%) > 불행함(44.4%)으로 나타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부부일수록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도 대면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 대화한다는 응답도 불행함의 경우 11.1%, 보통인 경우 3.0%, 행복함의 경우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가족의 행복도가 낮을수록 대면대화를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대화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문자를 활용하는 정도는 외벌이의 경우 26.6%, 맞벌이의 경우 28.3%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화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외벌이의 경우 4.9%, 맞벌이의 경우 8.6%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전화를 활용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대화 수단과 마찬가지로 속마음으로 털어놓을 때도 응답자 전원이 대면대화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고졸 이하의 응답자는 7.7%, 대졸 응답자는 7.4%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고졸 이하의 응답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6.4%나 되었는데 대학원 이상의 응답자는 대면대화를 주로 한다는 응답이 81.3%로 다른 유형의 부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자 이외의 다른 매체는 속마음을 전할 때에는 편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4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30.2%, 400~6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26.1%, 600만 원 이상의 응답자는 23.2%가 문자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화를 매체로 활용한다는 응답은 400만 원 미만의 경우 5.2%, 600만 원 이상의 경우 5.8%인데 비해 400~6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8.7%로 나타났다.

부부 사이에 속마음을 털어놓기에 편안한 매체도 주된 대화 매체와 마찬가지로 대면대화를 한다는 응답(63.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 노년부부, 남성, 정년/은퇴, 행복하고 느끼는 응답자, 외벌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응답자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문자를 대화 수단으로 활용하기 편하다는 응답은 중년부부, 여성, 불행함, 대졸, 4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평균 이상의 응답을 하였다. 또한 노년부부, 불행하다는 응답자, 고졸 이하의 응답자, 400만 원 미만 소득의 응답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3.1.3. 대화 장면

Q6.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주로 () 대화를 나눈다.

- ① 밥을 먹으면서 ② TV를 보면서 ③ 잠들기 전에 ④ 휴일에
- ⑤ 수시로 ⑥ 기타()

(단위: %)

		밥을 먹으면서	수시로	TV를 보면서	잠들기 전에	휴일에	운행중에	산책/운동	없음 (대화안함)
전체		34.0	29.7	19.7	13.0	2.7	0.3	0.3	0.3
부부 유형	신혼부부	30.0	36.0	16.0	17.0	1.0	0.0	0.0	0.0
	중년부부	31.0	28.0	23.0	13.0	3.0	1.0	0.0	1.0
	노년부부	41.0	25.0	20.0	9.0	4.0	0.0	1.0	0.0
성별	남성	28.6	32.9	16.8	17.4	2.5	0.6	0.6	0.6
	여성	40.3	25.9	23.0	7.9	2.9	0.0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44.4	16.7	27.8	5.6	2.8	0.0	0.0	2.8
	보통	42.6	15.8	25.7	11.9	4.0	0.0	0.0	0.0
	행복함	26.4	41.1	14.1	15.3	1.8	0.6	0.6	0.0
소득원	외벌이	37.8	30.1	19.6	10.5	1.4	0.0	0.7	0.0
	맞벌이	31.6	27.6	19.7	15.8	3.9	0.7	0.0	0.7
	정년/은퇴	0.0	80.0	20.0	0.0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35.9	33.3	24.4	6.4	0.0	0.0	0.0	0.0
	대졸	34.2	26.8	20.0	13.7	4.2	0.5	0.0	0.5
	대학원 이상	28.1	37.5	6.3	25.0	0.0	0.0	3.1	0.0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5.3	30.2	22.4	9.5	2.6	0.0	0.0	0.0
	400-600만원 미만	33.9	25.2	18.3	17.4	3.5	0.0	0.9	0.9
	600만원 이상	31.9	36.2	17.4	11.6	1.4	1.4	0.0	0.0

부부 간에 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수시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29.7%,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응답이 19.7%, 잠들기 전이라는 응답은 13%, 휴일에 주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은 2.7%, 그 밖에 운행 중, 산책이나 운동을 하며 대화를 한다는 응답이 0.6%,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0.3%나 되었다.

부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신혼부부의 경우 30.0%, 중년부부 31.0%, 노년부부 41.0%로 나타났으며 수시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은 신혼부부 36.0%, 중년부부 28.0%, 노년부부 25.0%로 나타나 결혼 연수가 오래될수록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잠들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17.0%로 중년부부(13%)와 노년부부(9.0%)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28.6%에 불과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40.3%로 나타났고, 또한 남성은 잠들기 전에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17.4%였으며 여성은 7.9%만 응답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식사 시간에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잠들기 전에 더 많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한 정도가 불행함(44.4%) > 보통(42.6%) > 행복함(26.4%)로 나타났고 수시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은 행복함(41.1%) > 불행함

(16.7%) > 보통(15.8%)로 나타났다. 특히 불행하다고 응답한 경우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27.8%로 나타나고 잠들기 전에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는데,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14.1%)보다 잠들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 정도(15.3%)가 더 높게 나타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부의 경우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수시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외벌이의 경우 30.1%, 맞벌이의 경우 27.6%, 정년/은퇴의 경우 80%로 나타났으며, 맞벌이의 경우 잠들기 전에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15.8%로 나타나 10.5%가 응답한 외벌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수시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은 고졸 이하의 경우(33.3%)나 대졸(26.8%) 학력의 응답자보다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가 37.5%로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은 고졸 이하(24.4%) > 대졸(20.2%) > 대학원 이상(6.3%)로 나타났으며, 잠들기 전에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은 대학원 이상(25.0%) > 대졸(13.7%) > 고졸 이하(6.4%)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적고 잠들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시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4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30.2%, 400~6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25.2%, 600만 원 이상의 응답자는 36.2%로 나타났으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은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24.4%) > 400~600만 원 미만(18.3%) > 600만 원 이상(17.4%)의 순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간에 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주로 ‘밥을 먹으면서(34%)’ 대화를 한다는 응답이 최빈치로 나타났으며, 신혼부부, 남성,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정년/은퇴,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 600만 원 이상 가구소득의 응답자는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중년부부, 여성,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 400만 원 미만 소득의 응답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3.1.4. 대화 주제

대화 주제에서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주된 화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대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주된 대화 주제

Q7.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주로 ()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① 자녀양육 ② 경제문제 ③ 부부문제 ④ 직장생활
 ⑤ 뉴스와 사건 ⑥ 기타()

(단위: %)

		자녀양육	경제문제	뉴스와 사건	직장생활	부부문제	생활전반	취미생활	노후
전체		36.3	30.0	15.3	7.7	7.0	3.0	0.3	0.3
부부 유형	신혼부부	38.0	22.0	10.0	15.0	8.0	6.0	1.0	0.0
	중년부부	49.0	28.0	12.0	4.0	5.0	2.0	0.0	0.0
	노년부부	22.0	40.0	24.0	4.0	8.0	1.0	0.0	1.0
성별	남성	36.0	32.9	15.5	5.0	6.2	3.7	0.0	0.6
	여성	36.7	26.6	15.1	10.8	7.9	2.2	0.7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25.0	61.1	5.6	0.0	8.3	0.0	0.0	0.0
	보통	36.6	39.6	9.9	5.9	5.9	2.0	0.0	0.0
	행복함	38.7	17.2	20.9	10.4	7.4	4.3	0.6	0.6
소득원	외벌이	37.1	37.1	16.1	2.8	4.2	2.1	0.0	0.7
	맞벌이	36.8	23.0	13.2	12.5	9.9	3.9	0.7	0.0
	정년/은퇴	0.0	40.0	60.0	0.0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24.4	41.0	21.8	2.6	7.7	2.6	0.0	0.0
	대졸	40.5	27.9	12.1	8.4	6.3	3.7	0.5	0.5
	대학원 이상	40.6	15.6	18.8	15.6	9.4	0.0	0.0	0.0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1.9	41.4	12.1	6.9	5.2	1.7	0.0	0.9
	400~600만원 미만	34.8	29.6	16.5	7.8	7.0	3.5	0.9	0.0
	600만원 이상	46.4	11.6	18.8	8.7	10.1	4.3	0.0	0.0

부부 간에 주로 이야기하는 주제로는 자녀양육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문제(30.0%) > 뉴스와 사건(15.3%) > 직장생활(7.7%) > 부부문제(7.0%) > 생활전반(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양육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신혼부부의 경우 38.0%, 중년부부 49.0%, 노년부부 22.0%로 나타났으며, 경제문제가 화제가 되는 경우는 신혼부부 22.0%, 중년부부 28.0%, 노년부부 40.0%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생활이 화제가 되는 경우는 신혼부부 15.0%, 중년부부와 노년부부는 각각 4.0%로 나타나 세대에 따라 부부 사이에 관심을 가진 화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곧 노년부부는 경제문제, 중년부부는 자녀양육, 신혼부부는 직장생활이 부부 사이의 중요한 화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자녀양육을 화제로 삼는 정도는 남성이 36.0%, 여성은 36.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남성이 32.9%, 여성은 26.6%를 화제로 삼아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장생활에 관해서는 남성이 5.0%, 여성은 10.8%로 나타나 남성은 경제문제에 대해서, 여성은 직장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경제문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불행함(61.1%) > 보통(39.6%) > 행복함(17.2%)으로 나타났고 뉴스나 사건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행복함

(20.9%) > 보통(9.9%) > 불행함(5.6%)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응답은 불행함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보통의 경우 5.9%, 행복함에서는 10.4%가 나타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경우 경제문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경우 자녀양육과 뉴스나 사건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자녀양육과 경제문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37.1%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맞벌이의 경우 자녀양육은 36.8%, 경제문제 23.0%로 나타나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인 부부가 경제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응답은 외벌이인 경우 2.8%에 불과했으나 맞벌이의 경우 12.5%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가 직장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정도가 외벌이 부부인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년/은퇴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제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40%, 뉴스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나 외벌이나 맞벌이 부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학력에 따르면 경제문제에 관해 주로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고졸 이하 41.0%, 대졸 27.9%, 대학원 이상 15.6%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장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응답은 고졸 이하(2.6%) > 대졸(8.4%) > 대학원 이상(15.6%)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경제문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응답이 400만 원 미만 41.4%, 400~600만 원 미만 29.6%, 600만 원 이상의 응답자는 11.6%로 나타났으며, 뉴스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400만 원 미만 12.1%, 400~600만 원 미만 16.5%, 600만 원 이상 18.8%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제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뉴스나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사이의 대화 주제는 '자녀양육(3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문제(30.0%) > 뉴스와 사건(15.3%) > 직장생활(7.7%) > 부부문제(7.0%) > 생활전반(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 간에는 주로 '자녀양육'에 관한 내용을 대화 주제로 삼고 있지만, 노년부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보통이라고 느끼는 응답자, 외벌이, 고졸 이하 학력,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는 '경제문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정년/은퇴, 대학원 이상 학력자,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경제문제'보다 '뉴스와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가 평균 이상으로 대화한다고 응답하였다.

2) 대화 수준

Q8.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주로 ()을 이야기한다.

- ① 상투적인 말 ② 다른 사람 이야기 ③ 내 생각이나 고민 ④ 내 느낌이나 기분
 ⑤ 내 진심과 필요 ⑥ 기타()

(단위: %)

		내 생각이나 고민	상투적인 말	내 느낌이나 기분	다른 사람 이야기	내 진심과 필요	생활전반	쌍방향의 대화
전체		26.7	23.3	22.0	14.7	11.3	1.7	0.3
부부 유형	신혼부부	34.0	15.0	24.0	14.0	9.0	3.0	1.0
	중년부부	23.0	25.0	19.0	15.0	18.0	0.0	0.0
	노년부부	23.0	30.0	23.0	15.0	7.0	2.0	0.0
성별	남성	29.2	26.1	20.5	9.3	13.0	1.2	0.6
	여성	23.7	20.1	23.7	20.9	9.4	2.2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13.9	58.3	2.8	16.7	8.3	0.0	0.0
	보통	30.7	26.7	16.8	17.8	6.9	1.0	0.0
	행복함	27.0	13.5	29.4	12.3	14.7	2.5	0.6
소득원	외벌이	23.8	28.7	22.4	14.7	9.8	0.7	0.0
	맞벌이	30.3	17.8	20.4	15.1	13.2	2.6	0.7
	정년/은퇴	0.0	40.0	60.0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19.2	26.9	12.8	21.8	17.9	1.3	0.0
	대졸	28.9	22.6	24.2	13.2	8.4	2.1	0.5
	대학원 이상	31.3	18.8	31.3	6.3	12.5	0.0	0.0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5.9	27.6	20.7	13.8	11.2	0.9	0.0
	400~600만원 미만	31.3	20.9	19.1	16.5	10.4	1.7	0.0
	600만원 이상	20.3	20.3	29.0	13.0	13.0	2.9	1.4

Powell(1969)에서 제시한 대화의 5단계(five levels of communication)를 활용한 분석인데, 5단계는 상투적인 말만 하는 단계이고, 4단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 단계, 3단계는 내 생각이나 판단을 이야기하는 단계, 2단계는 내 감정 즉 느낌이나 기분을 이야기하는 단계로 여기까지 이르면 좋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1단계는 진심과 필요를 이야기하는 단계로 최상의 단계로 평가한다. 부부 사이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3단계에 해당하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5단계인 상투적인 말 23.3%, 2단계인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 22.0%, 4단계인 다른 사람 이야기 14.7%,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단계인 자신의 진심과 필요 11.3%의 순으로 나타나 부부 사이의 대화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24.0%로 중년부부(19%)와 노년부부(23.0%)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노년부부의 경우 상투적인 말을 한다는 응답이 30.0%로 신혼부부(15.0%)와 중년부부(25.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년부부의 경우 자신의 진심이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18.0%로 나타나 신혼부부

(9.0%)와 노년부부(7.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상투적인 말을 한다는 응답이 남성은 26.1%, 여성은 20.1%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상투적인 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응답은 남성의 경우 9.3%에 불과했으나 여성의 경우 20.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부부 대화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상투적인 말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58.3%로 보통 26.7%, 행복함 13.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나 불행함(2.8%)이나 보통(16.8%)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행복하다는 응답자는 자신의 진심이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응답도 14.7%로 나타나 더 높은 단계의 대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득원에 따르면 상투적인 말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외벌이 28.7%, 맞벌이 17.8%로 나타나 외벌이인 응답자가 상투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진심과 필요에 대해서는 외벌이(9.8%)보다 맞벌이(13.2%)인 경우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60.0%)과 상투적인 말(40.0%)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상투적인 말을 주로 한다는 응답은 고졸 이하 26.9%이며 대졸 22.6%, 대학원 이상 18.8%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응답도 고졸 이하(26.9%) > 대졸(13.2%) > 대학원 이상(6.3%)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상투적인 말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진심이나 기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고졸 이하 12.8%, 대졸 24.2%, 대학원 이상 31.3%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대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상투적인 말을 주로 한다는 응답은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7.6%이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0.9%, 600만 원 이상인 경우 20.3%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진심이나 기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400만 원 미만 20.7%, 400~600만 원 미만 19.1%, 600만 원 이상 29.0%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부부 사이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응답(2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상투적인 말(23.3) >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22.0%) > 다른 사람 이야기(14.7%) > 자신의 진심과 필요(11.3%)의 순으로 나타나 부부 사이의 대화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혼부부와 노년부부의 경우 ‘상투적인 말’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월등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적을수록 ‘상투적인 말’을 주로 하고 있으며 행복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1.5. 대화만족도

1) 대화만족도

Q9.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400만원미만	400~600만원미만	600만원이상	
3.39	3.06	2.92	3.24	2.99	1.97	2.66	3.66	3.07	3.19	2.60	2.88	3.17	3.44	2.88	3.22	3.38	3.12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만족하는 정도를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주어서 측정한 결과 평균 3.12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3.1점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3.39, 중년부부 3.06, 노년부부 2.92로 나타나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대화만족도가 3.24이고 여성은 2.99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1.97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2.66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66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와 대화에 대한 만족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07이고 맞벌이의 경우 3.19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의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2.60으로 평균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고졸 이하 2.88 < 대졸 3.17 < 대학원 이상 3.44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88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22,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38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2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3.1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에서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대화만족도가 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화 불만족 요인

Q10. 내가 남편 또는 아내와 대화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다.

- ① 대화 시간 ② 대화 내용 ③ 짜증 섞인 말투 ④ 화를 내는 태도
 ⑤ 무시하는 태도 ⑥ 기타()

(단위: %)

		짜증 섞인 말투	대화 내용	화를 내는 태도	대화 시간	무시하는 태도	없음	대화 스타일
전체		34.7	23.3	13.3	12.7	12.0	3.7	0.3
부부 유형	신혼부부	42.0	16.0	12.0	18.0	4.0	7.0	1.0
	중년부부	29.0	29.0	12.0	11.0	19.0	0.0	0.0
	노년부부	33.0	25.0	16.0	9.0	13.0	4.0	0.0
성별	남성	37.3	21.1	11.8	10.6	14.9	4.3	0.0
	여성	31.7	25.9	15.1	15.1	8.6	2.9	0.7
가족 행복도	불행함	30.6	19.4	22.2	2.8	25.0	0.0	0.0
	보통	41.6	31.7	11.9	5.0	9.9	0.0	0.0
	행복함	31.3	19.0	12.3	19.6	10.4	6.7	0.6
소득원	외벌이	36.4	25.9	14.0	9.1	13.3	1.4	0.0
	맞벌이	34.2	19.7	13.2	16.4	9.9	5.9	0.7
	정년/은퇴	0.0	60.0	0.0	0.0	4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29.5	24.4	20.5	11.5	11.5	2.6	0.0
	대졸	37.4	21.1	11.1	12.6	13.2	4.2	0.5
	대학원 이상	31.3	34.4	9.4	15.6	6.3	3.1	0.0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6.2	22.4	14.7	9.5	16.4	0.9	0.0
	400~600만원 미만	32.2	25.2	10.4	14.8	12.2	5.2	0.0
	600만원 이상	36.2	21.7	15.9	14.5	4.3	5.8	1.4

배우자와의 대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짜증 섞인 말투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화 내용 23.3%, 화를 내는 태도 13.3%, 대화 시간 12.7%, 무시하는 태도 12.0%의 차례로 나타나 대화할 때 말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신혼부부의 경우 짜증 섞인 말투(42.0%) > 대화 시간(18.0%) > 대화 내용(16%) > 화를 내는 태도(12.0%) > 무시하는 태도(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중년부부의 경우 짜증 섞인 말투와 대화 내용이 29.0%로 나타났으며 무시하는 태도가 19.0%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부부의 경우 짜증 섞인 말투(33.0%) > 대화 내용(25.0%) > 화를 내는 태도(16.0%) > 무시하는 태도(13.0%) > 대화 시간(9.0%)로 나타났다. 특히 짜증 섞인 말투 이외에 신혼부부의 경우 대화 시간 부족, 중년부부의 경우 대화 내용, 노년부부의 경우 화를 내는 태도 등이 대화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짜증 섞인 말투라는 응답이 남성은 33.0%, 여성은 31.7%로 나타났으며, 대화 내용 때문이라는 응답은 남성이 21.1%, 여성이 25.9%로 나타났다. 또한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남성은 14.9%, 여성은 8.6%로 나타나 남성은 배우자의 태도 때문에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5.0%로, 보통 9.9%, 행복함 10.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화를 내는 태도 때문에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불행함 22.2%, 보통 11.9%, 행복함 12.3%로 나타나 행복할수록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 때문에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대화 내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외벌이 25.9%, 맞벌이 19.7%로 나타났으며, 대화 시간 때문이라는 응답은 외벌이 9.1%, 맞벌이 16.4%로 나타나 외벌이인 경우 대화 내용 때문에, 맞벌이인 경우 대화 시간 때문에 배우자와의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대화 내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고졸 이하 24.4%, 대졸 21.1%, 대학원 이상 34.4%로 나타났으며, 화를 내는 태도 때문이라는 응답도 고졸 이하 20.5%, 대졸 11.1%, 대학원 이상 9.4%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짜증 섞인 말투 때문에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6.2%이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2.2%, 600만 원 이상인 경우 36.2%로 나타났다. 또한 400만 원 미만의 경우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6.4%로, 보통 12.2%, 행복함 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배우자와 대화할 때 말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와 여성, 행복하다는 응답자, 맞벌이 부부, 대학원 이상 학력,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의 응답자인 경우에는 ‘대화 시간’ 때문에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년부부, 남성,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외벌이, 정년/은퇴, 대졸,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3.2. 말하기

말하기는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말하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비언어적 요소인 신체 접촉 1문항, 대화 예절 17문항, 대화 내용 8문항, 갈등 처리 방식 8문항 등 총 34개 문항으로 설계하여 조사하였다.

3.2.1. 대화와 신체 접촉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신체 접촉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선 맞추기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답하게 하였다.

Q11.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85	3.49	3.63	3.66	3.65	3.08	3.32	3.99	3.53	3.77	3.80	3.49	3.70	3.81	3.46	3.68	3.96	3.66

배우자와 대화하면서 얼굴을 마주보는 정도를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주어서 측정한 결과 평균 3.66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6.4 정도이며, ‘조금 그렇다’는 응답이 45.7%로 나타났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와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2.3%나 되어 배우자와 대화하면서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3.85, 중년부부 3.49, 노년부부 3.63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배우자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3.66이고 여성은 3.65로 나타나 대화할 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08이고, 보통의 경우 3.32,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99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와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53이고 맞벌이의 경우 3.77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3.80으로 나타나 외벌이나 맞벌이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한다는 응답이 고졸 이하의 경우 3.49, 대졸 3.70, 대학원 이상 3.81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46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68,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96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신혼부부인 경우 다른 유형의 부부들보다 얼굴을 마주보는 정도가 더 높으며,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

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시선을 맞추는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대화 예절

말하기에서 대화 예절을 지키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화의 주도권 1문항, 정중어법 2 문항, 비평이나 지적하기 2문항, 인사하기 2문항, 호칭 4문항, 존댓말 사용 2문항,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4문항 등 모두 17문항을 조사하였다.

1) 대화의 주도권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누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남편 또는 아내와 대화할 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답하게 하였다.

Q12. 남편 또는 아내와 대화할 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29	3.19	3.07	3.00	3.40	3.06	3.12	3.25	3.13	3.23	3.20	3.18	3.19	3.16	3.05	3.27	3.26	3.18

배우자와 대화할 때 자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도를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주어서 측정한 결과 평균 3.18점이었으며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54.6점으로 나타나 부부 간의 대화 주도권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3.29, 중년부부 3.19, 노년부부 3.07로 나타나 **결혼 연수가 짧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3.00이고 여성은 3.40으로 나타나 대화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06이고, 보통의 경우 3.12,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25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와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정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13이고 맞벌이의 경우 3.23으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

이가 더 적극적으로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3.20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배우자보다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한다는 응답이 고졸 이하의 경우 3.18, 대졸 3.19, 대학원 이상 3.16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05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27,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26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 연수가 짧을수록,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맞벌이인 경우에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력을 기준으로 대졸,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 응답자가 부부 사이의 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중어법

정중어법은 대화참여자 사이에 서로 더 정중하게 말을 주고받기 위해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화 방법을 말하는데, 각각 자기 스스로와 자신의 배우자의 대화 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나에게 뭐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2-1) 배우자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기

Q13.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26	3.24	3.45	3.39	3.24	3.17	3.43	3.28	3.33	3.30	3.40	3.36	3.33	3.16	3.30	3.29	3.39	3.32

배우자와 대화하면서 정중어법을 지키려면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얼마나 직설적으로 말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배우자에게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정도는 평균 3.32로 나오고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57.9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3.26, 중년부부 3.24, 노년부부 3.45로 나타나 신혼

부부와 중년부부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정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노년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생각하는 것을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3.39이고 여성은 3.24로 나타나 대화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생각하는 것을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17이고, 보통의 경우 3.43,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28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자인 경우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33이고 맞벌이의 경우 3.30으로 나타나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3.40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이 고졸 이하의 경우 3.36, 대졸 3.33, 대학원 이상 3.16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30이고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29,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39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부부는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생각하는 것을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벌이인 경우 맞벌이보다 정중어법을 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행복도는 보통인 경우 배우자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에게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배우자의 직설적 말하기

Q14. 남편 또는 아내는 나에게 뭐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400만원미만	400~600만원미만	600만원이상	
3.38	3.33	3.48	3.50	3.27	3.31	3.47	3.37	3.41	3.37	3.80	3.50	3.37	3.31	3.39	3.38	3.43	3.40

배우자가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정도를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주어서 측정한 결과 평균 3.40으로 나타나 배우자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정도(3.32)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응답자보다는 자신의 배우자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3.38, 중년부부 3.33, 노년부부 3.48로 나타나 신혼 부부와 중년부부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응답한 정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 났으며 노년부부는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3.50이고 여성은 3.27로 나타나 대화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배우자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가에 대한 응 답과 반대로 나타나 남성은 자신도 배우자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상대 배우자도 자신에게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31이고, 보통의 경우 3.47, 행 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37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자인 경우 배우자가 자 신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41이고 맞벌이의 경우 3.37로 나타나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 인 응답자의 배우자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 는 3.80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 중에서 배우자가 자신에게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이 고졸 이하의 경우 3.50, 대 졸 3.37, 대학원 이상 3.31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에게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39이고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38,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43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부부, 남성, 외벌이 응답자가 배우자가 자신에게 뭐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배우자도 가족 행복도가 보통인 경우 직설 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직설적으로 말하며, 가 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응답자도 배우자가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 비평이나 지적하기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체면이 상하 는 대화 내용이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는 비 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반감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다고 생각 하여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사용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자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자신이 말한 비평이나 지적에 대한 배우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편 또는 아내는 내가 자기를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3-1)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하기

Q15. 나는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자주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04	3.04	2.95	2.94	3.09	3.44	3.27	2.75	3.03	3.00	2.60	3.03	3.01	3.00	3.06	2.98	2.97	3.01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자주 말하는 정도는 평균 3.01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50.3으로 반 정도의 응답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와 중년부부는 3.04이고, 노년부부의 경우 2.95로 나타나 노년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의 말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2.94이고 여성은 3.09로 나타나 부부 사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44이고, 보통의 경우 3.27,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75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03이고 맞벌이의 경우 3.00으로 나타나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가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2.60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정년 이후에는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배우자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자주 한다는 응답이 고졸 이하의 경우 3.03, 대졸 3.01, 대학원 이상 3.00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적기는 하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06이고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98,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97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부부와 남성, 맞벌이, 정년/은퇴,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하

는 말을 자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2) 배우자의 반응에 대한 평가

Q16. 남편 또는 아내는 내가 자기를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한다고 생각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13	3.12	3.17	3.12	3.17	3.19	3.23	3.07	3.15	3.13	3.00	3.13	3.14	3.16	3.11	3.12	3.22	3.14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 여기는 정도는 평균 3.14로 나타났다으며,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53.3점이어서 반 이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는 3.13, 중년부부는 3.12이고, 노년부부의 경우 3.17로 나타나 노년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배우자가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을 배우자가 유익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노년부부는 배우자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의 말도 많이 하고 배우자도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3.12이고 여성은 3.17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 여기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19고, 보통의 경우 3.23,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07로 나타나 보통의 경우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15이고 맞벌이의 경우 3.13으로 나타나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가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3.00으로 여러 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정년 이후에는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 응답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자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응답이 고졸 이하의 경우 3.13, 대졸 3.14, 대학원 이상 3.16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적기는 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 여기고 있었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11이고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12,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22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 여기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부부와 여성, 보통 정도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외벌이 응

답자가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비평이나 지적에 대해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4) 인사하기

인사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나 가치에 대하여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인사를 한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나에게 인사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4-1) 배우자에게 인사하기

Q17. 나는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인사를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고졸이하	대졸	대학이상	400만원미만	400~600만원미만	600만원이상	
4.08	3.70	3.57	3.75	3.82	3.14	3.40	4.17	3.73	3.81	4.40	3.60	3.83	3.97	3.67	3.76	4.01	3.78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대화 예절을 지키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3.78이며,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69.6점으로 나타나 70% 정도는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4.08, 중년부부 3.70, 노년부부 3.57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인사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연수가 짧을수록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3.75이고 여성은 3.82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14이고, 보통의 경우 3.40,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4.17로 나타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인사를 더 잘 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인사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73이고 맞벌이의 경우 3.81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4.40으로 나타나 전체 유형 중에서 인사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경우 3.60, 대졸 3.83, 대학원 이상 3.97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6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76, 600만 원 이상의 경우 4.01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과 맞벌이 응답자, 정년 부부가 배우자에게 인사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연수가 짧을수록,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배우자의 인사하기

Q18. 남편 또는 아내는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나에게 인사를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 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4.10	3.62	3.54	3.75	3.76	3.25	3.29	4.15	3.71	3.79	4.00	3.59	3.77	4.03	3.57	3.76	4.06	3.75

응답자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면서 대화 예절을 지키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3.75로 나타나 응답자(3.78)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4.10, 중년부부 3.62, 노년부부 3.54로 나타나 역시 신혼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인사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연수가 짧을수록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3.75이고 여성은 3.76으로 나타나 응답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인사를 하는 정도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25이고, 보통의 경우 3.29,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4.15로 나타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배우자는 전체 유형 중에서 인사를 하는 정도가 가장 낮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전체 유형 중에서 배우자가 인사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인사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71이고 맞벌이의 경우 3.79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4.00으로 나타나 외벌이나 맞벌이보다 인사를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경우 3.59, 대졸 3.77, 대학원 이상 4.03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 수록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5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76, 600만 원 이상의 경우 4.06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와 그 배우자는 서로 비슷한 정도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유형별 특징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5) 호칭

대화를 하면서 예절을 지킨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 상대방을 대우한다는 것인데, 상대방을 대우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호칭 사용은 부부 사이에 대화 예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편 또는 아내는 나를 ()라고 부른다.”라는 문항과 “나는 남편 또는 아내를 ()라고 부른다.”라는 문항을 통해 부부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또한 호칭 사용에 관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가 나를 부르는 말이 마음에 든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내가 부르는 말을 마음에 들어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5-1) 나에 대한 호칭

Q19. 남편 또는 아내는 나를 ()라고 부른다.

(단위: %)

		여보	자기	자녀 이름 아빠	이름	자녀 이름 엄마	오빠	애칭 별명	야니 아이와	당신	남편	마누 라	호칭 없음	영감	친구	저기 요	와이 프	부인	이쁜 이
전체		31.3	24.0	9.0	6.3	6.3	5.3	4.3	4.0	3.7	1.3	1.0	1.0	0.7	0.3	0.3	0.3	0.3	0.3
부부 유형	신혼부부	20.0	37.0	1.0	10.0	4.0	12.0	8.0	2.0	0.0	2.0	1.0	1.0	0.0	0.0	0.0	0.0	1.0	1.0
	중년부부	28.0	20.0	17.0	6.0	6.0	4.0	2.0	4.0	6.0	0.0	2.0	1.0	2.0	1.0	0.0	1.0	0.0	0.0
	노년부부	46.0	15.0	9.0	3.0	9.0	0.0	3.0	6.0	5.0	2.0	0.0	1.0	0.0	0.0	1.0	0.0	0.0	0.0
성별	남성	34.2	19.3	16.8	5.0	0.0	9.9	3.1	3.1	3.1	2.5	0.0	1.2	1.2	0.0	0.6	0.0	0.0	0.0
	여성	28.1	29.5	0.0	7.9	13.7	0.0	5.8	5.0	4.3	0.0	2.2	0.7	0.0	0.7	0.0	0.7	0.7	0.7
가족 행복도	불행함	22.2	22.2	16.7	2.8	8.3	2.8	5.6	11.1	2.8	0.0	2.8	2.8	0.0	0.0	0.0	0.0	0.0	0.0
	보통	33.7	16.8	8.9	6.9	7.9	2.0	4.0	6.9	7.9	2.0	1.0	1.0	1.0	0.0	0.0	0.0	0.0	0.0
	행복함	31.9	28.8	7.4	6.7	4.9	8.0	4.3	0.6	1.2	1.2	0.6	0.6	0.6	0.6	0.6	0.6	0.6	0.6

소득원	외벌이	33.6	26.6	9.8	2.8	6.3	4.9	1.4	5.6	3.5	2.1	0.7	0.7	1.4	0.0	0.0	0.0	0.7	0.0
	맞벌이	29.6	22.4	7.9	9.9	6.6	5.9	5.9	2.0	3.9	0.7	1.3	1.3	0.0	0.7	0.7	0.7	0.0	0.7
	정년/은퇴	20.0	0.0	20.0	0.0	0.0	0.0	40.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24.4	29.5	10.3	3.8	10.3	1.3	7.7	5.1	3.8	0.0	0.0	1.3	0.0	0.0	0.0	1.3	1.3	0.0
	대졸	31.6	24.7	7.9	8.4	5.3	5.8	2.6	3.7	3.7	1.6	1.6	0.5	1.1	0.5	0.5	0.0	0.0	0.5
	대학원 이상	46.9	6.3	12.5	0.0	3.1	12.5	6.3	3.1	3.1	3.1	0.0	3.1	0.0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0.7	25.0	12.9	6.0	7.8	6.9	2.6	4.3	6.0	1.7	0.9	2.6	0.0	0.0	0.9	0.9	0.9	0.0
	400~600만원 미만	33.9	24.3	7.0	8.7	7.0	2.6	6.1	5.2	0.9	1.7	1.7	0.0	0.9	0.0	0.0	0.0	0.0	0.0
	600만원 이상	44.9	21.7	5.8	2.9	2.9	7.2	4.3	1.4	4.3	0.0	0.0	0.0	1.4	1.4	0.0	0.0	0.0	1.4

배우자가 응답자를 부르는 호칭으로는 ‘여보’가 31.3%로 최빈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자기 24.0% > (자녀 이름) 아빠, 엄마(15.3%) > 이름(6.3%) > 오빠(5.3%) > 애칭이나 별명(4.3%) > 야/너/어이/이봐(4.0%) > 당신(3.7%) > 남편 또는 마누라(2.3%) 등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영감, 친구, 저기요, 와이프, 부인, 이쁜이’ 등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호칭이 없다는 응답도 1.0%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용하는 호칭으로 신혼부부는 자기(37.0%) > 여보(20.0%) > 오빠(12.0%) > 이름(10.0%) > 애칭이나 별명(8.0%)의 순으로 나타나 표준 화법에서 제안하는 배우자에 관한 호칭과는 다른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부부는 여보(28.0%) > (자녀 이름) 아빠, 엄마(23.0%) > 자기(20.0%) 등을 주된 호칭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노년부부는 여보(46.0%) > (자녀 이름) 아빠, 엄마(18.0%) > 자기(15.0%) 등을 사용하여 중년부부와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년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 이름) 아빠’라고 부른다는 응답이 17%로 다른 유형의 부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오빠’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12.0%로 나타났으나 중년부부에서는 4.0%로 평균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노년부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표준 화법의 호칭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여보(34.2%) > 자기(16.8%) > (자녀 이름) 아빠(16.8%) > 오빠(9.9%) > 이름(5.0%)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자기(29.5%) > 여보(28.1%) > (자녀 이름) 엄마(13.7%) > 이름(7.9%) > 애칭이나 별명(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보’를 여성은 ‘자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배우자가 이름이나 애칭이나 별명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용하는 호칭으로 불행함은 ‘자기’와 ‘여보’라는 응답이 22.2%로 같게 나타났으며, ‘야, 너, 어이, 이봐’ 등으로 부른다는 응답도 11.1%나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아내보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 배우자를 부르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통의 경우는 여보(33.7%) > 자기(16.8%) > (자녀 이름) 아빠(8.9%) > (자녀 이름) 엄마, 당신(7.9%)로 나타나 ‘여보’라는 호칭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함의 경우에는 ‘여보’가 31.0%로 최빈치를 나타내었으나 ‘자기’라는 호칭어도 28.8%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빠’도 8.0%나 되어 다른

행복도의 응답자에 비하여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별이(33.6%)와 맞별이(29.6%) 모두 ‘여보’라는 호칭어가 최빈치로 나타났으며, 맞별이의 경우 외별이보다 이름을 부르거나(9.9% > 2.2%) 애칭이나 별명을 부른다는 응답(1.4% > 5.9%)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별이의 경우 배우자가 ‘야, 너..’류의 호칭어를 맞별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은퇴의 경우 최빈치를 나타내는 호칭어는 ‘애칭이나 별명’으로 40.0%로 나타났으며, ‘여보’와 ‘야, 너..’ 류의 호칭어 사용이 각각 20.0%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경우 자기가 29.5%로 최빈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여보(24.4%) > (자녀 이름) 엄마, 아빠(20.3%) > 애칭이나 별명(7.7%)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의 경우 ‘여보’가 31.6%로 최빈치이며, 대학원 이상의 경우 배우자가 ‘여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46.9%로 다른 모든 유형 중에서 최빈치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대학원 이상에서는 호칭이 없다는 응답도 3.1%로 나타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는 배우자가 ‘오빠’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12.5%**라고 응답하였는데 고졸 이하 1.3%, 대졸 5.8%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의 경우 ‘자기’를 호칭어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5.0%로 여보(20.7%)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최빈치는 33.9%가 응답한 ‘여보’이다. 400~600만 원 미만의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가 오빠라는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2.6%로 다른 가구소득 유형에 비하여 낮다. 600만 원 이상의 경우 최빈치는 44.9%가 응답한 ‘여보’이고 (자녀 이름) 아빠, 엄마’는 8.7%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빠’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정도는 7.2%로 다른 가구소득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신혼부부, 여성, 고졸 이하의 학력, 4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 응답자는 ‘자기’를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오빠’라는 호칭어는 신혼부부, 남성, 행복함, 대학원 이상,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응답자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는 배우자가 ‘오빠’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12.5%라고 응답하였는데 고졸 이하 1.3%, 대졸 5.8%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5-2) 호칭 만족도

Q20. 나는 남편 또는 아내가 나를 부르는 말이 마음에 든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별이	맞별이	정년/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89	3.61	3.52	3.77	3.56	3.06	3.11	4.16	3.65	3.68	4.20	3.55	3.69	3.88	3.55	3.58	4.03	3.67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주어서 측정한 결과 평균 3.67로 나타났으며,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6.8점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3.89, 중년부부 3.61, 노년부부 3.52로 나타나 신혼 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대화만족도가 3.77이고 여성은 3.56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06으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3.11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4.16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 행복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65이고 맞벌이의 경우 3.68로 나타나 소득원에 따라 호칭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맞벌이인 경우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4.20으로 전체 응답 중 최빈치로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호칭에 대한 만족도가 고졸 이하의 경우 3.55, 대졸 3.69, 대학원 이상 3.88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55,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58로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600만 원 이상의 경우 4.03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호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호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

Q21. 나는 남편 또는 아내를 ()라고 부른다.

(단위: %)

		여보	자기	자녀 이름 아빠	이름	자녀 이름 엄마	당신	애칭 별명	오빠	애니 아이 아바	호칭 없음	그대	공주님	친구	자기요	남편	서방님	마누라	마님	색시	아내	와이프	이쁜이	여사
전체		32.7	21.7	10.3	8.3	8.3	3.3	3.3	3.3	2.0	1.7	0.7	0.7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부부 유형	신혼 부부	29.0	31.0	6.0	10.0	5.0	1.0	5.0	8.0	0.0	1.0	1.0	1.0	0.0	0.0	1.0	1.0	0.0	0.0	0.0	0.0	0.0	0.0	0.0
	중년 부부	29.0	17.0	9.0	13.0	14.0	2.0	2.0	2.0	2.0	3.0	1.0	1.0	1.0	0.0	0.0	0.0	0.0	1.0	1.0	0.0	1.0	1.0	0.0

	노년 부부	40.0	17.0	16.0	2.0	6.0	7.0	3.0	0.0	4.0	1.0	0.0	0.0	0.0	1.0	0.0	0.0	1.0	0.0	0.0	1.0	0.0	0.0	1.0
성별	남성	37.3	18.0	0.0	11.2	15.5	3.7	3.1	0.0	3.1	1.9	0.6	1.2	0.0	0.0	0.0	0.0	0.6	0.6	0.6	0.6	0.6	0.6	0.6
	여성	27.3	25.9	22.3	5.0	0.0	2.9	3.6	7.2	0.7	1.4	0.7	0.0	0.7	0.7	0.7	0.7	0.0	0.0	0.0	0.0	0.0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 함 미만	13.9	30.6	19.4	8.3	13.9	5.6	2.8	0.0	0.0	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보통	35.6	18.8	10.9	8.9	6.9	4.0	2.0	1.0	4.0	2.0	0.0	0.0	0.0	1.0	0.0	0.0	1.0	0.0	0.0	1.0	1.0	1.0	1.0
	행복 함 이상	35.0	21.5	8.0	8.0	8.0	2.5	4.3	5.5	1.2	0.6	1.2	1.2	0.6	0.0	0.6	0.6	0.0	0.6	0.6	0.0	0.0	0.0	0.0
소득원	외벌 이	30.8	25.9	11.2	7.7	9.8	2.8	1.4	2.8	2.1	1.4	0.7	0.0	0.0	0.0	0.0	0.0	0.7	0.7	0.7	0.0	0.7	0.7	0.0
	맞벌 이	34.9	18.4	9.2	9.2	7.2	3.9	3.3	3.9	2.0	2.0	0.7	1.3	0.7	0.7	0.7	0.7	0.0	0.0	0.0	0.7	0.0	0.7	0.7
	정년 이 퇴	20.0	0.0	20.0	0.0	0.0	0.0	6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24.4	25.6	19.2	3.8	9.0	3.8	3.8	3.8	0.0	2.6	1.3	0.0	0.0	0.0	0.0	0.0	1.3	0.0	0.0	0.0	1.3	0.0	0.0
	대졸	34.2	22.1	7.9	10.5	7.9	3.2	2.6	2.6	2.6	1.1	0.5	0.5	0.5	0.5	0.5	0.5	0.0	0.5	0.5	0.5	0.5	0.0	0.5
	대학 원 이상	43.8	9.4	3.1	6.3	9.4	3.1	6.3	6.3	3.1	3.1	0.0	3.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
가구 소득	400 만원 미만	21.6	29.3	10.3	9.5	11.2	4.3	1.7	2.6	0.9	3.4	1.7	0.9	0.0	0.9	0.0	0.9	0.0	0.0	0.0	0.0	0.0	0.9	0.0
	400 600 만원 미만	38.3	15.7	13.0	8.7	7.0	0.9	4.3	3.5	3.5	0.9	0.0	0.0	0.0	0.0	0.9	0.0	0.9	0.0	0.0	0.9	0.9	0.0	0.9
	600 만원 이상	42.0	18.8	5.8	5.8	5.8	5.8	4.3	4.3	1.4	0.0	0.0	1.4	1.4	0.0	0.0	0.0	0.0	1.4	1.4	0.0	0.0	0.0	0.0

부부 유형에 따르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신혼부부는 자기(31.0%) > 여보(29.0%) > (자녀 이름) 아빠, 엄마(11.0%) > 이름(10.0%) > 오빠(8.0%) > 애칭이나 별명(8.0%)의 순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부를 때(24.0%)와 동일하게 ‘자기’를 선호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조금 낮게 나타났다. 중년부부는 여보(29.0%) > (자녀 이름) 아빠, 엄마(23.0%) > 자기(17.0%) 등을 주된 호칭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노년부부는 여보(40.0%) > (자녀 이름) 아빠, 엄마(22.0%) > 자기(17.0%) 등을 사용하여 중년부부와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오빠’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8.0%로 나타났으나 중년부부에서는 2.0%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노년부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부르는 호칭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여보(37.3%) > 자기(18.0%) > (자녀 이름) 엄마(15.5%) > 이름(11.2%)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여보(27.3%) > 자기(25.9%) > (자녀 이름) 아빠(22.3%) > 오빠(7.2%) > 이름(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여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배우자가 부르는 호칭어의 양상과는 달리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이름을 더한 호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남성은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는 경향이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호칭에 거리감을 두는 경향이 높아 보인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함은 자기(30.6%) > (자녀 이름) 아빠(19.4%) > (자녀 이름) 엄마(13.9%), 여보(13.9%) > 이름(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호칭이 없다는 응답도 5.6%나 나

타났다. 불행함의 경우에는 자녀 이름을 더한 호칭어의 사용을 합치면 모두 33.3%로 나타나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며, ‘오빠’는 호칭어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의 경우는 여보 (35.6%) > 자기(18.8%) > (자녀 이름) 아빠(10.9%) > 이름(8.9%) > (자녀 이름) 엄마(6.9%)로 나타나 ‘여보’라는 호칭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함의 경우에는 ‘여보’가 35.0%, ‘자기’ 21.5%로 나타났으며, 자녀 이름에 아빠, 엄마를 더한 호칭은 각각 8.0%의 빈도로 나타났다. 행복함의 경우에는 ‘오빠’도 5.5%나 되어 다른 행복도의 응답자에 비하여 이 호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여보’라는 호칭어가 30.8%, 34.9%로 최빈치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호칭어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외벌이의 경우 25.9%이고 맞벌이는 18.4%로 나타나 외벌이가 맞벌이에 비해 ‘자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년/은퇴의 경우 최빈치를 나타내는 호칭어는 ‘애칭이나 별명’으로 40.0%로 나타났으며, ‘여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경우 자기가 25.6%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여보(24.4%) > (자녀 이름) 아빠(19.2%) > (자녀 이름) 엄마(9.0%)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의 경우 ‘여보’가 34.2%로 최빈치이며, 대학원 이상의 경우 배우자에게 ‘여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43.8%로 다른 모든 유형 중에서 최빈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는 배우자에게 ‘오빠’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6.3%라고 응답하였는데 고졸 이하 3.8%, 대졸 2.6%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의 경우 ‘자기’를 호칭어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9.3%로 여보 (21.6%)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최빈치는 38.3%가 응답한 ‘여보’이다. 400~600만 원 미만의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15.7%로 다른 가구소득 유형에 비하여 낮다. 600만 원 이상의 경우 최빈치는 42.0%가 응답한 ‘여보’이고 ‘(자녀 이름) 아빠, 엄마’는 5.8%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빠’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정도는 4.3%로 배우자가 부르는 호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여보’가 32.7%로 최빈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자기 21.7% > (자녀 이름) 아빠, 엄마 18.6% > 이름 8.3% > 당신 = 애칭이나 별명 = 오빠 (3.3%) > 야/너/어이/이봐(2.0%) > 호칭이 없다 1.7%로 나타났다. 또한 이 밖에도 ‘그대, 공주님, 친구, 저기요, 남편, 서방님, 마누라, 마눌님, 섹시, 아내, 와이프, 이쁜이, 여사’ 등등 배우자가 부르는 호칭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호칭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혼부부, 불행함, 고졸 이하의 학력, 4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 응답자는 ‘자기’라고 부른다는 응답이 ‘여보’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를 부를 때 ‘자기’보다 자녀 이름을 더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은 유형은 중년부부, 노년부부, 불행함, 대학원 이상, 가구소득 400~600만 원 이상 응답자로 나타났다.

5-4) 배우자의 호칭 만족도

Q22. 남편 또는 아내는 내가 부르는 말을 마음에 들어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84	3.61	3.50	3.73	3.55	3.14	3.19	4.05	3.66	3.62	4.20	3.62	3.63	3.84	3.55	3.57	3.94	3.65

배우자가 어느 정도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주어서 측정한 결과 평균 3.65로 나와서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3.67)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3.84, 중년부부 3.61, 노년부부 3.50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와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은 대화만족도가 3.73이고 여성은 3.55로 나타나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에 비해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14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가장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3.19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4.05로 나타나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 행복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66이고 맞벌이의 경우 3.62로 나타나 외벌이인 경우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와는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4.20으로 모든 유형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호칭에 대한 만족도가 고졸 이하의 경우 3.55, 대졸 3.69, 대학원 이상 3.88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55,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58로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600만 원 이상의 경우 4.03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배우자를 부르는 자신의 호칭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가족의 행복도가 높

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14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가장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3.19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4.05로 나타나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 행복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존댓말 사용

대화에서 예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존댓말을 사용하여 격식을 지키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알맞은 존댓말 사용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나와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6-1) 배우자에게 존댓말 사용

Q23.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400만원미만	400~600만원미만	600만원이상	
2.24	2.27	2.44	2.23	2.42	2.17	2.36	2.33	2.23	2.38	3.00	2.14	2.28	2.97	2.15	2.42	2.43	2.32

배우자와 대화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대화 예절을 지키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2.32이며,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32.9점으로 나타나 33% 정도의 응답자만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대화의 예절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존댓말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2.24, 중년부부 2.27, 노년부부 2.44로 나타나 노년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와 중년부부는 평균 이하의 사용 정도를 보이지만 노년부부만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결혼 연수가 길수록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2.23이고 여성은 2.42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더 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2.17이고, 보통의 경우 2.36,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33으로 나타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23이고 맞벌이의 경우 2.38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3.30으로 나타나 전체 유형 중에서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배우자에 대한 대화 예절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경우 2.14, 대졸 2.28, 대학원 이상 2.97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전체 유형 중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15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42,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43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과 맞벌이 응답자, 가족의 행복도가 보통이거나 행복함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정년/은퇴부부가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연수가 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2) 배우자의 존댓말 사용

Q24. 남편 또는 아내는 나와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2.30	2.36	2.63	2.58	2.25	2.22	2.46	2.46	2.31	2.53	2.80	2.13	2.41	3.28	2.26	2.50	2.61	2.43

배우자가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를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주어서 측정한 결과 평균 2.43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평균 35.8점으로 나타나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32.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2.30, 중년부부 2.36, 노년부부 2.63으로 나타나 **노년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존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결혼 연수가 길수록 배우자도 응답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2.58이고 여성은 2.25로 나타나 남성 응답자의 배우자가 존댓말을 더 잘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2.22이고, 보통의 경우 2.46,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46으로 나타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배우자도 존댓말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31이고 맞벌이의 경우 2.53으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응답자의 배우자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2.80으로 나타나 관련된 23번 문항과 비교해 보면 응답자보다는 응답자의 배우자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2.13, 대졸 2.41, 대학원 이상 3.28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에 따른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26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50,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61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과 맞벌이 응답자, 가족의 행복도가 보통이거나 행복함이라는 응답자, 정년/은퇴 부부의 배우자가 존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배우자도 결혼 연수가 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화 예절에 어긋나는 요소이다.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나와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왜 대화 예절에 어긋나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남편 또는 아내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와 “남편 또는 아내가 나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라는 문항을 추가하여 응답하게 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7-1)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Q25.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1.85	1.67	1.88	1.74	1.87	2.17	2.14	1.51	1.71	1.88	2.00	2.01	1.74	1.63	1.93	1.81	1.57	1.80

배우자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1.80이며,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20.0점으로 나타나 20% 정도의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1.85, 중년부부 1.67, 노년부부 1.88로 나타나 중년 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1.74이고 여성은 1.87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2.17이고, 보통의 경우 2.14,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1.51로 나타나 불행함의 경우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다른 모든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행복함의 경우는 전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어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1.71이고 맞벌이의 경우 1.88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2.00으로 나타나 다른 소득 유형에 비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경우 2.01, 대졸 1.74, 대학원 이상 1.63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1.93,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1.81로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600만 원 이상의 경우 1.57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년부부, 남성, 외벌이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낮으며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낮아 대화 예절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7-2)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이유

Q25-1. 내가 남편 또는 아내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

(단위: %)

		친하기 때문이다	화가 나서이다	습관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
전체		29.7	27.0	16.2	13.5	13.5
부부 유형	신혼부부	36.0	16.0	20.0	4.0	24.0
	중년부부	25.0	40.0	20.0	10.0	5.0
	노년부부	27.6	27.6	10.3	24.1	10.3
성별	남성	30.3	30.3	12.1	18.2	9.1
	여성	29.3	24.4	19.5	9.8	17.1
가족 행복도	불행함	26.7	26.7	20.0	26.7	0.0
	보통	25.6	30.8	15.4	10.3	17.9
	행복함	40.0	20.0	15.0	10.0	15.0
소득원	외벌이	24.2	30.3	15.2	18.2	12.1
	맞벌이	32.5	25.0	17.5	10.0	15.0
	정년/은퇴	100.0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33.3	25.9	14.8	14.8	11.1
	대졸	26.8	29.3	17.1	14.6	12.2
	대학원 이상	33.3	16.7	16.7	0.0	33.3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32.4	24.3	18.9	13.5	10.8
	400~600만원 미만	27.6	34.5	6.9	17.2	13.8
	600만원 이상	25.0	12.5	37.5	0.0	25.0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시 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친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가 나서이다 27.0% > 습관적이다 16.2% > 무시하기 때문이다=재미 때문이다 13.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 배우자와의 친근함이 욕설이나 비속어와 같은 대화 예절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는 친하기 때문이다(36.0%) > 재미 때문이다(24.0%) > 습관적이다(20.0%) > 화가 나서이다(16.0%) > 무시하기 때문이다(4.0%)의 순으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친밀함이 대화 예절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재미와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욕설이나 비속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년부부는 화가 나서이다(40.0%) > 친하기 때문이다(25.0%) > 습관적이다(20.0%) > 무시하기 때문이다(10.0%) > 재미 때문이다(5.0%)로 나타나 주로 화가 났을 때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친하기 때문이다, 화가 나서이다(27.6%) > 무시하기 때

문이다(24.1%) > 습관이다, 재미 때문이다(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재미 때문에, 중년부부는 화가 나서, 노년부부는 무시하기 때문에 각각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특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친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이다(30.3%) > 무시하기 때문이다(18.2%) > 습관이다(12.1%) > 재미 때문이다(9.1%)라는 순서로 응답하였고 여성은 친하기 때문에(29.3%) > 화가 나서이다(24.4%) > 습관이다(19.5%) > 재미 때문이다(17.1%) > 무시하기 때문이다(9.8%)라고 응답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남성은 배우자를 무시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미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혀 다른 양상이 보인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함이나 행복함이라는 응답자보다 보통의 행복도인 응답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함의 경우 친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무시하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모두 26.7%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재미 때문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보통의 경우 화가 나서이다(30.8%) > 친하기 때문이다(25.6%) > 재미 때문이다(17.9%) > 습관이다(15.4%) > 무시하기 때문이다(10.3%)의 순으로 나타났고 행복함의 경우 친하기 때문이다(40.0%) > 화가 나서이다(20.3%) > 습관이다, 재미 때문이다(15.0%) > 무시하기 때문이다(10.0%)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에 대하여 **가족 행복도가 높은 경우에는 친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하여 허용하지만 보통이나 불행함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시해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는 화가 나서이다(30.3%) > 친하기 때문이다(24.2%) > 무시하기 때문이다(18.2%) > 습관이다(15.2%) > 재미 때문이다(12.1%)라고 응답하였고, 맞벌이는 친하기 때문에(32.5%) > 화가 나서이다(25.0%) > 습관이다(17.5%) > 재미 때문이다(17.1%) > 무시하기 때문이다(9.8%)의 순으로 나타나서 외벌이보다 맞벌이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그 이유도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친하기 때문이다'라는 응답만 나타나 가까운 사이에서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은 허용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학력에 따르면 대졸 응답자가 욕설을 사용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고졸 이하는 친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가 나서이다(25.9%) > 습관적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14.8%) > 재미 때문이다(11.1%) 라는 순서로 응답하였다. 대졸의 경우는 화가 나서이다(29.3%) > 친하기 때문이다(26.8%) > 습관이다(17.1%) > 무시하기 때문이다(14.6%) > 재미 때문이다(12.2%)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원 이상은 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33.3%) > 화가 나서이다, 습관이다(16.7%)로 응답하였고 무시하기 때문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은 친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가 나서이다(24.3%) > 습관적이다(18.9%) > 무시하기 때문이다(13.5%) > 재미 때문이다(10.8%)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400~600만 원 미만은 화가 나서이다(34.5%) > 친하기 때문이다

(27.6%) > 무시하기 때문이다(17.2%) > 재미 때문이다(13.8%) > 습관이다(6.9%)라고 응답하였다. 6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습관이다(37.5%) > 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25.0%) > 화가 나서이다(12.5%)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신혼부부는 재미 때문에, 중년부부는 화가 나서, 노년부부는 무시하기 때문에 각각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배우자를 무시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미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혀 다른 양상이 보인다. 또한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친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하지만 보통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상대방을 무시해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졸 응답자는 친하기 때문에, 대졸 응답자는 화가 나서,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는 재미 때문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친하기 때문에, 400~600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화가 나서, 600만 원 이상의 응답자는 습관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7-3) 배우자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Q26. 남편 또는 아내는 나와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1.79	1.62	1.87	1.61	1.93	2.44	2.11	1.39	1.68	1.82	2.20	2.08	1.66	1.59	1.93	1.70	1.57	1.76

배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1.76이며,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19점으로 나타나 25번 문항과 비교하면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20점)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1.79, 중년부부 1.62, 노년부부 1.87로 나타나 중년부부의 경우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배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1.61이고 여성은 1.93으로 나타나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보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2.44이고, 보통의 경우 2.11,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1.39로 나타나 불행함의 경우 배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다른 모든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행복함의 경우는 전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어 배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부부 간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1.68이고 맞벌이의 경우 1.82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배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2.20으로 나타나 다른 소득 유형에 비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경우 2.08, 대졸 1.66, 대학원 이상 1.59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1.93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1.70으로 나타났고, 600만 원 이상의 경우 1.57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년부부, 외벌이 응답자의 배우자와 여성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낮으며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낮아 대화 예절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7-4) 배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Q26-1. 남편 또는 아내가 나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

(단위: %)

		습관이다	화가 나서이다	친하기 때문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	욱하는 성격
전체		27.0	23.8	15.9	15.9	15.9	1.6
부부 유형	신혼부부	27.3	22.7	18.2	4.5	27.3	0.0
	중년부부	20.0	33.3	26.7	20.0	0.0	0.0
	노년부부	30.8	19.2	7.7	23.1	15.4	3.8
성별	남성	20.8	16.7	20.8	20.8	20.8	0.0
	여성	30.8	28.2	12.8	12.8	12.8	2.6
가족 행복도	불행함	17.6	35.3	0.0	29.4	11.8	5.9
	보통	35.3	14.7	14.7	14.7	20.6	0.0
	행복함	16.7	33.3	41.7	0.0	8.3	0.0
소득원	외벌이	25.0	28.6	10.7	17.9	14.3	3.6
	맞벌이	27.3	21.2	21.2	15.2	15.2	0.0
	정년/은퇴	50.0	0.0	0.0	0.0	50.0	0.0
학력	고졸 이하	33.3	22.2	14.8	18.5	7.4	3.7
	대졸	23.3	23.3	16.7	13.3	23.3	0.0
	대학원 이상	16.7	33.3	16.7	16.7	16.7	0.0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28.1	18.8	18.8	15.6	15.6	3.1
	400~600만원 미만	18.2	27.3	13.6	22.7	18.2	0.0
	600만원 이상	44.4	33.3	11.1	0.0	11.1	0.0

배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시 배우자가 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습관 때문이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가 나서이다 23.8%, 친하기 때문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15.9%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서는 26-1의 문항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는 ‘습관적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타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6-1의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는 없었던 ‘욕하는 성격 때문이다’라는 응답도 1.6%가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는 습관이다, 재미 때문이다(27.3%) > 화가 나서이다(22.7%) > 친하기 때문에(18.2%) > 무시하기 때문이다(4.5%)의 순으로 나타나 습관적으로, 재미 때문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중년부부는 화가 나서이다(33.3%) > 친하기 때문이다(26.7%) > 습관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20.0%)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화가 났을 때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습관이다(30.8%) > 무시하기 때문이다(23.1%) > 화가 나서이다(19.2%) > 재미 때문이다(15.4%) > 친하기 때문이다(7.7%) > 욕하는 성격(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에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습관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다른 부부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욕 하는 성격’이 배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라는 새로운 응답도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습관이다, 친하기 때문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모두 20.8%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화가 나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16.7%만이 나타났다. 여성은 남편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습관이다(30.8%) > 화가 나서이다(28.2%) > 친하기 때문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20.8%) > 욕하는 성격(2.6%)라고 응답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남편과 아내는 모두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데 여성 응답자의 남편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남편의 욕하는 성격 때문에 대화 예절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함이나 행복함이라는 응답자보다 보통의 행복도인 응답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함의 경우 화가 나서이다 35.3%, 무시하기 때문이다 29.4%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시하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29.4%나 나타났다. 또한 보통이나 행복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욕하는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도 5.9%나 되어서 다른 부부 유형보다 무시하는 태도로 인식하고 성격을 참지 못해 나타나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보통의 경우 습관적이다라는 응답이 35.3%로 정년/은퇴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복함의 경우 친하기 때문이다 41.7%, 화가 나서이다 33.3%의 비율로 나타나 대화 예절에 어긋나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서로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는 화가 나서이다(28.6%) > 습관이다(25.0%) > 무시하기 때문이다(17.9%) > 재미 때문이다(14.3%) > 친하기 때문이다(10.7%)라고 응답하였고, 맞벌이는 습관이다

(27.3%) > 화가 나서이다, 친하기 때문에(21.3%) >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15.21%)의 순으로 나타나서 외별이보다 맞별이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그 이유도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대졸 응답자가 욕설을 사용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고졸 이하는 습관이 다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가 나서이다(22.2%) > 무시하기 때문이다(18.5%) > 친하기 때문이다(14.8%) 라는 응답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대졸의 경우는 습관이다, 화가 나서이다, 재미 때문이다(23.3%)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대학원 이상은 화가 나서이다가 33.3%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은 습관이다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가 나서이다, 친하기 때문이다가 18.8%로 나타났다. 400~600만 원 미만은 화가 나서이다(27.3%) > 무시하기 때문이다(22.7%) > 습관이다(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습관이다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이상에서는 무시하기 때문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아서 학력에 따른 사용 양상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습관 때문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가 나서이다, 친하기 때문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미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서는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는 ‘습관적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타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욱하는 성격 때문이다’라는 응답도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대화 예절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한다고 여기기도 하고 배우자가 재미로, 친하기 때문에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응답도 많아서 대화 예절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2.3. 대화 내용

대화 속에 어떤 내용을 담는가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는 여러 대화 내용 중에서 특히 칭찬과 감사 2문항, 비교하는 말하기 2문항,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말 1문항,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 1문항, 거짓말하기 2문항 등 총 8문항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1) 칭찬과 감사

칭찬과 감사는 자신은 물론 듣는 사람까지도 힘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하기 이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칭찬과 감사하는 말이 대화 내용 중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나에게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1)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하기

Q27.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41	3.13	2.96	3.17	3.16	2.47	2.90	3.48	3.06	3.28	2.60	2.79	3.28	3.41	2.94	3.21	3.48	3.17

응답자 자신이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평균 3.17의 값을 나타내고,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54.2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부부가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41, 중년부부 3.13, 노년부부 2.96으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 유형보다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하고 있으며 **노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평균 정도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사용하지만 남성의 경우 2.95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2.47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2.90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48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와 칭찬과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정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06이고 맞벌이의 경우 3.28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칭찬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2.60으로 평균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감사나 칭찬의 말을 자주 하는 정도가 고졸 이하의 경우 2.79, 대졸 3.28, 대학원 이상 3.41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감사나 칭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94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21,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48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칭찬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부부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평균보다 높은 정도로 칭찬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남성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칭찬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배우자의 칭찬과 감사하는 말하기

Q28. 남편 또는 아내는 나에게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43	3.13	2.98	3.16	3.20	2.61	2.81	3.53	3.02	3.36	2.40	2.88	3.26	3.44	2.93	3.25	3.48	3.18

배우자가 칭찬과 감사의 말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평균 3.18로 나타나 응답자와 응답자의 배우자가 서로 비슷하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43, 중년부부 3.13, 노년부부 2.98로 신혼부부인 배우자가 다른 부부 유형보다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하고 있으며 **노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20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3.16으로 나타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2.61로 나타났고 보통의 경우 2.81,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53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와 칭찬과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정도는 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02이고 맞벌이의 경우 3.36으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칭찬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2.40으로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감사나 칭찬의 말을 자주 하는 정도가 고졸 이하의 경우 2.88, 대졸 3.26, 대학원 이상 3.44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감사나 칭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93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25,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48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칭찬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와 배우자의 배우자가 서로 비슷하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는 없었으며,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칭찬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2.40으로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교하는 말

배우자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할 때 나타나는 방법이다. 비교하는 말하기는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나에게 대한 판단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불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와의 대화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말하기 내용이다. 대화 내용 중에 비교하는 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한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나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2-1)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하기

Q29.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2.36	2.46	2.54	2.35	2.57	2.97	2.76	2.15	2.48	2.44	2.20	2.42	2.52	2.13	2.58	2.44	2.26	2.45

응답자 자신이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평균 2.4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6.3 정도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2.36, 중년부부 2.46, 노년부부 2.54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 유형보다 비교하는 말을 적게 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노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2.57로 평균 이상의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남성의 경우 2.35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2.97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2.76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15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48이고 맞벌이의 경우 2.44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 비교하는 말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2.20으로 평균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2.42, 대졸 2.52, 대학원 이상 2.13으로 나타나 대졸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는 모든 유형 중에서 비교하는 말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58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44,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26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하는 말은 노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비교하는 말을 적게 하며,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졸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고 가족의 행복도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2-2) 배우자의 비교하는 말하기

Q30. 남편 또는 아내는 나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2.38	2.49	2.76	2.59	2.49	3.31	3.03	2.07	2.67	2.43	2.20	2.60	2.50	2.66	2.68	2.45	2.46	2.54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평균 2.54로 나타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응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2.38, 중년부부 2.49, 노년부부 2.76으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 유형보다 비교하는 말을 적게 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노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2.49로 나타나고 남성은 2.59로 나타나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에 비해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평균 3.31로 나타났고 보통의 경우 3.03,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07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67이고 맞벌이의 경우 2.43으로 나타나 맞벌이에 비해 외벌

이 가정의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2.20으로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하는 말을 하는 정도가 고졸 이하의 경우 2.60, 대졸 2.50, 대학원 이상 2.66으로 나타나 29번 문항의 응답과는 다르게 대졸 응답자의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대학원 이상 응답자의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68,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45,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46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인 응답자의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하는 말을 하는 배우자는 노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보다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맞벌이에 비해서 외벌이 가정의 배우자,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인 응답자의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졸 학력 응답자의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대학원 이상 학력 응답자의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자신에 관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3) 자신의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

배우자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면 짜증이 나는(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가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면 짜증이 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Q31. 나는 남편 또는 아내가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면 짜증이 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2.80	2.64	2.96	2.70	2.92	3.53	3.23	2.37	2.82	2.76	3.40	3.00	2.72	2.78	3.01	2.74	2.55	2.80

배우자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할 때 짜증이 나는 정도를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주어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2.80이 나타났으며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0.0%의 응답자가 배우자가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면 짜증이 난다고 응답하였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2.80, 중년부부 2.64, 노년부부 2.96으로 나타나 중년부부만 평균보다 낮은 응답을 하였다. 특히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중년부부보다도 배우자가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2.70이고 여성은 2.92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배우자의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53이고, 보통의 경우 3.23,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37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의 공을 드러낼 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82이고 맞벌이의 경우 2.76으로 나타나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가 배우자가 자신의 공을 드러낼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3.40으로 나타나 외벌이나 맞벌이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자신의 공을 드러낼 때 짜증이 나는 정도는 고졸의 경우 3.00, 대졸 2.72, 대학원 이상 2.78로 나타나 고졸 이하의 경우 다른 학력의 응답자에 비해 배우자에게 더 짜증이 많이 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01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74,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55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의 공을 드러낼 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중년부부보다도 배우자가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배우자의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가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정년/은퇴의 경우는 외벌이나 맞벌이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의 공을 드러낼 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머 사용

유머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은 대화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이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증진시켜주고 분위기를 밝게 하는 활력소가 된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유머를 자주 사용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Q32.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유머를 자주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44	3.13	2.96	3.12	3.24	2.58	2.99	3.42	3.11	3.24	3.00	2.92	3.24	3.41	2.97	3.22	3.46	3.18

배우자에게 유머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평균 3.18이고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응답자의 54% 정도가 배우자와 대화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44, 중년부부 3.13, 노년부부 2.96으로 **노년으로 갈수록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는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유머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모든 유형의 경우 중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24로 평균 이상의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유머를 사용하지만 남성의 경우 3.12로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게 유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2.58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2.99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42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11이고 맞벌이의 경우 3.24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유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은 3.0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부부의 유머 사용 정도가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2.92, 대졸 3.24, 대학원 이상 3.41로 나타나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는 유머 사용의 정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9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22,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46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 유형에서는 노년으로 갈수록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는 낮아진다. 그러나 신혼부부는 모든 유형의 경우 중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게 유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더 많이 유머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유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거짓말하기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지만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거짓말은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표현이지만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화 내용 중에 거짓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곤란하면 남편 또는 아내에게 거짓말도 한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곤란하면 나에게 거짓말도 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5-1) 배우자에게 거짓말하기

Q33. 나는 곤란하면 남편 또는 아내에게 거짓말도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2.82	2.94	2.81	2.84	2.88	3.33	3.14	2.58	2.84	2.88	2.80	2.95	2.80	2.97	2.94	2.79	2.83	2.86

곤란한 상황에서 응답자 자신이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평균 2.86으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6.4 정도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2.82, 중년부부 2.94, 노년부부 2.81로 중년부부가 다른 부부 유형보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신혼부부와 노년부부는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정도로 거짓말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2.88로 평균 이상의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거짓말은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2.84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33으로 전체 경우 중에서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3.14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58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84이고 맞벌이의 경우 2.88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2.80으로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2.95, 대졸 2.80, 대학원 이상 2.97로 나타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94,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79,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83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의 응답자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곤란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부부 유형은 중년부부, 여성, 맞벌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 4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자 등이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의 행복도와 거짓말을 하는 정도는 반비례해서 가족의 행복도가 낮을수록 거짓말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배우자의 거짓말하기

Q34. 남편 또는 아내는 곤란하면 나에게 거짓말도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2.73	2.83	2.88	2.60	3.06	3.42	3.23	2.42	2.76	2.88	2.60	3.05	2.74	2.66	2.87	2.84	2.67	2.81

배우자는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평균 2.81로 나타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응답자는 자신(2.86)보다는 배우자가 거짓말을 더 적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2.73, 중년부부 2.83, 노년부부 2.88로 나타나 배우자는 결혼 연수가 많아질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자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양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특히 노년부부의 경우 응답자 자신은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2.60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3.06으로 나타나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에 비해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스스로도 여성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33번의 응답과도 관련이 있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가 비교하는 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평균 3.42로 나타났고 보통의 경우 3.23,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42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76이고 맞벌이의 경우 2.88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정의 배우자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2.60으로 평

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하는 말을 하는 정도가 고졸 이하의 경우 3.05, 대졸 2.77, 대학원 이상 2.66으로 나타나 고졸 이하의 응답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응답이 적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87,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84,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67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배우자는 결혼 연수가 많아질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자 자신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평균적인 응답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특히 노년부부의 경우 응답자 자신은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에 비해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배우자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응답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3.2.4. 갈등 처리

갈등이란 서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목표와 양립할 수 없고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갈등은 모든 의미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해소한다면 서로를 단합할 수 있게 하는 가치 있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부부 대화에서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갈등 회피 2문항, 쌓인 감정 표출하기 2문항, 가족회의 1문항, 싸움으로 끝나기 1문항, 합의점 찾기 2문항 등 모두 6문항을 조사하였다.

1)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하기

회피하기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선 상황을 피하여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부정적인 갈등 해소의 방법이다. 이와 같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우리 부부사이에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1) 나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Q35. 나는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02	3.10	3.25	3.17	3.06	3.50	3.33	2.91	3.20	3.05	3.20	3.40	3.01	3.13	3.23	3.06	3.04	3.12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피한다는 응답은 평균 3.12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3.1 정도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02, 중년부부 3.10, 노년부부 3.25로 **결혼 연수가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피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와 중년부부는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정도로 갈등을 피하려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06로 갈등을 피한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3.17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50으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갈등에 대하여 회피하려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3.33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91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갈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20이고 맞벌이의 경우 3.05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갈등에 대하여 피하려는 정도가 더 높으며, 정년/은퇴의 경우에는 3.20으로 외벌이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3.40 > 대학원 이상 3.13, > 대졸 3.01로 나타나 고졸 이하 학력의 경우 갈등을 피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24,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06,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04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갈등이 생겼을 때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 연수가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피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외벌이나 정년/은퇴보다는 맞벌이, 대졸보다는 고졸 이하와 대졸, 그리고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갈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다.

1-2) 배우자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Q36. 남편 또는 아내는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2.79	3.26	3.18	3.03	3.13	3.47	3.22	2.90	3.13	3.00	3.80	3.21	3.04	3.00	3.05	3.09	3.10	3.08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대처하는 방법으로 피한다는 응답은 평균 3.08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1.9 정도로 나타났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응답자 자신보다는 배우자가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중년부부 3.26 > 신혼부부 2.79 > 노년부부 3.18 순으로 나타나 중년부부가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앞의 36번 문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응답자 자신은 결혼 연수가 증가할수록 회피하는 경향이 커지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중년의 경우 가장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13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3.03으로 나타나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에 비해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스스로도 남성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피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응답한 35번의 결과와도 관련된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가 갈등을 피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평균 3.47로 나타났고 보통의 경우 3.22,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90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배우자도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13이고 맞벌이의 경우 3.00으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응답자의 배우자가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3.80으로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르면 갈등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하여 대해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정도가 고졸 이하의 경우 3.21, 대졸 3.04, 대학원 이상 3.00으로 나타나 고졸 이하의 응답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갈등을 회피하려고 경향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05,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09,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10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년부부가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에 비해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응답자의 배우자가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

은퇴인 응답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평균 이상으로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갈등에 대해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쌓인 감정 표출하기

갈등 해소의 방법 중에서 오래 쌓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나타나는 유형도 있다.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전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일을 다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경향은 문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화가 나면 상대방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화가 나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2-1) 배우자에게 쌓인 감정 표출하기

Q37.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화가 나면 상대방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2.65	2.78	2.80	2.57	2.94	3.33	3.09	2.40	2.71	2.79	2.40	2.82	2.72	2.69	2.89	2.74	2.51	2.74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며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평균 2.74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응답자의 43.6% 정도가 배우자에게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화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2.65, 중년부부 2.78, 노년부부 2.80으로 노년으로 갈수록 화가 나면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어내며 이야기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2.94로 평균 이상의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과거의 잘못까지 이야기하지만 남성의 경우 2.57로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화가 나면 배우자의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33으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3.09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40으로 나타나 전체 유형 중에 가장 낮은 값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화가 나

면 배우자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갈등 해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 새로운 갈등이 쌓이게 되어 가족의 행복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79이고 맞벌이의 경우 2.40으로 나타나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가 과거 잘못까지 끄집어내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은 2.82로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2.82, 대졸 2.72, 대학원 이상 2.69로 나타나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화가 나면 배우자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89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74,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51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화가 나도 배우자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으로 갈수록 화가 나면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어내며 이야기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의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가 맞벌이에 비해 과거를 더 많이 들추어내는 경향이 있으며,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화가 나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 나에게 쌓인 감정 표출하기

Q38. 남편 또는 아내는 화가 나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2.83	2.78	3.14	2.93	2.90	3.28	3.34	2.58	2.96	2.88	2.80	2.97	2.83	3.31	2.92	2.97	2.81	2.92

배우자는 어느 정도로 나의 과거 잘못까지 들추어내면서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평균 2.92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7.9 정도로 나타났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응답자는 자신(2.86)보다는 배우자가 응답자의 잘못을 더 들추어낸다고 응답하였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2.83, 중년부부 2.78, 노년부부 3.14로 나타나 특히 노년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응답자의 과거 잘못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2.90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2.93으로 나타나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보다 응답자의 과거를 더 많이 들추어내며 이야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37번 문항에서 응답자 스스로도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의 과거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가 과거를 들추어내는 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평균 3.28로 나타났고 보통의 경우 3.34,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58로 나타나 보통 경우의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다른 모든 유형보다 화가 나도 배우자의 과거를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행복도가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갈등 해소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96이고 맞벌이의 경우 2.88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배우자가 화가 나도 배우자의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2.80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가 과거를 들추어내며 말하는 정도가 고졸 이하의 경우 2.97, 대졸 2.83, 대학원 이상 3.31로,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92,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97,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81로 나타나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의 응답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과거를 들추어내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부부, 여성, 보통의 행복도, 외벌이,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화가 나면 배우자가 자신의 과거 잘못까지 드러내어 이야기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 가족회의의 필요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가족회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부부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Q39. 우리 부부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27	2.98	2.83	2.91	3.17	3.44	3.22	2.82	2.89	3.18	2.40	3.04	3.01	3.09	3.16	2.99	2.87	3.03

의견의 충돌이나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평균 3.03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응답자의 50% 정도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27, 중년부부 2.98, 노년부부 2.83으로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가족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17로 평균 이상의 응답자가 가족회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 2.91로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회의를 통해 의견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44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3.22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2.82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낮을수록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경우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의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 가족회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89이고 맞벌이의 경우 3.18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가족회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은 2.40으로 전체 유형 중에서 가족회의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3.04, 대졸 3.01, 대학원 이상 3.09로 나타나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가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16,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99,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87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여성, 불행함, 맞벌이,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 가구소득 400~6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족회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싸움으로 끝나기

갈등의 상황에서는 조금만 감정이 격해지면 오히려 싸움이 되기도 한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만 더 쌓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부부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Q40. 우리 부부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2.20	2.27	2.56	2.22	2.48	3.61	2.94	1.69	2.29	2.37	3.00	2.62	2.27	2.13	2.64	2.23	2.04	2.34

부부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은 평균 2.34이다.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응답자의 33.6% 정도가 대화를 하다가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싸움이 되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2.20, 중년부부 2.27, 노년부부 2.56으로 **노년으로 갈수록 싸움이 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2.48로 평균 이상의 응답자가 싸움으로 끝난다고 응답하였지만 남성의 경우 2.22로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싸움이 되어 버린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61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의 경우 평균 2.94,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1.69로 전체 유형 중에서 대화가 싸움이 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 행복도에 따라 대화가 싸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2.29이고 맞벌이의 경우 2.37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싸움으로 대화가 끝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은 3.00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2.62, 대졸 2.27, 대학원 이상 2.13으로 나타나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는 대화가 싸움이 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2.64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2.23, 600만 원 이상의 경우 2.04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 연수가 많아질수록, 가족의 행복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부의 대화가 점차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5) 합의점 찾기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합의점을 마련하는 방

법은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소의 방법이다. 부부 모두 자기가 생각하는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평가한 후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서로 누구의 체면도 상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같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나와 의견이 다를 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5-1) 나의 합의점 찾기

Q41.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79	3.47	3.40	3.59	3.51	3.19	3.33	3.77	3.50	3.60	3.60	3.27	3.63	3.78	3.42	3.52	3.83	3.55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평균 3.55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3.8 정도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79, 중년부부 3.47, 노년부부 3.40으로 노년으로 갈수록 합의점을 찾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51로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는 3.59로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19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3.33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77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50이고 맞벌이의 경우 3.60으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높은 3.60으로 나타났는데 노년부부의 경우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3.27, 대졸 3.63, 대학원 이상 3.78로 나타나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는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42,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52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83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부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으로 갈수록 합의점을 찾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배우자의 합의점 찾기

Q42. 남편 또는 아내는 나와 의견이 다를 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60	3.49	3.35	3.46	3.50	2.97	3.20	3.77	3.38	3.59	3.00	3.33	3.53	3.53	3.30	3.52	3.71	3.48

배우자는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평균 3.48로 나와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2점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배우자보다는 자신(3.55)이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60, 중년부부 3.49, 노년부부 3.35로 나타나 배우자는 결혼 연수가 많아질수록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적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50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3.46으로 나타나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에 비해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스스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평균 2.97로 나타났고 보통의 경우 3.20,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77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배우자도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38이고 맞벌이의 경우 3.59으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3.00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응답자 자신에 비해 배우자는 노력을 더 적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졸 이하의 경우 3.33, 대졸 3.53, 대학원 이상 3.53로 나타나 고

졸 이하의 응답자만 자신의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평균보다 적게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졸 이상 학력의 응답자는 모두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30,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52,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71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결혼 연수가 많아질수록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적게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응답자 자신에 비해 배우자는 노력을 더 적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3.3. 듣기

대화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듣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 6문항을 설계하여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행복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끝까지 듣기

배우자와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1)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듣기

Q43. 나는 남편 또는 아내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58	3.38	3.29	3.34	3.50	3.03	3.11	3.69	3.34	3.49	3.60	3.21	3.45	3.75	3.22	3.52	3.58	3.42

배우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듣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평균 3.42이고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

산하면 응답자의 60% 정도가 배우자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58, 중년부부 3.38, 노년부부 3.29로 **노년으로 갈수록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50으로 평균 이상의 응답자가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다고 응답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3.34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더 잘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03으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3.11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69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34이고 맞벌이의 경우 3.49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배우자의 말을 더 잘 듣는다고 응답하였다.**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높은 3.60으로 나타났는데 노년부부의 경우 끝까지 듣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3.21, 대졸 3.45, 대학원 이상 3.75로 나타나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는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이상의 경우 다른 모든 유형보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말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22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52,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58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정도와 비례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으로 갈수록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더 잘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배우자의 말을 더 잘 듣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이상의 경우 다른 모든 유형보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말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배우자의 끝까지 잘 듣기

Q44. 남편 또는 아내는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50	3.45	3.18	3.38	3.37	2.94	2.96	3.73	3.28	3.47	3.20	3.27	3.41	3.47	3.20	3.40	3.64	3.38

배우자는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가에 대한 응답은 평균 3.38이고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응답자의 59% 정도가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50, 중년부부 3.45, 노년부부 3.18로 **노년으로 갈수록 배우자도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정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3.38, 여성은 3.37로 큰 차이 없이 모두 평균 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의 배우자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2.94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2.96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73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배우자도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28이고 맞벌이의 경우 3.47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끝까지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은 3.2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부부의 배우자도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3.27, 대졸 3.41, 대학원 이상 3.47로 나타나 고졸 이하 학력 응답자의 배우자도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도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20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40,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64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도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응답자의 배우자가 다른 모든 유형의 배우자보다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도 노년으로 갈수록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정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이 평균 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이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정도(3.42)보다는 조금 낮지만 자신의 배우자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도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응답자의 배우자가 다른 모든 유형의 배우자보다 응답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 반응 보이며 듣기

대화를 하면 가만히 침묵하면서 듣기보다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주면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이 이해하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나는 남편 또는 아내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라는 문항과

“남편 또는 아내는 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2-1) 배우자에게 반응 보이며 듣기

Q45. 나는 남편 또는 아내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68	3.41	3.36	3.50	3.46	3.00	3.15	3.80	3.42	3.53	3.80	3.44	3.47	3.66	3.33	3.52	3.68	3.48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해한다는 반응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평균 3.48이고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응답자의 62% 정도가 배우자와 대화할 때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68, 중년부부 3.41, 노년부부 3.36으로 노년으로 갈수록 반응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46으로 평균 이하의 응답자가 배우자의 말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듣고 남성의 경우 3.50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으니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에게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3.00으로 전체 경우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균 3.15이고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80으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말에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42이고 맞벌이의 경우 3.53으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높은 3.8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부부의 듣기 정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3.44, 대졸 3.47, 대학원 이상 3.66으로 나타나 대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는 배우자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33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52,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68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으로 갈수록 반응이 줄어들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에게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말에 반응을 보이면 듣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배우자의 반응 보이며 듣기

Q46. 남편 또는 아내는 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가족 행복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불행함	보통	행복함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53	3.38	3.32	3.39	3.43	2.78	3.02	3.79	3.40	3.42	3.40	3.24	3.45	3.56	3.16	3.47	3.74	3.41

배우자는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평균 3.41로 나타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배우자보다는 응답자에게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3.48)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53, 중년부부 3.38, 노년부부 3.32로 나타나 배우자는 결혼 연수가 많아질수록 응답자에게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43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3.39로 나타나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에 비해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가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정도가 평균 2.78로 나타났고, 보통의 경우 3.02, 행복하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79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40이고 맞벌이의 경우 3.42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정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말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은퇴의 경우는 3.40으로 외벌이와 동일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졸 이하의 경우 3.24, 대졸 3.45, 대학원 이상 3.56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16,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47,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74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응답자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듣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결혼 연수가 많아질수록 응답자에게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

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배우자가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외별이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말에 더 많은 반응을 나타내고, 정년/은퇴의 경우는 외별이와 동일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 행복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는 응답자가 하는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

Q47. 내가 남편 또는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다.

(단위: %)

		수고에 대한 감사	능력에 대한 칭찬	성격에 대한 칭찬	외모에 대한 칭찬	가정사에 대한 관심	없음
전체		81.0	11.0	5.3	2.0	0.3	0.3
부부 유형	신혼부부	84.0	8.0	4.0	3.0	0.0	1.0
	중년부부	85.0	10.0	4.0	1.0	0.0	0.0
	노년부부	74.0	15.0	8.0	2.0	1.0	0.0
성별	남성	79.5	12.4	6.8	0.6	0.0	0.6
	여성	82.7	9.4	3.6	3.6	0.7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66.7	19.4	5.6	8.3	0.0	0.0
	보통	83.2	10.9	5.0	1.0	0.0	0.0
	행복함	82.8	9.2	5.5	1.2	0.6	0.6
소득원	외별이	81.8	11.9	5.6	0.7	0.0	0.0
	맞벌이	80.3	9.9	5.3	3.3	0.7	0.7
	정년/은퇴	80.0	20.0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79.5	11.5	6.4	2.6	0.0	0.0
	대졸	82.1	11.6	3.7	1.6	0.5	0.5
	대학원 이상	78.1	6.3	12.5	3.1	0.0	0.0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79.3	11.2	7.8	1.7	0.0	0.0
	400~600만원 미만	79.1	14.8	2.6	1.7	0.9	0.9
	600만원 이상	87.0	4.3	5.8	2.9	0.0	0.0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은 수고에 대한 감사(81.0%) > 능력에 대한 칭찬(11.0%) > 성격에 대한 칭찬(5.3%) > 외모에 대한 칭찬(2.0%) > 가정사에 관한 관심(0.3%) > 없음(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수고에 대한 감사(84.0%) > 능력에 대한 칭찬(8.0%) > 성격에 대한 칭찬(4.0%)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년부부의 경우 수고에 대한 감사(85.0%) > 능력에 대한 칭찬(10.0%) > 성격에 대한 칭찬(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 수고에 대한 감사(74.0%) > 능력에 대한 칭찬(15.0%) > 성격에 대한 칭찬(8.0%)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의 순서는 동일하지만 결혼 연수가 증가할수록 특히 능력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수고에 대한 감사 > 능력에 대한 칭찬 > 성격에 대한 칭찬의 순으로 나타나지만 ‘수고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는 응답이 남성은 79.5%, 여성은 82.7%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수고에 대한 칭찬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에 대한 칭찬’도 남성(0.6%)에 비해 여성(3.6%)이 더 듣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수고에 대한 감사’가 듣고 싶다는 응답이 행복함(82.8%) > 보통(83.2%) > 불행함(66.7%)으로 나타났고 능력에 대한 칭찬이 듣고 싶다는 응답은 불행함(19.4%) > 보통(10.9%) > 행복함(9.2%)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에 대한 칭찬은 불행함은 8.3%로 나타났는데 보통은 1.0%, 행복함은 1.2%로 나타나 가족 행복도에 따라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능력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는 응답이 정년/은퇴(20.0%) > 외벌이(11.9%) > 맞벌이(9.2%)로 나타나 경제 활동이 적을수록 ‘능력에 대한 칭찬’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에 대한 칭찬은 외벌이 0.7%이고 정년/은퇴의 경우 응답자가 없었는데 맞벌이의 경우 3.3%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소득원 응답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경우는 수고에 대한 감사(79.5%) > 능력에 대한 칭찬(11.5%) > 성격에 대한 칭찬(6.4%)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졸의 경우 수고에 대한 감사(82.1%) > 능력에 대한 칭찬(11.6%) > 성격에 대한 칭찬(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학원 이상의 경우 수고에 대한 감사(78.1%) > 성격에 대한 칭찬(12.5%) > 능력에 대한 칭찬(6.3%)으로 나타나 특히 ‘성격에 대한 칭찬’의 말을 듣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을 듣고 싶다는 응답은 400만 원 미만(78.1%), 400~600만 원 미만 79.1%, 600만 원 이상의 응답자는 87.0%로 나타나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응답은 동일하지만 특히 600만 원 이상이 더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4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능력에 대한 칭찬(11.2%) > 성격에 대한 칭찬(7.8%)으로 나타났고,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능력에 대한 칭찬(14.8%) > 성격에 대한 칭찬(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600만 원 이상의 경우 성격에 대한 칭찬(5.8%) > 능력에 대한 칭찬(4.3%)으로 나타나 특히 ‘성격에 대한 칭찬’의 말을 듣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수고에 대한 감사’이지만 부부 유형 중에서는 중년부부와 노년부부가 신혼부부에 비해 능력에 대한 칭찬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과 불행함, 맞벌이, 고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에는 다른 비교 유형의 응답자에 비하여 ‘외모에 대한 칭찬’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했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와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능력에 대한 칭찬’보다도 ‘성격에 대한 칭찬’을 배우자에게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배우자에게 듣기 싫은 말

Q48. 내가 남편 또는 아내에게 듣기 싫은 말은 ()이다.

(단위: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	칭정 본가에 대한 불평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	없음	자녀에 대한 불평	거짓말	모든 것	지식과 학력에 대한 무시	과거의 일 들추기	술 먹자는 말
전체		29.0	27.7	27.0	9.0	4.3	1.0	0.7	0.3	0.3	0.3	0.3
부부 유형	신혼부부	31.0	22.0	30.0	11.0	6.0	0.0	0.0	0.0	0.0	0.0	0.0
	중년부부	24.0	30.0	31.0	7.0	3.0	3.0	1.0	0.0	0.0	0.0	1.0
	노년부부	32.0	31.0	20.0	9.0	4.0	0.0	1.0	1.0	1.0	1.0	0.0
성별	남성	32.9	29.8	27.3	3.7	3.7	1.2	0.0	0.0	0.0	0.6	0.6
	여성	24.5	25.2	26.6	15.1	5.0	0.7	1.4	0.7	0.7	0.0	0.0
가족 행복도	불행함	25.0	36.1	22.2	5.6	2.8	0.0	5.6	0.0	2.8	0.0	0.0
	보통	23.8	36.6	24.8	10.9	0.0	3.0	0.0	0.0	0.0	1.0	0.0
	행복함	33.1	20.2	29.4	8.6	7.4	0.0	0.0	0.6	0.0	0.0	0.6
소득원	외벌이	30.1	37.1	22.4	7.0	2.1	0.7	0.7	0.0	0.0	0.0	0.0
	맞벌이	28.3	19.7	30.9	11.2	6.6	1.3	0.7	0.7	0.0	0.0	0.7
	정년/은퇴	20.0	0.0	40.0	0.0	0.0	0.0	0.0	0.0	20.0	20.0	0.0
학력	고졸 이하	32.1	24.4	20.5	12.8	5.1	1.3	1.3	0.0	1.3	1.3	0.0
	대졸	27.4	29.5	27.9	8.4	4.2	1.1	0.5	0.5	0.0	0.0	0.5
	대학원 이상	31.3	25.0	37.5	3.1	3.1	0.0	0.0	0.0	0.0	0.0	0.0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31.0	34.5	19.0	9.5	1.7	0.9	1.7	0.0	0.9	0.9	0.0
	400~600만원 미만	26.1	30.4	27.8	8.7	6.1	0.9	0.0	0.0	0.0	0.0	0.0
	600만원 이상	30.4	11.6	39.1	8.7	5.8	1.4	0.0	1.4	0.0	0.0	1.4

배우자에게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29.0%)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27.7%)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7.0%) >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9.0%) > 없음(4.3%) > 자녀에 대한 불평(1.0%) > 거짓말(0.7%)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다른 것 모두, 지식과 학력에 대한 무시, 과거의 일 들추기, 술 먹자는 말 등이 0.3%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31.0%)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30.0%)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22.0%)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년부부의 경우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31.0%)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30.0%)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32.0%)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31.7%)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0.0%)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혼부부와 노년부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가장 듣기 싫은 말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중년부부는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이라고 응답하여 특히 중년부부가 친정이나 본가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32.9%)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29.8%)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7.3%)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6.6%)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25.2%)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24.5%) 순으로 나타나 남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말로 응답하였고 여성은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을 남성은 3.7%만이 응답하였으나 여성은 15.1%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응답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이 외모에 관한 비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행복도에 따르면 불행함은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36.1%)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25.0%)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2.2%)으로 나타났고, 보통은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36.6%)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4.8%)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23.8%)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함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33.1%)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9.4%)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20.2%)으로 나타났다. 또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없다’는 응답은 불행함의 경우 2.8%로 나타나고 보통은 응답자 전체 없었으나 행복함은 7.4%로 나타나 행복함이라고 한 응답자가 다른 유형의 응답자에 비하여 듣기 싫은 배우자의 말이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행함의 경우에는 ‘거짓말’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는 응답이 5.6%로 나타나 다른 어떤 유형과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37.1%)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30.1%)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2.4%)으로 나타났고, 맞벌이의 경우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30.9%)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28.3%)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19.7%)으로 나타나 외벌이는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을 가장 듣기 싫은 말로 선택하였으나 맞벌이는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만으로 응답하였다. 정년/은퇴의 경우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만(40.0%)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 지식과 학력에 대한 무시, 과거일 들추기 등이 모두 20.0%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에 대한 비난은 외벌이의 경우 7.0%이고 정년/은퇴의 경우 응답자가 없었는데 맞벌이의 경우 11.2%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소득원 응답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경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32.1%)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24.4%)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0.5%)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졸의 경우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29.5%)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27.4%)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7.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학원 이상의 경우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37.5%)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31.3%)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2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에 대한 비난은 고졸 이하의 경우 12.8%로 나타나 대졸(8.4%)과 대학원 이상(3.1%)과 달리 외모에 관한 말에 대해서도 듣기 싫은 말로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4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34.5%)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31.0%)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19.0%)으로 나타났고,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30.4%) >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7.8%)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26.1%)로 나타났다. 6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39.1%) >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30.4%) >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11.6%)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응답자와 가구소득 400~600만 원 응답자는 경제 능력이나 가사능력에 관한 불평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경우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전체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로 나타났으며, 신혼부부, 노년부부, 남성, 행복함, 고졸 이하 학력의 경우에 같은 응답을 하였다. 또한 불행함, 보통, 외벌이, 대졸,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가구소득 400~600만 원의 경우에는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라고 응답하였고, 중년부부, 여성, 맞벌이, 정년/은퇴, 대학원 이상,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신혼부부, 여성, 맞벌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을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불행함의 경우에는 ‘거짓말’이라는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나 부부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듣기 싫은 말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가족 행복도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가정의 행복한 정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가족은 ()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Q49. 우리 가족은 ()고 생각한다.

(기준: 5점 만점)

부부 유형			성별		소득원			학력			가구소득			전체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남성	여성	외벌이	맞벌이	정년 은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3.83	3.49	3.41	3.66	3.48	3.49	3.66	3.40	3.29	3.66	3.78	3.32	3.63	3.91	3.58

가족의 행복도에 관한 응답은 평균 3.58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응답자의 64.4% 정도가 자신의 가족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부 유형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3.83, 중년부부 3.49, 노년부부 3.41로 노년으로 갈수록 가족의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년부부와 노년부부의 경우 가족의

행복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3.48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남성은 3.66으로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따르면 외벌이의 경우 3.49이고 맞벌이의 경우 3.66으로 나타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족의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은 3.4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 이후 부부의 가족 행복도가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3.29, 대졸 3.66, 대학원 이상 3.78로 나타나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는 가족의 행복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의 행복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32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의 경우 3.63, 600만 원 이상의 경우 3.91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의 행복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다른 모든 유형 중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과 맞벌이 부부, 그리고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의 행복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IV.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부모의 대화

1.1. 대화 시간

대화 시간과 부모의 대화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 대화 시간과 대화만족도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과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5분 미만	3	2.00	1.000	8.592***
10분 정도	15	2.73	.961	
30분 정도	40	3.20	.883	
1시간 정도	24	3.63	.824	
1시간 이상	18	4.17	.786	

***p<.001

분석 결과, 대화만족도는 대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화 시간이 짧으면 대화만족도가 낮고[5분 미만(M=2.00)], 대화 시간이 길면 대화만족도[1시간 이상(M=4.17)]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 차이는 2배가 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F=8.592, p<.001). 따라서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자녀의 대화만족도까지 고려한다면 1시간을 넘기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만족도를 모두 고려한다면 1시간 이내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부모의 생활과 자녀의 학업으로 인해 대면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의 부족한 대화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1.1.2. 대화 시간과 부모의 직업

대화 시간과 부모의 직업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대화 시간과 부모의 직업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형	회사원	교육자	공무원	전문직	가정주부	자영업	생산직	합계
5분 미만	2	0	0	0	0	0	1	3
10분 정도	13	0	0	0	0	2	0	15
30분 정도	19	2	1	4	13	0	1	40
1시간 정도	12	0	1	3	5	3	0	24
1시간 이상	6	1	0	2	6	3	0	18
합계	52	3	2	9	24	8	2	100

chi square=39.035, df=24, p=.027

분석 결과, 직업에 따라 대화 시간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회사원’ 집단에 비하며 상대적으로 ‘가정주부’와 ‘자영업’ 집단의 대화 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39.035$, $p<.05$). 대화 시간이 늘어나면 대화만족도도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원’ 집단의 대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대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집단의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1.3. 대화 시간과 부모의 성별

대화 시간과 부모의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대화 시간과 부모의 성별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형	남성(아버지)	여성(어머니)	합계
5분 미만	2	1	3
10분 정도	14	1	15
30분 정도	20	20	40
1시간 정도	16	8	24
1시간 이상	6	12	18
합계	58	42	100

chi square=14.067, df=4, p=.007

분석 결과, 대화 시간이 긴 집단은 ‘여성(어머니)’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아버지)’의 대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14.067$, $p<.01$).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한 것은 부모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도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녀와 대면대화가 어려운 형편이라면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것도 대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1.2. 대화 환경

대화 환경과 부모의 대화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1.2.1. 부모의 학력과 대화만족도

부모의 학력에 따른 대화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학력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부모의 학력과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고졸 이하	15	2.73	.961	2.761*
대학(전문대) 재학	2	3.00	1.414	
대학(전문대) 졸업	73	3.51	.930	
대학원 이상	10	3.40	1.174	

*p<.05

분석 결과, 고졸 이하부터 대학(전문대)을 졸업한 부모(M=3.51)까지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학원 이상 졸업한 부모(M=3.40)까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대화만족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2.761, p<.05).

1.2.2. 부모의 연령과 대화만족도

부모의 연령과 대화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부모의 연령과 대화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령	대화만족도
연령		-.207*
대화만족도	-.207*	

*p<.05

분석 결과, 부모의 연령과 대화만족도 간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화만족도는 낮아지며,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 결과는 다음의 <표 4-6>에서와 같이 부모의 연령과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자녀의 입장이나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4-6> 부모의 연령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부모 연령	-.034	.016	-.207	-2.100*

*p<.05

부모의 연령과 대화만족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화만족도($t=-2.100$, $p<.05$)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대화만족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 대화 주제와 대화만족도

대화 주제에 따른 부모의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화 주제와 부모의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대화 주제와 부모의 대화만족도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상투적인 말	15	2.60	.828	3.231*
다른 사람 이야기	4	3.00	.816	
내 생각이나 고민	19	3.47	.841	
내 느낌이나 기분	24	3.50	1.063	
내 진심과 필요	37	3.62	.953	
기타	1	2.00		

*p<.05

분석 결과, 일상적·상투적인 일로 이야기할수록 대화만족도는 낮았고($M=2.60\sim M3.00$), 부모의 느낌이나 기분, 부모의 진심과 필요($M=3.47\sim 3.62$) 등을 이야기할수록 대화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231, p<.05$). 따라서 상투적인 말이나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진심과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4. 대화 예절

대화 예절과 부모의 대화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일원분산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4.1. 비평이나 지적하기와 대화만족도

비평이나 지적하기와 대화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부모가 자녀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을 받아들이는 정도($t=-2.183, p<.01$)는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자녀를 위한 비평이나 지적의 정도	-.216	.129	-.187	-1.677
	자녀가 비평이나 지적이라고 받아들이는지의 정도	-.288	.132	-.244	-2.183*

* $p<.05$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하기와 부모의 대화만족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beta=-.244$)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한다고 말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자녀는 듣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녀의 반응은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비평이나 지적보다는 격려의 말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1.4.2. 인사하기와 대화만족도

가족 간의 인사를 나누는 정도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가족 간의 인사를 나누는 정도($t=3.172, p<.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가족 간의 인사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가족 간의 인사를 나누는 정도	.338	.107	.305	3.172**

**p<.01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가족 간의 인사하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간에 평소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305$). 따라서 가족 간에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는 대화 예절을 지키고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4.3.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기와 대화만족도

자녀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기에 따른 부모의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자녀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습관이다	6	3.00	.632	4.331*
친하기 때문이다	7	3.86	.378	
무시하기 때문이다	3	3.00	1.000	
재미 때문이다	2	3.50	.707	
화가 나서이다	4	2.25	.957	
스트레스 때문이다	1	5.00		

*p<.05

분석 결과, 자녀들이 화가 나서 혹은 습관적으로, 무시하려는 의도로 부모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한 경우는 부모의 대화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재미 때문에, 또는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부모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한 경우는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331, p<.05$). 따라서 자녀가 습관적으로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재미나 정서적인 유대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대화 내용

대화 내용과 부모의 대화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일원분산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1. 칭찬이나 감사하기와 대화만족도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부모와 자녀의 칭찬이나 감사하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자녀들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	.189	.141	.159	1.345
	자녀가 나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	.370	.148	.294	2.491*

*p<.05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칭찬이나 감사의 말은 모두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많이 할수록 서로의 대화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β 값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t=2.491$, $p<.05$)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에게 자녀가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요소임을 알려주고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1.5.2. 비교하기와 대화만족도

비교하는 말하기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가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정도($t=-3.769$, $p<.0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자녀가 부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하는 정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부모와 자녀의 비교하는 말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자녀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정도	-.402	.107	-.398	-3.769***
	자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정도	.099	.102	.102	.967

***p<.001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녀가 부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스스로도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의 대화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봐 주고 자녀가 가진 장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5.3. 유머 사용하기와 대화만족도

유머 사용하기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유머 사용하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자녀의 유머 사용하기($t=2.253, p<.05$)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부모와 자녀의 유머 사용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자녀에게 유머를 하는 정도	.029	.144	.23	.200
	자녀가 유머를 하는 정도	.324	.144	.259	2.253*

*p<.05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부모와 자녀의 유머 사용하기는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머를 사용할수록 대화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를 하면서 유머를 사용하면 서로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자녀와 대화할 때는 유머를 사용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자녀가 유머를 사용할 때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어 서로의 대화에서 유머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5.4. 거짓말하기와 대화만족도

거짓말하기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거짓말하기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의 거짓말하기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t=-4.392$, $p<.001$)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14>와 같다.

<표 4-14> 부모와 자녀의 거짓말하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정도	.153	.091	.167	1.676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정도	-.427	.097	-.437	-4.392***

*** $p<.001$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자녀의 거짓말하기는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beta = -.437$)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부모의 거짓말은 자녀와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 스스로도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의 사용하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의 격률을 지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6. 갈등 처리

갈등 처리와 부모의 대화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일원분산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1. 갈등 회피와 대화만족도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회피하려는 태도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의 갈등 회피 태도와 달리 자녀의 갈등 회피 태도($t=-2.559$, $p<.05$)에 대한 β 값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15>와 같다.

<표 4-15> 부모와 자녀의 갈등 회피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정도	.046	.108	.050	.430
	자녀들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는 정도	-.317	.124	-.295	-2.559*

*p<.05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자녀의 갈등 회피 태도는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 상황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부모가 이를 피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적은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자녀가 이를 피하는 것은 대화만족도를 낮게 만든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에 만 초점을 나누어 대화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6.2. 싸움으로 끝나기와 대화만족도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과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 대화가 파국으로 끝나는 정도($t=-2.941$, $p<.01$)는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16>과 같다.

<표 4-16>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	-.264	.090	-.285	-2.941**

**p<.01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게 되면 부모의 대화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가족 대화가 이루어질 때는 말할 때나 들을 때 무패의 방법을 적용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대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1.7. 듣기

듣기와 부모의 대화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1. 끝까지 듣기와 대화만족도

끝까지 듣기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정도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정도($t=3.072$, $p<.01$)는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17>과 같다.

<표 4-17> 부모와 자녀의 끝까지 듣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정도	.019	.138	.014	.134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정도	.410	.134	.325	3.072**

** $p<.01$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부모와 자녀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모두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수록 대화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말을 경청할 때($\beta=.014$)보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할 때($\beta=.325$) 부모의 대화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화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2. 반응 보이며 듣기와 대화만족도

반응 보이며 듣기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가 자녀의 말에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t=2.826$, $p<.01$)는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18>과 같다.

<표 4-18> 부모와 자녀 간 반응 보이며 듣기와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자녀들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	.198	.148	.146	1.340
	자녀들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	.383	.136	.308	2.826**

**p<.01

표준화계수 β 를 보면 부모의 이해 반응과 자녀의 이해 반응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말에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들을수록 대화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 4-17>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데,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끝까지 들어줄 뿐만 아니라 잘 듣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자녀의 대화

2.1. 대화 시간

대화 시간에 따른 자녀의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1. 하루 평균 대화 시간과 대화만족도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시간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19>와 같다.

<표 4-19> 자녀와 부모 간 대화 시간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5분 미만	8	2.38	.744	8.873***
10분 정도	31	2.81	1.014	
30분 정도	82	3.41	.800	
1시간 정도	43	3.53	1.099	
1시간 이상	36	3.94	.955	

***p<.001

분석 결과, 대화 시간은 대화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만족도[5분 미만(M=2.38)~1시간 이상(M=3.94)]는 정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8.873, $p<.001$). 따라서 자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1.2. 이상적인 대화 시간과 대화만족도

자녀가 생각하는 이상적 대화 시간과 대화만족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4-20>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0> 자녀와 부모 간 이상적 대화 시간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5분 미만	4	1.75	.957	7.621***
10분 정도	13	2.62	.650	
30분 정도	62	3.27	.872	
1시간 정도	68	2.49	.922	
1시간 이상	53	2.75	1.090	

*** $p<.001$

분석 결과,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와의 이상적 대화 시간은 30분 정도(M=3.27)까지 대화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1시간 정도(M=2.49)와 1시간 이상(M=2.75)에서는 오히려 대화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7.621, $p<.001$). 특히, 이상적 대화 시간이 1시간 이상보다는 1시간 정도에서 대화만족도가 낮았다. 이것을 현재 대화 시간과 비교하면, 30분 미만 대화를 하는 자녀들은 대화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 한 시간 이상의 대화를 나누는 자녀들에게 대화 시간을 이상화하는 것은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변수로서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녀와 30분 미만의 대화를 나누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와 대화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 가정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3. 대화 시간과 성별

대화 시간과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대화 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16.518$, $p<.001$). 그 결과는 <표 4-21>과 같이 나타

났다.

<표 4-21> 대화 시간과 자녀의 성별 간의 교차분석 결과

대화 시간	성별		합계
	남학생	여학생	
5분 미만	4	4	8
10분 정도	18	13	31
30분 정도	24	58	82
1시간 정도	23	20	43
1시간 이상	8	28	36
합계	77	123	200

chi square=16.518, df=4, p<.001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경우에는 대화 시간이 10분 미만의 경우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분 정도와 1시간 이상 구간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간이 길수록 대화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살펴볼 때, 자녀 가운데 여학생의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남학생이 더 짧게 대화하고, 대화만족도도 낮다는 점에서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들과 대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4. 이상적인 대화 시간과 성별

자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화 시간과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4-22>와 같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2> 이상적 대화 시간과 자녀의 성별 간의 교차분석 결과

대화 시간	성별		합계
	남성(아들)	여성(딸)	
5분 미만	2	2	4
10분 정도	10	3	13
30분 정도	26	36	62
1시간 정도	25	43	68
1시간 이상	14	39	53
합계	77	123	200

chi square=11.994, df=4, p<.001

분석 결과, 이상적 대화 시간의 경우, 아들의 경우에는 30분 정도 이하의 대화 시간을 선호하였으며 딸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경우를 이상적 대화 시간으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11.994$, $p<.001$). 실제 대화 시간과 이상적 대화 시간 모두 딸의 경우가 보다

더 긴 대화 시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들과는 하루 30분 정도, 딸과는 하루 한 시간 이상의 대화를 나누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5. 대화 시간과 연령

대화 시간과 자녀의 연령대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화 시간과 연령대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23>과 같이 대화 시간과 자녀들의 연령대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냈으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17.735, p<.001$).

<표 4-23> 대화 시간과 자녀의 연령대 간의 교차분석 결과

대화 시간	연령대			합계
	11~13세(초등학생)	14~16세(중학생)	17~19세(고등학생)	
5분 미만	1	0	7	8
10분 정도	10	4	17	31
30분 정도	43	10	29	82
1시간 정도	28	4	11	43
1시간 이상	18	6	12	36
합계	100	24	76	200

chi square=17.735, df=8, p<.001

전체적으로 11세~13세보다는 14세 이상 연령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화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간이 적을수록 대화만족도가 낮아지므로 중고등학생 이상의 연령대의 대화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줄어드는 자녀와 부모들의 대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6. 대화 시간과 부모의 학력

대화 시간과 자녀 아버지의 최종학력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화 시간과 자녀 아버지의 학력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4>와 같다. 분석 결과, 대화 시간과 아버지들의 최종학력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5.910, p<.001$).

<표 4-24> 대화 시간과 자녀 아버지의 최종학력 간의 교차분석 결과

대화 시간	아버지의 최종학력				합계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전문대) 재학	대학(전문대) 졸업	대학원 이상	
5분 미만	7	0	1	0	8
10분 정도	15	3	11	2	31

30분 정도	32	4	40	6	82
1시간 정도	9	7	20	7	43
1시간 이상	17	0	17	2	36
합계	80	14	89	17	200

chi square=25.910, df=12, p<.001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에 비해 아버지의 학력이 유의하다는 것은 통계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10분 미만 대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화 시간이 30분 정도 이상일 경우, 대학(전문대) 재학이나 졸업, 대학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시간 이상의 대화 시간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대학원 이상보다 더 높았다.

2.1.7. 대화 시간 부족 이유와 대화만족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와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와 대화만족도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25>와 같다.

<표 4-25> 자녀와 부모의 대화 시간 부족 이유와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내 성격	27	3.07	.997	4.291***
부모님 성격	11	2.64	1.027	
부모님과의 갈등	12	2.58	.900	
내 공부	67	3.49	.943	
부모님의 직장 업무	67	3.54	.859	
학교에 있는 시간	4	4.50	1.000	
각자일/맞지 않는 시간	4	3.25	1.258	
따로 나와 살아서	2	3.50	2.121	
핸드폰/TV	2	4.50	.707	
없음(대화함)	4	4.75	.500	

***p<.001

분석 결과,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부모님에게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대화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부모님 성격(M=2.64), 부모님과의 갈등(M=2.58)]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내 성격인 경우(M=3.07)보다 낮다. 또한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내 공부(M=3.49), 따로 살아서(M=3.50), 부모님의 직장(M=3.54)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M=4.50), 핸드폰이나 텔레비전(M=4.50)처럼 자신의 시간을 갖기 위해 대화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대화만족도가 높았고, 늘 대화하기 때문에 이유가 특별히 없

다고 응답한 경우(M=4.50) 가장 높은 대화만족도를 보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4.291, p<.001). 따라서 자신의 시간 관리나 타당한 이유 때문에 대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만족도에 문제가 없으나, 부모님의 성격이나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자녀들에게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영역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대화 환경

자녀의 대화만족도와 환경 요소, 즉 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수준과 같은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고, 구체적인 결과는 <표 4-26>과 같았다.

<표 4-26> 자녀의 대화만족도와 성적, 경제수준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대화만족도	성적	경제수준
대화만족도		.147*	.225**
성적	.147*		.325**
경제수준	.225**	.325**	

*p<.05, **p<.01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결과, 각 변인들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만족도와 성적, 경제수준은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대화만족도에는 가정의 경제수준(.225)이 본인 성적(.147)보다 더 높은 상호관련성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대화만족도와 성적, 경제수준은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성적과 경제수준은 일정 부분 상호간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성적과 경제수준이 기여한다고 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역시 증가하므로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와 대화 시간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다도 경제수준이 대화만족도보다는 성적에 더 큰 상관도를 보이고 있다.

2.2.1. 성적과 대화만족도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대화만족도와 성적, 경제수준 사이의 상관 정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해당 변인들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적과 대화만족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7> 자녀의 성적과 대화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성적	.162	.077	.147	2.098*

*p<.05

회귀분석 결과 본인의 성적($t=2.098$, $p<.05$)이 자신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을 살펴보면, 표준화계수 β 가 정(+)의 부호를 갖는데, 성적이 높을수록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147$). 성적이 높은 자녀들의 대화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장기 자녀와 부모 간에 성적 등 학업이 상호 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2.2. 경제 수준과 대화만족도

자녀 스스로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과 대화만족도 사이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 수준과 대화만족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8> 가정의 경제수준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경제 수준	.270	.083	.225	3.252**

**p<.01

그 결과 가정의 경제 수준($t=3.252$, $p<.01$)이 자신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을 살펴보면, 표준화계수 β 가 정(+)의 부호를 갖는데,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225$).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부모가 대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2.3. 대화 매체

대화 매체와 대화만족도는 먼저 부모님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대화하는지와 어떤 매체를 통해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 쉬운지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3.1. 주된 대화 수단과 대화만족도

먼저 일상적으로 자녀와 부모님과 대화하는 매체와 대화만족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4-29>와 같이 나타났다.

<표 4-29> 자녀와 부모의 대화 수단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말로	167	3.49	.987	3.754*
전화로	15	3.00	.926	
문자·카톡·이메일로	18	2.94	1.056	

*p<.05

분석 결과, 생활환경이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면대화(M=3.49)방법의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카톡, 이메일(M=2.94)은 조사한 방법 중에서 가장 낮은 대화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754, p<.05). 따라서 자녀와 부모는 가능하면 대면대화를 하는 것이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3.2. 속마음을 털어놓기와 대화만족도

부모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기에 편안한 방법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요인 사이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0>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0> 자녀가 편안한 대화 방법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말로	137	3.52	1.001	3.009*
전화로	10	3.40	.843	
문자·카톡·이메일로	36	3.11	.820	
쪽지·편지로	10	3.50	1.080	
다른 사람을 통해	7	2.43	1.39	

*p<.05

분석 결과는 대면대화(M=3.52)로 하는 것이 가장 높지만, 쪽지나 편지(M=3.50), 전화(M=3.40)로 대화하는 것도 대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M=2.43)의 경우가 가장 낮고, 문자, 카톡, 이메일(M=3.11)도 상대적으로 다른 대화 방법과 비교해 대화만족도가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009, p<.05).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 자녀가 대면대화나 쪽지, 편지 등을 통해 부모와 대화하는 경우 대화만족도가 높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부모-자녀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4. 대화 주제와 대화만족도

자녀와 부모가 나누는 대화 주제와 대화만족도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화 주제와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31>과 같다.

<표 4-31> 자녀와 부모의 대화 주제와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장래희망	15	2.93	.884	2.592**
성적	30	2.90	1.094	
(이성) 친구	10	3.30	.949	
학교생활	94	3.57	.945	
뉴스와 사건	29	3.41	.825	
하루 일과/여러 가지	17	3.65	1.169	
집안일/가족일	2	3.50	.707	
놀이	1	5.00		
관심사항	1	5.00		
책내용/숙제관련	1	2.00		

**p<.01

응답 가운데 표본수가 작은 놀이나 관심사항 등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보면, 대화 주제로 하루 일과 또는 여러 가지 일(M=3.65), 학교생활(M=3.57), 집안일이나 가족일(M=3.5)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M=2.90), 장래희망(M=2.93) 등 자녀들이 부담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우 대화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2.592, p<.01). 따라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 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또한, 처음부터 성적이나 장래희망, 이성 친구들 같은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해당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평소의 대화습관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5. 대화 불만족 요인과 대화만족도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요인에 따른 대화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2>와 같이 나타났다.

<표 4-32> 자녀가 대화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대화 시간	31	4.13	.763	5.034***
대화 내용	38	3.05	.928	
짜증 섞인 말투	43	3.30	1.059	
화를 내는 태도	44	3.41	.996	
무시하는 태도	33	3.12	.740	
기대하는 태도	1	3.00		
이해 못하는 말투	1	4.00		
말이 안 통하는 느낌	1	1.00		
말할 때 끼어드는 것	1	3.00		
대화하고 싶지 않다. 시간낭비다.	1	2.00		
없음	6	4.67	.516	

***p<.001

분석 결과, 대화 내용(M=3.05)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가 대화만족도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시하는 태도(M=3.12), 짜증 섞인 말투(M=3.30), 화를 내는 태도(M=3.41) 보다는 대화만족도를 더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화 시간(M=4.13)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 많은 대화를 원하는 것이므로 대화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5.034, p<.001). 따라서 자녀를 무시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도 삼가야 하지만, 자녀와 어떤 내용을 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본질적임을 알 수 있다.

2.6. 신체 접촉과 대화만족도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불편한 정도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변인에 대한 자녀의 대화만족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3>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3>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불편한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불편한 정도	-.483	.057	-.518	-8.514***

***p<.001

분석 결과,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불편한 정도는 자녀의 대화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8.514, p<.001$). 표준화계수($\beta=-.518$)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 이는 자녀들이 부모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불편할수록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며, 그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족 대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 대화 예절과 대화만족도

대화 예절과 관련해서는 정중어법을 사용하는 것과 비평이나 지적, 인사하기, 존댓말하기,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기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평이나 지적, 인사,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으로 나타나고, 정중어법이나 존댓말하기 등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2.7.1. 비평이나 지적

비평이나 지적에 관해서도 자녀가 부모님께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정도와 부모님이 나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자녀의 대화만족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34> 자녀와 부모의 비평이나 지적하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부모님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정도	-.334	.069	-.329	-4.806***
	나를 위한 비평이나 지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	.045	.066	.046	.673

*** $p<.001$

분석 결과, 자녀가 부모님에게 비평이나 지적($t=-4.806, p<.001$)을 하는 것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나를 위한 비평이나 지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beta=-.329$ 로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할수록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님이 하는 비평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는 $\beta=.046$ 로 정(+)의 방향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t값이 .673으로 통계적

으로 대화만족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대화만족도를 낮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태도와 대화는 전반적으로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비평이나 지적보다는 긍정적인 대화가 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7.2. 인사하기와 대화만족도

가족끼리 인사하는 정도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끼리 인사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35> 가족끼리 인사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가족끼리 인사하는 정도	.363	.067	.361	5.442***

***p<.001

분석 결과,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는 정도($t=5.442$, $p<.001$)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beta=.361$ 로 정(+)의 방향을 가지며, 상관계수도 높은 것으로 미루어 가족끼리 인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대화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끼리 인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아도 대화만족도가 높은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인사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3. 부모님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대화만족도

부모님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는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는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와 대화만족도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F=4.657$, $p<.01$), 그 결과는 <표 4-36>과 같다.

<표 4-36> 부모님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와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습관이다	11	2.82	.982	4.657**
친하기 때문이다	17	3.94	.827	

무시하기 때문이다	8	2.50	.756
재미 때문이다	5	3.40	.548
화가 나서이다	19	3.26	.991

**p<.01

분석 결과, 부모님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친하거나(M=3.97) 친근감, 재미(M=3.40)를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시하거나(M=2.5), 습관적(M=2.82)인 이유로 자녀들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대화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657, p<.01). 따라서 자녀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 친하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재미를 위해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는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되지만, 무시하는 태도나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화만족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므로,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8. 대화 내용

대화 내용으로는 칭찬과 감사, 비교하는 말, 자기 공을 드러내는 말, 유머 사용과 의견 수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8.1. 칭찬이나 감사와 대화만족도

칭찬과 감사의 말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7>과 같이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t=2.126, p<.05)와 부모님이 나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t=5.214, p<.001)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자녀와 부모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부모님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	.157	.074	.153	2.126*
	부모님이 나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	.352	.068	.376	5.214***

***p<.001, *p<.05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모두 정(+)의 방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녀가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beta=.153$)보다는 부모님이 나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beta=.376$)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하는 칭찬이나 감사의 말보다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대화에서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자주하는 것은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고, 특히 부모로부터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듣는 자녀일수록 대화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8.2. 비교하는 말과 대화만족도

비교하는 말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8>과 같이 자녀가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하는 정도($t=-5.438, p<.001$)는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자녀와 부모의 비교하는 말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부모님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정도	-.113	.064	-.120	-1.763
	부모님이 나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정도	-.304	.056	-.372	-5.438***

*** $p<.001$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하는 정도는 부(-)의 방향을 갖는데, 이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할수록 자녀의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와 대화에서 부모는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2.8.3. 유머 사용과 대화만족도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9>와 같이 내가 부모님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t=1.984, p<.05$)와 부모님이 나에게 유머를 사용하시는 정도($t=2.757, p<.01$) 모두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자녀와 부모의 유머 사용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부모님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	.186	.094	.178	1.984*
	부모님이 나에게 유머를 사용하시는 정도	.247	.090	.247	2.757**

**p<.01, *p<.05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모두 정(+)의 방향을 갖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beta = .178$)보다는 부모님이 나에게 유머를 사용하시는 것($\beta = .247$)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 부모 모두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부모님이 유머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4. 의견 수용과 대화만족도

서로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 ($t = 2.369, p < .05$)와 부모님이 나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 ($t = 4.966, p < .001$) 모두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자녀와 부모의 의견 수렴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191	.081	.174	2.369*
	부모님이 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389	.078	.365	4.966***

***p<.001, *p<.05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모두 정(+)의 방향을 갖는데, 내가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beta = .174$)보다 부모님이 나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beta = .365$)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 부모 모두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가 대화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가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녀의 의견을 좀 더 수렴

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8.5. 거짓말과 대화만족도

거짓말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 스스로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거짓말의 정도($t=-3.245, p<.01$)는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자녀와 부모의 거짓말을 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는 정도	-.129	.075	-.125	-1.722
	부모님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정도	-.218	.067	-.235	-3.245**

** $p<.01$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beta=-.235$), 이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록 자녀의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녀가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대화의 격률 가운데 질의 격률을 지켜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9. 갈등 처리

갈등 처리와 관련해서는 갈등 회피와 쌓인 감정 드러내기, 가족회의의 필요성, 싸움으로 끝나는 대화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9.1. 갈등 회피와 대화만족도

갈등 회피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2>와 같이 자녀가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정도($t=-2.643, p<.01$)와 부모님이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는 정도($t=-2.643, p<.05$)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정도	-.182	.069	-.190	-2.643**
	부모님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는 정도	-.168	.071	-.170	-2.370*

**p<.01, *p<.05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모두 부(-)의 방향을 갖는데, 자녀가 부모와 대화에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는 정도가 높을수록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부모님이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피하는 정도($\beta = -.170$)보다는 자녀가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는 정도($\beta = -.190$)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 자녀가 회피하는 것을 자녀가 순종하거나 수긍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모님도 갈등이나 충돌을 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녀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거나, 회피하도록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

2.9.2. 쌓인 감정 표출하기와 대화만족도

화가 나면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3>과 같이 부모님에게 자녀가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t = -2.307, p < .05$)와 부모님이 자녀에게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t = -4.187, p < .001$)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자녀와 부모의 쌓인 감정 표출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부모님에게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를 하는 정도	-.154	.067	-.170	-2.307*
	부모님이 과거 잘못까지 이야기를 하는 정도	-.271	.065	-.308	-4.187***

***p<.001, *p<.05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모두 부(-)의 방향을 갖는데, 자녀와 부모가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부모님에게 자녀가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beta = -.170$)보다는 부모님이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beta = -.308$)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자녀 스스로도 화가 났을 때 지난 이야기까지 들추는 것은 대화만족도를 낮추는 일이고, 부모님도 자녀가 과거 잘못된 것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는 항상 현재에 초점을 가지고, 자녀가 과거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도 과거가 아닌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권면하고, 부모 스스로도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9.3. 가족회의의 필요성과 대화만족도

자녀가 인식하는 가족회의가 필요한 정도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4>와 같이 자녀가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t = -2.585, p < .05$)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우리 가족에게 가족회의가 필요한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우리 가족에게 가족회의가 필요한 정도	-.166	.064	-.181	-2.585*

* $p < .05$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 이는 자녀가 우리 가족에게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들이 가족 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가족 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이 회의라는 공식적 절차를 사용할 만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가족 대화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9.4. 싸움으로 끝나는 대화와 대화만족도

싸움으로 끝나는 대화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5>와 같이 자녀의 대화만족도는 부모와 대화가 항상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t = -7.787,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대화가 항상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	-.433	.056	-.484	-7.787***

***p<.001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 이는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고 응답한 경우일수록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β 값이 -.484로 매우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는 것 자체가 자녀의 대화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님은 자녀와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를 잘 조절해서 자녀가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0. 듣기

듣기에 관해서는 끝까지 듣기, 반응보이며 듣기,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10.1. 끝까지 듣기와 대화만족도

귀 기울여 끝까지 듣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6>과 같이,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정도($t=2.588$, $p<.05$)와 부모님이 나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정도($t=4.157$, $p<.001$)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끝까지 듣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는 정도	.194	.075	.181	2.588*
	부모님이 나의 말을 경청하는 정도	.304	.073	.291	4.157***

***p<.001, *p<.05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모두 정(+)의 방향을 갖는데, 자녀와 부모가 서로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할수록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는 것($\beta=.181$)보다는 부모님이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것($\beta=.291$)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 모두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경청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부모님이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0.2. 반응보이며 듣기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듣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7>과 같이 내가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면서 듣는 정도($t=2.689, p<.01$)와 부모님이 자녀의 말을 이해하면서 듣는 정도($t=3.663, p<.001$)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자녀와 부모의 반응 보이며 듣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	.233	.087	.199	2.689**
	부모님이 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	.295	.081	.271	3.663***

*** $p<.001$, ** $p<.01$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모두 정(+)의 방향을 갖는데, 자녀와 부모 모두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면서 듣는 것($\beta=.199$)보다는 부모님이 자녀의 말을 이해하면서 듣는 것($\beta=.271$)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하면서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주는 것이 자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10.3. 듣고 싶은 말과 대화만족도

자녀가 부모와 대화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48>과 같다.

<표 4-48> 자녀가 듣고 싶은 말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외모에 대한 칭찬	3	3.00	.000	2.599*
성적에 대한 칭찬	20	3.35	.933	
노력에 대한 칭찬	104	3.42	.992	
성격에 대한 칭찬	11	3.55	.934	
행동에 대한 칭찬	53	3.58	.949	
칭찬, 고마움 표현	1	1.00		
용돈준다는 말	1	2.00		
사랑한다는 말	1	3.00		
없음	6	2.17	1.169	

*p<.05

분석 결과, 행동에 대한 칭찬(M=3.58)이나 성격에 대한 칭찬(M=3.55)을 듣고 싶어 하는 경우 대화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외모(M=3.00)나 성적(M=3.35), 노력(M=3.42)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는 경우의 대화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M=2.17)은 부모자녀 사이의 대화에서 기대치도 없고, 만족도도 낮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009, p<.05).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의 성격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칭찬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 부부의 대화

3.1. 대화 시간

3.1.1. 하루 평균 대화 시간

대화 시간에 따른 부부 간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부부 사이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부부 간의 대화는 얼마동안 시간을 들여 이야기하는가보다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이상적인 대화 시간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의 이상적 대화 시간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49>와 같다.

<표 4-49> 부부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5분 미만	6	1.67	.816	11.423***
10분 정도	30	2.43	.858	
30분 정도	80	2.96	.961	
1시간 정도	99	3.15	1.004	
1시간 이상	85	3.59	1.147	

***p<.001

분석 결과, 이상적 대화 시간은 대화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상적 대화 시간이 길수록 대화만족도[5분 미만(M=1.67)~1시간 이상(M=3.59)]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11.423, p<.001). 부부가 이상적 대화 시간을 길게 생각할수록 부부의 대화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현재 대화 시간과 비교하면, 부부 간의 현재 대화 시간은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부 간의 대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대화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화 시간이 이상적인 대화 시간과 유사해질 수 있도록 1시간 이상 정도 대화를 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3.1.3. 대화 시간과 연령

대화 시간과 연령대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에 따른 대화 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33.104$, p<.01). 그 결과는 <표 4-50>과 같다.

<표 4-50> 부부의 대화 시간과 연령대 간의 교차분석 결과

대화 시간	연령대					합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분 미만	0	2	0	4	6	12
10분 정도	1	5	17	12	21	56
30분 정도	3	27	27	16	30	103
1시간 정도	5	18	9	4	17	53
1시간 이상	5	26	13	6	26	76
합계	14	78	66	42	100	300

chi square=33.104, df=16, p<.01

대화 시간의 경우, 20~29세 집단에서는 1시간 정도와 1시간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39세 집단에서는 20세~29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10분 정도 미만이 좀 더 많았으며, 40~49세 집단에서는 30분 이하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9세 집단은 그 이전 집단과 비교해 1시간 대 이상 대화 시간이 감소했다. 60세 이상 집단에서는 50~59세 집단보다 1시간 대 이상 대화 시간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는 1시간 대의 대화 시간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59세까지는 감소했다가 다시 60세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연령대에서는 대화 시간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다. 따라서 40~59세 사이의 부부인 경우 줄어든 대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1.4. 이상적인 대화 시간과 연령

이상적 대화 시간과 연령대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31.780, p<.05$). 결과는 다음의 <표 4-51>과 같다.

<표 4-51> 부부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과 연령대 간의 교차분석 결과

이상적인 대화 시간	연령대					합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분 미만	0	1	0	2	3	6
10분 정도	2	2	5	4	17	30
30분 정도	1	17	21	18	23	80
1시간 정도	4	34	25	9	27	99
1시간 이상	7	24	15	9	30	85
합계	14	78	66	42	100	300

chi square=31.780, df=16, p<.05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 대화 시간의 경우, 연령대가 39세 이하 집단에서는 1시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40~59세는 30분에서 1시간을 이상적 대화 시간으로 선택했으며, 60세 이상은 다시 1시간 이상을 이상적 대화 시간으로 선택했다. 전체적으로 실제 대화 시간보다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화 시간이 더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부 간의 대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1.5. 대화 시간과 혼인기간

대화 시간과 혼인 기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혼인 기간에 따른 대화 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35.383, p<.05$). 그 결과는 <표 4-52>와 같다.

<표 4-52> 부부의 대화 시간과 혼인 기간 간의 교차분석 결과

대화 시간	혼인 기간						합계
	3년 이내	3~5년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5분 미만	0	2	0	1	3	6	12
10분 정도	2	5	2	16	13	18	56
30분 정도	11	23	2	19	21	27	103
1시간 정도	13	10	2	6	8	14	53
1시간 이상	19	15	1	8	9	24	76
합계	45	55	7	50	54	89	300

chi square=35.383, df=20, p<.05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의 집단에서는 1시간 정도와 30분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기간 5년~30년은 30분 이하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기간 30년 이상은 다시 1시간 이상 대화 시간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 시간과 연령대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즉, 부부 간에 혼인 기간이 짧거나 긴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기간이 5~30년인 부부의 대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따라서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30년인 부부의 경우 대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3.1.6. 대화 시간과 부부 유형

부부 유형을 신혼과 중년, 노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부 유형에 따른 대화 시간의 차이를 <표 4-53>과 같이 분석한 결과, 그 차이($\chi^2=24.723$,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4-53> 부부의 대화 시간과 부부 유형 간의 교차분석 결과

대화 시간	부부 유형			합계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5분 미만	2	4	6	12
10분 정도	7	28	21	56
30분 정도	34	39	30	103
1시간 정도	23	13	17	53
1시간 이상	34	15	26	76
합계	100	100	100	300

chi square=24.723, df=8, p<.01

부부 유형에 따른 대화만족도는 부부의 연령대와 혼인 기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신혼과 노년 부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시간 이상의 대화 시간이 많았으나 중년부부는 30분 이하의 대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부부의 경우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시로 짧은 대화라도 자주 나누어 전체적인 대화 시간을 길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1.7. 대화 시간과 자녀 수

대화 시간과 자녀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수에 따른 대화 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34.935, p<.05$). 그 결과는 <표 4-54>과 같다.

<표 4-54> 부부의 대화 시간과 자녀수 간의 교차분석 결과

대화 시간	자녀수					합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5분 미만	0	2	8	2	0	12
10분 정도	0	17	34	5	0	56
30분 정도	7	28	55	9	4	103
1시간 정도	10	18	20	4	1	53
1시간 이상	19	20	29	7	1	76
합계	36	85	146	27	6	300

chi square=34.935, df=16, p<.01

대화 시간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대화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자녀가 생기게 되면 자녀수와 상관없이 대부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평균적인 현상이다. 다만 자녀수가 4명 이상이 되면 부부 사이의 대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화 시간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1.8. 대화 시간과 소득 유형

대화 시간과 소득원 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원 유형에 따른 대화 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19.407, p<.01$). 그 결과는 <표 4-55>와 같다.

<표 4-55> 부부의 대화 시간과 소득원 유형 간의 교차분석 결과

대화 시간	소득원 유형			합계
	외벌이	맞벌이	정년/은퇴	
5분 미만	6	6	0	12
10분 정도	35	21	0	56
30분 정도	53	50	0	103
1시간 정도	17	35	1	53

1시간 이상	32	40	4	76
합계	143	152	5	300

chi square=19.407, df=8, p<.01

부부의 대화 시간은 맞벌이보다 외벌이일 경우에 전반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는 1시간 정도 이상의 대화 시간에서 외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외벌이인 경우 대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1.9. 대화 시간과 직업 유형

대화 시간과 직업 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 유형에 따른 대화 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76.087$, $p<.01$). 그 결과는 <표 4-56>과 같다.

<표 4-56> 부부의 대화 시간과 직업 유형 간의 교차분석 결과

대화 시간	직업 유형												합계
	회사원	교육자	공무원	전문직	가정주부	자영업	생산직	정년은퇴	학생	무직	기타	서비스직	
5분 미만	5	0	0	1	2	1	0	0	0	2	1	0	12
10분 정도	24	3	0	4	12	11	0	1	0	0	1	0	56
30분 정도	45	5	1	12	21	13	3	1	0	0	0	2	103
1시간 정도	20	0	2	5	4	13	3	1	1	1	1	2	53
1시간 이상	33	2	3	8	11	8	3	5	0	0	3	0	76
합계	127	10	6	30	50	46	9	8	1	3	6	4	300

chi square=76.087. df=44, p<.01

상대적으로 회사원, 교육자, 전문직, 주부의 경우에는 30분 이하의 대화 시간이 많았으며, 공무원, 자영업, 생산직 등은 30분 이상의 대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10. 대화 시간 부족 이유와 대화만족도

부부 간의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와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F=11.232$, $p<.001$), 그 결과는 <표 4-57>과 같다.

<표 4-57> 부부의 대화 시간 부족 이유와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내 성격	64	3.08	.987	11.232***

배우자의 성격	53	2.40	.987
배우자와의 갈등	25	2.28	1.021
직장업무	142	3.49	.951
가사일	1	3.00	
스마트폰/TV	2	3.50	.707
개인적인 일/바빠서	5	2.80	.837
피곤해서	1	5.00	
없음(대화함)	7	4.57	.535

***p<.001

분석 결과, 대화 부족의 이유로 배우자와의 갈등(M=2.28), 배우자의 성격(M=2.40)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대화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화 시간 부족의 이유가 내 성격(M=3.08)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대화만족도는 높았다. 이에 비해 직장이나 가사 일 등 부부의 일과 연관된 이유들은 상대적으로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의 성격이나 일 때문에 대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배우자의 성격이나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된다.

3.2. 대화 환경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와 환경 요소, 즉 성별이나 학력, 가구소득, 혼인기간, 부부 유형 등과 같은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3.2.1. 성별과 대화만족도

부부의 성별에 따른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과 대화만족도 간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성별은 대화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188, p<.05). 그 결과는 <표 4-58>과 같다.

<표 4-58> 부부의 성별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남성	161	3.24	1.100	4.188*
여성	139	2.99	1.063	

*p<.05

부부 간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는 남편(M=3.24)이 아내(M=2.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내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2.2. 학력과 대화만족도

부부의 학력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력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2.744, p<.05), 그 결과는 <표 4-59>와 같다.

<표 4-59> 부부의 학력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고졸 이하	71	2.93	1.113	2.744*
대학(전문대) 재학	7	2.43	1.134	
대학(전문대) 졸업	190	3.17	1.090	
대학원 이상	32	3.44	.914	

*p<.05

분석 결과, 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M=3.44)]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졸 이하는 대학(전문대) 재학보다 대화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거나 낮은 경우 오히려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이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2.3. 월 평균 가구소득과 대화만족도

가구의 월 평균소득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월 평균 가구소득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882, p<.05). 그 결과는 <표 4-60>과 같다.

<표 4-60> 부부의 월 평균 가구소득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200만원 미만	22	2.68	1.041	3.882*
200~400만원 미만	94	2.93	1.138	
400~600만원 미만	115	3.22	1.024	
600만원 이상	69	3.38	1.072	

*p<.05

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200만 원 미만 M=2.68 ~ 600만 원 이상 M=3.38) 부부의 대화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여유 있게 부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3.2.4. 연령과 대화만족도

연령이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과 부부의 대화만족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61>과 같다.

<표 4-61> 부부의 나이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나이	-.014	.005	-.170	-2.985**

**p<.01

분석 결과, 나이(t=-2.985, p<.01)는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부부의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비교적 낮은 상관계수(β =-.170)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2.5. 부부 유형과 대화만족도

부부 유형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 유형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5.045, p<.01), 결과는 <표 4-62>와 같다.

<표 4-62> 부부 유형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신혼부부	100	3.39	1.043	5.045**
중년부부	100	3.06	1.003	
노년부부	100	2.92	1.169	

**p<.01

분석 결과, 신혼부부(M=3.39)의 대화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년(M=3.06)과 노년부부(M=2.92)로 변화함에 따라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는 낮아졌다. 부부 유형의 변화에 따라 대화만족

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화제를 찾거나 대화 시간을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2.6. 혼인기간과 대화만족도

부부의 혼인기간에 따른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의 혼인기간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3.062$, $p<.05$), 그 결과는 <표 4-63>과 같다.

<표 4-63> 혼인 기간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3년 이내	45	3.64	.957	3.062*
3~5년	55	3.18	1.073	
5~10년	7	2.86	.900	
10~20년	50	3.14	.948	
20~30년	54	2.96	1.045	
30년 이상	89	2.93	1.204	

* $p<.05$

분석 결과, 혼인 기간 3년 이내($M=3.64$)의 대화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5년~10년($M=2.8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20년은 다시 대화만족도가 높아졌다가 그 이상의 혼인 기간에서는 다시 대화만족도가 낮아졌다. 3년 이내의 신혼기간에는 대화의 만족도가 높지만 이후 혼인기간이 지속되며 갈등의 요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5~10년에는 대화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갈등 해소를 위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긍정적인 대화 방법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에는 그동안의 혼인기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부담감과 경제활동의 저하 등이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잘 활용하여 부부 사이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2.7. 자녀수와 대화만족도

자녀수와 부부의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수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4.671$, $p<.01$), 결과는 <표 4-64>와 같다.

<표 4-64> 자녀수와 부부의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0명	36	3.81	1.064	4.671**
1명	85	3.09	.983	
2명	146	3.02	1.060	
3명	27	3.00	1.301	
4명 이상	6	2.50	1.049	

**p<.01

분석 결과, 자녀가 없을 때(M=3.81) 가장 대화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부의 대화만족도는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에 따른 대화 시간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심의 분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부부 간에 대화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끼리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3. 대화 매체

대화 매체와 대화만족도는 먼저 부부 간에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대화하는지와 어떤 매체를 통해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편한지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3.1. 주된 대화 수단과 대화만족도

부부의 주된 대화 수단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화 방법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65>와 같다.

<표 4-65> 부부의 주된 대화 수단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대면대화로	219	3.18	1.046	3.354*
전화로	33	2.94	1.273	
문자·카톡·이메일로	45	3.11	1.049	
쪽지·편지로	1	1.00		
다른 사람을 통해	2	1.00	.000	

*p<.05

분석 결과, 생활환경이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면대화(M=3.18) 방법이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음성언어인 전화(M=2.94)

보다도 문자, 카톡, 이메일로(M=3.11)등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받을 수 있는 문자언어를 활용할 때 대화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응답받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쪽지나 편지,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은 만족도가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354 p<.05). 따라서 부부 사이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면대화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통신 매체를 활용할 대에도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3.2. 속마음 털어놓기와 대화만족도

부부가 속마음을 털어놓기 편한 대화 수단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속마음을 털어 놓기 편한 대화 방법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66>과 같다.

<표 4-66> 속마음 털어놓기 편한 대화 수단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대면대화로	189	3.30	1.091	5.299***
전화로	20	2.70	.979	
문자·카톡·이메일로	81	2.89	.987	
쪽지·편지로	3	3.67	1.155	
다른 사람을 통해	7	2.00	1.155	

***p<.001

분석 결과, 속마음을 털어놓는 데에는 쪽지, 편지(M=3.67)를 가장 편한 대화 방법으로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대면대화(M=3.30), 문자, 카톡, 이메일(M=2.89), 전화(M=2.70), 다른 사람을 통해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M=2.00)을 통하는 방법은 가장 편하지 않은 대화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5.299 p<.001). 주된 대화 매체와는 달리 속마음을 털어 놓을 때에는 쪽지나 편지와 같이 직접 손글씨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 간의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대화 장면과 대화만족도

부부가 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화 장면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67>과 같다.

<표 4-67> 부부의 대화 장면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밥을 먹으면서	102	2.88	1.056	3.845**
TV를 보면서	59	2.92	1.022	
잠들기 전에	39	3.31	1.030	
휴일에	8	2.88	1.727	
수시로	89	3.47	1.012	
운행 중에	1	5.00		
산책/운동	1	4.00		
없음(대화안함)	1	1.00		

**p<.01

분석 결과, 부부가 평소에 수시로(M=3.47) 대화를 나누거나 잠들기 전(M=3.31)에 하는 대화가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이나 산책 등의 상황에서도 대화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나 휴일(M=2.88)이나 밥을 먹으면서(M=2.88), TV를 보면서(M=2.92) 대화하는 것은 대화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845 p<.01). 따라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 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대화할 일이 있을 때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밥상머리 교육’과 같이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밥을 먹으며 대화하기를 강조하지만, 부부 간의 대화에서는 오히려 대화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대화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5. 대화 불만족 요인과 대화만족도

부부가 대화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화 불만족 요인에 따른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표 4-68>과 같다.

<표 4-68> 부부의 대화 불만족 요인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대화 시간	38	3.66	.781	6.506***
대화 내용	70	2.80	.878	
짜증 섞인 말투	104	3.00	1.079	
화를 내는 태도	40	3.30	1.244	
무시하는 태도	36	2.94	1.194	
대화 스타일	1	3.00		
없음	11	4.45	.820	

***p<.001

분석 결과, 대화 내용(M=2.80)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가 대화만족도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시하는 태도(M=2.94), 짜증 섞인 말투(M=3.00), 대화 스타일(M=3.00)보다도 대화만족도를 더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화 시간(M=3.66)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화를 내는 태도(M=3.30)는 전체적인 대화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6.506 p<.001). 따라서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짜증을 내는 대화 스타일도 주의해야 할 요소이지만 배우자와 어떤 내용을 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본질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6. 신체 접촉과 대화만족도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정도가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변인에 대한 대화만족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69>와 같다.

<표 4-69> 신체 접촉과 부부의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정도	.492	.062	.416	7.895***

***p<.001

분석 결과,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t=7.895, p<.001)은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계수 β를 살펴보면 정(+)의 방향을 갖는데, 이는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대화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대화 예절과 대화만족도

대화 예절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주도권 갖기, 정중어법 사용, 비평이나 지적, 인사하기, 호칭, 존댓말 사용,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정중어법이나 존댓말하기 등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3.7.1. 대화의 주도권

대화의 주도권과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변인에 대한 대화

만족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70>과 같다.

<표 4-70> 대화의 주도권과 부부의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도	.147	.065	.131	2.274*

*p<.05

분석 결과, 부부 대화에서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t=2.274, p<.05)이 부부의 대화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계수 β를 살펴보면 정(+)의 방향을 갖는데, 이는 부부 대화에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자신의 대화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대화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 일방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슷하게 화자가 되는 기회를 나누어 갖는 것이 대화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7.2. 비평이나 지적

비평이나 지적에 관해서도 배우자를 위해 지적을 하는 정도와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부부의 대화만족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71>과 같다.

<표 4-71> 부부 간의 비평이나 지적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비평이나 지적의 정도	-.356	.070	-.309	-5.059***
	배우자가 자신을 위한 비평이나 지적이라고 받아들이는지의 정도	.077	.069	.069	1.120

***p<.001

분석 결과, 배우자가 자신을 위한 비평이나 지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는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비평이나 지적의 정도(t=-5.059, p<.0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표준화계수 β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비평이나 지적의 정도가 부부의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비평이나 지적보다는 긍정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7.3. 인사하기

부부 사이에 인사하는 정도가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로 인사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72>와 같다.

<표 4-72> 부부 간의 인사하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	.185	.076	.176	2.426*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	.336	.078	.314	4.314***

***p<.001, *p<.05

분석 결과, 자신이 배우자에게 인사하는 정도($t=2.426$, $p<.05$)와 배우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t=4.314$, $p<.001$)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모두 정(+)의 방향을 갖는데, 부부가 서로에게 인사를 할수록 대화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176$)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314$)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서로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4. 호칭

1) 호칭과 대화만족도

부부 사이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73>과 같이 상대방이 부르는 호칭이 마음에 드는 정도($t=4.332$, $p<.001$)와 내가 부르는 호칭을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하는 정도($t=3.612$, $p<.001$)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4-73> 부부 간의 호칭이 마음에 드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나를 부르는 말이 마음에 드는 정도	.330	.076	.304	4.332***
	내가 부르는 말을 마음에 들어 하는 정도	.290	.080	.254	3.612***

***p<.001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모두 정(+)의 방향을 갖는데, 부부가 서로 간에 불러주는 호칭이 마음에 들수록 부부의 대화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상대방이 내가 부르는 말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beta=.254$)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부르는 말이 마음에 드는 것($\beta=.304$)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배우자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호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부부 사이의 대화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배우자가 나를 부르는 호칭과 대화만족도

배우자가 나를 부르는 호칭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74>와 같다.

<표 4-74> 배우자가 나를 부르는 호칭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여보	94	3.18	1.026	2.524**
당신	11	2.73	.905	
자기	72	3.53	.934	
이름	19	3.05	1.079	
야/너/어이/이봐	12	2.42	.996	
친구	1	4.00		
애칭/별명	13	3.00	1.354	
저기요	1	2.00		
오빠	16	3.56	.964	
남편	4	3.50	1.000	
(자녀이름)아빠	27	2.74	1.318	
영감	2	3.50	.707	
(자녀이름)엄마	19	2.37	1.065	
마누라	3	3.00	1.000	
와이프	1	4.00		
부인	1	3.00		
이쁜이	1	1.00		
호칭없음	3	2.67	.577	

**p<.01

부부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 중에서 자기(M=3.53), 여보(M=3.18)라고 부를 때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오빠(M=3.56), 남편(M=3.50), 영감(M=3.50)으로 부르는 경우에 대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야/너/어이/이봐(M=2.42), 호칭이 없거나(M=2.67), 당신(M=2.73), 자녀 이름(아빠/엄마) 등으로 부를 때는 상대적으로 대화만족도가 낮았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2.524 p<.01).

3) 나를 부르는 호칭의 만족도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2.524 p<.01), 결과는 <표 4-75>와 같다.

<표 4-75> 나를 부르는 호칭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여보	94	3.89	.873	4.740***
당신	11	3.36	.924	
자기	72	3.97	.855	
이름	19	3.37	1.065	
야/너/어이/이봐	12	2.08	1.084	
친구	1	4.00		
애칭/별명	13	3.92	1.115	
저기요	1	3.00		
오빠	16	4.19	.834	
남편	4	3.75	.957	
(자녀 이름) 아빠	27	3.44	.847	
영감	2	3.00	1.414	
(자녀 이름) 엄마	19	3.00	.943	
마누라	3	3.33	1.155	
와이프	1	4.00		
부인	1	4.00		
이뿐이	1	3.00		
호칭 없음	3	2.33	1.155	

***p<.001

분석 결과, 상대방이 자신을 자기(M=3.97), 여보(M=3.89)일 때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경우, 오빠(M=4.19), 남편(M=3.75), 영감(M=3.00)으로 부르는 경우에 대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이름) 아빠(M=3.44), (자녀 이름) 엄마(M=3.00)도 비교적 높은 대화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야/너/어이/이봐(M=2.08)처럼 함부로 부르거나 호칭이 없거나

(M=2.33), 당신(M=2.73) 등으로 부를 때는 대화만족도가 낮았다. 배우자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 가 하는 것이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이다. 이것은 호칭이 단순히 부르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호칭을 통해 부부 사이의 유대관계를 확인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5. 욕설이나 비속어

부부 사이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내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와 배우자가 나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의 대화만족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76>과 같다.

<표 4-76> 부부 간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	-.058	.104	-.051	-.561
	나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	-.211	.101	-.190	-2.093*

***p<.05

분석 결과, 부부 대화에서 내가 욕설을 사용하는 정도는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t=-2.093, p<.05)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계수 β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할수록 부부의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3.8. 대화 내용과 대화만족도

대화 내용으로는 칭찬과 감사, 비교하는 말, 자기 공을 드러내는 말, 유머 사용과 의견 수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8.1. 칭찬과 감사

칭찬과 감사의 말이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정도(t=4.571, p<.001)와 배우자가 응답자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정도($t=4.078, p<.001$)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는 <표 4-77>과 같다.

<표 4-77> 부부 간의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남편 또는 아내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	.341	.075	.292	4.571***
	남편 또는 아내가 나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정도	.297	.073	.260	4.078***

*** $p<.001$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모두 정(+)의 방향을 갖는데, 부부가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할수록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beta=.260$)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beta=.292$)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요소가 되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특히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할 때 자신의 대화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3.8.2. 비교하는 말

비교하는 말이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78>과 같다.

<표 4-78> 부부 간의 비교하는 말을 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남편 또는 아내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정도	-.127	.075	-.112	-1.689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정도	-.283	.067	-.278	-4.198***

*** $p<.001$

분석 결과,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정도($t=-4.198, p<.001$)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 부부 대화에서 상대방이 나를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할수록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

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할 때 나타나는 말하기 방법이다. 따라서 부부 대화에서는 배우자를 평가하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8.3. 자신의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이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화만족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가 상대방이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을 드러내는 말에 짜증이 나는 정도($t=-7.816, p<.001$)는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는 <표 4-79>와 같다.

<표 4-79> 배우자에게 자신의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남편 또는 아내가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할 때 짜증이 나는 정도	-.420	.054	-.412	-7.816***

*** $p<.001$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 이는 부부 대화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은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노력이나 공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8.4. 유머 사용

유머 사용이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머 사용과 대화만족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가 상대방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t=5.677, p<.001$)는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4-80>과 같다.

<표 4-80> 부부 간의 유머 사용과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남편 또는 아내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정도	.341	.060	.312	5.677***

*** $p<.001$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정(+)의 방향을 갖는데, 이는 내가 상대방에게 유머를 많이 사용할수록 대화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머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이완시키고 분위기를 밝게 하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유머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유머를 사용하며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5. 거짓말하기

거짓말이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거짓말과 대화만족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방에게 내가 거짓말하는 정도($t=-2.388, p<.05$)와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정도($t=-3.993, p<.001$)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는 <표 4-81>과 같다.

<표 4-81> 부부 간의 거짓말하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남편 또는 아내에게 거짓말하기	-.155	.065	-.151	-2.388*
	남편 또는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하기	-.252	.063	-.253	-3.993***

*** $p<.001$, * $p<.05$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모두 부(-)의 방향을 갖는데, 부부가 대화할 때 서로 거짓말을 할수록 부부의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151$)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beta=-.253$)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화할 때에는 배우자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은 말하지 말고 대화의 격률 가운데 질의 격률을 지켜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9. 갈등 처리 방식과 대화만족도

갈등 처리와 관련해서는 갈등 회피와 쌓인 감정 드러내기, 가족회의의 필요성, 싸움으로 끝나는 대화, 합의점을 찾는 정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9.1. 가족회의 필요

부부가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에게 가족회의가 필요한 정도와 대화만족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82>와 같다.

<표 4-82> 가족회의가 필요한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우리 부부에게 가족회의가 필요한 정도	-.200	.057	-.197	-3.470**

**p<.01

분석 결과,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t=-3.470, p<.01$)은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 이는 부부가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가 가족 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가 가족회의라는 공식적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가족 대화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9.2. 싸움으로 끝내기

싸움으로 끝나는 대화가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83>과 같이 부부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t=-9.257, p<.001$)는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4-83>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	-.426	.046	-.473	-9.257***

***p<.001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부(-)의 방향을 갖는데, 이는 부부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가 클수록 대화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는 것

자체가 부부의 대화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내용이나 말하는 태도 등을 잘 조절해서 상대방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9.3. 합의점 찾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84>와 같이, 자신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t=3.248, p<.01$)와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t=4.208, p<.001$)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4-84> 부부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261	.080	.198	3.248**
	남편 또는 아내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319	.076	.256	4.208***

*** $p<.001$, ** $p<.01$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모두 정(+) β 의 방향을 갖는데, 부부가 서로 대화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수록 대화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내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198$)보다는 상대방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256$)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합의점을 마련하는 방법은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소의 방법이다. 부부 모두 자기가 생각하는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평가한 후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서로 누구의 체면도 상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먼저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 부부 사이의 대화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10. 듣기와 대화만족도

듣기에 관해서는 끝까지 듣기, 반응보이며 듣기,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10.1. 끝까지 듣기

귀 기울여 끝까지 듣는 것이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85>와 같다.

<표 4-85> 부부 간의 끝까지 듣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남편 또는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정도	.263	.071	.220	3.674***
	남편 또는 아내가 나의 말을 경청하는 정도	.360	.068	.319	5.321***

***p<.001

분석 결과, 내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정도($t=3.674$, $p<.001$)와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하는 정도($t=5.321$, $p<.001$)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모두 정(+)의 방향을 갖는데,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수록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beta=.220$)보다는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하는 것($\beta=.319$)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내가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배우자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0.2. 반응 보이며 듣기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듣는 것이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86>과 같이 내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정도($t=3.636$, $p<.001$)와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정도($t=3.969$, $p<.001$)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4-86> 부부 간의 반응 보이며 듣기와 대화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비표준화 계수		Beta	t값
		B	표준오차		
대화만족도	내가 남편 또는 아내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	.326	.090	.239	3.636***
	남편 또는 아내가 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	.318	.080	.261	3.969***

***p<.001

표준화계수 β 를 살펴보면 모두 정(+)의 방향을 갖는데, 부부가 서로 대화 시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높을수록 대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반응($\beta=.239$)보다는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는 반응($\beta=.261$)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배우자가 내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배우자와 대화하면서 배우자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주는 것이 배우자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10.3. 듣기 싫은 말과 대화만족도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과의 대화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중에 유의미한 결과는 듣기 싫은 말에서만 나타났다. 부부가 배우자에게 듣기 싫은 말과 대화만족도의 차이는 <표 4-87>과 같이 나타났다.

<표 4-87> 부부 간의 듣기 싫은 말과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	27	3.19	1.178	3.900***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	87	3.09	1.052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	81	3.44	.866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	83	2.78	1.137	
외모/성격 비난, 남과 비교, 친정 불평, 경제 및 가사능력 불평 모두	1	4.00		
자녀에 대한 불평	3	2.33	.577	
거짓말	2	1.50	.707	
지식과 학력에 대한 무시	1	1.00		
과거에 있었던 일 들추는 것	1	2.00		
술 먹자는 말	1	5.00		
없음	13	3.85	1.068	

***p<.001

분석 결과, 배우자의 거짓말(M=1.50),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M=2.78), 자녀에 대한 불평(M=2.33) 등은 대화만족도를 낮게 하는 말이었으며,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M=3.44),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M=3.19),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M=3.09) 등은 상대적으로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900 p<.001). 따라서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있더라도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배우자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 등은 체면을 손상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삼가야 할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가족화법 개선 방안

1. 부모-자녀의 대화

1.1. 자녀를 위한 지침

1.1.1. 대화만족도를 통한 지침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요인을 중심으로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 가운데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모두 32문항으로 그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p < .05$)만을 추출하여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부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부모 집단의 대화만족도 요인

전체 부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과 같이 나타난다.

<표 5-1> 부모 유형과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대화만족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가족 행복도	상호	.464**	거짓말	자녀	-.376**
2	칭찬과 감사	자녀	.393**	비교하는 말	나	-.353**
3	반응 보이며 듣기	자녀	.385**	비평이나 지적	자녀	-.345**
4	칭찬과 감사	나	.342**	비평이나 지적	나	-.317**
5	끝까지 듣기	자녀	.331**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285**
6	반응 보이며 듣기	나	.308**	갈등이나 의견 충돌	자녀	-.269**
7	인사하기	상호	.305**			
8	유머 사용	자녀	.271**			
9	의견 수용	자녀	.236**			

** $p < .01$, * $p < .05$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행위가 두 요인, 자녀의 행위가 다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위는 부모의 행위에 비해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기,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기는 상관계수는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유머 사용하기와 부모의 말을 잘 수용하기는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모 자신의 행위는 자녀의 행위에 비해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기와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기는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행위와 자녀의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가족 행복도는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대화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에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도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예절적 측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족 상호 간에 인사 예절을 지키면서 서로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자주 하고, 자녀의 말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여주며 들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듣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대화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행위가 두 요인, 자녀의 행위가 세 요인, 상호 행위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정 요소는 부모의 행위보다 자녀의 행위가 대화만족도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곤란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거짓말은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대화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행위는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와 비평이나 지적하기를 할 때 대화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도 자녀에게 부정적인 요인을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대화만족도를 낮추는 요소가 됨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행위와 자녀의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대화의 마무리가 싸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자주 하고, 자녀가 하는 말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며,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줄이는 것도 대화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부정적 요인이 사용되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아버지의 대화만족도 요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와 같이 나타난다.

<표 5-2> 아버지와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아버지 대화만족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가족 행복도	상호	.490**	거짓말	자녀	-.463**
2	칭찬과 감사	자녀	.403**	비평이나 지적	나	-.380**
3	끝까지 듣기	자녀	.397**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355**
4	반응 보이며 듣기	자녀	.333**	갈등이나 의견 충돌	자녀	-.340**
5	인사하기	상호	.294**	비교하는 말	나	-.337**
6	끝까지 듣기	나	.269**	비평이나 지적	자녀	-.331**

**p<.01, *p<.05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행위가 한 요인, 자녀의 행위가 세 요인, 아버지와 자녀의 행위가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기,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기는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와 상관계수가 높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교할 때, 끝까지 듣기는 아버지에 게서만 나타나는 상관요소이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자녀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때 대화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자신의 말이 자녀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녀의 듣기 태도는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매우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행위 자체는 자녀의 행위에 비해 자신의 대화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행동은 아버지 스스로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말에 대해 자녀가 끝까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도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을 때 자신의 대화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행위와 자녀의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가족 행복도는 상관계수가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가정이 행복하면 대화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화만족도와 행복도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아버지의 행위가 두 요인, 자녀의 행

위가 세 요인, 상호 행위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의 행위가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위 중에는 곤란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대화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며, 그 다음으로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하기, 자녀가 아버지에게 비평이나 지적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행위로는 자녀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과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인데 자녀에게 부정적인 요인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대화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행위와 자녀의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서로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마무리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어머니의 대화만족도 요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3>과 같이 나타난다.

<표 5-3> 어머니와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어머니 대화만족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칭찬과 감사	나	.534**	비교하는 말	나	-.413**
2	반응 보이며 듣기	자녀	.471**	비평이나 지적	자녀	-.377**
3	가족 행복도	상호	.428**			
4	칭찬과 감사	자녀	.390**			
5	반응 보이며 듣기	나	.388**			
6	인사하기	상호	.325**			
7	유머 사용	자녀	.313**			

**p<.01, *p<.05

어머니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어머니의 행위가 두 요인, 자녀의 행위가 세 요인, 상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위 중에서 어머니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말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기, 칭찬이나 감사하기, 유머 사용하기 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

버지와 비교했을 때 어머니의 대화만족도에만 상관요소로 나타나는 것은 유머 사용이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유머를 통해 함께 웃음으로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친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이것이 어머니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행위 중에서는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의 상관계수는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말하는 상황 자체가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자녀의 말에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기는 자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자녀와 어머니의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대화만족도와 자녀의 듣기 태도 중 끝까지 듣는 행위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듣기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때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의 행위와 자녀의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가족 행복도와 인사하기는 아버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과도 동일하다. 따라서 가족 간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서로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작은 행위만으로도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어머니의 행위가 한 요인, 자녀의 행위가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위로는 어머니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이 나타났다. 어머니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어머니에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비평이나 지적이 아니라 이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여 어머니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머니의 행위로는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대화만족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어머니는 본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여 말하지만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화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자녀의 좋은 면을 찾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1.2. 행복도를 통한 지침

대화만족도는 가족의 행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족의 행복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가족 대화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요인의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체 문항 가운데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모두 32문항인데, 그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p < .05$)만 추출하였다. 먼저 부모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요소들을 찾아보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른 차이를 밝히기 위해 부모를 나누어 상관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도에 영

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을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체 부모 집단의 행복도 요인

전체 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이 나타난다.

<표 5-4> 부모 유형과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행복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대화만족도	나	.464**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415**
2	칭찬과 감사	자녀	.419**	거짓말	자녀	-.386**
3	반응 보이며 듣기	자녀	.406**	비교하는 말	자녀	-.333**
4	칭찬과 감사	나	.384**	갈등이나 의견 충돌	자녀	-.327**
5	끝까지 듣기	자녀	.377**	비평이나 지적	나	-.304**
6	유머 사용	자녀	.374**	가족회의 필요	상호	-.302**
7	유머 사용	나	.360**	비교하는 말	나	-.274**
8	반응 보이며 듣기	나	.329**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나	-.251**
9	의견 수용	자녀	.313**	쌓인 감정 표출	나	-.242**
10	인사하기	상호	.310**			

**p<.01, *p<.05

가족 행복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네 요인, 자녀의 행위가 다섯 요인, 상호 행위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대화만족도이다. 자녀와 대화가 잘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부모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 유머 사용하기,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기는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행위 중에서는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하기, 부모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 보이며 듣기,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기, 유머 사용하기, 의견 수용 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전하는 칭찬과 감사는 부모의 행복도를 높이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듣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모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부모의 행위와 자녀의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하기로 나타났다. 인사하기는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대화 예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예의를 지켜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알 수 있다.

행복도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네 요인, 자녀의 행위가 세 요인, 상호 행위가 두 개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위로는 곤란한 상황에서 거짓말하기, 다른 부모와 비교하기,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등은 부모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녀의 거짓말은 비록 곤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기 방어에 의한 거짓말이라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행위로는 비평이나 지적하기,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하기,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쌓인 감정 표출하기 등이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말하게 되는 비평이나 지적,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등은 말하는 부모의 행복도도 낮추게 함으로 자녀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좋은 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의 상황에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을 피하거나 오히려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자녀가 과거에 잘못된 일까지 끄집어내어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부모와 자녀의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싸움으로 끝내기와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서로 관련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가족회의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마무리가 싸움처럼 끝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회의의 형식을 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2) 아버지의 행복도 요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5>와 같이 나타난다.

<표 5-5> 아버지와 가족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아버지 행복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끝까지 듣기	자녀	.537**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499**
2	칭찬과 감사	나	.526**	거짓말	자녀	-.449**
3	반응 보이며 듣기	자녀	.506**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자녀	-.377**
4	대화만족도	나	.490**	비평이나 지적	나	-.361**
5	인사하기	상호	.485**	비교하는 말	자녀	-.322**
6	반응 보이며 듣기	나	.480**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나	-.307**
7	끝까지 듣기	나	.463**	가족회의 필요	상호	-.294**
8	칭찬과 감사	자녀	.450**	쌓임 감정 표출하기	나	-.261**
9	유머 사용	자녀	.449**	직설적인 말	나	-.204**
10	의견 수용	자녀	.372**			
11	유머 사용	나	.363**			

**p<.01, *p<.05

아버지의 행복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아버지의 행위가 다섯 요인, 자녀의 행위가 다섯 요인, 상호 행위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위로는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이해한다는 반응 보이며 듣기, 아버지에게 칭찬이나 감사하기, 유머 사용하기, 아버지의 의견 수용 등이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자녀 행위의 공통점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이다. 아버지의 말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경청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아버지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아버지와 편안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복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아버지의 행위로는 자녀에게 칭찬과 감사하기, 자녀의 말에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기,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유머 사용 등은 아버지 스스로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아버지의 대화만족도는 행복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행위와 자녀의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인사하기가 나타났는데, 인사하기는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인사하기를 통해 대화만족도가 높아지면 이는 곧 행복도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자녀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대화만족도와 행복도 모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행복도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아버지의 행위가 네 요인, 자녀의 행위가 세 요인, 상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위로는 곤란한 상황에서 거짓말하기,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하기, 다른 부모와 비교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부모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관요소로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버지의 행위로는 비평이나 지적하기,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하기,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어 내며 쌓인 감정 표출하기, 직설적으로 말하기 등이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행위와 자녀의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과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요인은 모두 부모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요인이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 주의하는 것은 아버지의 행복도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어머니의 행복도 요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6>과 같이 나타난다.

<표 5-6> 어머니와 가족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어머니 행복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대화만족도	나	.428**	비교하는 말	자녀	-.332**
2	칭찬과 감사	자녀	.381**	가족회의 필요	상호	-.326**
3	유머 사용	나	.379**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317**

**p<.01, *p<.05

어머니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경우보다 적은 수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행위가 2개, 자녀의 행위가 1개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화만족도와 유머 사용이다.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 자체가 어머니의 행복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사용하는 유머는 어머니 스스로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머를 통해 긴장을 이완하고 웃음을 통해 서로 즐거움이라는 정서를 나누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돈독한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유머를 많이 사용하여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행위로는 유일하게 어머니에게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만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칭찬이나 감사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나 좌절감을 극복하게 하며,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마음을 담은 자녀의 칭찬이나 감사로 어머니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복도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자녀의 행위가 1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행위가 2개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위로는 어머니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이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교하는 말은 어머니보다 더 나은 대상에 대해 이야기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비교하기보다 어머니의 장점에 대해 칭찬하고 감사하여 어머니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어머니 스스로의 행동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단순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긍정적인 요인들을 적극 활용하여 어머니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행위와 자녀의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가족 대화의 필요성과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아버지의 행복도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가족회의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화의 마무리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1.1.3. 부모와의 대화 지침

지금까지 살펴본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족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하여 부모와의 바람직한 대화 지침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화 일반

1-1) 대화 시간

부모와 대화할 때, 대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부모의 대화만족도는 높아져서 하루 평균 5분 미만의 경우($M=2.00$, $p<.001$)로 나타나지만, 30분 정도($M=3.20$, $p<.001$)와 1시간 이상($M=4.17$, $p<.001$)에서와 같이 시간에 비례해서 만족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길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하루 평균 희망 대화 시간은 30분 정도이고, 어머니의 하루 평균

희망 대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은 30분 정도,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은 한 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대화 수준

부모와 대화하는 수준에 따른 대화만족도는 상투적인 이야기($M=2.60$, $p<.001$)나 다른 사람 이야기($M=3.00$, $p<.001$)보다 부모의 ‘생각이나 고민($M=3.47$, $p<.001$)’, ‘느낌이나 기분($M=3.50$, $p<.001$)’, ‘진심과 필요($M=3.62$, $p<.001$)’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점점 다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화의 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대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화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부모와 대화할 때 상투적인 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뿐 아니라 느낌이나 기분을 전달하고 나아가 진심과 필요를 나눌 수 있을 때 부모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바람직한 대화 방법이 된다.

1-3) 행복도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대화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beta=.464$, $p<.01$). 특히 대화 만족도는 아버지의 경우($\beta=.490$, $p<.01$)가 어머니의 경우($\beta=.428$,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나서 행복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부모님과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행복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대화의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긍정적 요소

2-1) 대화 예절

(1) 인사하기

가족끼리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beta=.305$, $p<.01$). 인사하기는 어머니의 경우($\beta=.325$, $p<.01$)가 아버지의 경우($\beta=.294$,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인사하기는 부모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beta=.310$, $p<.01$)으로 어머니의 경우 행복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경우($\beta=.485$, $p<.01$)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부모님께 인사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대화만족도와 아버지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가족끼리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부모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바람직한 대화 방법이 된다.

2-2) 대화 내용

(1) 칭찬과 감사

칭찬과 감사의 말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경우($\beta=.393, p<.01$)가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경우($\beta=.342, p<.01$)보다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칭찬과 감사는 어머니의 경우($\beta=.534, p<.01$)에는 유의미한 요소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에게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칭찬과 감사는 아버지의 경우($\beta=.403, p<.01$)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에게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칭찬과 감사는 부모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경우($\beta=.419, p<.01$)가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경우($\beta=.384, p<.01$)보다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칭찬이나 감사는 아버지의 경우($\beta=.526, p<.01$)에는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에게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칭찬이나 감사는 아버지의 경우($\beta=.450, p<.01$)에 어머니의 경우($\beta=.381, p<.01$)보다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가족끼리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은 가족 대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대화 내용이 되는데, 자녀를 칭찬할 때 어머니는 대화만족도가 높아지고, 아버지는 행복도가 높아진다. 또한 자녀로부터 칭찬과 감사를 들을 때 부모의 행복도와 아버지의 대화만족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대화 방법이 된다.

(2) 유머 사용

부모와 대화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beta=.271, p<.01$)와 행복도($\beta=.374, p<.01$)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유머 사용은 대화만족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머니($\beta=.313, p<.01$)에게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행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아버지($\beta=.449, p<.01$)에게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올바른 유머 구사 방법을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의견 수용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가운데,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beta=.236, p<.01$)에만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beta=.313, p<.01$), 특히 아버지의 경우($\beta=.372, p<.01$)에는 유의미한 요소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끼리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 수용적 태도로 말하는 것은 가족 대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대화 내용이 되는데, 특히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부모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요인이 된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의견이 자녀에 의해 수용될 때 행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부모의 말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로 받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된다.

2-3) 듣기

(1) 끝까지 듣기

대화를 할 때 중간에 말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가운데 전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beta=.331, p<.01$)이다.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특히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아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우($\beta=.397, p<.01$)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우($\beta=.269, p<.01$) 모두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부모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특히 아버지의 행복도와 상관관계가 높다. 아버지의 경우 자녀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우($\beta=.537, p<.01$)와 자신이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우($\beta=.463, p<.01$) 모두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끼리 서로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것은 가족 대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듣기의 방법이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부모, 특히 아버지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일만한 대화를 위해서는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 방법이다.

(2) 반응보이며 듣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응발화나 동작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경우($\beta=.385, p<.01$)가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경우(β

=308, $p<.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은 아버지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경우($\beta=.388$, $p<.01$)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은 어머니의 경우($\beta=.471$, $p<.01$)가 아버지의 경우($\beta=.333$, $p<.01$)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응 보이며 듣기는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경우($\beta=.406$, $p<.01$)가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경우($\beta=.329$, $p<.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은 아버지의 경우($\beta=.506$, $p<.01$)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beta=.480$, $p<.01$)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끼리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은 가족 대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듣기의 방법이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이 부모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아버지의 경우, 자녀가 반응을 보이며 들으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가 모두 높아지지만, 아버지 스스로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은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반응을 보이며 듣거나 어머니 스스로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은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부모와 대화할 때는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이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이 된다.

(3) 듣고 싶은 말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의 최빈치는 ‘수고에 대한 감사(71%)’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능력에 대한 칭찬(13%)’, ‘성격에 대한 칭찬(7%)’, ‘사랑한다는 말(4%)’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아버지는 능력에 대한 칭찬(15.5%)과 성격에 대한 칭찬(5.2%)을 듣고 싶어 하였고, 어머니는 능력에 대한 칭찬(9.5%)과 성격에 대한 칭찬(9.5%)을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님께는 수고에 대한 감사와 능력에 대한 감사, 성격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 방법이 된다.

3) 부정적 요소

3-1) 대화 예절

(1) 비평이나 지적

부모가 자녀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비평이나 지적의 말을 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경우($\beta=-.451$, $p<.01$)가 부모가 자녀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경우($\beta=-.317$, $p<.01$)보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자녀가 부모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경우($\beta=-.377$, $p<.01$)

가 아버지의 경우($\beta=-.331,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beta=-.304, p<.001$)으로, 특히 아버지의 경우($\beta=-.361, p<.01$)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대화에서 서로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가족 대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대화에서는 비평이나 지적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전달하면서 요청이나 부탁을 하는 말로 바꾸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대화 내용

(1) 비교하는 말

대화를 하면서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중에서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beta=-.353, p<.01$)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경우($\beta=-.413, p<.01$)가 아버지의 경우($\beta=-.337, p<.01$)보다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beta=-.333, p<.01$)가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beta=-.274, p<.01$)보다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경우($\beta=-.332, p<.01$)가 아버지의 경우($\beta=-.322,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끼리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부모 스스로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부모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부모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하고 부모님께서서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행동하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거짓말

대화를 하면서 곤란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beta=-.376, p<.01$)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경우($\beta = -.463, p < .01$)에는 높은 상관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386, p < .01$)은 부모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아버지의 행복도와 높은 상관관계($\beta = -.449, p < .01$)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행복도와 무관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족 대화에 부정적이며,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부모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거짓말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특히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 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된다.

(3) 듣기 싫은 말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의 최빈치는 '내 말을 잔소리로 받는 말(47%)'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32%)',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불평하는 말(10%)', '내 행동을 홍보는 말(9%)'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내 말을 잔소리로 받는 말'이 최빈치로 나타났지만, 아버지(37.9%)보다 어머니(59.5%)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과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 '내 행동을 홍보는 말'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그 말을 잔소리라고 반응하는 것은 대화에서 매우 부정적이며, 부모를 원망하는 말,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불평하는 말이나 부모의 행동을 홍보는 말 등은 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바람직한 대화 방법이 된다.

3-3) 갈등 처리

(1)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대화를 하면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경우($\beta = -.269, p < .01$)이다. 갈등이나 의견 충돌의 상황에서 회피하는 태도는 어머니의 대화만족도에는 상관이 없는 요인이었으나 아버지의 경우($\beta = -.340, p < .01$)에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녀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의 상황에서 회피하는 경우($\beta = -.327, p < .01$)가 부모가 회피하는 경우($\beta = -.251, p < .01$)보다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은 아버지의 행복도와 유의미한 관계($\beta = -.377, p < .01$)를 나타내었으며, 부모가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도 아버지의 경우($\beta = -.332, p < .05$)에만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 회피하기는 아버지의 행복도

와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끼리 대화 가운데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은 가족 대화에 부정적이며, 특히 자녀가 회피하는 경우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무조건 회피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정중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나 가족 대화를 위해 모두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

(2) 쌓인 감정 드러내기

대화를 하면서 화가 나면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이야기하면서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부모의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화가 나면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의 경우($\beta = -.261, p < .01$)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갈등의 상황에서 부모님이 과거의 일까지 이야기하면서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현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3) 가족회의의 필요성

가족의 갈등이나 의견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부모의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자녀들과 가족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가족회의라는 공식적인 형식을 빌려서라도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beta = -.302, p < .01$)는 아버지($\beta = -.294, p < .01$)보다 어머니($\beta = -.326, p < .01$)에게서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갈등이나 의견 충돌의 상황에서 어머니가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 간의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형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도를 높이는 일이 된다.

(4) 싸움으로 끝내기

가족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고 느끼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beta = -.285, p < .01$)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아버지의 경우($\beta = -.355, p < .01$)에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beta = -.473, p < .01$), 아버지의 경우($\beta = -.499, p < .01$)는 어머니의 경우($\beta = -.317, p < .01$)보다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은 부모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므로, 다른 방식으로 갈등이 표출되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이어서, 부모가 싸움이라고 느끼는 상태로

대화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 부모를 위한 지침

1.2.1. 대화만족도를 통한 대화 지침

앞장에서 살펴본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요인들을 대상으로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체 문항 가운데 리커트 척도로 된 문항은 행복도를 포함하여 모두 33문항이었는데, 그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p < .05$)들만 추출하였다. 상관요소는 상관계수가 긍정적인 값을 보이는 긍정적인 요인들과 부값을 보이는 부정적인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으로써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요소들을 찾아보고, 학령에 따른 차이를 밝히기 위해 초등학교 자녀와 중학교 자녀로 나누어 상관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체 자녀 집단의 대화만족도 요인

자녀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7>과 같이 나타난다.

<표 5-7> 자녀 유형 상관요소 순위

순위	대화만족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행복도	상호	.535**	부모님과 대면대화 불편	나	-.518**
2	내 의견 수용	부모	.456**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484**
3	칭찬이나 감사	부모	.451**	비교하는 말	부모	-.412**
4	유머 사용	부모	.369**	쌓인 갈등 표출하기	부모	-.388**
5	반응 보이며 듣기	부모	.367**	비평이나 지적	나	-.321**
6	부모님 의견 수용	나	.365**	쌓인 갈등 표출하기	나	-.315**
7	인사하기	상호	.361**	거짓말	부모	-.280**
8	끝까지 듣기	부모	.355**	비교하는 말	나	-.244**
9	유머 사용	나	.347**	갈등이나 의견충돌 회피	나	-.242**
10	칭찬이나 감사	나	.337**	갈등이나 의견충돌 회피	부모	-.229**
11	반응 보이며 듣기	나	.329**	거짓말	나	-.208**
12	끝까지 듣기	나	.283**	가족회의 필요	상호	-.181*
13				욕설 비속어	부모	-.141*

** $p < .01$, * $p < .05$

대화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의 행위가 다섯 요인, 나의 행위가 다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요인들을 이루고 있으며, 부모님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해 주고,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해주며,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정서를 이완시키며, 말할 때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자녀들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으로는 행복도와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도는 대화만족도와 가장 긍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이라는 것을 통해 행복한 가정이 대화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들어오고 나갈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유머를 사용하고, 부모님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며, 부모님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자녀 스스로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서로의 의견 수용하기, 칭찬과 감사의 말하기, 유머 사용하기, 반응보이며 듣기, 끝까지 듣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며, 유머를 사용하고,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듣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화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다섯 요인, 나의 행위가 여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자녀들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부모님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것, 부모님께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부모도 상처를 받지만, 자녀 스스로의 대화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 가운데는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과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자

녀의 대화만족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느끼는 것은 그만큼 가족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서로 연결된 요인이다. 따라서 자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비교하는 말, 쌓인 감정 표출하기, 거짓말,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초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 요인

자녀 응답자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이 나타난다.

<표 5-8> 초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초등학생 자녀 대화만족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내 의견 수용	부모	.503**	대면대화 불편	나	-.449**
2	칭찬이나 감사	부모	.466**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428**
3	행복도	상호	.430**	쌓인 감정 표출하기	나	-.344**
4	인사하기	상호	.378**	비교하는 말	부모	-.324**
5	칭찬이나 감사	나	.341**	비평이나 지적	나	-.307**
6	부모님 의견 수용	나	.338**	가족회의 필요	상호	-.305**
7	끝까지 듣기	부모	.307**	쌓인 감정 표출하기	부모	-.263**
8	유머 사용	부모	.283**	거짓말	나	-.254*
9	반응 보이며 듣기	부모	.276**	욕설이나 비속어	나	-.238*
10	반응 보이며 듣기	나	.265**	거짓말	부모	-.230*
11	끝까지 듣기	나	.253*			

**p<.01, *p<.05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다섯 요인, 나의 행위가 네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해 주고,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해주며,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정서를 이완시키며, 말할 때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자녀들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된 대화만족도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으로는 행복도와 인사하기가 있는데, 행복도가 높으면 대화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들어오고 나갈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집단에서는 행복도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로 나타났지만,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내 의견을 받아주거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나서 초등학생은 전반적인 분위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부모님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고, 부모님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초등학생 자녀 스스로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서로의 의견 수용하기, 칭찬과 감사의 말하기, 반응보이며 듣기, 끝까지 듣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며,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듣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인은 전체 자녀 집단에서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던 자녀 스스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화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세 요인, 나의 행위가 다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자녀들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부모님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부모님께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부모도 상처를 받지만, 자녀 스스로의 대화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 가운데는 전체 자녀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과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느끼는 것은 그만큼 가족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서로 연결된 요인이다. 따라서 자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

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쌓인 감정 표출하기와 거짓말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중고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 요인

자녀 응답자 가운데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이 나타난다.

<표 5-9> 중고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중고등학생 자녀 대화만족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행복도	상호	.621**	대면대화 불편	나	-.594**
2	유머 사용	나	.484**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534**
3	반응보이며 듣기	부모	.456**	비교하는 말	부모	-.497**
4	유머 사용	부모	.439**	쌓인 감정 표출하기	부모	-.497**
5	칭찬이나 감사	부모	.430**	비교하는 말	나	-.356**
6	내 의견 수용	부모	.406**	거짓말	부모	-.339**
7	끝까지 듣기	부모	.400**	비평이나 지적	나	-.326**
8	반응보이며 듣기	나	.387**	쌓인 감정 표출하기	나	-.288**
9	부모님 의견 수용	나	.373**	갈등이나 의견충돌 회피	나	-.286**
10	인사하기	상호	.351**	갈등이나 의견충돌 회피	부모	-.281**
11	칭찬이나 감사	나	.314**			
12	끝까지 듣기	나	.304**			

**p<.01, *p<.05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다섯 요인, 나의 행위가 다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말할 때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고,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정서를 이완시키며,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해주며, 자녀의 의견을 수용해 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으로는 행복도와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도는 대화만족도와 가장 긍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이라는 것을 통해 행복한 가정이 대화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들어오고 나갈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유머를 사용하고, 부모님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으며,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고, 부모님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고등학생 자녀 스스로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유머 사용하기, 반응 보이며 듣기, 칭찬과 감사의 말하기, 끝까지 듣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며, 유머를 사용하고,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듣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 자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요인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인은 초등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자녀 스스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화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네 요인, 나의 행위가 다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자녀들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부모님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것,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부모님께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부모도 상처를 받지만, 자녀 스스로의 대화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 가운데는 전체 자녀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고, 자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비교하는 말, 쌓인 감정 표출하기,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회피하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2. 행복도를 통한 대화 지침

대화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가족의 행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느끼는 집단에서 어떤 대화의 양상이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가족 대화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요인들의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체 문항 가운데 리커트 척도로 된 문항은 모두 33문항이었는데, 그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p < .05$)들만 추출하였다. 먼저 자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요소들을 찾아보고, 학령에 따른 차이를 밝히기 위해 초등학교 자녀와 중·고등학교 자녀로 나누어 상관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체 자녀 집단의 행복도 요인

자녀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0>과 같이 나타난다.

<표 5-10> 전체 자녀 집단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행복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대화만족도	상호	.535**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473**
2	칭찬이나 감사	부모	.486**	쌓인 감정 표출하기	부모	-.435**
3	끝까지 듣기	부모	.399**	비교하는 말	부모	-.405**
4	반응보이며 듣기	부모	.392**	대면대화 불편	나	-.362**
5	내 의견 수용	부모	.392**	거짓말	부모	-.335**
6	유머 사용	부모	.389**	비평이나 지적	나	-.320**
7	유머 사용	나	.357**	쌓인 감정 표출하기	나	-.309**
8	칭찬이나 감사	나	.340**	욕설이나 비속어	부모	-.272**
9	인사하기	상호	.322**	갈등이나 의견충돌 회피	나	-.268**
10	부모님 의견 수용	나	.316**	갈등이나 의견충돌 회피	부모	-.266**
11	반응 보이며 듣기	나	.299**	비교하는 말	나	-.266**
12	끝까지 듣기	나	.241**	거짓말	나	-.265**
13				욕설이나 비속어	나	-.241**

** $p < .01$, * $p < .05$

행복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의 행위가 다섯 요인, 나의 행위가 다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요인들을 이루고 있으며, 부모님은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해주며, 끝까지 들어주고, 들을 때는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고, 자녀의 의견을 수용해 주며,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정서를 이완시키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것은 상관계수의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 대화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으로는 대화만족도와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대화만족도는 행복도와 가장 긍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이라는 것을 통해 대화만족도가 높은 가정이 행복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들어오고 나갈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유머를 사용하고, 부모님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며,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고, 부모님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것은 상관계수의 미미한 차이만 있을 뿐 자녀 스스로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칭찬과 감사의 말하기, 서로의 의견 수용하기, 유머 사용하기, 반응보이며 듣기, 끝까지 듣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며, 유머를 사용하고,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듣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인 동시에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화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다섯 요인, 나의 행위가 일곱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화만족도와도 동일한 요인들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부모님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것, 부모님께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부모도 상처를 받지만, 자녀 스스로의 행복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요인들은 대화만족도와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자녀 스스로가 하는 욕설이나 비속어는 대화만족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행복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 가운데는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이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비교하는 말, 쌓인 감정 표출하기, 거짓말,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초등학생 자녀의 행복도 요인

자녀 응답자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1>과 같이 나타난다.

<표 5-11> 초등학생 자녀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초등학생 자녀 행복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칭찬이나 감사	부모	.555**	비교하는 말	부모	-.377**
2	유머 사용	부모	.434**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373**
3	대화만족도	상호	.430**	쌓인 감정 표출하기	부모	-.368**
4	인사하기	상호	.343**	대면대화 불편	나	-.362**
5	반응보이며 듣기	부모	.331**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나	-.295**
6	끝까지 듣기	부모	.299**	욕설이나 비속어	부모	-.288**
7	유머 사용	나	.269**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부모	-.276**
8	끝까지 듣기	나	.259**	쌓인 감정 표출하기	나	-.271**
9	칭찬이나 감사	나	.239*	욕설이나 비속어	나	-.265**
10				거짓말	부모	-.251*
11				비평이나 지적	나	-.233*
12				가족회의 필요	상호	-.204*
13				비교하는 말	나	-.202*
14				거짓말	나	-.200*

**p<.01, *p<.05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행복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네 요인, 나의 행위가 세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해주며,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부드럽

게 하고 정서를 이완시키며, 말할 때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된 행복도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으로는 대화만족도와 인사하기가 있는데,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소가 되고,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자녀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부모가 행위자가 되는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계수가 낮은 편이다. 초등학생 자녀들은 자신의 행동보다는 부모님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됨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가 행위자가 되면서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은 부모님께 유머를 사용해서 말하고,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부모님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유머 사용하기, 칭찬과 감사의 말하기, 끝까지 듣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부모가 하는 것이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를 나누며, 대화만족도가 높고, 대화 중 유머를 사용하고,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며, 자녀가 말할 때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듣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행복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인은 전체 자녀 집단에서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던 의견 수용하기가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발달 단계 상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거나,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과 같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견 대립 구도의 대화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가 수용하는 관계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자신이 부모님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에 대해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다섯 요인, 나의 행위가 일곱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부모님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부모도 상처를 받지만, 자녀 스스로의 행복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 가운데는 전체 자녀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과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느끼는 것은 그만큼 가족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서로 연결된 요인이다. 따라서 자녀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비교하는 말, 쌓인 감정 표출하기, 갈등이나 의견충돌 회피,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거짓말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중고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 요인

자녀 응답자 가운데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2>와 같이 나타난다.

<표 5-12> 중고등학생 자녀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중고등학생 자녀 행복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대화만족도	상호	.621**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570**
2	내 의견 수용	부모	.547**	쌓인 감정 표출하기	부모	-.482**
3	끝까지 듣기	부모	.504**	비교하는 말	부모	-.459**
4	반응보이며 듣기	부모	.464**	거짓말	부모	-.449**
5	부모님 의견 수용	나	.433**	대면대화 불편	나	-.395**
6	반응보이며 듣기	나	.401**	비평이나 지적	나	-.377**
7	유머 사용	나	.387**	비교하는 말	나	-.368**
8	칭찬이나 감사	나	.374**	쌓인 감정 표출하기	나	-.336
9	칭찬이나 감사	부모	.362**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부모	-.280**
10	유머 사용	부모	.326**	거짓말	나	-.278**
11	인사하기	상호	.326**	욕설이나 비속어	나	-.249*
12	끝까지 듣기	나	.207*	욕설이나 비속어	부모	-.222*
13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나	-.222*

**p<.01, *p<.05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행복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다섯 요인, 나의 행위가 다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해 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고,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해주며,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으로는 대화만족도와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화만족도는 행복도와 가장 긍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이라는 것을 통해 대화만족도가 높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들어오고 나갈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고, 부모님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으며, 유머를 사용하고, 부모님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며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고등학생 자녀 스스로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의견 수용하기, 반응 보이며 듣기, 끝까지 듣기, 유머 사용하기, 칭찬과 감사의 말하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를 나누며, 대화만족도가 높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듣고, 유머를 사용하고,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 자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요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행복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인은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높은 상관계수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로 나타나는 초등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자신이 하는 칭찬이나 감사가 조금 더 높은 계수로 나타나서 성숙함을 보인다는 것과, 부모님이 내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부모님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도 높은 상관계수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행복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다섯 요인, 나의 행위가 일곱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부모님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것, 부모님께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부모님께 거짓말 하는 것, 부모님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부모도 상처를 받지만, 자녀 스스로의 행복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은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비교하는 말, 쌓인 감정 표출하기, 거짓말, 갈등이나 의견충돌 회피,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1.2.3. 자녀와의 대화 지침

지금까지 살펴본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함께, 대화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beta=.535$, $p<.01$)를 보이는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하여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 지침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화 일반

1-1) 대화 시간

자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와 대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와의 이상적 대화 시간은 30분 정도($M=3.27$)까지 대화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1시간 정도($M=2.49$)와 1시간 이상($M=2.75$)에서는 오히려 대화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자녀와 30분미만의 대화를 나누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와 대화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 가정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상적인 대화 시간에는 성차가 있어서 아들과는 하루 30분 정도, 딸과는 하루 한 시간 이상의 대화를 나누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11~13세보다는 14세 이상 연령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화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간이 적을수록 대화만족도가 낮아지므로 중고등학생 이상의 연령대의 대화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줄어드는 자녀와 부모들의 대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2) 대화 매체

자녀와 부모의 대화는 가능하면 대면대화를 하는 것($M=3.49, p<.05$)이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것($M=2.94, p<.05$)보다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문제 상황에서 자녀가 대면대화($M=3.52, p<.05$)나 쪽지, 편지($M=3.50, p<.05$) 등을 통해 부모와 대화하는 경우 대화만족도가 높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M=2.43, p<.05$)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부모-자녀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1-3) 대화 주제

대화 주제로 하루일과 또는 여러 가지 일($M=3.65, p<.01$), 학교생활($M=3.57, p<.01$), 집안일이나 가족일($M=3.5, p<.01$) 등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또한, 처음부터 성적($M=2.90, p<.01$), 장래희망($M=2.93, p<.01$) 같은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해당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평소의 대화습관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4) 대화불만족 요소

대화 내용($M=3.05, p<.001$)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잘 선택해서 구성해야 하고, 무시하는 태도($M=3.12, p<.001$), 짜증 섞인 말투($M=3.30, p<.001$), 화를 내는 태도($M=3.41, p<.001$)를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1-5) 신체 접촉

자녀들이 부모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모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beta=-.518, p<.001$)는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이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594,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49, p<.01$)보다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행복도에도 부정적인 영향($\beta=-.473, p<.01$)을 미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95,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62, p<.01$)보다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서 중고등학생 자녀와의 대화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족 대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척도가 되며, 자녀와 대화하면서는 얼굴을 보고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1-6) 행복도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대화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beta=.535, p<.01$). 행복하다고 느끼는 느낌을 갖는 것과 대화에 만족한다는 것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행복도와 대화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30, p<.01$)로 나타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beta=.621, p<.01$)로 나타나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더 행복도와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서 자녀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행복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대화의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2) 긍정적 요소

2-1) 대화 예절: 인사하기

가족끼리 들어가고 나갈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다($\beta=.361, p<.001$).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78, p<.001$)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51, p<.0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beta=.322, p<.001$)으로,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43, p<.001$)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26, p<.001$)보다 행복도에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끼리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2-2) 대화 내용

(1) 칭찬이나 감사

칭찬이나 감사의 말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경우($\beta=.466, p<.01$)가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경우($\beta=.341, p<.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칭찬이나 감사는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66, p<.01$)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30,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칭찬이나 감사는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41, p<.01$)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14,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beta=.486, p<.001$)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칭찬이나 감사는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555, p<.01$)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62, p<.01$)보다 더 월등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칭찬이나 감사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74,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39,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끼리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것은 가족 대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대화 내용이 되는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데, 특히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행복도를 가장 높이는 대화 방법이 된다.

(2) 유머 사용

대화를 하면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beta=.369, p<.01$)가 자녀가 부모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beta=.347, p<.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39,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83, p<.01$)보다 월등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84, p<.01$)로 부모가 유머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beta=.389, p<.01$)가 자녀가 부모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beta=.357, p<.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34, p<.01$)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26, p<.01$)보다 더 월등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87,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69,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끼리 대화 가운데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가족 대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대화 내용이 되는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요인이 된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부모의 유머를 듣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고,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자신이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유머를 사용할 때는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3) 의견 수용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beta=.456, p<.01$)가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수

용하는 경우($\beta=.365, p<.01$)보다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503, p<.01$)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06, p<.01$)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73,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38,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beta=.392, p<.01$)가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beta=.316, p<.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행복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beta=.547, p<.01$)가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beta=.433,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끼리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 수용적 태도로 말하는 것은 가족 대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대화 내용이 되는데, 특히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요인이 된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의견 수용이 행복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수용해 줄 때 대화만족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초등학생 부모는 되도록 자녀의 의견에 대해 수용적 태도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피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의 의견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부모의 말에 대해서도 수용적 태도로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된다.

2-3) 듣기

(1) 끝까지 듣기

대화를 할 때 중간에 말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우($\beta=.355, p<.01$)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우($\beta=.283, p<.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00,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07, p<.01$)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도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04,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53, p<.01$)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우($\beta=.399, p<.01$)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우($\beta=.241, p<.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504,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99, p<.01$)보다 월등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59, p<.01$)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07,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끼리 서로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가족 대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듣기의 방법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요인이 된다. 이것은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중고등학생 자녀와 대화할 때는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마음이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이 된다.

(2) 반응 보이며 듣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응발화나 동작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경우($\beta=.367, p<.01$)가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경우($\beta=.329, p<.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beta=.456,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76, p<.01$)보다 월등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도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87,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65, p<.01$)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경우($\beta=.392, p<.01$)가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경우($\beta=.299, p<.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64, p<.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31, p<.01$)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행복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01, p<.01$)로 나타나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끼리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은 가족 대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듣기의 방법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요인이 된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만, 자신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미성숙한 요인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부모뿐 아니라 자녀 자신이 반응을 보이며 듣는지가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중고등학생 자녀와 대화할 때는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이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이 된다.

(3) 듣고 싶어 말

부모님께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노력에 대한 칭찬 > 행동에 대한 칭찬 > 성적에 대한 칭찬 > 성격에 대한 칭찬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동에 대한 칭찬($M=3.58$)이나 성격에 대한 칭찬($M=3.55$)을 듣고 싶어 하는 경우 대화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외모($M=3.00$)나 성적($M=3.35$),

노력(M=3.42)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는 경우의 대화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자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칭찬이며, 칭찬 가운데도 노력에 대한 칭찬을 기본으로 해서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성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

3) 부정적 요소

3-1) 대화 예절

(1) 비평이나 지적

자녀가 부모에게 비평이나 지적의 말을 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경우($\beta = -.321, p < .01$)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자녀가 부모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326, p < .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307, p < .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beta = -.302, p < .001$)으로,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377, p < .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33, p < .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가족 대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사춘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대화만족도나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모는 자녀가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그런 대화 방법이 스스로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일임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2)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대화를 하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전체 자녀 집단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beta = -.141, p < .05$)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자녀가 부모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238, p < .01$)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beta = -.272, p < .01$)가 자녀가 부모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beta = -.241, p < .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88, p < .01$)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22, p < .05$)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65, p < .01$)로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49, p < .05$)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욕설이나 비속어는 대화의 장애요소로 지적되는 것이지만, 가족끼리 대화 가운데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동안의 사회적 통념에 비해서는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친하거나 ($M = 3.97$) 친근감, 재미($M = 3.40$)를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시하거나($M = 2.5$), 습관적($M = 2.82$)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대화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대화만족도보다 행복도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와의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3-2) 대화 내용

(1) 비교하는 말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beta = -.412, p < .01$)가 자녀가 부모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beta = -.244, p < .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497, p < .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324, p < .01$)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356, p < .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beta = -.405, p < .01$)가 자녀가 부모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beta = -.266, p < .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459, p < .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377, p < .01$)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368, p < .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02, p < .05$)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끼리 대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가족 대화에 부정적이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도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말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대화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거짓말

대화를 하면서 곤란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beta = -.280, p < .01$)가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beta = -.208, p < .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339, p < .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30, p < .05$)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54, p < .05$)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beta = -.335, p < .01$)가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beta = -.265, p < .01$)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449, p < .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51, p < .01$)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78, p < .01$)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00, p < .05$)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끼리 대화 가운데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족 대화에 부정적이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고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것은 초등학생 자녀보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서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므로 중고등학생 부모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대화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3-3) 갈등 처리

(1) 갈등이나 의견충돌 회피

대화를 하면서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경우($\beta = -.242, p < .01$)가 부모가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경우($\beta = -.229, p < .01$)보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286, p < .01$)로 나타났고, 부모가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

면 회피하는 것도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81, p<.01$)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경우($\beta=-.268, p<.01$)가 부모가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경우($\beta=-.266, p<.01$)보다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95, p<.01$)로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22, p<.05$)보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부모가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80, p<.05$)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76, p<.01$)보다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족끼리 대화 가운데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은 가족 대화에 부정적이며, 특히 자녀가 회피하는 경우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 자녀가 회피하려고 한다면 가족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된다.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갈등은 같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적인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억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조율로 함께 이기는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쌓인 감정 표출하기

대화를 하면서 화가 나면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이야기하면서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화가 나면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beta=-.388, p<.01$)가 부모가 자녀에게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beta=-.315, p<.01$)보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가 나면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97, p<.01$)로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63, p<.01$)보다 대화만족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부모에게 화가 나면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44, p<.01$)로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88, p<.01$)보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beta=-.435, p<.01$)가 자녀가 부모에게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beta=-.309, p<.01$)보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482, p<.05$)로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68, p<.01$)보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부모에게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336, p<.05$)로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271, p<.01$)보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끼리 대화 가운데 화가 나면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가족 대화에 부정적이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과거의 일까지 이야기하면서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자녀를 설득하거나 회유하기 위하여 과거의 일까지 이야기하면서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대화는 항상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여야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현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초등학생 자녀보다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더 영향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특히 과거의 일들을 통해 쌓인 감정을 표출하여서 대화의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가족회의의 필요성

자녀가 가족의 갈등이나 의견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자녀들이 가족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말한다.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beta = -.181, p < .05$)는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상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초등학생 자녀의 대화만족도($\beta = -.305, p < .01$)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초등학생 자녀 행복도의 경우($\beta = -.204, p < .05$)에도 상관 요인으로 나타나서 초등학생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와 대화할 때는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 가족회의를 열자고 제안하고 회의 형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 싸움으로 끝내기

자녀가 우리 가족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난다고 느끼는 것은 자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모와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대화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 = -7.787, \beta = -.484, p < .001$).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534, p < .01$)에는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428, p < .01$)보다 대화만족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서 중고등학생 자녀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도에도 영향을 주는데($\beta = -.473, p < .01$),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570, p < .05$)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beta = -.373, p < .01$)보다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은 자녀들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대화 방식이어서 혹시 다른 방식으로 갈등이 표출되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이어서, 자녀가 싸움이라고 느끼는 상태로 대화를 마무리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와 대화할 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부부 대화

2.1. 대화만족도를 통한 대화 지침

앞장에서 살펴본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요인들을 대상으로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체 문항 가운데 리커트 척도로 된 문항은 행복도를 포함하여 모두 35문항이었는데, 그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p < .05$)들만 추출하였다. 상관요소는 상관계수가 긍정적인 값을 보이는 요인들과 부정적인 값을 보이는 부정적인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으로써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요소들을 찾아보고, 부부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신혼부부와 중년부부, 노년부부로 나누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1.1. 전체 부부 집단의 대화만족도 요인

부부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13>과 같다.

<표 5-13> 전체 부부 집단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대화만족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행복도	상호	.609**	싸움으로 끝내기	우리	-.473**
2	호칭	배우자	.483**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	배우자	-.412**
3		나	.468**	비교하는 말	배우자	-.342**
4	칭찬과 감사	나	.451**	거짓말	배우자	-.332**
5		배우자	.439**		나	-.283**
6	인사하기	배우자	.438**	비평이나 지적	나	-.281**
7	끝까지 듣기	배우자	.433**	비교하는 말	나	-.271**
8	대면대화	나	.416**	쌓인 감정 표출하기	배우자	-.268**
9	반응 보이며 듣기	배우자	.409**		나	-.267**
10		나	.400**	욕설이나 비속어	배우자	-.229**
11	인사하기	나	.397**		나	-.199**
12	끝까지 듣기	나	.386**	가족회의 필요	상호	-.197*
13	합의점 찾기	배우자	.352**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나	-.148*
14		나	.322**		배우자	-.145*
15	유머 사용	나	.312**			
16	존댓말 사용	나	.175*			
17		배우자	.165*			
18		나	.131*			

** $p < .01$, * $p < .05$

대화만족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에는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우자의 행위가 일곱 요인, 나의 행위가 열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나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려주며, 내 말에 반응을 보이며 끝까지 들어주고, 갈등의 상황에서는 먼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존댓말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내가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상대방에게 적합한 호칭을 사용하고,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며,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배우자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며 끝까지 들어주고,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며, 갈등의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존댓말을 사용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신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부부 공동의 행위로 나타나는 상관요소는 가정의 행복도이다. 대화만족도는 행복도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요인이라는 것을 통해 대화만족도가 높은 가정이 행복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위자와 상관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호칭 사용, 칭찬과 감사의 말하기, 인사하기, 끝까지 듣기, 반응 보이며 듣기, 합의점 찾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서로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여 불러주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며, 서로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나누며,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고,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먼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화만족도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행위가 여섯 요인, 자신의 행위가 여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부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이런 유형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도 상처가 되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런 유형의 말을 하게 되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대화가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현은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 가운데는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과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특히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또한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느끼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서로 연결된 요인이다. 따라서 부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비교하는 말, 거짓말,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 쌓인 감정 표출하기,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1.2. 신혼부부의 대화만족도 요인

부부 응답자 가운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화만족도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4>와 같이 나타난다.

<표 5-14> 신혼부부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결과

순위	신혼 부부 대화만족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대면대화	나	.392**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나	-.426**
2	유머 사용	나	.371**	비교하는 말	나	-.269**
3	대화의 주도권 갖기	나	.321**	싸움으로 끝나기	상호	-.267**
4	합의점 찾기	나	.260**	비교하는 말	배우자	-.260**
5	행복도	상호	.254*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	배우자	-.257**
6	인사하기	배우자	.246*	욕설 비속어 사용	배우자	-.207*
7	반응 보이며 듣기	나	.222*	쌓인 감정 표출하기	배우자	-.197*
8	칭찬과 감사	나	.215*			
9	끝까지 듣기	나	.213*			
10	반응 보이며 듣기	배우자	.213*			

**p<.01, *p<.05

신혼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가 두 요인, 나의 행위가 일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것과 말할 때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것이 부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같은 듣기에 속하는 유형이지만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대화만족도와 무관하게 나타나고 배우자가 자신

의 말에 이해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만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서 배우자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말하는 것,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는 것,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배우자의 말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고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스스로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부부가 공동의 행위자가 되는 것은 가족의 행복도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신혼부부는 가정이 행복하면 대화도 잘 이루어진다고 여기고 이런 인식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반응보이며 듣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대화를 하며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듣는 행위를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대화만족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인은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주로 자신의 대화 방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혼인기간이 짧아 배우자의 대화 방식에 대하여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대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체 부부 집단이나 다른 유형의 부부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질 때 대화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신혼부부 유형에서만 나타난 것과도 관련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호칭’ 사용에 관한 것이 대화만족도와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직 특별한 호칭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혼인 이전의 호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늘어날수록 배우자에게 알맞은 호칭을 불러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가 네 요인, 자신의 행위가 두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배우자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회피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자제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 가운데는 전체 부부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부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요소이다.

2.1.3. 중년부부의 대화만족도 요인

부부 응답자 가운데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5>와 같이 나타난다.

<표 5-15> 중년부부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중년부부 대화만족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인사하기	나	.423**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356**
2	행복도	상호	.389**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	배우자	-.262**
3	호칭	배우자	.373**	욕설이나 비속어	나	-.253*
4		나	.363**	비교하는 말	배우자	-.202*
5	대면대화	나	.333**	거짓말	나	-.199*
6	칭찬과 감사	나	.291**	욕설이나 비속어	배우자	-.063*
7	합의점 찾기	배우자	.268**			
8	칭찬과 감사	배우자	.253*			
9	인사하기	배우자	.246*			
10	반응 보이며 듣기	나	.244*			
11	끝까지 듣기	배우자	.239*			
12	반응 보이며 듣기	배우자	.236*			

**p<.01, *p<.05

중년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가 여섯 요인, 나의 행위가 다섯 요인, 부부 공동의 행위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것, 말할 때 끝까지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것이 부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 배우자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말하는 것, 배우자의 말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이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스스로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부부 공동의 행위로 나타난 것은 가족의 행복도로 대화만족도는 행복도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이라는 것을 통해 행복한 가정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와 행복도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것,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배우자의 말에 반응 보이며 듣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년부부의 대화만족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은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주로 대화 예절과 관련된 요인의 상관관계수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혼인 기간 동안 바쁘기도 하고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지키지 않았던 인사하기나 호칭 사용 등의 예절적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화 예절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중년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전체 부부 집단에서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던 응답자 스스로 유머와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머 사용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대화를 하며 서로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 만큼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존댓말 사용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존댓말 사용이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로에게 익숙한 만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의 예절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가 세 요인, 자신의 행위가 두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부부간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부부의 경우에는 스스로 욕설이나 비속어, 거짓말 등과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상황 자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부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 가운데는 부부 전체 집단과 마찬가지로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높은 상관요소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 버리게 되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1.4. 노년부부의 대화만족도 요인

부부 응답자 가운데 노년부부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6>과 같이 나타난다.

<표 5-16> 노년부부의 대화만족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노년부부 대화만족도					
	긍정 요소			부정 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행복도	상호	.404**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	배우자	-.373**
2	반응 보이며 듣기	나	.390**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308**
3	칭찬과 감사	배우자	.376**	거짓말	배우자	-.289**
4	호칭	나	.355**	비평이나 지적	나	-.257**
5	칭찬과 감사	나	.355**	비교하는 말	배우자	-.253*
6	끝까지 듣기	배우자	.310**	쌀인 감정 표출하기	배우자	-.250*
7	인사하기	배우자	.270**	비교하는 말	나	-.226*
8	호칭	배우자	.268**	욕설이나 비속어	배우자	-.219*
9	반응 보이며 듣기	배우자	.261**	비평이나 지적	배우자	-.183*
10	유머 사용	나	.245*			
11	합의점 찾기	나	.242*			
12	대면대화	나	.232*			
13	끝까지 듣기	배우자	.219*			
14	합의점 찾기	배우자	.206*			
15	인사하기	나	.202*			

**p<.01, *p<.05

노년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가 여섯 요인, 나의 행위가 여덟 요인, 그리고 부부 공동의 행위가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말할 때 끝까지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것,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부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배우자의 말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말하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것이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스스로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부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가족 행복도는 노년부부의 대화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상관요소로 나타났다. 노년부부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이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배우자의 말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년부부의 대화만족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인은 전체 부부 집단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던 요소의 대부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혼인 초기에는 몇 개의 요인만으로도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요인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배우자를 좀 더 많이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화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가 여섯 요인, 자신의 행위가 두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노년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른 부부 유형에 비해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부정적인 대화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부부의 경우 다른 부부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이 영향을 주는 상관요소로 나타났다. 비평이나 지적하기는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게 됨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상하게 하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늘어날수록 서로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과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부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부부 집단과 마찬가지로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행위는 서로 주의가 필요하다.

2.2. 행복도를 통한 대화 지침

대화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가족의 행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느끼는 집단에서 어떤 대화의 양상이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가족 대화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요인들의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체 문항 가운데 리커트 척도로 된 문항은 행복도를 포함하여 모두 35문항이었는데, 그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p < .05$)들만 추출하였다. 먼저 부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요소들을 찾아보고, 부부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신혼부부와 중년부부, 노년부부로 나누어 상관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2.1. 전체 부부 집단의 행복도 요인

부부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7>과 같이 나타난다.

<표 5-17> 부부 전체 집단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행복도					
	긍정요소			부정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대화만족도	나	.609**	싸움으로 끝나기	상호	-.617**
2	호칭	배우자	.509**	비교하는 말	배우자	-.522**
3	반응 보이며 듣기	배우자	.495**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	배우자	-.482**
4		나	.482**	욕설이나 비속어	배우자	-.446**
5	호칭	나	.463**	거짓말	배우자	-.437**
6	칭찬과 감사	나	.453**	비교하는 말	나	-.422**
7	대면대화	나	.444**	쌓인 감정 표출하기	나	-.365**
8	인사하기	나	.438**	욕설이나 비속어	나	-.337**
9		배우자	.430**	거짓말	나	-.336**
10	끝까지 듣기	배우자	.429**	비평이나 지적	나	-.325**
11	칭찬과 감사	배우자	.427**	쌓인 감정 표출하기	배우자	-.321**
12	합의점 찾기	배우자	.419**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나	-.265**
13	끝까지 듣기	나	.360**	가족회의 필요	상호	-.250**

14	유머 사용	나	.331**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배우자	-.219**
15	합의점 찾기	나	.308**			

**p<.01, *p<.05

행복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우자의 행위가 여섯 요인, 나의 행위가 여덟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나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내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하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해주며, 갈등의 상황에서는 먼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내가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배우자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며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방에게 적합한 호칭을 사용하고,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며,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배우자에게 서로 인사를 하며,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갈등의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가족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위자와 상관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호칭 사용, 반응 보이며 듣기, 칭찬과 감사의 말하기, 인사하기, 끝까지 듣기, 합의점 찾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족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서로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여 불러주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며, 서로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나누며, 배우자의 말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고,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먼저 노력하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한 행복도는 대화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화만족도가 높으면 가족의 행복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화를 나누면 가족의 행복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행복도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배우자와 자신의 행위가 동일하게 모두 여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이런 유형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도 상처가 되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런 유형의 말을 하게 되면 행복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대화가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현은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은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과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특히 부부 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또한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느끼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어 서로 연결된 요인이다. 따라서 가족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비교하는 말,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거짓말, 쌓인 감정 표출하기,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2. 신혼부부의 행복도 요인

부부 응답자 가운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8>과 같이 나타난다.

<표 5-18> 신혼부부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신혼부부 행복도					
	긍정요소			부정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호칭	배우자	.516**	비평이나 지적	배우자	-.665**
2	반응 보이며 듣기	배우자	.498**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637**
3		나	.445**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	배우자	-.596**
4	인사하기	나	.430**	쌓인 감정 표출하기	배우자	-.568**
5	칭찬과 감사	나	.389**	욕설이나 비속어	배우자	-.547**
6	끝까지 듣기	배우자	.382**	비교하는 말	나	-.532**
7	칭찬과 감사	배우자	.360**	비평이나 지적	나	-.445**
8	대면대화	나	.350**	거짓말	배우자	-.427**
9	끝까지 듣기	나	.337**	쌓인 감정 표출하기	나	-.425**
10	호칭	나	.298**	욕설이나 비속어	나	-.400**
11	합의점 찾기	배우자	.270**	가족회의 필요	상호	-.358**
12	인사하기	배우자	.266**	거짓말	나	-.323**
13	대화만족도	나	.254*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나	-.313**
14	유머 사용	나	.214*		배우자	-.207*

**p<.01, *p<.05

신혼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가 여섯 요인, 나의 행위가 일곱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나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내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해주며, 갈등의 상황에서는 먼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배우자의 말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고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말하는 것,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호칭 사용, 반응 보이며 듣기, 인사하기, 칭찬과 감사의 말하기, 끝까지 듣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족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행복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인은 대화만족도의 긍정적 요인과는 달리 배우자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이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관한 호칭이 대화만족도와는 무관하지만 행복도와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말이 서로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요소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화만족도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요인이 많았지만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대방의 대화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은 행복도와 무관하고, 갈등의 상황에서도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복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가 여섯 요인, 자신의 행위가 여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이런 유형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도 상처가 되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런 유형의 말을 하게 되면 행복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대화가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현은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은 전체 부부 집단의 결과와 동일하게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과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특히 부부 간의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느끼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어 서로 연결된 요인이다. 따라서 가족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방향을 유도하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하기,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거짓말,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3. 중년부부의 행복도 요인

부부 응답자 가운데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9>와 같이 나타난다.

<표 5-19> 중년부부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중년부부 행복도					
	긍정요소			부정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반응 보이며 듣기	나	.542**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550**
2		배우자	.523**	비교하는 말	배우자	-.425**
3	합의점 찾기	배우자	.513**	비평이나 지적	배우자	-.363**
4	대면대화	나	.507**	거짓말	배우자	-.320**
5	호칭	나	.493**	쌓인 감정 표출하기	나	-.311**
6	칭찬과 감사	나	.468**	거짓말	나	-.308**
7	인사	배우자	.460**	가족회의 필요	상호	-.261**
8		나	.454**	욕설이나 비속어	나	-.215*
9	칭찬과 감사	배우자	.454**		배우자	
10	끝까지 듣기	나	.445**	비평이나 지적	나	-.209*
11	유머 사용	나	.403**			
12	대화만족도	나	.389**			
13	호칭	배우자	.378**			
14	합의점 찾기	나	.354**			
15	끝까지 듣기	나	.354**			
16	존댓말 사용하기	배우자	.229*			

**p<.01, *p<.05

중년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가 여섯 요인, 나의 행위가 여덟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내 말에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것,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년부부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배우자의 말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말하는 것, 배우자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여유 있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배우자의 말에 반응 보이며 듣기,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것,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족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년부부의 대화만족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은 대화만족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유머 사용이 긍정적 상관요소라는 점이다. 부부의 대화에서 유머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유머가 가진 긍정적 기능 때문이다. 곧 대화를 하면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긴장을 이완시키고 경직된 생각을 유연하게 해 주며, 함께 웃음으로 인해 감정의 동질성을 느끼게 되고 서로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때문에 행복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화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가 모두 네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부부 간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는 것,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이런 유형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도 상처가 되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런 유형의 말을 하게 되면 행복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대화가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가족의 행복도를 위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현은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은 전체 부부 집단의 결과와 동일하게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는 것과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특히 부부 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또한 가족회의가

필요함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문제의 상황에서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회의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계속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하기, 거짓말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4. 노년부부의 행복도 요인

부부 응답자 가운데 노년부부를 대상으로 상관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0>과 같이 나타난다.

<표 5-20> 노년부부의 행복도 상관요소 순위

순위	노년부부 행복도					
	긍정요소			부정요소 (-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문항	행위자	상관계수
1	호칭	배우자	.570**	싸움으로 끝내기	상호	-.641**
2		나	.546**	욕설 비속어 사용	배우자	-.549**
3	인사하기	배우자	.477**	거짓말	배우자	-.532**
4	합의점 찾기	배우자	.458**	비교하는 말	나	-.504**
5	대면대화	나	.450**		배우자	-.477**
6	칭찬과 감사	나	.448**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	배우자	-.431**
7	반응 보이며 듣기	배우자	.446**	욕설 비속어 사용	나	-.396**
8	끝까지 듣기	배우자	.445**	거짓말	나	-.384**
9	반응 보이며 듣기	나	.416**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나	-.351**
10	칭찬과 감사	배우자	.409**	비평이나 지적	나	-.348**
11	대화만족도	나	.404**			
12	인사하기	나	.367**	쌓인 감정 표출하기	나	-.341**
13	합의점 찾기	나	.348**		배우자	-.243*
14	끝까지 듣기	나	.345**	가족회의 필요	상호	-.242*
15	유머 사용	나	.316**	비평이나 지적	배우자	-.053*

**p<.01, *p<.05

노년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가 여섯 요인, 나의 행위가 여덟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

는 것,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말할 때 끝까지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것,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노년부부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말하는 것,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배우자의 말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것,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스스로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은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배우자의 말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들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년부부의 대화만족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인은 전체 부부 집단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 하던 요소의 대부분과 일치하며 특히 상관 정도가 높은 요인들은 모두 대화 예절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부부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호칭에 맞추어 적합하게 불러 주고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며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배우자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가 모두 여섯 요인, 상호적인 행위가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노년부부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하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하는 것,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이런 유형의 말을 할 때 듣는 것도 상처가 되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런 유형의 말을 하게 되면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화가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현은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가 공동 행위자가 되는 것은 전체 부부 집단의 결과와 동일하게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과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특히 부부 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또한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요인은 서로 관련이 있는데 부부 사이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으로 끝나버

리게 되면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가족회의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마무리가 싸움처럼 끝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회의의 형식을 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부부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행위자와 관계없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거짓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하기,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 모두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3. 배우자와의 대화 지침

지금까지 살펴본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함께, 대화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신혼부부($\beta=.254, p<.01$), 중년부부($\beta=.389, p<.01$), 노년부부($\beta=.404, p<.01$)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하여 부부 간의 바람직한 대화 지침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2.3.1. 대화 일반

1) 대화 시간

1-1)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대화 시간이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상관요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 유형별 분석에서는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는 평균 1시간($M=3.39, p<.05$)에서 1시간 이상 대화할 때($M=3.82, p<.05$) 대화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부부는 평균 대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평균 1시간 이상 대화할 때($M=4.06, p<.001$)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년부부의 경우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균 대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부부는 하루 평균 1시간 정도($M=3.41, p<.001$)에서 1시간 이상 대화할 때($M=3.41, p<.001$) 대화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달리 개별 부부 유형에서는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대화 시간

을 살피어 1시간 이상의 대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이상적인 대화 시간

부부 간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은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부부 간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만족도[5분 미만(M=1.67)~1시간 이상(M=3.59)]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대화 시간은 부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이상적인 대화 시간은 대화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도 1시간에서 1시간 이상의 평균 대화 시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시간 자체에 대한 요구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현재와 같이 1시간 이상의 대화 시간을 유지한다면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과 일치할 수 있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중년부부는 이상적인 대화 시간으로 1시간 이상(M=3.60, $p<.05$)과 30분 정도(M=3.11, $p<.05$)가 충분하다고 나타나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노년부부는 이상적인 대화 시간으로 1시간 이상(M=3.47, $p<.05$)으로 나타나 실제 대화 시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대화 시간에 가까운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짧은 대화라도 수시로 나누어 전체적인 대화 시간을 길게 하는 것도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

대화 부족의 이유로 배우자와의 갈등(M=2.28), 배우자의 성격(M=2.40)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대화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화 시간 부족의 이유가 내 성격(M=3.08)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대화만족도는 높았다. 이에 비해 직장이나 가사일 등 부부의 일과 연관된 이유들은 상대적으로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체 부부 집단 대상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배우자와의 갈등(M=2.28), 배우자의 성격(M=2.40)이라고 응답한 경우 대화만족도가 낮았다. 또 직장 업무 때문에 대화 시간이 부족한 것은 오히려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년부부의 경우 대화 시간 부족의 이유는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에도 역시 배우자의 성격(M=2.10), 배우자와의 갈등(M=2.40)이 대화만족도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자신이 아닌 배우자 때문이라는 생각보다는 서로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며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와의 갈

등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경우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대화 환경

부부 유형의 변화에 따라 대화만족도가 점점 낮아지지만, 신혼부부는 대화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부 유형(M=3.39)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년부부의 대화만족도(M=3.06)는 부부 유형 중에 중간 정도이고 노년부부의 대화만족도(M=2.92)는 다른 부부 유형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부부 유형의 변화에 따라 대화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화제를 찾거나 대화 시간을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 대화 매체

3-1) 주된 대화 수단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대면대화(M=3.18 $p<.05$)가 이루어질 때 대화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음성언어인 전화(M=2.94 $p<.05$) 보다는 문자, 카톡, 이메일로(M=3.11 $p<.05$) 등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받을 수 있는 문자언어를 활용할 때 대화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개별 부부 유형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주된 대화 수단이 대화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관요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혼부부의 경우 대면대화와 문자·카톡·이메일 등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아 효율적으로 대화 매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비해 대면대화의 사용빈도가 낮으므로, 문자·카톡·이메일의 활용을 조금 줄이고 대면대화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대화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중년부부의 주된 대화 수단도 대면대화이고 통신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화보다는 문자·카톡·이메일 등을 월등히 높은 비율로 활용하고 있어 보조적 대화 수단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중년부부의 경우 대면대화의 비중도 높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매체도 만족도가 높은 문자·카톡·이메일 등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지속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노년부부는 다른 유형의 부부에 비해 대면대화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문자·카톡·이메일보다 전화를 활용하고 있었다. 노년부부의 경우 다른 부부 유형에 비해 대면대화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가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도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2) 속마음 털어놓기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속마음을 털어놓는 데에는 쪽지·편지(M=3.67, $p<.001$)를 가장 편한 대화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대면대화(M=3.30, $p<.001$), 문자·카톡·이메일(M=2.89, $p<.001$), 전화(M=2.70, $p<.001$), 다른 사람을 통해(M=2.00,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속마음을 털어놓기 편한 매체가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부부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편한 대화 방법으로 대면대화(M=3.18 $p<.05$)를 활용하는 것이 대화만족도가 높았으며, 문자·카톡·이메일을 활용하는 정도(M=2.78 $p<.05$)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중년부부의 경우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방법인 쪽지·편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에는 대면대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쪽지나 편지와 같은 손글씨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 보는 것도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노년부부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편한 대화 방법으로 대면대화(M=3.13, $p<.05$)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부부 유형에 비해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자·카톡·이메일을 활용하는 정도(M=2.68 $p<.05$)는 다른 부부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화만족도가 가장 낮은 다른 사람을 통한다는 응답(M=1.50, $p<.05$)도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4) 대화 장면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부부가 평소에 수시로(M=3.47, $p<.01$) 대화를 나누거나 잠들기 전(M=3.31, $p<.01$)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와 중년부부의 경우는 대화 장면이 대화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와 중년부부의 경우 현재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거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장면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부부는 수시로(M=3.52, $p<.05$) 대화할 때 대화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밥을 먹거나(M=2.63, $p<.05$), TV를 보거나(M=2.80, $p<.05$), 잠들기 전(M=2.56, $p<.05$)에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다른 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대화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대화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시간을 정해 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부부 간에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5) 대화 불만족 요인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화 내용(M=2.80)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가 대화 만족도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시하는 태도(M=2.94), 짜증 섞인 말투(M=3.00), 대화 스타일(M=3.00)보다도 대화만족도를 더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별 부부 유형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혼부부의 경우 짜증 섞인 말투(M=3.05)와 무시하는 태도(M=3.25)가 대화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중년부부의 경우는 대화에 불만족하는 부분이 대화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는 대화 내용(M=2.60), 무시하는 태도(M=2.62), 짜증 섞인 말투(M=2.82) 등이 나타났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의 내용보다 말투나 태도가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대화 내용이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대화 내용을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화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짜증내고 화를 내는 등의 태도는 대화를 하면서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태도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부부 간의 대화에서는 대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같은 태도도 대화만족도에는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 신체 접촉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은 대화만족도($\beta=.416, p<.01$)와 행복도($\beta=.444, p<.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보다는 상관 정도가 낮지만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신이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는 정도($\beta=.392, p<.01$)는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요소 중에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행복도에도 긍정적인 영향($\beta=.350, p<.01$)을 미치는 요소이다. 중년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는 정도는 대화만족도($\beta=.333, p<.01$)와 행복도($\beta=.507, p<.01$)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복도와의 상관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노년부부는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는 정도는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화만족도($\beta=.232, p<.05$)보다는 행복도($\beta=.450, p<.01$)와 더 큰 상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는 서로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상대방이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요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혼인기간이 점차 증가하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3.2. 긍정적 요소

1) 대화 예절

1-1) 대화의 주도권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beta=.131, p<.05$)이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년부부와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무관한 요소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beta=.321, p<.05$)이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부부가 모두 대화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 일방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슷하게 화자가 되는 기회를 나누어 가질 때 대화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화자가 되는 기회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1-2) 인사하기

부부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것은 부부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438, p<.01$)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397, p<.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438, p<.01$)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430, p<.01$)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대화만족도($\beta=.246, p<.05$)와 행복도($\beta=.266, p<.01$)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행복도($\beta=.430, p<.01$)에만 상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년부부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246, p<.05$)보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인사를 할 때($\beta=.423, p<.01$) 대화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의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행복도에서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454, p<.01$)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454, p<.01$)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년부부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202, p<.05$)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

는 것($\beta=.270, p<.01$)이 대화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에서도 자신이 배우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367, p<.01$)보다는 배우자가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beta=.477, p<.01$)이 더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부부가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은 대화만족도뿐만 아니라 행복도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며, 특히 자신이 먼저 인사를 하는 예절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1-3) 호칭

① 호칭 만족도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만족하는 정도는 서로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마음에 드는 정도($\beta=.483, p<.01$)가 자신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이 마음에 드는 정도($\beta=.468, p<.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도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마음에 드는 정도($\beta=.509, p<.01$)가 자신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이 마음에 드는 정도($\beta=.463, p<.01$)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신혼부부의 경우, 호칭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만족도와는 무관하지만 행복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부르는 말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beta=.298, p<.001$)보다는 배우자가 나를 부르는 말이 마음에 드는 것($\beta=.516, p<.001$)이 행복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관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년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beta=.373, p<.01$)와 자신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beta=.363, p<.01$)는 모두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높은 상관성을 가진 것이다. 호칭은 행복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beta=.378, p<.01$)보다 자신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beta=.493, p<.01$)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에도 호칭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대화만족도에는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beta=.268, p<.01$)보다 자신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beta=.355, p<.01$)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행복도에서는 내가 부르는 말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beta=.546, p<.001$)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부르는 말이 마음에 드는 것($\beta=.570, p<.001$)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호칭은 행복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인데 배우자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화만족도에는 자신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관요소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듣고 싶어 하는 호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대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행복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나를 부르는 호칭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으로 자기(M=3.53), 여보(M=3.18)로 나타날 때 대화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칭이 없거나(M=2.67) 야/너/어이/이봐 등의 호칭(M=2.42)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화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신혼부부는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으로 자기와 여보를 사용할 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년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으로 여보, 자기와 더불어 (자녀이름) 아빠, 엄마를 사용하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를 부를 때 대화 예절에 알맞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년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으로 자기보다는 여보를 사용할 때 만족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 (자녀이름) 아빠, 엄마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부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자기, 여보의 순으로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노년부부의 경우 현재의 호칭 사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대화만족도와 행복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1-4) 존댓말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존댓말은 대화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beta=.165, p<.05$)보다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beta=.175, p<.05$)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존댓말은 중년부부의 경우에만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에게 사용하는 존댓말($\beta=.229, p<.05$)이 행복도에 영향을 주었다. 부부 사이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존댓말 사용이 오히려 서로의 관계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존댓말 사용은 언어를 통해 상대방을 대접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대화 예절을 지키는 것은 중년부부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

2) 대화 내용

2-1) 칭찬과 감사

전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할수

록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beta = .439, p < .01$)보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beta = .451, p < .01$)이 대화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도에서도 자신이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beta = .453, p < .01$)이 배우자가 자신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beta = .427, p < .01$)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칭찬과 감사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말할수록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신혼부부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하는 칭찬과 감사는 대화만족도($\beta = .215, p < .01$)와 행복도($\beta = .260, p < .01$)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배우자가 하는 칭찬과 감사는 행복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beta = .260, p < .01$)이다. 중년부부의 경우 칭찬과 감사는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화만족도에서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것($\beta = .253, p < .01$)보다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것($\beta = .291, p < .01$)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행복도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것($\beta = .454, p < .01$)보다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것($\beta = .468, p < .01$)이 더욱 긍정적인 상관요소이다. 칭찬이나 감사는 배우자에게 자신이 말할 때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중년부부와 대화만족도에서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것($\beta = .376, p < .01$)이 자신이 배우자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것($\beta = .355, p < .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행복도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것($\beta = .409, p < .01$)보다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것($\beta = .448, p < .01$)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칭찬이나 감사는 부부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요소가 되어 행복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특히 노년부부는 다른 부부 유형에 비해 칭찬과 감사를 사용하는 정도가 낮게 조사되었는데 칭찬과 감사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의 정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이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먼저 칭찬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의 대화만족도와 더불어 행복도까지 더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이 된다.

2-2) 유머 사용

전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머를 많이 사용할수록 대화만족도($\beta = .312, p < .01$)와 행복도($\beta = .331, p < .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대화만족도($\beta = .371, p < .01$)와 행복도($\beta = .214, p < .01$)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화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부부의 경우 자신이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행복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beta=.214, p<.01$)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는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대화만족도($\beta=.245, p<.01$)와 행복도($\beta=.316, p<.01$)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긴장을 이완하고 서로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여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좀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머 사용을 통해 함께 웃는 감정의 공유는 웃음을 통해 서로 즐거움이라는 정서를 나누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돈독한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부부 간에 긍정적인 유머를 많이 사용하면 가족의 행복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갈등 처리

3-1) 합의점 찾기

전제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분석에서는 부부가 서로 대화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수록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352, p<.01$)이 자신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322, p<.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행복도에서는 자신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308, p<.01$)보다도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419, p<.01$)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신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beta=.260, p<.01$)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beta=.270, p<.01$)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년부부의 경우 합의점 찾기는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354, p<.01$)은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도에서는 자신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354, p<.01$)보다는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513, p<.01$)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노년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서는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206, p<.05$)보다 자신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242, p<.05$)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행복도에서는 자신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348, p<.01$)보다는 배우자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beta=.458, p<.01$)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갈등의 상황에서 부부 모두 자기가 생각하는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평가 한 후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배우자보다도 자신이 먼저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 부부 사이의 행복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4) 듣기

4-1) 끝까지 듣기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수록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데, 자신이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beta=.386, p<.01$)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beta=.433, p<.01$)이 대화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신이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beta=.360, p<.01$)보다도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beta=.429, p<.01$)이 행복도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beta=.213, p<.05$)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행복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beta=.337, p<.01$)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beta=.382, p<.001$)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년부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와는 달리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beta=.239, p<.05$)만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beta=.354, p<.01$)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beta=.445, p<.001$)이 상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에서 자신이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beta=.219, p<.05$)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beta=.310, p<.01$)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도에서도 자신이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beta=.345, p<.01$)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beta=.445, p<.001$)이 더 높은 상관요소로 나타나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을수록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내가 먼저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배우자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4-2) 반응 보이며 듣기

전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자신이 배우자를 이해하는 반응을 하며 듣는 것($\beta=.400, p<.01$)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이해하는 반응을 하며 듣는 것($\beta=.409, p<.01$)이 대화만족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행복도에도 자신이 배우자를 이해하는 반응을 하며 듣는 것($\beta=.482, p<.01$)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이해하는 반응을 하며 듣는 것($\beta=.495, p<.01$)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신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듣는 것($\beta=.222, p<.05$)이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것($\beta=.213, p<.05$)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응 보이며 듣기는 행복도와도 상관성이 있는데, 행복도에서는 자신이 이해한다는 반응

을 보이면서 말을 듣는 것($\beta=.445, p<.01$)보다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것($\beta=.498, p<.01$)이 더 큰 상관성을 가지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듣는 것은 중년부부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신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듣는 것($\beta=.244, p<.05$)이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것($\beta=.236, p<.05$)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에 서도 자신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듣는 것($\beta=.542, p<.01$)이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것($\beta=.523, p<.01$)보다 더 상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응 보이면서 듣기는 특히 중년부부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에도 반응 보이면서 듣기는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런데 노년부부의 경우 자신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듣는 것($\beta=.261, p<.01$)이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것($\beta=.390, p<.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행복도에는 배우자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듣는 것($\beta=.446, p<.01$)이 자신이 배우자의 말에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것($\beta=.416, p<.01$)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말에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태도가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대화에서 듣기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반응 보이면서 듣기는 행복도와 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말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 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2.3.3. 부정적 요소

1) 대화 예절

1-1) 비평이나 지적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부부의 대화만족도($\beta=-.281, p<.01$)와 행복도($\beta=-.325, p<.01$)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비평이나 지적은 행복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평이나 지적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beta=-.445, p<.01$)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beta=-.665, p<.01$)이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가 자신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행복도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년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배우자가 자신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beta=-.363, p<.01$)이 자신이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beta=-.209, p<.05$)보다 행복도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경향이 조금 다르지만 비평이나 지적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화만족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beta = -.257, p < .01$)이 배우자가 자신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beta = -.183, p < .05$)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beta = -.348, p < .01$)이 배우자가 자신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것($\beta = -.053, p < .05$)보다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부끼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부당한 비난이나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은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비평이나 지적을 하는 정도를 줄이고 가정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욕설이나 비속어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배우자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229, p < .01$)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199, p < .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행복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337, p < .01$)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446, p < .01$)이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신혼부부의 경우,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은 누가 사용했는가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화만족도에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207, p < .05$)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행복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400, p < .01$)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547, p < .01$)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부부의 경우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은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화만족도에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063, p < .05$)보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253, p < .01$)이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행복도에는 자신과 배우자가 서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동일한 비중($\beta = -.215, p < .05$)의 상관요소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는 신혼부부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배우자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219, p < .05$)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396, p < .01$)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beta = -.549, p < .01$)이 더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 간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일이다. 스스로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자신의 대화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족의 행복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2) 대화 내용

2-1) 비교하는 말

배우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beta = -.342, p < .01$)은 자신이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beta = -.271, p < .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행복도에서도 자신이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beta = -.422, p < .01$)보다 배우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beta = -.522, p < .01$)이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신이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beta = -.269, p < .01$)이 배우자가 자신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beta = -.260, p < .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beta = -.445, p < .01$)은 행복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년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대화만족도($\beta = -.425, p < .01$)와 행복도($\beta = -.202, p < .01$)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대화만족도나 행복도와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beta = -.226, p < .05$)은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배우자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beta = -.504, p < .01$)이 배우자가 자신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beta = -.477, p < .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교하는 말은 노년으로 갈수록 그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노년부부의 대화에서는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자제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이는 적절한 방법이 된다. 비교하는 말은 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할 때 나타나는 말이다. 특히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어 행복도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부 대화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대화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며, 서로의 행복도도 함께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2-2) 자신의 노력이나 공 드러내기

배우자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것은 대화만족도($\beta = -.412, p < .01$)와 행복도($\beta = -.482,$

$p < .01$)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것은 대화만족도($\beta = -.257, p < .01$)와 행복도($\beta = -.596, p < .01$)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부부의 경우는 배우자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것($\beta = -.262, p < .01$)이 대화만족도에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는 것은 대화만족도($\beta = -.373, p < .01$)와 행복도($\beta = -.431, p < .01$)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화만족도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로 나타나 노년부부의 대화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자신의 노력이나 공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노력이나 공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3) 거짓말 사용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배우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332, p < .01$)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284, p < .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도에서도 자신이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336, p < .01$)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437, p < .01$)이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거짓말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와는 무관한 요소로 나타났지만 행복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323, p < .01$)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427, p < .01$)이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년부부의 경우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에 따라 각각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199, p < .01$)은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320, p < .01$)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거짓말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289, p < .01$)은 대화만족도에만 관련된 요인이고, 행복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384, p < .01$)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beta = -.532, p < .01$)이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거짓말은 순간적인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기 방어적인 거짓말이라도 배우자의 거짓말은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은 말하지 말고 대화의 격률 가운데 질의 격률을 지켜서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의 말을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의심하는 태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3) 갈등 처리 방식

3-1) 가족회의 필요

전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대화만족도($\beta = -.197, p < .01$)와 행복도($\beta = -.250, p < .01$)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별 부부 유형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행복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beta = -.358, p < .01$)가 행복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혼부부는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가족회의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곧 서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년부부는 신혼부부보다는 가족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beta = -.261, p < .01$)가 낮게 나타났지만 노년부부가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beta = -.242, p < .01$)보다는 행복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서로의 대화가 불편하고 따라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회의와 같은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시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2) 싸움으로 끝나기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는 전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대화만족도($\beta = -.473, p < .01$)와 행복도($\beta = -.617, p < .01$)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beta = -.267, p < .01$), 중년부부($\beta = -.356, p < .01$), 노년부부($\beta = -.308, p < .01$) 모두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정도는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혼부부($\beta = -.637, p < .01$), 중년부부($\beta = -.550, p < .01$), 노년부부($\beta = -.641, p < .01$)의 행복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년부부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갈등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합의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화의 내용이나 말하는 태도 등을 잘 조절해서 상대방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3) 쌓인 감정 표출하기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쌓인 감정 표출하기는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342, p < .01$)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268, p < .01$)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행복도에서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365, p < .01$)이 배우자가 자신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321, p < .01$)보다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197, p < .01$)만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행복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425, p < .01$)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568, p < .01$)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년부부의 경우에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311, p < .01$)만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년부부의 경우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부부의 양상은 신혼부부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자신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250, p < .01$)만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행복도에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341, p < .01$)이 배우자가 자신에게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beta = -.243, p < .01$)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이전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일들을 다 끌어 내어서 한꺼번에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쌓인 감정을 한 번에 모두 표출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분노와 적개심만 키우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의 상황에서는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4)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갈등이나 의견 충돌 회피는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회피하는 것($\beta = -.145, p < .05$)은 자신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회피하는 것($\beta = -.148, p < .05$)보다 대화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행복도에서는 자신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회피하는 것($\beta = -.265, p < .01$)이 배우자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회피하는 것($\beta = -.219, p < .01$)보다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신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회피하는 것($\beta = -.426, p < .01$)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행복도에서는 자신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회피하는 것($\beta = -.313, p < .01$)이 배우자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회피하는 것($\beta = -.207, p < .05$)보다 상

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년부부의 경우에는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대화만족도나 행복도와 무관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노년부부의 경우에는 자신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회피하는 것($\beta = -.351, p < .01$)만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관요소로 나타났다. 갈등은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의 상황을 문제 해결의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생산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듣기

4-1) 듣기 싫은 말

전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듣기 싫은 말은 배우자의 거짓말($M=1.50$),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M=2.78$), 자녀에 대한 불평($M=2.33$)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M=3.44$),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M=3.19$),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M=3.09$) 등은 상대적으로 부부의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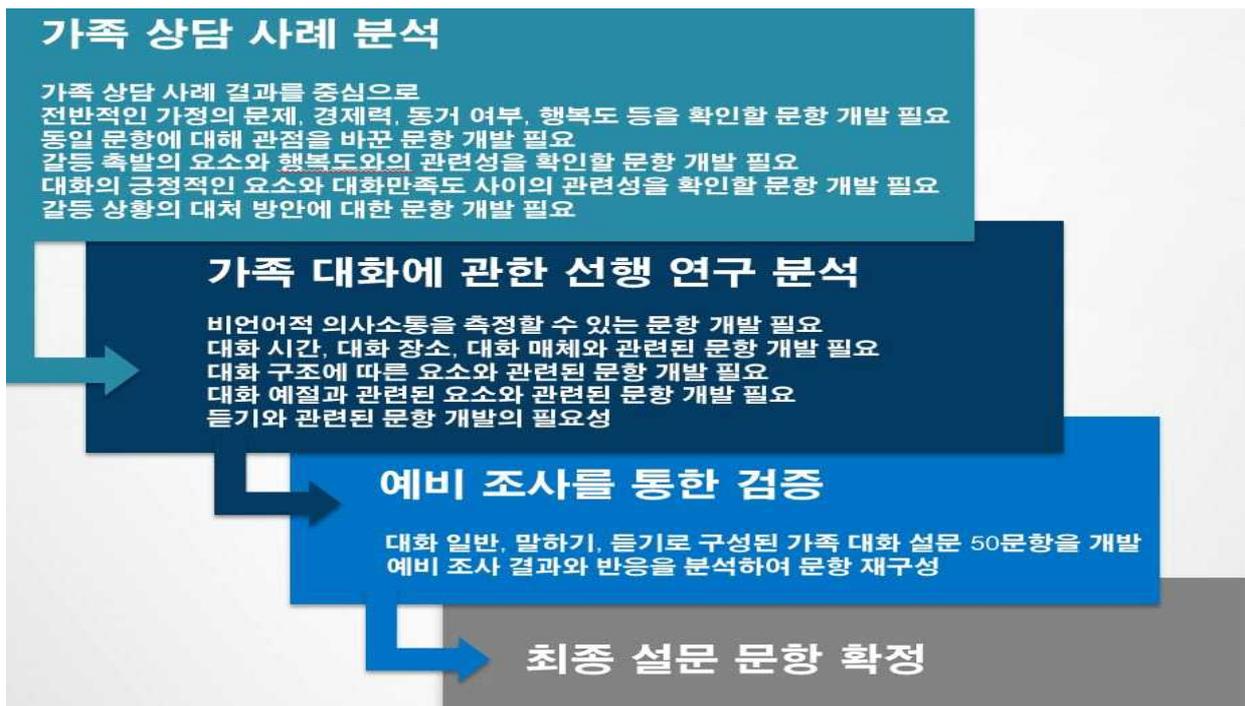
듣기 싫은 말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만 대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M=2.91$),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M=3.18$)이 대화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친정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M=3.50$),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M=3.52$)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요인은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서투른 가사능력이나 부족한 경제능력 등의 현실적인 이유가 대화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 인정해주고 격려함으로써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I.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로 인한 가정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가족 간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 내 화법의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가족 대화를 위해 대화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정 내 대화 전략과 가정 내 대화법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의 안정과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말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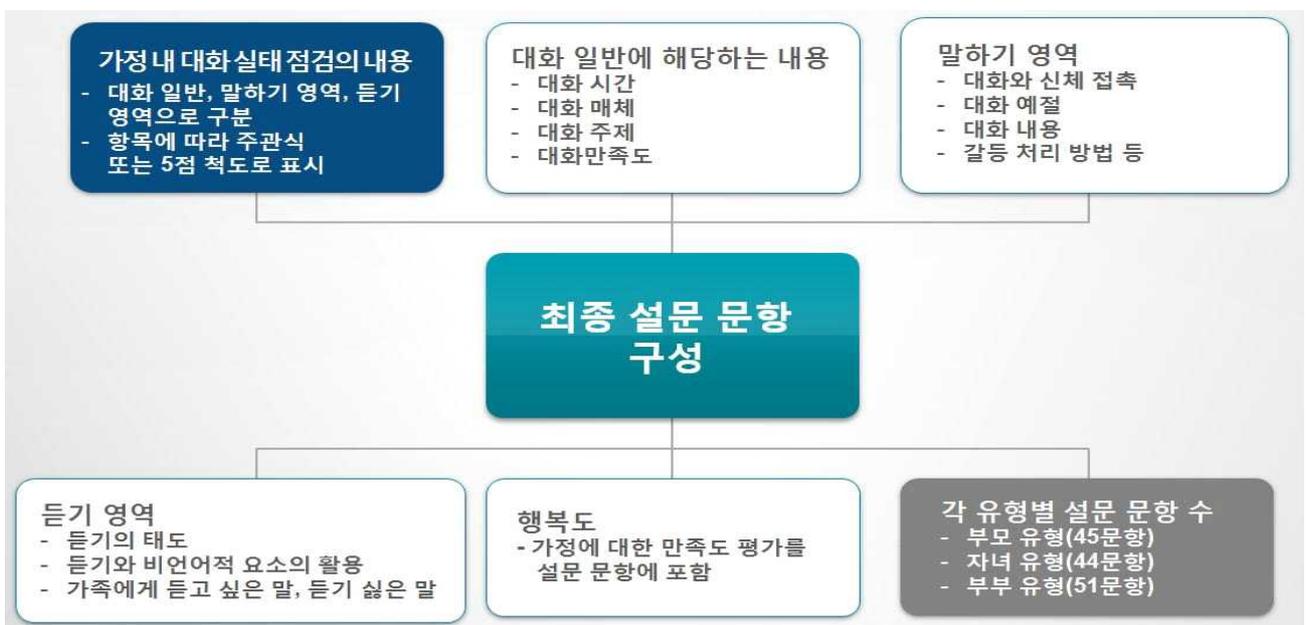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가족 화법의 대상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와 신혼부터 노년까지의 부부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은 첫째, 화법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는 것, 둘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족 대화의 실태를 밝히는 것, 셋째, 부모-자녀 대화와 부부 대화 각각의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 넷째,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설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가족 상담 사례 분석, 가족 대화 선행 연구 분석, 구글 닥스(Google Docs)를 활용한 예비 조사를 통한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 내 대화 실태 점검의 내용을 크게 대화 일반에 관한 내용과 말하기 영역, 듣기 영역으로 나누고 항목에 따라 주관식, 또는 5점 척도 중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 2) 대화 일반에서는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대화 매체, 대화 장면, 대화 주제, 대화만족도에 관한 것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 3) 말하기 영역에서는 대화와 시선에 관한 것, 대화 유형에 관한 것, 대화 예절(욕설 또는 비속어 사용, 호칭, 인사하기, 존댓말 사용 등)에 관한 것, 대화 내용에 관한 것, 갈등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 4) 듣기 영역에서는 듣기의 수준에 관한 것, 듣기 태도에 관한 것,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등에 관한 것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 5) 응답자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행복도 정도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6) 설문의 응답자는 부모 100명, 자녀 200명(초등학생 100, 중고등학생 100), 부부 300명(신혼부부 100, 중년부부 100, 노년부부 100)의 총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 조사

- 구글 닥스(Google Doc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에 관한 기능 활용
- 2014년 5월 13일~20일까지 실시
- 부모 유형 37개, 자녀 유형 41개, 부부 유형 34개의 유효 표본 확보
- 설문 조사대상
 - 부모-자녀, 자녀-부모 유형의 기준 :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들
 - 부부 유형의 기준: 결혼 기간과 연령, 신혼-중년-노년부부 대상

본 조사

-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 무작위 표본 표집 방법을 이용 온라인 조사 실시
- 2014년 7월 8일부터 22일까지
- 한 문항씩 순차적으로 설문 진행
 - 부모-자녀 유형 100개, 자녀-부모 유형 200개, 부부 유형 300개 등 총 600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

1. 가족 대화의 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가족 대화의 실태를 대화 일반과 말하기, 듣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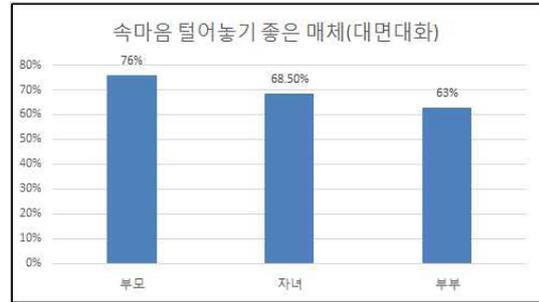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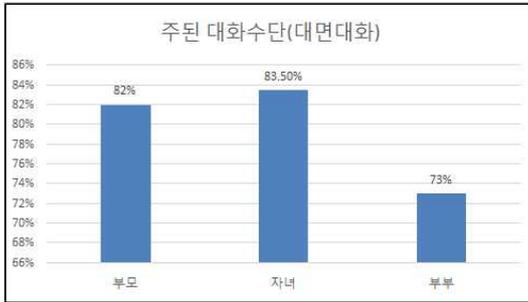
1.1. 대화 일반

1) 대화 시간

- (1)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부모, 자녀, 부부 모두 30분 정도이다.
- (2) 이상적인 대화 시간은 부모, 자녀, 부부 모두 한 시간 정도이다.
- (3) 대화부족 이유는 부모의 경우 직장 업무, 자녀의 경우 자신의 공부와 부모님의 일, 부부의 경우 직장 업무 때문이다.

2) 대화 매체

- (1) 주된 대화 수단은 부모, 자녀, 부부 모두 대면대화이다.
- (2) 속마음 털어놓기에 좋은 대화 매체도 부모, 자녀, 부부 모두 대면대화이다.



3) 대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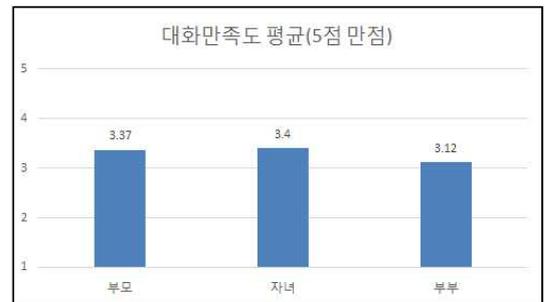
부모는 수시로(44%), 자녀는 밥 먹으면서(33%)와 수시로(32.5%), 부부는 주로 밥을 먹으면서(34%) 대화한다.

4) 대화 주제

- (1) 주된 대화 주제는 부모와 자녀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과 경제 문제이다.
- (2) 대화 수준은 부모의 경우 내 진심과 필요를 이야기하는 1단계 대화, 부부의 경우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는 3단계 대화를 한다.

5) 대화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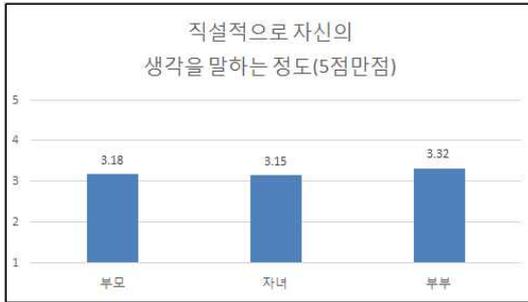
- (1) 대화만족도 평균은 부모 3.37/5, 자녀 3.40/5, 부부 3.12/5로 나타나서 가족 중에서도 부부의 대화만족도가 낮았다.
- (2) 대화 불만족 요인은 부모의 경우 짜증 섞인 말투와 대화 시간, 자녀의 경우 화내는 태도와 짜증 섞인 말투, 부부의 경우 짜증 섞인 말투와 대화 내용이 높게 나타났다.



1.2.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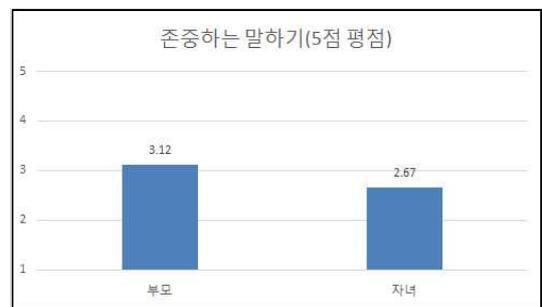
1) 대화 예절

- (1)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정도의 평균값은 부모 3.18, 자녀 3.15, 부부 3.32로 나타났다.
- (2) 비평이나 지적하기의 평균값은 부모 3.10, 자녀 2.43, 부부 3.0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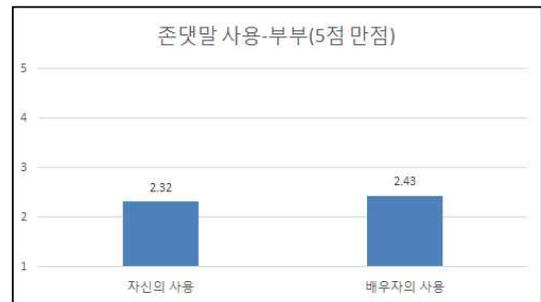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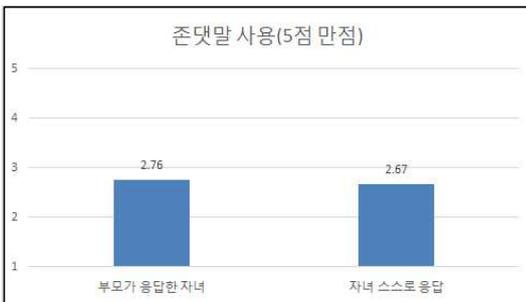


(3) 인사하기의 평균값은 부모 3.87, 자녀 3.93, 부부 3.7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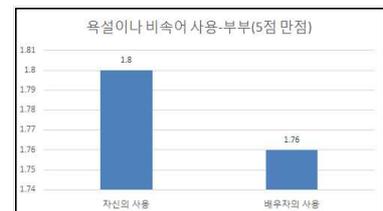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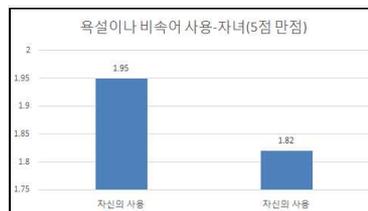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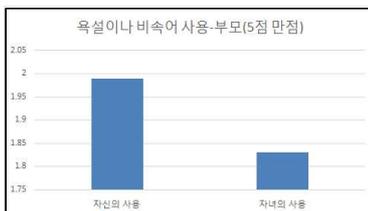
(4) 존중하는 말하기의 평균값은 부모 3.12, 자녀 2.67로 나타났다.



(5) 존댓말 사용의 평균값은 부모가 응답한 자녀는 2.76, 자녀 스스로 응답한 것은 2.67, 부부는 자신이 사용 2.32, 배우자가 사용은 2.4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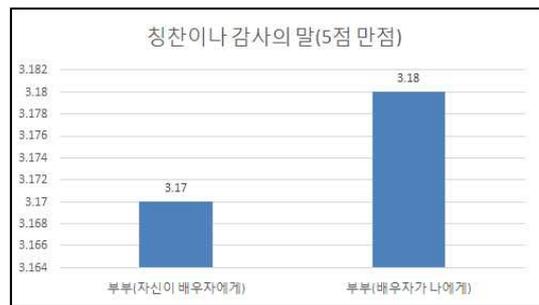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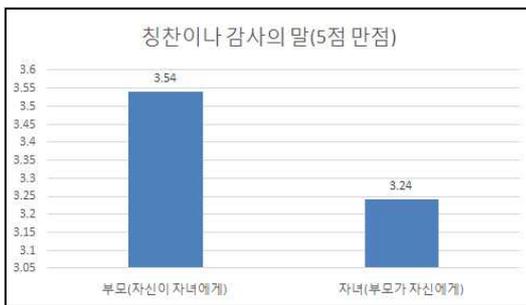
(6)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의 평균값은 부모의 응답 중 자신이 사용 1.99, 자녀가 사용 1.83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응답 중 부모가 사용 1.95, 자신이 사용 1.82로 나타났으며, 부부의 응답 중 자신이 사용 1.80, 배우자가 사용 1.7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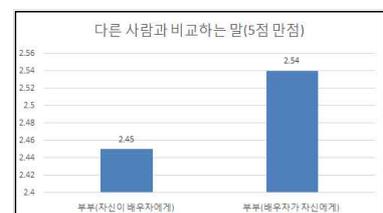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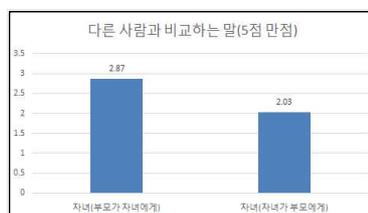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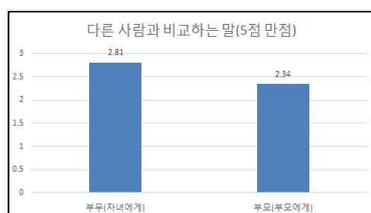
- (7)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이유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화가 나서이다’와 ‘습관이다’, 자녀의 경우 ‘습관이다’와 ‘친하기 때문이다’, 부부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친하기 때문이다’와 ‘화가 나서이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것은 ‘습관이다’와 ‘화가 나서이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8) 얼굴 보며 말하는 것이 불편한 정도(부정치)는 부모-자녀의 경우 2.13. 부부의 경우 얼굴을 보며 말하는 정도(긍정치)가 3.66으로 나타났다.
- (9) 부부의 호칭은 여보 > 자기 > (자녀 이름) 아빠, 엄마 > 이름 > 오빠 > 애칭이나 별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신혼부부는 자기와 여보, 중년부부와 노년부부는 여보와 (자녀 이름) 아빠, 엄마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호칭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경우 3.65, 배우자의 경우 3.67로 나타났다.

2) 대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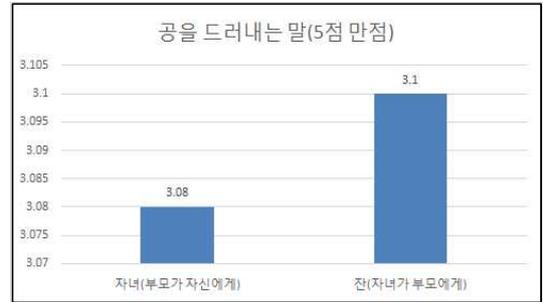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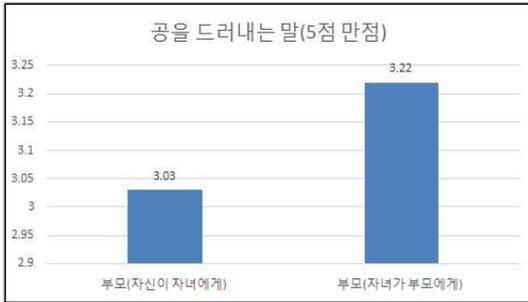
- (1) 칭찬이나 감사의 말은 부모의 경우 자신이 자녀에게 3.54, 자녀가 부모에게 3.22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신에게 3.24, 자녀가 부모에게 3.03, 부부의 경우 자신이 배우자에게 3.17, 배우자가 나에게 3.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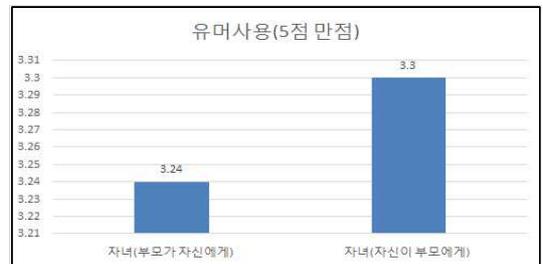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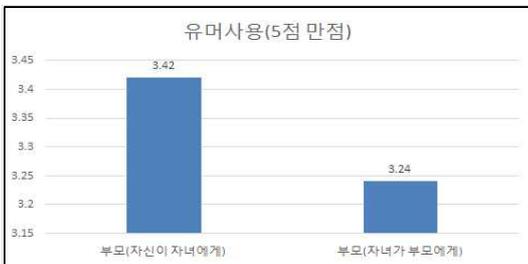
- (2)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은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2.81, 자녀가 부모에게 2.34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2.87, 자녀가 부모에게 2.03, 부부의 경우 자신이 배우자에게 2.45, 배우자가 나에게 2.5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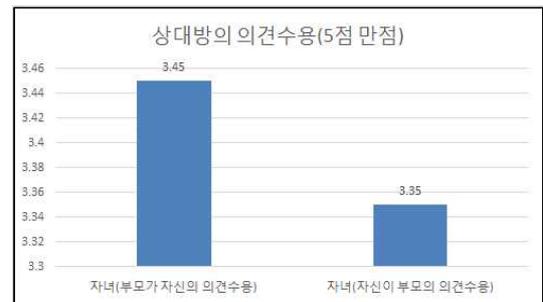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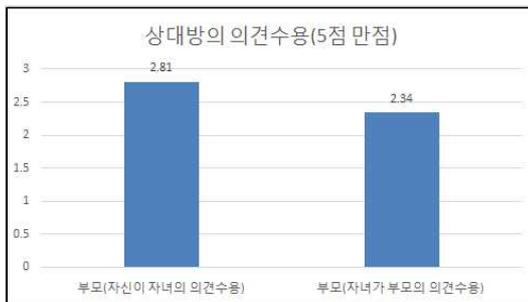
- (3)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은 부모의 경우 자신이 자녀에게 3.03, 자녀가 부모에게 3.22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신에게 3.08, 자녀가 부모에게 3.10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배우자가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하면 짜증이 나는 정도가 2.8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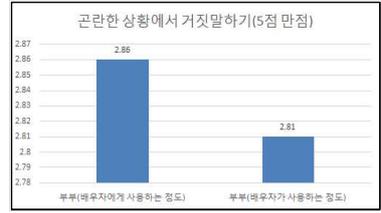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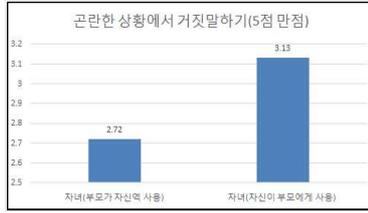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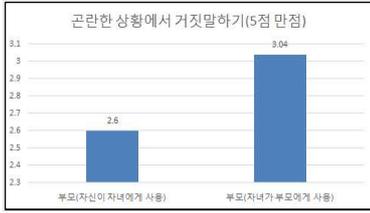
(4) 유머 사용은 부모의 경우 자신이 자녀에게 사용한다가 3.42, 자녀가 부모에게 사용한다가 3.24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신에게 사용한다가 3.24, 자신이 부모에게 3.30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정도가 3.18로 나타났다.



(5) 상대방의 의견 수용은 부모의 경우 자신이 자녀의 의견을 수용한다가 2.81, 자녀가 수용한다가 2.34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수용한다가 3.45, 자신이 수용한다가 3.3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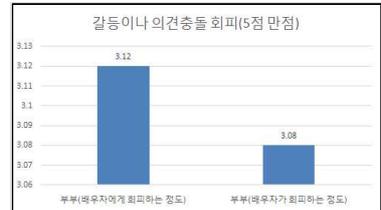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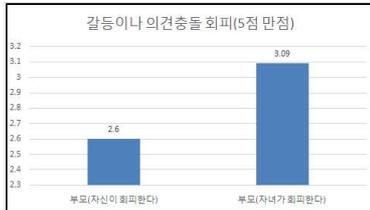


(6) 곤란한 상황에서 거짓말하기는 부모의 경우 자신이 자녀에게 사용한다가 2.60, 자녀가 부모에게 사용한다가 3.04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신에게 사용한다가 2.72, 자신이 부모에게 3.13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정도가 2.86, 배우자가 사용하는 정도가 2.8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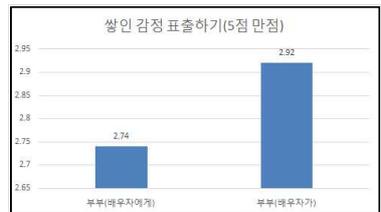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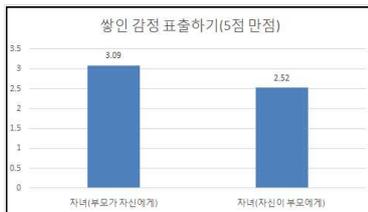


3) 갈등 처리 방법

(1)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있으면 회피하는 것은 부모의 경우 자신이 회피한다가 2.60, 자녀가 회피한다가 3.09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우 부모가 회피한다가 2.54, 자신이 회피한다가 3.16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회피하는 정도가 3.12, 배우자가 회피하는 정도가 3.0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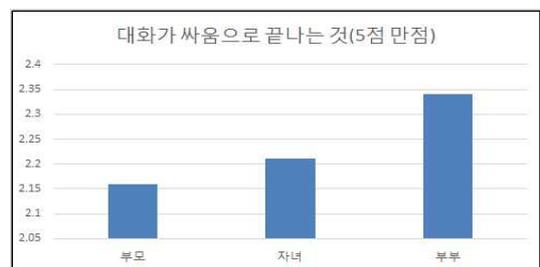


(2) 화가 나면 과거의 일까지 모두 이야기해서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부모의 경우 자신이 자녀에게 표출한다가 2.83, 자녀가 부모에게 표출한다가 2.56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신에게 표출한다가 3.09, 자신이 부모에게 2.52로 나타났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표출하는 정도가 2.74, 배우자가 표출하는 정도가 2.92로 나타났다.



(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모 3.33, 자녀 3.03, 부부 3.03으로 나타났다.

(4)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부모 2.16, 자녀 2.21, 부부 2.34로 나타났다.



1.3. 듣기

1)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 (1) 부모의 경우 자신이 경청한다가 3.64, 자녀가 경청한다가 3.50으로 나타났다.
- (2) 자녀의 경우 부모가 경청한다가 3.19, 자신이 경청하는 것은 3.43으로 나타났다.
- (3) 부부의 경우 자신이 경청하는 정도가 3.42, 배우자가 경청하는 정도가 3.3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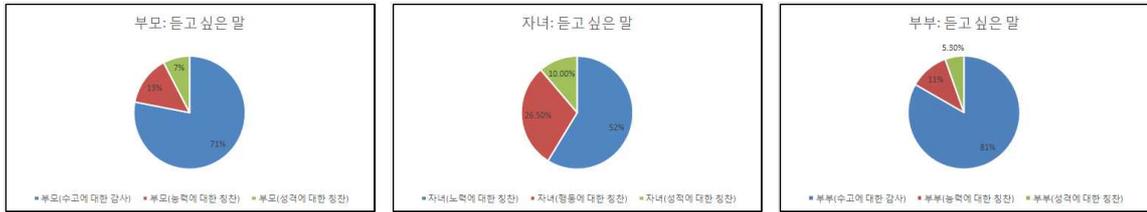
2) 이해하는 반응 보이며 듣기

- (1) 부모의 경우 자신이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가 3.70, 자녀가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가 3.51로 나타났다.
- (2) 자녀의 경우 부모가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가 3.25, 자신이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가 3.51로 나타났다.
- (3) 부부의 경우 자신이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가 3.48, 배우자가 반응을 보이며 듣는 정도가 3.4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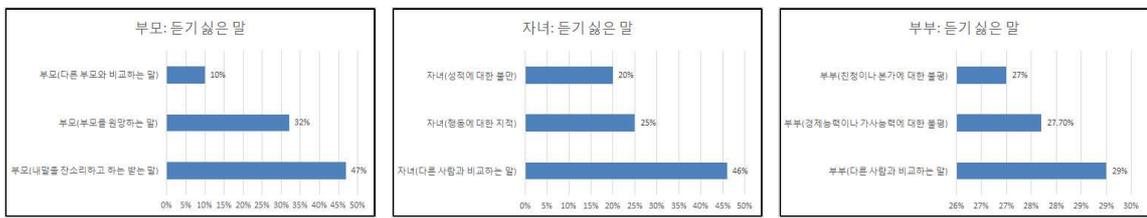
3) 듣고 싶은 말

- (1)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은 수고에 대한 감사(71%) > 능력에 대한 칭찬(13%) > 성격에 대한 칭찬(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2)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노력에 대한 칭찬(52.0%) > 행동에 대한 칭찬(26.5%) > 성적에 대한 칭찬(10.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3)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은 수고에 대한 감사(81.0%) > 능력에 대한 칭찬(11.0%) > 성격에 대한 칭찬(5.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4) 듣기 싫은 말

- (1)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은 내 말을 잔소리라고 받는 말(47%) > 부모를 원망하는 말(32%) > 다른 부모와 비교 불평하는 말(10%)의 순서로 나타났다.
- (2) 자녀가 부모에게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46.0%) > 행동에 대한 지적 (25.0%) > 성적에 대한 불만(20.0%)로 나타났다.
- (3) 배우자에게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29.0%) > 경제능력이거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27.7%) > 친절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27.0%) 등으로 나타났다.



2. 바람직한 가족 대화를 위한 지침

통계 분석을 통해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별 대화 지침을 20계명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부모와의 대화 지침 (자녀용)

- 1) 아버지와는 하루 평균 30분 정도, 어머니와는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하세요.
- 2) 부모님께 나의 느낌이나 기분, 진심과 필요를 전달하세요.
- 3) 부모님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세요.
- 4) 가족끼리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 5) 부모님께 칭찬이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자주 하세요.

- 6) 부모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세요.
- 7) 대화 하면서 유머를 사용하세요. 특히 어머니가 행복해 하십니다.
- 8) 부모님이 유머를 사용하시면 즐겁게 받으면서 호응해 주세요.
- 9) 부모님께 비평이나 지적을 하기에 앞서 부모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주세요.
- 10)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세요.
- 11) 부모님이 말씀 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 12)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하고 받지 마세요. 부모님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다.
- 13) 짜증 섞인 말투로 대화하지 마세요.
- 14)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 15)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특히 아버지는 거짓말에 매우 민감하십니다.
- 16) 부모님을 닮고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 17) 화가 나더라도 과거의 잘못까지 이야기하면서 쌓인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 18)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대화를 끝내지 마세요.
- 19) 갈등이 있거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 20)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 가족회의를 제안하세요.

2.2. 자녀와의 대화 지침 (부모용)

- 1) 아들과는 하루 평균 30분 정도, 딸과는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세요.
- 2) 하루 일과나 학교생활 등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하세요.
- 4) 가족끼리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 5) 자녀의 노력과 행동에 대해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 6) 자녀가 나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면 기쁘게 받아주세요.
- 7) 대화하면서 유머를 사용하세요.
특히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입니다.
- 8) 자녀가 유머를 사용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입니다.
- 9) 자녀의 의견에 대해 비평이나 지적을 하기에 앞서 최대한 수용해 주세요.
- 10)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 11) 자녀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주세요.
- 12) 자녀에게 화가 났을 때, 또는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 13) 화를 내는 듯한 태도나 짜증 섞인 말투로 대화하지 마세요.
- 14) 자녀에게 다른 자녀나 친구와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 15) 곤란한 상황이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는 민감하게 느낍니다.
- 16) 자녀가 거짓말을 하면 대화 분위기를 풀어주어서 문제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17) 화가 나더라도 과거의 잘못까지 이야기하면서 쌓인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 18)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대화를 끝내지 마세요.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에는 민감하게 느낍니다.
- 19)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 회피하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하기 위해 조율해야 합니다.
- 20)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 가족회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에게 효과적입니다.

2.3. 부부 대화 지침

- 1) 하루 평균 한 시간 이상 대화하세요.
- 2) 문자, 카톡 등의 수단보다 대면대화가 좋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을 때는 쪽지나 편지를 활용하는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3) 얼굴을 보면서 비언어적 요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세요.
- 4) 가족끼리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 5) 배우자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해주세요.
- 6) 수시로 대화하거나, 잠들기 전에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나 노년부부는 잠들기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7) 대화하면서 유머를 사용하세요.
- 8) 배우자가 듣고 싶어 하는 호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대로 불러주세요.
상대를 부를 때는 '자기'와 '여보'의 대화만족도가 높습니다.
- 9) 배우자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하기에 앞서 최대한 수용해 주세요.
- 10)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들어주세요.
- 11) 배우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세요.
- 12) 욕설이나 비속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 13) 대화 내용을 잘 선택하고, 무시하는 태도나 짜증 섞인 말투로 대화하지 마세요.
- 14)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 15) 곤란한 상황이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 16)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마세요. 특히 노년부부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17) 화가 나더라도 과거의 잘못까지 이야기하면서 쌓인 감정을 표출하지 마세요.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8)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대화를 끝내지 마세요.
특히 중년 이후 부부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19)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회피하지 마세요.
- 20) 갈등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2.3. 가족 대화 수행 평가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대화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족 대화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서식을 개발하였다.

2.3.1. 가족 대화 수행 평가 - 자녀용

01. 나는 하루 평균 30분 이상 부모와 대화를 한다.(+)
02. 나는 부모님께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한다.(-)
03. 나는 부모님과 나의 진심이나 필요를 이야기한다.(+)
04. 나는 부모님과 얼굴을 보며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
05. 우리 가족은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한다.(+)
06. 나는 부모님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많이 한다.(+)
07. 나는 곤란한 일이 생길 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다.(-)
08. 나는 부모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09. 나는 화가 나면 부모님이 과거에 잘못된 것까지 다 이야기한다.(-)
10. 나는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11.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할 때가 종종 있다.(-)
12. 나는 부모님께 칭찬을 자주 듣는다.(+)
13. 나는 부모님께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는 말을 한다.(-)
14. 나는 부모님께 유머를 사용해서 말한다.(+)
15. 부모님은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한다.(-)
16.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17. 나는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18. 우리 가족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
19. 우리 가족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난다.(-)

20.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 5점 척도로 표시한다.
-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문항은 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5를 곱한다.
-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더한다. (1-5, 2-4, 3-3, 4-2, 5-1점으로 환산)

2.3.2. 가족 대화 수행 평가 - 부모용

01. 우리 가족은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한다.(+)
02. 나는 화가 나면 자녀가 과거에 잘못된 것까지 다 이야기한다.(-)
03. 나는 자녀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자주 한다.(+)
04.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05. 나는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06. 나는 자녀에게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한다.(+)
07. 자녀가 나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08. 내 자녀는 내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09. 나는 화가 나면 욕설이나 비속어도 사용한다.(-)
10. 나는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11. 우리 가족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난다.(-)
12. 나는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한다.(-)
13. 나는 자녀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14. 나는 자녀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한다.(-)
15. 나는 자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16. 나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자녀에게 거짓말을 한다.(-)
17. 나는 하루 평균 30분 이상 자녀와 대화를 한다.(+)
18. 자녀는 나와 말할 때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지 않는다.(-)
19. 우리 가족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
20.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 5점 척도로 표시한다.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문항은 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5를 곱한다.

-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더한다. (1-5, 2-4, 3-3, 4-2, 5-1점으로 환산)

2.3.3. 가족 대화 수행 평가 - 부부용

01. 우리 부부는 서로 원하는 호칭을 사용한다.(+)
02. 우리 부부는 집을 나가거나 들어 올 때 서로 인사를 한다.(+)
03.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
04. 우리 부부는 화가 나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
05. 우리 부부는 서로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한다.(+)
06.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한다.(-)
07. 우리 부부는 곤란한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한다.(-)
08. 우리 부부는 갈등이나 의견의 충돌이 생기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09. 우리 부부는 화가 나면 과거에 쌓인 감정까지 한꺼번에 표출한다.(-)
10. 우리 부부는 갈등이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은 피하려고 한다.(-)
11.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12. 우리 부부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13. 우리 부부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
14. 우리 부부는 대화를 하면서 유머를 사용하지 않고 사실을 말한다.(-)
15.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비평이나 지적하는 말을 한다.(-)
16.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
17. 우리 부부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난다.(-)
18. 우리 부부는 수시로 대화를 나눈다.(+)
19. 우리 부부는 하루에 평균 30분 이상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20.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

- 5점 척도로 표시한다.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문항은 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5를 곱한다.

-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더한다. (1-5, 2-4, 3-3, 4-2, 5-1점으로 환산)

3. 기대 효과 및 결과 활용 방안

3.1. 국민적 관심의 차원

이 연구는 현대 한국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법의 양상을 살펴 가정 내 대화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 간 올바른 대화 전략과 가정 내 대화 화법 개선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1) 국민적 언어 소통 능력의 향상

가정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며, 가족은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가정 내 대화법은 사회의 직무 관련 화법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근간이 된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지 않던 가족 대화법에 대해,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통계적 결과로 제시하는 대화 지침의 내용은 가정의 안정과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언어 소통능력을 높여 우리 사회의 말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가족 구성원에 관한 이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긍정적인 갈등 해소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 유형에 따른 가정 내 대화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화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서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며, 구체적인 대화 지침을 통해 대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표현 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우리 사회의 말 문화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이 연구에 앞서 2013년 진행된 국회 담화 중심의 화법 개선 연구가 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화법 양상에 대한 논의라면 가정 내 대화법은 가장 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화법에 관한

연구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 내 대화법에 대한 실태와 대화 전략을 제시한 이 연구를 통해 범국민적 말 문화 개선을 위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3.2. 학문적 차원

1) 가족 대화에 관한 연구의 심화

이 연구의 결과는 가족 대화의 기초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한 연구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 대화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를 심화 확장시킬 것이다. 특히 가족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대화만족도의 요인을 통해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대화의 방식을 찾아내어 가족 대화에 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는 가족 화법에 관한 교재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타 학문 분야로의 확대

이 연구는 다른 학문 분야로의 확대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국어학과 가족학의 학제적 연계로 가족 간 의사소통 연구를 심화시키고, 가족관계 내에서 긍정적 대화법 도출에 관한 기초 자료로 축적되어 후속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관계별 전략이나 가족 대화 수행평가는 가족 상담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 화법에 관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가족학이나 상담학 등의 타 학문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에 대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가족 치료 프로그램 등에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3) 화법 규범 수립에 관한 방향 제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적 대화의 특징을 반영하고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바람직한 화법 규범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화법에 대한 객관적 연구방법론 확립

이 연구는 연구 목적이나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조작된 자료를 사용한 연구 방법을 지양하고,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태와 현상에 기초한 통계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화법 연구에도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계량적인 연구가 확대되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3. 실용적 측면

1) 가족 대화 수행 평가 프로그램 개발 활용

가족 대화 수행 평가는 가족 대화 진단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답안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 계산되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누리집 등에 올려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가족 대화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자료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가족 대화 지침 발간

가족 대화 지침은 자녀용, 부모용, 부부용으로 나누어 각각 디자인 작업을 거쳐 보기 좋은 소책자 형식으로 개발하여 누리집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면 널리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연구에서 수행된 가족 대화를 위한 지침과 가족 대화 수행평가를 바탕으로 가족 의사소통에 관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 간 의사소통 척도의 의미를 지니는 ‘가족 대화 수행 평가’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내에서의 대화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가족 대화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가족관계별(부부 간, 부모-자녀 간)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가족 대화 수행 평가에서 대화법의 형식이나 수준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가족 내 의사소통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여 상담적 개입을 실시함으로써 매우 간편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진단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첫째,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응답자들의 심리에 따른 편차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응답자들은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응답을 하기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답에 표시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자녀 대화 시간의 최빈치가 하루 평균 30분 정도라는 응답도 다른 유사한 연구 결과와 견주어 보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가 통계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심리를 반영한 편차를 가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통계치들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엄밀하게 계량된 정량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가족 대화를 주제로 한 연구이지만, 가족 대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한 부모-자녀 대화와 부부 대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학령 전 자녀와의 대화, 대학생 이상 성인 자녀와의 대화, 결혼한 자녀와의 대화, 장인/장모와 사위의 대화, 시아버지/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 형제·자매 사이의 대화, 조부모와 손자의 대화 등 다양한 가족 대화의 특징을 다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부모-자녀 대화와 부부 대화는 가족 대화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상대적으로 학계의 관심도 크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가족 대화의 양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족 대화 전반에 관한 연구가 총체적으로 수행되어야 가족 화법에 관한 연구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차년도 사업으로서의 단기적인 연구보다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가족 대화 전반에 관한 총체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바람직한 말 문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가족 화법의 연구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학령 전 유아와 부모의 대화
- 2) 성년 자녀와의 대화 (대학생 자녀, 결혼한 자녀, 독신 자녀 등)
- 3) 결혼에 의해 확대된 자녀와의 대화 (며느리와의 대화, 사위와의 대화 등)
- 4) 형제·자매 사이의 대화 (원가족 형제·자매와의 대화, 확장된 형제·자매와의 대화)
- 5) 조부모와 손자녀의 대화

셋째, 이 연구는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의 한 부분으로 2013년 공적 담화인 국회 담화 중심의 화법 연구에 이어서 사적인 담화 분석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었다. 위에서 가족 화법에서 수행되어야 할 많은 연구 주제들을 제시하였는데, 공적 담화의 분야가 국회 담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적 대화의 분야가 가족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

한 분야에 관한 화법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1) 직장 내 화법 (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
- 2) 학교 내 교실 화법 (교사, 학생 등)
- 3) 관공서 화법 (공무원, 민원인 등)
- 4) 병원 화법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등)
- 5) 상거래 화법 (판매자, 구매자 등)
- 6) 법정 화법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 원고 등)
- 7) 시사/정치토론 화법

참 고 문 헌

- 강혜영(2011).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 감소를 위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경애·정민정(2007). 가족기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 학회지 15(1). 한국가족치료학회. 301-320.
- 고성혜(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
- 구현정(1997). 대화의 기법. 한국문화사.
- 구현정·전영옥(2005). 의사소통의 기법. 박이정.
- 구현정(2009). 대화의 기법: 이론과 실제. 경진.
- 구현정·전정미(2007). 화법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 구현정(2009). 경어법의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9-36.
- 구현정(2011). 소통 불통 먹통. 도서출판 경진.
- 구현정(2013). 드라마 대화에 반영된 갈등 표현 양상. 화법연구 22. 한국화법학회. 9-32.
- 국길숙·이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23(1).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89-107.
- 권용혁 외(2004).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 권재환·이은희(2007).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4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25-351.
- 김갑숙·전영숙(2009).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한국가족복지학회. 79-94.
- 김계현·이윤주·왕은자(2002). 국내 집단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3(1). 한국상담학회. 47-62.
- 김남연·양난미(2012). 국내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 상담학연구 13(5). 한국상담학회. 2505-2522.
- 김대현(2012).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TA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 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2006).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김미애·오선주(1997).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체계 특성과 청소년의 성격특성. 생활과학연구논문 집 3(2).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79-114.
- 김수연(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미(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2001). 부부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한국가족관계학회. 137-157.
- 김영나(2000).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2010).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 18(2). 대한스트레스학회. 99-108.
- 김영식, 선우성, 김병수, 박훈기, 옥선화, 차동혁(2012). FACES IV의 가족의사소통 척도(FCS)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한국가족관계학회. 241-258.
- 김윤희(1990). 부부관계·부모-자녀 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3). 한국보육지원학회. 1-22.
- 김은현(2003).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가족규칙에 따른 아동의 우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이유리(2010).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한국가정관리학회. 13-26.
- 김정화(2002).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혜(1994). 의사소통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10). 표준 화법 개정을 위한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조사 연구. 화법연구 16. 한국화법학회. 125-154.
- 김지영(2004). 스트레스,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화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1983).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자(199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민학교·중·고등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 안녕감 설명 변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주(2003). 설득하는 말하기에 나타나는 대화 장애 요인. 겨레어문학 31. 겨레어문학회. 115-134.
- 김형주(2010). 텔레비전 시사토론 대화의 구조와 전략.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조성연(2011).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한국가정관리학회. 127-142.
- 김혜원·조성연·김민(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과 성공압력의 영향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8(5). 대한가정학회. 49-60.
- 김혜정(2008). 가족 간 갈등대화의 구조와 책략 연구: 고부·부부 간 갈등대화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치영(1996). 한국부부의 부부문제 해결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1991).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수원(2003). 가족체계 유형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현(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및 가족체계 유형과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현(2013). 한국 중고생의 부모-자녀 대화 양상. 화법연구 23. 한국화법학회. 275-310.
- 박지은(2000). 노인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박진영(2010). 부모와 갈등을 겪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사례연구: 부모-자녀 간 "대화 장벽" 허물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한국가족관계학회. 149-174.
- 박해용(2004). 심층면접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대화만족도에 따른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인문논총 22.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1-155.
- 방문희(199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미영(2012).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현석(2009). 인사말의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제20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화법학회.
- 서현석(2013). 아동·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화법교육의 내용과 방법 탐구. 국어교육 142. 한국어교육학회. 185-204.
- 성영혜·윤석희·이경화(1994). 부모교육. 서울: 문음사.
- 성태제(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 분석. 학지사.
- 송말희(1986). 도시 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1995).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신효식·김근화(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7(2). 한국가정과학회. 47-58.
- 심혜선(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가정관리 전략 및 가정생활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정·이소희(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1). 한국가족복지학회. 65-81.
- 양세정(2013).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과 한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영미(200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윤자(199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정숙(2007).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2013). 부부 의사소통 관찰 코딩체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문숙·이은숙·유미애(2012).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2). 한국모자보건학회. 252-262.
- 유영주·이창숙(2002). 부부 행복 찾기Ⅲ. 서울: 신정.
- 유혜정·조병은(2011).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실제 상황적 수행평가 개발 및 적용: 부모자녀의 실제대화 UCC동영상을 활용한 대화분석을 토대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3). 한국가정교육학회. 139-160.

- 이경자(2007). 중년기 부부갈등 치유를 위한 건강한 부부대화법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1989).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 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연(201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문(2010). 대화를 통한 부부갈등 해소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1993). 가족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현(201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범·한승훈(2014). 체면과 권리의 관점에서 본 부부 대화의 불통 및 오해. 한국어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133-158.
- 이숙현·민혜영(1992).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생활과학논집 6.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15-226.
- 이영분(1990). 부모 역할 훈련을 위한 한국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한국가족관계학회. 133-159.
- 이유미(2003). 부부 의사소통의 특징. 화법연구 6. 한국화법학회. 57-80.
- 이윤주(2009). 가족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친밀감이 중고등학생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1-3. 한국가족학회. 57-71.
- 이정숙·김국태·박창균(2010). 한국 부모-자녀 대화의 소통 방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43-372.
- 이주행 외 역(2005).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 이창덕 외(2001). 삶과 화법. 박이정.
- 이창덕(2006). 한국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351-388.
- 이창숙·유영주(1988).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2). 한국가정관계학회. 303-304.
- 이창훈(2008). 부부 의사소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2003).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득(1982). 인간관계 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희자·김경원(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한국생활과학회. 283-294.
- 이화자·최연실(2003). 부부 의사소통중년기 부부관계증진(enrichment)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Satir 가족치료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2. 한국가족치료학회. 49-76.
- 임미림(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임찬오(2003). 국내 집단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1(2). 한국청소년상담원. 3-11.
- 장은경(2001).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해순·강태완(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

- 이선학 연구 13(2).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104-130.
- 전은주(2009). 호칭어·지칭어의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제20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화법학회.
- 전정미(2008). 대화 텍스트에 나타난 칭찬 화행의 양상. *겨레어문학* 40. *겨레어문학회*. 99-117.
- 전정미(2009). 감사 화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한말연구* 25. *한말연구학회*. 243-270.
- 전정미(2009). 칭찬에 대한 응답 화행의 실현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 42. *겨레어문학회*. 143-163.
- 전정미(2009). 거절 화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담화와 인지* 16-1. *담화인지언어학회*. 113-134.
- 전정미(2011). 비동의 화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325-352.
- 정문자·김진아·여종일(2010). 가출청소년이 지각한 의사소통능력 및 가족갈등이 가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1. *한국청소년학회*. 317-333.
- 정연호·류점숙·신효식(200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지역 고등학교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한국가정과교육학회*. 145-158.
- 정인원(2000). 의사소통 기술개발을 통한 중년기부부 위기극복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경(1989).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관계강화프로그램.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김미자(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틱 증상 심각도의 관계: 자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한국청소년학회*. 203-224.
- 조은경(1984). 기능적인 가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 *한국가정관리학회*. 131-150.
- 조재운(2003). 부모-자녀의 대화 방법 연구. *화법연구* 6. *한국화법학회*. 9-32.
- 조준수·이경숙(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심리적 안녕이 중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3(2). *교육종합연구소*. 153-164.
- 주현정·조병은(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관계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중학교 1학년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8). *대한가정학회*. 51-65.
- 최규련(1997).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한국에서의 적용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한국가족관계학회*. 141-166.
- 최선희·장신대(2002). 부부 의사소통이 부부폭력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4-2. *한국가족학회*. 31-58.
- 최은경(2003).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숙(1995).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 의사소통교육 프로그램의 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원·최연실·서신화(2011).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목표지향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한국가정관리학회*. 97-112.
- 한경순(2004). 방과 후 보육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임(2010).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주리·허경호(2004). 아내와 남편의 의사소통 능력, 논쟁성향 및 성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방송학보* 18-4. *한국방송학회*. 148-190.
- 한주리·허경호(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 *한국언론학회*. 202-227.
- 허나예(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3(2).

- 한국상담평가학회. 59-74.
- 허철수·양민철(200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7. 제주대학교 생활연구소. 15-36.
- 황선영(2002).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단기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et al. (1982).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ettinghaus, E. P. & Copy, M. J. (1994). *Persuasive communication*. 5th. ed. Toronto: Wadsworth.
- Bienvenu, M. J. Sr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19, 26-31.
- Beaubien, C. O. (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Berne, E. (1957). Ego states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1. 293-309.
-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H. H. (1996). *Using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vin K. M. & Brommel B. J. (1982).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
- Goffman, E. (1963). *Behavior in public places: notes on the social organization of gatherings*. New York: The Free Press.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 to face behavior*. N.Y.: Pantheon Books.
- Goffman, E. (1981). *Forms of talk*.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Gordon, T. (197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Peter H. Wyden.
- Gordon, T. (1975). 자율적 자녀 육성을 위한 부모교육 (이형득 외 공역(1987)). 서울: 형설출판사.
- Grice, H. P. Logic and conversation, C. P. and M. J. 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Hawkins, J. L., Weisberg, C. & Ray, D. L. (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3, 479-490.
- Hawkins, J. L., Weisberg, C. & Ray, D. L. (1980), Spous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3, 585-593.
- Holmes, J. (1988), Paying compliments: a sex-preferential politeness strategy, *Journal of Pragmatics* 12, 445-465.
-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Leod, J. M. & Chaffee, S. (1972).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In J. S. Tedeschi (ed.), *The social influence processes*, 50-99. Hawthorne, N.Y.: Aldine.
- Miller, S., Miller, P., Nunnally, E. W., Wackman, D. B. (1991). *Talking and listening together* .

Littleton, C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s.

- Norton, R. W. (1983). *Communicator style: theory, application, and measures*, Beverly Hills, CA: Sage.
- Olson, D. H. & Barnes, H. L.(2012). *Family communication*. Retrieved from <http://www.facesiv.com/pdf/4.communication.pdf>.
- Powell, J. (1969),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Insights into personal growth*, Allen, TX: Thomas More Association.
- Powers, W. G. & Hutchison, K. L. (1979).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pouse communication appreh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89-96.
- Satir, V.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hiffrin, D.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Oxford: Blackwell.
- Spencer-Oatey, H. (2000). Rapport management: a framework for analysis. In H. Spencer-Oatey, (ed.), *Culturally speaking: managing rapport through talk across cultures*, 11-46. London: Continuum,
- Spencer-Oatey, H. (2005). (Im)Politeness, face and perceptions of Rapport: Unpackaging their bases and interrelationships.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1, 95-119.
- Tannen, D. (1980). The parameters of conversational style, *Proceedings of the 18th Annual Meeting of the ACL and Parasession on Topics in Interactive Discourse*. 39-40.
- Tannen, D. (1981). The machine gun question: An example of conversational style. *Journal of Pragmatics* 5. 383-397.
- Tannen, D. (1984). *Conversational style: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Norwood, NJ: Ablex Pub.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가족상담연구소 <http://familyheal.kr/>

<첨부 1> 외부 자문 내역

○ 자문 위원 명단: 박재현(상명대 교수) 이동은(국민대 교수), 이주행(중앙대 명예교수), 이창덕(경인교대 교수), 전은주(부산대 교수) (이상 가나다 순)

○ 자문 내역

자문 회의	자문 위원	자문 내용
착수 보고회	이동은 이창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내용을 가족 대화의 실태 파악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가족의 언어 소통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 내용을 호칭, 높임법, 인사 등으로 축소하기를 제안함.
중간 보고회	이주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시간 안에 통계를 바탕으로 한 많은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었음. • 연구 결과가 실용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가족 대화 방법에 대한 계몽의 도구로 활용해도 좋겠음. • 가정의 달 5월 정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어원에서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수시 자문	이주행 이창덕 이동은 박재현 전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대화와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은 선행 연구와의 비교에서도 그 타당함이 검증될 수 있음. • 지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을 제안함. • 지침의 어미를 ‘~하세요.’ 로 통일하기를 제안함. • 지침의 수는 부모, 자녀, 부부 유형 모두 동일한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 가족 대화 수행 평가 항목을 국어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부록 1> 부모 유형 설문지

가정 내 화법에 대한 설문 - 부모 유형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에서 가정 내 화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된 모든 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내용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는

응답 내용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 속성평가 및 척도평가에서 동일한 응답을 계속하는 경우
- 2) **빠른 응답**이나 설문 시간
- 3) 기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응답에 성실성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응답일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자동적으로 불량데이터로 간주되어 마일리지 지급이 취소되며

반복하여 불량데이터를 응답할 경우 **향후 설문조사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SQ2_1. 연령대 (SQ2 연동)

- 1) 19세 미만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 중단

SQ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기혼 2) 미혼 ☞ 중단

SQ4. 자녀는 몇 명입니까?

- 1) 0명 중단 2) 1명 3) 2명 4) 3명 5) 4명 이상

SQ5. 자녀의 나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0~3세(영아) 2) 4~7세(유아) 3) 8~13세(초등학생)
4) 14~19세(중고등학생) 5) 20세 이상 대학생 6) 20세 이상 직장인

3, 4가 없으면 중단

※ 다음은 가정 내 화법 관련 설문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세요.

Q1. 나는 자녀들과 하루에 () 대화를 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Q2. 자녀와 () 대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Q3. 나는 ()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다.

- ① 내 성격 ② 자녀의 성격 ③ 자녀와의 갈등 ④ 내 직장업무 ⑤ 자녀의 학업 ⑥ 기타()

Q4. 나는 자녀들과 주로 () 대화한다.

- ① 말로 ② 전화로 ③ 문자.카톡.이메일로 ④ 쪽지.편지로 ⑤ 다른 사람을 통해

Q5. 나는 내 자녀와 ()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편하다.

- ① 말로 ② 전화로 ③ 문자.카톡.이메일로 ④ 쪽지.편지로 ⑤ 다른 사람을 통해

Q6. 나는 자녀들과 주로 () 대화를 나눈다.

- ① 밥을 먹으면서 ② TV를 보면서 ③ 잠들기 전에 ④ 휴일에 ⑤ 수시로
⑥ 기타()

Q7. 나는 자녀들과 주로 ()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① 자녀의 장래희망 ② 자녀의 성적 ③ 자녀의 친구 ④ 자녀의 학교생활 ⑤ 뉴스와 사건
- ⑥ 기타()

Q8. 나는 자녀들과 주로 ()을 이야기한다.

- ① 상투적인 말 ② 다른 사람 이야기 ③ 내 생각이나 고민 ④ 내 느낌이나 기분 ⑤ 내 진심과 필요
- ⑥ 기타()

Q9. 나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Q10. 내가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다.

- ① 대화 시간 ② 대화 내용 ③ 짜증 섞인 말투 ④ 화를 내는 태도 ⑤ 무시하는 태도
- ⑥ 기타()

자녀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귀하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자녀와 대화할 때 생각나는 대로 직설적으로 말한다.	1	2	3	4	5
12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한다.	1	2	3	4	5
13	자녀들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우리 가족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한다. 이번 질문은 1)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해주시십시오.	1	2	3	4	5
15	나는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자녀들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한다.	1	2	3	4	5
16	자녀들은 나와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1	2	3	4	5

Q17. 나는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Q17-1. 내가 자녀들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

- ① 습관이다 ② 친하기 때문이다 ③ 무시하기 때문이다 ④ 재미 때문이다 ⑤ 화가 나서이다
- ⑥ 기타()

Q18. 자녀들은 나와 이야기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Q18-1. 자녀들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 .

- ① 습관이다 ② 친하기 때문이다 ③ 무시하기 때문이다 ④ 재미 때문이다 ⑤ 화가 나서이다
⑥ 기타()

자녀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귀하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나는 자녀들에게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	1	2	3	4	5
20 자녀들은 나에게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	1	2	3	4	5
21 나는 자녀들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한다	1	2	3	4	5
22 자녀들은 나에게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한다.	1	2	3	4	5
23 나는 자녀들에게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이나 내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	1	2	3	4	5
이번 질문은 1)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응답해 주십시오.	1	2	3	4	5
24 자녀들은 나에게 그동안 자기가 한 노력이나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	1	2	3	4	5
25 나는 자녀들에게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한다.	1	2	3	4	5
26 자녀들은 나에게 말할 때 유머를 사용한다.	1	2	3	4	5
27 나는 자녀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	1	2	3	4	5
28 자녀들은 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	1	2	3	4	5

자녀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귀하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나는 곤란하면 자녀들에게 거짓말도 한다.	1	2	3	4	5
30 자녀들은 곤란하면 나에게 거짓말도 한다.	1	2	3	4	5
31 나는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32 자녀들은 나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33 나는 자녀들에게 화가 나면 자녀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1	2	3	4	5
이번 질문은 5) 매우 그렇다 를 응답해 주십시오.	1	2	3	4	5
34 자녀들은 화가 나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1	2	3	4	5
35 우리 가족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	1	2	3	4	5
36 우리 가족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난다.	1	2	3	4	5
37 나는 자녀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1	2	3	4	5
38 자녀들은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1	2	3	4	5
39 나는 자녀들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40 자녀들은 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Q41. 내가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다.

- ① 외모에 대한 칭찬 ② 능력에 대한 칭찬 ③ 수고에 대한 감사 ④ 성격에 대한 칭찬 ⑤ 기타()

Q42. 내가 자녀들에게 듣기 싫은 말은 ()이다.

- ①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
- ② 내 말을 잔소리한다고 받는 말
- ③ 다른 부모와 비교하며 불평하는 말
- ④ 내 행동에 대해 홍보는 말
- ⑤ 기타()

Q43. 우리 가족은 ()고 생각한다.

매우 불행하다	조금 불행하다	보통이다	조금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1	2	3	4	5

인구통계학적 질문

DQ1. 귀하 가족의 소득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외벌이
- 2) 맞벌이
- 3) 기타 ()

DQ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고졸 이하
- 2) 대학(전문대) 재학
- 3) 대학(전문대) 졸업
- 4) 대학원 이상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회사원
- 2) 교육자
- 3) 공무원
- 4) 전문직
- 5) 가정주부
- 6) 자영업
- 7) 생산직
- 8) 정년/은퇴
- 9) 학생
- 10) 무직
- 11) 기타
- 12)

DQ4.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총 얼마정도입니까? 이자 및 보너스,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1) 200만 원 미만
- 2) 200~400만 원 미만
- 3) 400~600만 원 미만
- 4) 600만 원 이상

1. 가정 내 화법

Q1. 나는 부모님과 하루에 () 대화를 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Q2. 부모님과 하루에 ()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Q3. 나는 ()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다.

- ① 내 성격 ② 부모님 성격 ③ 부모님과의 갈등 ④ 내 공부
⑤ 부모님의 직장 업무 ⑥ 기타 ()

Q4. 나는 부모님과 주로 () 대화한다.

- ① 말로 ② 전화로 ③ 문자,카톡,이메일로
④ 쪽지,편지로 ⑤ 다른 사람을 통해

Q5. 나는 부모님과 ()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편하다.

- ① 말로 ② 전화로 ③ 문자,카톡,이메일로
④ 쪽지,편지로 ⑤ 다른 사람을 통해

Q6. 나는 부모님과 주로 () 대화를 나눈다.

- ① 밥을 먹으면서 ② TV를 보면서 ③ 잠들기 전에 ④ 휴일에
⑤ 수시로 ⑥ 기타()

Q7. 나는 부모님과 주로 ()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① 장래 희망 ② 성적 ③ (이성) 친구 ④ 학교생활
⑤ 뉴스와 사건 ⑥ 기타()

Q8. 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Q9.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대화 시간 ② 대화 내용 ③ 짜증 섞인 말투 ④ 화를 내는 태도
⑤ 무시하는 태도 ⑦ 대화 장소 ⑧ 기타

부모님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귀하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부모님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다.	1	2	3	4	5
1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1	2	3	4	5
12	나는 부모님에게 비평이나 지적을 많이 한다.	1	2	3	4	5
	이번 질문은 1)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해주시십시오.					
13	나는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비평이나 지적을 하신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우리 가족은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로 인사를 한다.	1	2	3	4	5
15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나는 곤란하면 부모님에게 거짓말도 한다.	1	2	3	4	5
30	부모님은 곤란하면 나에게 거짓말도 하신다.	1	2	3	4	5
31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32	부모님은 나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신다.	1	2	3	4	5
33	나는 부모님에게 화가 나면 부모님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1	2	3	4	5
34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하신다.	1	2	3	4	5
35	이번 질문은 5) 매우 그렇다 를 응답해주시시오.					
36	우리 가족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	1	2	3	4	5
37	우리 가족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난다.	1	2	3	4	5
38	나는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1	2	3	4	5
39	부모님은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들어주신다.	1	2	3	4	5
40	나는 부모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1	2	3	4	5
41	부모님은 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들으신다.	1	2	3	4	5

Q42. 내가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다.

- ① 외모에 대한 칭찬
- ② 성적에 대한 칭찬
- ③ 노력에 대한 칭찬
- ④ 성격에 대한 칭찬
- ⑤ 행동에 대한 칭찬
- ⑥ 기타()

Q43. 내가 부모님에게 듣기 싫은 말은 ()이다.

- ①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
- ②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
- ③ 성적에 대한 불만
- ④ 행동에 대한 지적
- ⑤ 기타()

인구통계학적 질문

DQ1-1.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고졸 이하
- 2) 대학(전문대) 재학
- 3) 대학(전문대) 졸업
- 4) 대학원 이상

DQ1-2.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고졸 이하
- 2) 대학(전문대) 재학
- 3) 대학(전문대) 졸업
- 4) 대학원 이상

DQ2. 내 학교 성적은 ()고 생각한다.

- ① 매우 낮다
- ② 조금 낮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높다
- ⑤ 매우 높다

DQ3. 우리 집의 경제 수준은 ()고 생각한다.

- ① 못 산다
- ② 조금 못 산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잘 산다
- ⑤ 잘 산다

DQ4. 우리 가족은 ()고 생각한다.

매우 불행하다	조금 불행하다	보통이다	조금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1	2	3	4	5

DQ5. 나의 형제(형, 오빠, 남동생)나 자매(언니, 누나, 여동생) 수는 나를 빼고 전체 몇 명입니까?

-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부록 3> 부부 유형 설문지

가정 내 화법에 대한 설문 - 부부 유형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에서 가정 내 화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된 모든 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내용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는 응답 내용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 속성평가 및 척도평가에서 **동일한 응답을 계속하는 경우**
- 2) **빠른 응답**이나 **설문 시간**
- 3) 기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응답에 성실성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응답일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자동적으로 불량데이터로 간주되어 마일리지 지급이 취소되며 반복하여 불량데이터를 응답할 경우 **향후 설문조사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SQ2_1. 연령대 (SQ2 연동)

- 1) 19세 미만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 중단

SQ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기혼 2) 미혼 ☞ 중단

SQ4. 귀하는 혼인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1) 3년 이내 2) 3~5년 3) 5~10년 4) 10년~20년 5) 20~30년 6) 30년 이상

선정 질문

- 1) 신혼 부부 2) 중년 부부 3) 노년부부
결혼한 지 5년 이내 40~50대 60세 이상

※ 다음은 가정 내 화법 관련 설문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세요.

Q1.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하루에 () 대화를 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Q2.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하루에 () 대화를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 ① 5분 미만 ② 1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상

Q3. 나는 ()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다.

- ① 내 성격 ② 배우자 성격 ③ 배우자와의 갈등 ④ 직장업무
⑤ 기타 ()

Q4.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주로 () 대화한다.

- ① 말로 ② 전화로 ③ 문자,카톡,이메일로 ④ 쪽지,편지로 ⑤ 다른 사람을 통해

Q5.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 대화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편하다.

- ① 말로 ② 전화로 ③ 문자,카톡,이메일로 ④ 쪽지,편지로 ⑤ 다른 사람을 통해

Q6.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주로 () 대화를 나눈다.

- ① 밥을 먹으면서 ② TV를 보면서 ③ 잠들기 전에 ④ 휴일에 ⑤ 수시로
⑥ 기타()

Q7.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주로 ()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① 자녀양육 ② 경제문제 ③ 부부문제 ④ 직장생활 ⑤ 뉴스와 사건
⑥ 기타()

Q8.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주로 ()을 이야기한다.

- ① 상투적인 말 ② 다른 사람 이야기 ③ 내 생각이나 고민 ④ 내 느낌이나 기분
⑤ 내 진심과 필요 ⑥ 기타()

Q9.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Q10. 내가 남편 또는 아내와 대화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다.

- ① 대화 시간 ② 대화 내용 ③ 짜증 섞인 말투 ④ 화를 내는 태도 ⑤ 무시하는 태도
- ⑥ 기타()

배우자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귀하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	1	2	3	4	5
12	남편 또는 아내와 대화할 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	1	2	3	4	5
13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1	2	3	4	5
14	남편 또는 아내는 나에게 뭐든지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1	2	3	4	5
	이번 질문은 1)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해주십시오.					
15	나는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자주 한다.	1	2	3	4	5
16	남편 또는 아내는 내가 자기를 위해서 비평이나 지적을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인사를 한다.	1	2	3	4	5
18	남편 또는 아내는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나에게 인사를 한다.	1	2	3	4	5

Q19. 남편 또는 아내는 나를 ()라고 부른다.

Q20. 나는 남편 또는 아내가 나를 부르는 말이 마음에 든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Q21. 나는 남편 또는 아내를 ()라고 부른다.

Q22. 남편 또는 아내는 내가 부르는 말을 마음에 들어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배우자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귀하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배우자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귀하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	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화가 나면 상대방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1	2	3	4	5
38	남편 또는 아내는 화가 나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1	2	3	4	5
39	우리 부부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	1	2	3	4	5
40	우리 부부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난다.	1	2	3	4	5
41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이번 질문은 5) 매우 그렇다를 응답해주시오.	1	2	3	4	5
42	남편 또는 아내는 나와 의견이 다를 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43	나는 남편 또는 아내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1	2	3	4	5
44	남편 또는 아내는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1	2	3	4	5
45	나는 남편 또는 아내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1	2	3	4	5
46	남편 또는 아내는 나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듣는다.	1	2	3	4	5

Q47. 내가 남편 또는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다.

- ① 외모에 대한 칭찬 ② 능력에 대한 칭찬 ③ 수고에 대한 감사 ④ 성격에 대한 칭찬 ⑤ 기타()

Q48. 내가 남편 또는 아내에게 듣기 싫은 말은 ()이다.

- ①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난 ②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
 ③ 친절이나 본가에 대한 불평 ④ 경제능력이나 가사능력에 대한 불평
 ⑤ 기타()

Q49. 우리 가족은 ()고 생각한다.

매우 불행하다	조금 불행하다	보통이다	조금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1	2	3	4	5

인구통계학적 질문

DQ1. 자녀는 몇 명입니까?

- 1) 0명 2) 1명 3) 2명 4) 3명 5) 4명 이상

DQ2. 귀하 가족의 소득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외벌이 2) 맞벌이 3) 기타 ()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고졸 이하 2) 대학(전문대) 재학 3) 대학(전문대) 졸업 4) 대학원 이상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회사원 2) 교육자 3) 공무원 4) 전문직
5) 가정주부 6) 자영업 7) 생산직 8) 정년/은퇴
9) 학생 10) 무직 11) 기타

DQ5.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총 얼마정도입니까? 이자 및 보너스,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1) 200만원 미만 2) 200~400만원 미만 3) 400~600만원 미만 4) 600만원 이상

[ABSTRACT]

Verbal Interaction Types and Suggested Means of Improvement: Family Commun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diverse aspects of verbal interaction in Korean homes and attempts to identify the sources of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with the ultimate aim of exploring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means of improving family communication. This study limits its focus to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between couples. The subjects of the former type are the childre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their parents, and those of the latter encompass all stages of wedlock, i.e., from the newly-wed couples to the elderly couples.

The organiz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Literature review and analyses of family communication programs and family consultation records

This component of the study consists of evaluating the extant questionnaires that address the issues of family communication, reviewing current literature that addresses the relevant issues in the questionnaire, and analyzing the studies on parent-child and husband-wife verbal interaction, pertinent educational programs, and family consultation records.

(2) Questionnaire development

This component of the study consists of developing questionnaires to diagnose family communication by measuring the targeted aspects of family communication, and to effectively find solutions for the identified problems. The sets of the survey questions were differentiated for different subjects, i.e, for parents, children, and couples. Each question was devised with such variables as communication time and context as well as those of speaking and listening modules, and answers could be marked on a 5-point Likert scale, or to some questions, in narratives.

(3)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is of the state of affairs

This component of the study consists of a survey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accurately capturing the state of affairs of family communication. A pilot survey was validated through Google Docs, and the revis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survey through specializing survey-administrators. A total of 600 samples, consisting of 100 each of the six groups, i.e., par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condary school students, newly-weds, middle-aged couples, and elderly couples, were analyzed.

(4) Analyses of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is component of the study consists of analyses of the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happiness between the dyads of parent-child and of husband-wife, through ANOVA and cross-tabulation analyses. The factors were categorized by the dyad types, i.e., parents-all, fathers, mothers, children-all, elementary-school children, secondary-school children, couples-all, newly-wed couples, middle-aged couples, and elderly couples.

(5) Guiding principles for family communication

This component of the study consists of devising the guiding principles for successful family communication, based on the factors that strongly influence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e guiding principles, numbering 20 for each, are differentiated by the targeted groups, such as children, parents, and couples.

(6) Development of evaluation prototype for family communication competence

This component of the study consists of devising an evaluation tool for measuring the competence in family communication, ba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level and the happiness level. The evaluation is performed by the respondents' self-professed marking on a 5-point Likert scale for 20 questions, for a grade up to 100, the highest level of competence.

(7) Evaluation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use

This study is hoped to help understand the state of affairs of the family communication and thus better understand the family members and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among them. This groundwork study will also help improve the

verbal culture of Korean communities, thus serving the growing need of the public looking for a practical guide for verbal communication. From a more academic perspective, this study will stimulate the futu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mong such disciplines as communication, familial studies, counseling and many more. It is suggested that the guidelines for successful communication as proposed here be published in pamphlets for wide distribution; that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evaluation tools be disseminated through the available Internet sites; and that the findings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communication textbooks and of family educational programs.

Keywords: family communica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couple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dex, familial happiness index, family communication guidelines, family communication competence evaluation

Project Director: Koo Hyun Jung(Sangmyung University)

연구책임자: 구현정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최연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전정미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연구보조원: 이재학 (상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김형주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교수)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14년 12월 15일
발행일	2014년 12월 15일
인 쇄	가람기획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가정 내 대화법’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